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영 호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로 본
냉전의 기원에 관한 연구
: 한반도 분단, 동북아 냉전, 6·25전쟁의
분석을 중심으로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유 나 영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로 본
냉전의 기원에 관한 연구
: 한반도 분단, 동북아 냉전, 6·25전쟁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 영 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유 나 영

인 준 서

유나영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 印

심사위원_____ 印

심사위원_____ 印

심사위원_____ 印

심사위원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의 목적은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로 냉전의 기원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탈냉전기 소련의 문서공개는 냉전연구에 대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냉전연구는 책임론적 성격이 강한 전통주의, 수정주의, 후기수정주의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더 뛰어난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 틀로 냉전연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월츠는 국제정치현상을 고찰하기 위한 기본 분석단위를 개인, 국가, 국제체제의 세 가지 이미지로 설정했다. 제 1이미지는 지도자의 성격이나 성향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다. 제 2이미지는 국가의 체제적 특성에 의한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제 3이미지는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없는 국제정치 현실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세 가지 이미지 틀을 가지고 본 논문은 ‘냉전의 기원’ 논쟁을 후기 수정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제 1이미지로서 스탈린, 루즈벨트, 트루먼을 중심으로 냉전의 기원을 분석하였다. 탈냉전기 문서에 비추어볼 때, 스탈린에게 공산화의 청사진은 있었던 것으로, 루즈벨트와 트루먼의 정책 차이가 실제로 소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 2이미지에 의한 주장으로서 ‘미국이 경제적 수단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미국의 경제적 수단이었다던 마셜플랜은 미소 냉전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 3이미지인 미소 양극구조가 냉전의 기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한 각 장의 주제는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동학’, ‘중소관계와 동북아 냉전의 기원’, ‘6·25전쟁과 냉전의 전개’이다. 먼저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동학’의 경우 제 1이미지로서 이승만, 김일성을 중심으로, 제 2이미지로서 ‘좌우합작 운동’을 중심으로, 제 3이미지로서는 양극체제하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내에서 시도한 제국전략을 통해 그 기원을 살펴

보았다. 각 이미지별 냉전기의 주장들을 탈냉전기 문서로 재평가 한 결과, 분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제 3이미지인 소련의 대 북한정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소련은 해방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1945년 9월에 이미 북한에 단독정부 수립을 계획하고 하나씩 그 계획을 실행하였다.

‘중소관계와 동북아 냉전의 기원’에서는 동북아 냉전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 주제 역시 ‘한반도에서의 미소공위 붕괴’, ‘일본에서의 역코스 정책의 시작’, ‘중소동맹’, 그리고 ‘6·25전쟁’과 ‘샌프란시스코 체제’ 까지 어느 것도 미국과 소련의 관계를 제외하면 그 발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고찰하기 힘들었다. 공산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을 얻게 된 소련의 스탈린은 미소 협력의 상징이었던 얄타협정을 파기한 후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냉전 전략을 수행했고, 이것은 동북아 냉전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동북아 냉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역시, 제 3이미지였다.

마지막으로 ‘6·25전쟁과 냉전의 전개’에서는 ‘6·25전쟁의 기원’에 대한 냉전기의 주장을 탈냉전기 자료로 재평가하였다. 이 주제 역시 소련의 세계전략이라는 제 3이미지를 고찰하지 않고는 전쟁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불가능 하였다. 제 1이미지에 의한 설명이었던 김일성의 남침론과 이승만의 북침론은 냉전기와 정권성립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제 3이미지 요인을 간과한 데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 냉전기 대표적인 주장이었던 남북한 내전론이 가졌던 오류 역시 제 3이미지에 대한 설명보다 나머지 요인들에 강조를 둔 분석에서 나왔다. 특히 전쟁 전 남북한 국경분쟁이 중단될 수 있었던 최대 이유가 소련의 명령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전론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간과하였다. 제 3이미지에 의한 전쟁의 원인 설명이었던 ‘미국의 남침유도설’이나 ‘소련의 군사목적설’ 역시 한 측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고찰하거나 문서에 의한 근거가 아닌, 당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주관적인 해석을 했던 것이 문제였다.

이와 같이 원용된 월츠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냉전의 기원, 한국현대사, 동

북아 냉전의 기원을 고찰하는 것은 냉전현상의 종합적 이해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 이 분석틀을 냉전연구 뿐 아니라 다른 쟁점에도 적용한다면, 현재 국제정치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논문의 구성과 자료	10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10
2. 논문의 구성과 자료	12
제 2 장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로 본 냉전의 기원: 이론적 틀	14
제 1 절 이론적 틀에 대한 설명	14
1. 이미지 틀의 이론적 위상에 대한 논의	14
2. 냉전분석에서 이미지 틀 적용의 유용성	22
제 2 절 제 1이미지로 본 냉전의 기원	26
1. 스탈린과 냉전	26
1) 제 1이미지의 형성	26
2) 스탈린의 이념적 청사진	29
2. 미국 지도자들과 냉전	30
1) 루즈벨트와 트루먼의 다른 대(對)소관: 제 1이미지의 차이	30
2) 트루먼의 반소 성향: 제 1이미지 요인	34
3. 탈냉전기 살펴본 스탈린의 이념적 지도	35
4. 루즈벨트-트루먼 차이에 대한 탈냉전기 평가	38
제 3 절 제 2이미지로 본 냉전의 기원	40
1. 제 2이미지 설명: 미국의 경제적 원조정책	40
2. 제 2이미지 설명 2: 소련의 국내적 사정 고려	41
3. 미국의 경제적 정책의 영향	43
4. 소련의 국내 정치적 사정의 영향	45
제 4 절 제 3이미지로 본 냉전의 기원	47
1. 미 제국론	47

2. 두 개의 제국	49
3. 핵과 냉전	51
제 5 절 탈냉전기 냉전의 기원에 대한 종합적 평가	52
1. 전통주의에 대한 재평가	53
1) 제 1이미지에 의거한 전통주의 주장과 평가: 스탈린	53
2) 제 2이미지에 의거한 전통주의 주장과 평가: 소련의 이데올로기	55
2. 수정주의에 대한 재평가	56
1) 제 2이미지에 의거한 수정주의 주장과 평가	56
2) 제 3이미지에 의거한 수정주의 주장과 평가	59
제 6 절 분석결과	61

제 3 장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동학64

제 1 절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의 전초전: 전시회담을 중심으로	64
1. 분단의 정의	64
2. 제국주의 질서의 종식: 대서양 현상	66
3. 신탁통치 형태로의 한반도 독립논의: 카이로, 테헤란 회담	69
4. 알타회담에서의 한반도 논의	72
5. 포츠담 회담에서의 한반도 논의	74
제 2 절 제 1이미지로 본 한반도 분단: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77
1. 이승만의 제 1이미지 요인 형성: 초기 활동	79
1)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지향	83
2) 반공·반소 사상의 형성	84
2. 냉전기 이승만 분단체임론 비판	87
3. 탈냉전기 밝혀진 소련의 단독정부 수립의지: 제 3이미지 요인	92
4. 김일성과 북한 단독정부	98
1) 김일성과 소련의 관계에 대한 두 해석	99
2) 김일성의 초기 활동	100
5. 탈냉전기 밝혀진 김일성과 소련의 관계	102
1) 제 88정찰여단과 스탈린	102
2) 해방 전 결정된 소련의 김일성 지원: 스탈린의 결정	105
3) 김일성의 권력 장악	110
4) 소련의 김일성 비호	115

6. 김일성의 국제정세관 변화: 반미로의 전환	117
제 3 절 제 2이미지로 본 한반도 분단: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120
1. 이념의 분과	122
1) 좌익의 상황	122
2) 우익의 상황	124
2. 제 2이미지 요인이 분단에 미친 영향(1945.8~1946.5)	127
1) 국내 정치세력간의 이념 대립	127
2) 미국과 소련의 이념 대립	130
3. 제 2이미지 요인이 분단에 미친 영향 2(1946.6~1947.9)	136
1) 국내 정치세력간의 이념 대립	136
2) 미국과 소련의 이념 대립	142
4. 모스크바 삼상회의 찬성의 배경	145
5. 미소공위의 근본적 딜레마: 이념 차이	147
6. 미공에 빠진 통합	150
1) 소련의 좌우합작 방해	150
2) 남한 좌익세력들의 합당에 있었던 소련군정의 영향력	152
7. 소련의 이념 고수	154
제 4 절 제 3이미지로 본 한반도 분단: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158
1. 미국과 분단	159
2. 미국의 한국 반공보루설을 둘러싼 배경	160
1) 냉전의 전조	160
2) 케난의 긴 전문과 트루먼 독트린	163
3.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	165
1) 봉쇄의 지점	166
2) 일본에 대한 역코스 정책	168
4. 소련의 대미전략	170
5. 소련의 한반도정책	173
1) 극동지방에서의 국가안보	173
2) 친소정권의 수립과 토지개혁	175
6. 소련이 한반도 분단에 미친 영향	177
제 5 절 분석결과	183

제 4 장 중소관계와 동북아 냉전의 기원	187
제 1 절 제 1이미지로 본 동북아 냉전의 기원: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190
1. 루즈벨트와 얄타협정	190
1) 루즈벨트의 얄타에서의 목적: 유엔을 통한 국제문제 해결	191
2) 루즈벨트의 군사적 고려와 우호적 대소관의 산물	193
2. 루즈벨트의 얄타협정과 동북아 냉전의 기원	195
3. 트루먼의 성향과 동북아 냉전의 기원	199
1) 트루먼의 초기활동	200
2) 트루먼의 대소 외교성향: 리가원리	202
4. 제 1이미지로 본 스탈린의 동북아 정책	205
제 2 절 제 2이미지로 본 동북아 냉전의 기원: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209
1. 중소동맹 체결요인 1: 모택동의 이념지향	210
2. 중소동맹 체결요인 2: 이념대결의 심화	212
3. 중소동맹 체결의 전야: 제 2이미지의 영향	214
4. 얄타협정의 파기: 스탈린의 이념 강조	217
5. 새로운 조약에 미친 스탈린의 영향	219
6. 중소동맹 체결이 동북아 냉전에 미친 영향	222
제 3 절 제 3이미지로 본 동북아 냉전의 기원: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223
1. 미국의 중국 상실론: 제 3이미지에 의한 설명	224
1) 미국의 국민당 지지정책	224
2) 제 3이미지 요인으로 인한 미국의 중국정책 변화	226
3) 미국의 썬기전략	228
2. 샌프란시스코 체제: 동북아 냉전의 기원	230
1) 미국의 초기 일본 점령정책	231
2) 냉전의 아시아로의 확대: 제 3이미지 영향력 증가	232
3. 중국 상실론 비판	234
1) 중소동맹 체결과정에 미친 중국과 소련의 적극적 역할	234
2) 미국과 중국의 인식차이	236
4. 샌프란시스코 체제 재평가	238
제 4 절 분석결과	240

제 5 장 6·25전쟁과 냉전의 전개244

제 1 절 제 1이미지로 본 6·25전쟁의 기원: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246

- 1. 김일성의 남침론 247
 - 1) 제 1이미지요인: 김일성의 통일인식과 개전의지 247
 - 2) 김일성의 국제 정세관과 전쟁 250
 - 3) 제 2이미지 요인이 김일성의 전쟁시작에 미친 영향: 권력투쟁 · 251
 - 4) 제 3이미지 요인이 김일성의 전쟁시작에 미친 영향 253
- 2. 이승만의 북침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254
 - 1) 북진통일론의 원인: 이승만의 성향 255
 - 1) 북진통일론의 원인: 열세인 국방력 256
- 3.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의 전쟁 259
- 4. 김일성이 전쟁에 미친 영향: 전쟁의지와 국제정세 인식 261
- 5. 모택동이 전쟁에 미친 영향: 모택동의 반미 성향과 전쟁 수락 264
- 6. 스탈린이 전쟁에 미친 영향: 다단계 전략 269

제 2 절 제 2이미지로 본 6·25전쟁의 기원: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274

- 1. 남북한의 내전론 275
- 2. 중-소 음모설 276
- 3. 내전론의 한계 278
- 4. 중-소 음모설에 대한 재평가 281

제 3 절 제 3이미지로 본 6·25전쟁의 기원: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286

- 1. 제 3이미지의 영향: 양극체제 하의 미소 대립 286
- 2. 미국의 남침유도설 288
- 3. 소련의 전쟁책임론 291
- 4. 썩기전략 이론 293
- 5. 미국의 남침유도설과 썩기전략 이론의 오류 295
- 6. 소련의 세계전략 296
- 7. 6·25전쟁의 결과 300

제 4 절 분석결과 302

제 6 장 결론308

참고문헌	318
ABSTRACT	343
감사의 글	347

그림 목 차

<그림 1>설정된 이미지 틀	25
<그림 2>냉전기 후기수정주의자들의 ‘냉전의 기원’ 분석결과	61
<그림 3>탈냉전기 ‘냉전의 기원’ 분석결과	62
<그림 4>냉전기 ‘한반도 분단의 기원’ 분석결과	183
<그림 5>탈냉전기 ‘한반도 분단의 기원’ 분석결과	185
<그림 6>냉전기 ‘동북아 냉전의 기원’ 분석결과	240
<그림 7>탈냉전기 ‘동북아 냉전의 기원’ 분석결과	242
<그림 8>냉전기 ‘6·25전쟁의 기원’ 분석결과	302
<그림 9>탈냉전기 제 1이미지로 본 ‘6·25전쟁의 기원’ 분석결과	304
<그림 10>탈냉전기 ‘6·25전쟁의 기원’ 분석결과	306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로 본 냉전의 기원에 관한 연구

: 한반도 분단, 동북아 냉전, 6·25전쟁의 분석을 중심으로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월츠(Kenneth Neal Waltz)의 세 가지 이미지로 냉전의 기원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¹⁾ 이론적 틀을 통해 역사적 현상을 살펴보는 것은 이론의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유용하다. “일정한 이론적 틀이 없는 한, 모든 변수는 동일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²⁾는 토마스 쿤(Thomas S. Kuhn)의 말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체계적으로 분류시킬 수 있는 이론적 틀의 중요성을 강조해 준다. 이처럼 이론적 틀은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류시켜 줌으로써 국제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명료화시켜 준다. 그 뿐 아니라 특정한 사건의 관찰과 예측에도 큰 도움이 된다.³⁾ 따라서 분석에 대한 좀 더 뚜렷

1) 1924년생인 월츠는 2013년 5월 13일 사망했다. 그는 1979년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를 통해 신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되었다. 개별 국가의 행동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를 파악하던 기존 현실주의를 비판하고 ‘구조’ 안에서 국가들의 행위를 분석하였다. 월츠가 국제정치의 기본으로 파악한 ‘양극 구조’ 개념은 냉전이라는 현상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월츠의 대표적인 저서는 Kenneth Neal Waltz,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Idem,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Mass.: McGraw-Hill, 1979); *Idem, “Realist Thought and Neorealist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4-1 (1990), pp. 21-38 등이다. 탈냉전 후 그가 구조적 현실주의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힌 논문은 *Idem,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25-1 (Summer 2000), pp. 5-41을 참조할 것. 그는 탈냉전 시대에도 구조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했다. 또한 월츠가 국제정치상에서 남긴 공헌을 서술한 글은 Robert Jervis, “The Contributions of President Kenneth N. Waltz,”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4 (Autumn 1987), pp. 856-861을 참조할 것.

2)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p. 15.

3) Robert J. Lieber, *Theory and World Politics* (London: Allen and Unwin, 1973), p. 4.

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냉전의 기원을 좀 더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냉전이란 무엇인가?⁴⁾ 미국과 소련 사이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상태는 아니지만, 양국의 대치 분위기를 강조하는 데 있어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의 정의는 매우 적절하다. 그는 냉전을 “전쟁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평화는 불가능한 상태”로 정의했던 것이다.⁵⁾ 이것은 냉전이 기존 국제정치의 작동원리와는 다른 국제질서의 등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강대국들의 식민주의와 팽창주의를 가장 큰 특징으로 가지고 있던 제국주의 시대가 종식되고 미국과 소련에 의한 세계패권경쟁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기 때문이다.⁶⁾ 월츠의 설명대로 인류는 역사적으로 단 한번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에 의해 주도되는 양극체제를 경험하게 된다.⁷⁾

냉전은 다른 한편으로 이념적인 국가 대결로 설명할 수 있다. ‘나치즘과

4) 냉전(Cold War)이란 용어는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인 바루치(Bernard Mannes Baruch)가 고용한 변호사 출신의 스와프(Herbert Bayard Swope)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Warren I. Cohen, *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Vol. 4, America in the Age of Soviet Power, 1945-199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 1; 차상철, “냉전(冷戰)의 기원론,” 『북미학연구』 제6권 (1997), p. 71. 그렇지만 그 용어가 널리 보편화된 것은 미국의 언론인이자 정치철학자였던 리프만(Walter Lippmann)이 ‘냉전’이라는 책을 발표한 후, 학계와 언론계에서 미소 대결의 국제정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그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김영호, “탈냉전기 냉전 기원의 새로운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2)호 (2001), p. 448. 리프만은 케난(George F. Kennan)이 익명으로 대소 봉쇄전략을 제시한 논문을 비판하기 위해 「뉴욕 헤럴드 트리뷴(New York Herald Tribune)」지에 12회에 걸쳐 연재된 글을 단행본으로 묶어내면서 그 책의 이름을 “냉전”으로 정했다. 김영호 (2001), p. 448. 리프만은 이 저서에서 냉전의 의미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양분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실제적인 열전(Hot War)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전 만큼이나 이념적 혹은 군사적 측면에서 격렬하게 전개된 세계적 차원의 대립으로 설명하였다. Walter Lippmann, *The Cold War: A Study in U.S.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7).

5) Raymond Aron, “Stupide resignation,” *Le Figaro*, 1947, Sep 21/22. 냉전의 대치상태를 설명하는 데 홉스의 글은 매우 유용하다. 홉스는 “전쟁이란 단지 싸우는 행위에만 관련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려는 의지가 충분히 알려진 시간 속에서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냉전은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난 만큼의 격렬한 대립이었다. Thomas Hobbes, C. B. Macpherson (ed.), *Leviathan* (London: Penguin, 1985), pp. 185-186.

6) 식민 제국주의에 관해서는 J.B. 뒤로젤, 노재봉 역, 『구주외교사』 (서울: 박영사, 1984), pp. 426-439를 참조 할 것.

7) Waltz (1979), pp. 161-163.

과시즘, 그리고 일본 군국 제국주의의 완전한 제거'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과 소련은 제2차대전이 종식되고 대립국면에 놓인다. 아롱이 지적했듯이 20세기는 분명 산업화의 확산에 의해 외교적 장(diplomatic field)은 단일화 되었지만, 세계는 전체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질적인 체제가 대립하는 문명적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⁸⁾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미국과,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란 지배계급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계급 없는 사회를 최종목표로 하는 소련의 대립은 불가피한 것이었다.⁹⁾ 냉전의 종식을 "역사의 종언"이라고까지 표현했던 후쿠야마의 주장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강조함으로써 이념대결 측면에서의 냉전의 성격을 부각시킨 것이다.¹⁰⁾

마지막으로 냉전은 미국과 소련 지도자들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었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냉전체제만큼 양국 지도자들의 성향이 중요했던 체제는 찾기 힘들다. 예를 들어 냉전의 발생을 스탈린이나 루즈벨트, 그리고 트루먼의 역할을 무시한 채 국가 작용만으로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혹은 냉전의 종식에 있어 고르바췌프, 레이건을 제외한 채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냉전체제는 미국과 소련 지도자들의 성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던 체제였던 것이다.¹¹⁾

8) Raymond Aron, *Paix et Guerre entre les Nations* (Paris: Calmann-Lévy, 1962), p. 369.

9) 뒤로젤 (1984), pp. 283-284.

10)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National Interest* 16 (Summer 1989), pp. 3-18. 슐레진저(Arthur Schlesinger) 역시, 냉전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근본적인 대결로 보았다. Arthur Meier Schlesinger, JR., "Origins of the Cold War," *Foreign Affairs* 46-1 (October, 1967), pp. 22-52. In Erik P. Hoffmann (ed.),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 (New York: Aldine Pub. Co., 1980), pp. 228-254. 필리토브(Alexei Filitov)는 냉전을 강대국들의 무한한 군비경쟁으로 보고 있으며, 개디스는 냉전에 대해 "패권국가가 그 세력이 정점에 달하고 쇠퇴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Alexei Filitov, "Victory in the Postwar Era," in Michael J. Hogan (ed.), *The End of the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79; John Lewis Gaddis, "On Starting All Over Again: A Naïve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Cold War," in Odd Arne Westad (ed.), *Reviewing the Cold War: Approaches, Interpretations, Theory* (London·Portland, OR: Frank Cass, 2000), p. 37.

11) 대표적인 문헌으로 James. M. Goldgeier, *Leadership Style and Soviet Foreign Policy: Stalin, Khrushchev, Brezhnev, Gorbachev* (Baltimore, Md.: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Melvyn

냉전에 대한 기존연구는 매우 방대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냉전을 역사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있고 이들은 크게 전통주의(traditionalism),¹²⁾ 수정주의(revisionism),¹³⁾ 후기수정주의(postrevisionism)¹⁴⁾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통주의 학파는 194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에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냉전의 책임에 있어 소련요인을 강조하였다.¹⁵⁾ 소련의 위협으로 인해 냉전이 발생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 미국

P. Leffler, *For the Soul of Mankind: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and the Cold War* (New York: Hill and Wang, 2007). 골드가이어는 냉전초기부터 종식될 때까지의 대표적인 소련 지도자들과 그들이 집권했을 당시 대표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소련의 외교정책을 분석한다. 러플러의 경우 냉전시대를 다섯 국면으로 나누어 그 안에서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냉전을 분석한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을 어떤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로젤 (1984), pp. 326-337을 참조 할 것.

- 12) 전통주의의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Robert H. Ferrell, *American Diplomacy* (New York: Norton, 1975); Harry S. Truman, *Memoirs by Harry S. Truman (Vol.1,2)* (New York: A Signet Book, 1955); John Spanier,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New York: Holt, 1983); George Frost Kennan, *Realities of American Foreign Poli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4); Schlesinger (1967) 등을 참조할 것.
- 13) 수정주의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은 William Appleman Williams, *The Contours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W.W. Norton, 1988); *Idem, The Tragedy of American Diplomacy* (New York: W.W. Norton & Co., 2009); Gabriel Kolko, *The Roots of American Foreign Policy* (Boston: Beacon Press, 1969); *Idem, The Politics of War* (New York: Random House, 1968); Joyce Kolko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New York: Harper & Row, 1972); Gar Alperovitz, *Atomic Diplomacy* (London: Boulder, Colo.: Pluto Press, 1994); Denna Frank Fleming, *The Cold War and Its Origins, 1917-1960* (Garden City, N.Y.: Doubleday, 1961) 등을 참조할 것. 또한 수정주의자 중 자신의 논의를 변경, 수정주의를 비판한 학자의 저술이 있다. Robert James Maddox, *The New Left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을 참조할 것.
- 14) 후기수정주의의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John Lewis Gaddis, "The Emerging Post-Revisionist Synthesis o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Diplomatic History* 7-2 (1983), pp. 171-190; Thomas G. Paterson, *Soviet-American Confrontation: Postwar Reconstruction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George C. Herring, *Aid to Russia, 1941-1946*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3); Geir Lundestad, "Empire by Invitatio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1945-1952," *Journal of Peace Research*, 23-3 (1986), pp. 263-277; Daniel Yergin, *Shattered Peace* (Boston: Houghton Mifflin, 1977) 등을 참조할 것.
- 15) 물론 전통주의 학파를 설명할 때 현실주의 학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실주의 학파의 경우 전통주의 학파와 가장 큰 차이점은 트루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주의자들이나 현실주의자들 모두 소련의 유럽에서의 확장 움직임에 미국이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냉전에서의 소련 책임론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들의 분류는 따로 하지 않는다. 냉전의 책임론 중 전통주의 안에서의 차이를 기술한 문헌은 J. Samuel Walker, "Historians and Cold War Origins: The New Consensus," in Gerald K. Haines and J. Samuel Walker, *American Foreign Relation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81),

은 정당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1960년대부터 나온 수정주의 학파는 냉전에 대해 전통주의자들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냉전의 책임은 자본주의 세계의 확장을 피한 미국에 있는 것이고, 소련은 수비적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학파는 1970년대에 등장한 후기수정주의(postrevisionism)학파이다.¹⁶⁾ 이들은 냉전에 대한 책임을 미국이나 소련에 둘 다 묻되, 관점에 따라 책임의 경중은 차이가 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절충적 관점을 취하려는 입장을 보였다.¹⁷⁾

이러한 세 학파의 분류를 중심으로 한 냉전논의는 시기별로 이들의 주장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냉전연구의 흐름을 보기에 매우 유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에 따른 서술은 냉전연구 논쟁을 책임론의 성격으로 끌고 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냉전에 어느 측이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강조하는 연구경향은 냉전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¹⁸⁾ 또한 이러한 구분법의 가장 큰 단점은 냉전을 이념적으로 판단하고

pp. 207-209; 김용구-박상섭, “냉전의 기원과 수정주의: 수정주의 주장의 비판적 검토,” 『세계정치』 (구 국제문제연구) 제10권 (1)호 (1986), pp. 72-76; 차상철 (1997) 등을 참조 할 것.

16)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관점을 종합했다는 대표적 후기수정주의자 개디스의 주장에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카플란(Lawrence S. Kaplan)은 개디스의 공헌을 인정하며 그를 ‘후기수정주의의 아버지’로 자처할 만하다고 평했다. Lawrence S. Kaplan, “Responses,” *Diplomatic History* 7-2 (1983), p. 194. 반면 김볼(Warren Kimball)은 후기수정주의를 전통주의에 문헌을 더했을 뿐이라는 혹평을 했다. Warren F. Kimball, “Responses,” *Diplomatic History* 7-2 (1983), p. 198. 그러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듯이, 후기수정주의자들이 사료를 기반으로 그들의 주장을 개진했다는 점은 냉전연구에서 큰 공헌으로 인정할 수 있다.

17) 물론 냉전연구의 학파를 논할 때, 후기수정주의 이후 결합주의(corporatist)학파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학파는 미국 대외정책의 형성원인을 미국의 자본주의에서 찾고 있다. 또, 수정주의 학파의 학문적 약점을 극복, 보완했다는 점에서 수정주의의 발전적 계승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따로 분류하지 않겠다. 이 설명에 관해서는 김정배, 『미국과 냉전의 기원』 (서울: 혜안, 2001), p. 44; 차상철 (1997), p. 25. 결합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ichael J. Hogan, “Corporatism: A Positive Appraisal,” *Diplomatic History* 10-4 (1986), pp. 363-372; *Idem*, “Corporatism,” in Michael J. Hogan and Thomas G. Paterson, *Explaining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p. 226-236; John Lewis Gaddis, “The Corporatist Synthesis: A Skeptical View,” *Diplomatic History* 10-4 (1986), pp. 357-362; 차상철 (1997), pp. 20-26; 김학준, 『북한의 역사(2)』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b), pp. 14-15를 참조할 것.

해석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냉전을 이론적으로 접근한 논의가 있다. 월츠로 대표될 수 있는 이 논의는 국제정치 현상 중 하나인 냉전을 구조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기존 현실주의 이론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이론적 노력이다.¹⁹⁾ 월츠는 국가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단을 물질적 능력(material capabilities)의 분포상태로 설명하고, 이것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다. 냉전의 경우, 월츠는 물리적인 힘인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을 기반으로 제2차대전 이후 양극체제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양극체제는 국가들의 계산착오(miscalculation)를 줄여주기 때문에 기존의 다극체제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²⁰⁾

이러한 그의 주장이 냉전기인 제3차대전의 부재를 설명하는 데에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월츠의 세 번째 이미지를 통한 냉전현상의 설명은 ‘냉전의 종식’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설명하

18) 냉전의 기원에 대해서는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1)* (Cambridge:New York, 2010); Ralph B. Levering, *Debating the Origins of the Cold Wa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Campbell Craig and Sergey Radchenko, *The Atomic Bomb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Melvyn P. Leffler and David S. Painter, *Origins of the Cold War* (London: New York, 1994); Martin McCauley, *The Origins of the Cold War, 1941-1949* (London: New York, 1995); Howard Jones and Randall B. Woods, "Origins of the Cold War in Europe and the Near East: Recent Historiography and the National Security Imperative," *Diplomatic History* 17-2 (1993), pp. 251-276; 김신용, "냉전의 기원론(起源論)에 대한 일고찰," 『역사교육논집』 제6권 (1)호 (1984), pp. 125-144; 김영호 (2001); 김정배, "냉전의 기원: 허상과 실제," 『역사와 경계』 제39권 (2000), pp. 245-276; 이원우, "아시아에서의 冷戰의 起源," 『平和研究』 제8권 (1)호 (1989), pp. 245-276; 李柱天, "프랭클린 루즈벨트 (Franklin D. Roosevelt) 大統領과 冷戰의 起源," 『論文集』 제22권 (1)호 (1988) pp. 135-162 등을 참조할 것. 또한 아시아에서 냉전의 기원을 다룬 문헌은 본 논문 4장을 참조 할 것.

19) 김영호,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비판적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37집 (2)호 (1998), p. 4. 월츠는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라고도 불리는 신현실주의(neorealism) 이론을 전개하면서 세 가지의 가정을 내세웠다. 첫째, 국제관계에서 행위의 주체는 국가라는 것, 두 번째, 이들 국가들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 내는 국제정치 현실은 무정부상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태에서의 국가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구책(self-help)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Waltz (1979), pp. 79-101을 참조할 것.

20) Waltz (1979), pp. 170-176.

지 못하였다.²¹⁾ 월츠가 상정한 양극체제아래, 소련은 군사력을 유지하고도 붕괴하였다.²²⁾ 뿐만 아니라 한 연구에 따르면, 1950년 중반까지 미국과 소련의 국력은 결코 동등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²³⁾ 구체적으로 1947년 세계 철강 생산량은 미국이 54%, 소련이 12%, 영국이 1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에너지 소비량도 미국이 49%, 소련이 12%, 영국이 9%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현격한 국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과 소련을 대등하게 바라보고, 2차대전 후 두 국가의 관계를 양극체제만으로 설명하려 했던 월츠의 시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냉전을 바라볼 때 결코 구조만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 접근의 냉전 접근, 그리고 이론적 관점으로의 냉전 접근의 한계는 냉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역사적, 이론적 관점을 종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냉전연구의 특징, 그리고 한계와 함께 지적할 수 있는 점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 문서공개 시기를 중심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미국 측의 기밀 문서공개는 기존의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뛰어넘는 후기수정주의 학파의 등장에 기여하여 냉전연구의 진일보에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및 동구권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념적 국가주의 대결이라는 냉전의 큰 특징을 기반으로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주장에 맞는 사료만 사용하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적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²⁴⁾

21) 월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은 김영호(1998); 양준희·박건영, “신고전적 현실주의 비판,” 『국제정치논총』 제51집 (3)호 (2011), pp. 7-26; 양준희·박건영, “월츠의 환영,” 『한국과 국제정치』 제 27권 (3)호 (2011), pp. 63-97을 참조할 것.

22) John Lewis Gaddis, *We Now Know* (Oxford: Clarendon Press, 1997), p. 284.

23) Richard Ned Lebow and Thomas Risse-Kappe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p. 257.

24) 김영호, “탈냉전과 6·25전쟁의 재인식,” 김영호 외, 『6·25전쟁의 재인식』 (서울: 기파랑, 2010), p.

탈냉전기 들어 구소련 및 동구권이 관련 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냉전연구는 좀 더 객관적인 고찰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²⁵⁾ 그동안 주로 미국 측 자료만을 가지고 서술되었던 냉전연구가 소련 및 중국 측 공개 자료를 근간으로 훨씬 더 균형 있는 서술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냉전의 영향을 직접적이고 매우 크게 받은 한국현대사, 그리고 동북아 지역 냉전 연구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냉전연구에서 드러났던 많은 오류는 한국현대사와 동북아 냉전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냉전이 시작되었던 시기와 맞물려 진행되었던 ‘한반도 분단’이나 ‘동북아 냉전’, 그리고 ‘6·25전쟁’은 해석상 매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냉전의 특성으로 지적한 이념적인 국가대결의 성격으로 인해 그 해석 역시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편향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탈냉전기 공개된 문서는 냉전기 해석상의 편견을 바로잡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북한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은 그 대치의 시작점인 냉전의 발생 시기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기 시기에도 상기한 역사적 접근으로 냉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자료들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점이 교정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연구는 드물었다. 그 뿐 아니라 뚜렷한 이론적 근거 하에서 냉전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²⁶⁾ 기존연

27의 내용을 참조함.

25) 탈냉전기 냉전연구 역시 매우 방대하여 모두 소개하기는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면 우선 냉전을 주제로 하는 학술지의 경우 Routledge에서 발행하는 *Cold War History*와 MIT Press에서 발행하는 *Journal of Cold War Studies*가 있다. 최근 문헌으로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1,2,3)* (Cambridge:New York, 2010); Vladislav M. Zubok, *A Failed Empire*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Jonathan Haslam, *Russia's Cold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1); Issac Joel and Duncan Bell, *Uncertain Empire: American History and the Idea of the Cold War*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등을 참조할 것.

26) 냉전기에 나온, 과학적인 냉전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는 Greg Cashman and Arthur N. Gilbert,

구들은 새로운 자료를 이용한 냉전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고찰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월츠는 구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하기 전, 그 현상 중 하나인 전쟁의 원인을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한 바 있다.²⁷⁾ 월츠는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 전쟁의 원인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전쟁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냉전역시 다른 형태의 전쟁으로 볼 수 있다면, 냉전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 이미지 틀은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문헌에서 살폈듯, 이러한 세 가지 이미지 틀을 통해 냉전을 설명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²⁸⁾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월츠의 개인, 국가, 체제의 이미지 틀과 탈냉전기 공개된 문서를 사용하여 냉전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 틀을 대입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틀을 원용하여 기존 해석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냉전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관계 이론 중 하나인 월츠의 이론을 원용하여 냉전과 한국현

“Some Analytical Approaches to the Cold War Debate,” *The History Teacher* 10-2 (Feb 1977), pp. 263-280을 참조할 것.

27) Kenneth Neal Waltz,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또한 이 책의 역서도 참고할 것. 케네스 월츠, 정성훈 역, 『인간 국가 전쟁』 (서울: 아카넷, 2007). 이 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논문은 Hidemi Suganami, “Understanding Man, the State, and War,” *International Relations* 23-3 (September 2009), pp. 372-388을 참조할 것.

28) 냉전연구는 아니지만 월츠의 이론틀을 적용해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한 또 다른 연구가 있어 간단히 소개한다. 말케이(Daniel Seth Markey)는 그의 프린스턴 박사학위논문 “The Prestige Motive in International Relations”에서 ‘위신’이라는 무형의 동기가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 틀 안에서 살펴보았다. 저자는 제 1, 2이미지에 의한 분석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지도자들과 국가들이 그들과 그들 나라의 위신을 위해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이 국제 관계에 표출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지 수준, 즉 체제적 수준에서 저자는 국제사회 내의 공유된 관념(문화)이 개별국가의 위신 지향적 동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필자는 ‘위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추구이기 때문에 공유된 규범이 더 클수록 오히려 평화보다는 위신을 위한 더 큰 경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의 행동에 비물질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위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국제행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물질적인 동기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Daniel Seth Markey, “The Prestige Motive in International Relation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2000).

대사, 그리고 동북아 냉전의 기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논문의 구성과 자료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우선 비교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탈냉전기 소련문서의 공개로 인해 기존 냉전연구에 대한 해석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냉전기에 있었던 중요한 학설 중 새로운 문서로 인해 설명력이 더욱 높아진 부분, 혹은 약화된 부분, 아니면 부인된 부분이 있다는 것에 착안했다. 이러한 부분을 냉전의 종식을 전후로 비교하여 설명한다. 그렇지만 역사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단순한 시대별 고찰이 아닌 세 가지 이미지로 냉전을 서술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제정치이론 연구방법과 역사분야 연구방법을 접목한 학제간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냉전의 기원을 국제정치이론적 시각에서 서술하는 것이다.²⁹⁾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로 구성된 냉전의 기원을 설명함에 있어 단지 그 현상만을 설명하거나 그 현상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이론만을 설명한다면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훨씬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냉전연구의 시발점인 ‘냉전의 기원론’에서부터 월츠의 이론틀을 적용하여 설명하되, 냉전기 주장은 후기수정주의의 주장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후기수정주의의 논의에 기존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논의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들을 냉전의 종식 후 새로

29) 역사영역과 정치영역에 대한 학제간 연구에 대한 저서는 Colin Elman and Miriam Fendius Elman, *Bridges and Boundaries* (Cambridge Mass.: MIT Press, 2001); 김영호, “외교사와 국제정치이론 사이의 학제간 연구의 쟁점과 과제: 탈냉전기 미국의 대냉전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권 (2)호 (2004), pp. 185-211을 참고할 것.

나온 문서로 평가함으로써 냉전의 종식을 전후로 한 ‘냉전의 기원’에 대한 연구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를 근간으로 한 구체적 장의 주제는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동학’, ‘중소관계와 동북아 냉전의 전개’, 그리고 ‘6·25전쟁과 냉전의 전개’이다. 상기하였듯이 소련문서 공개로 활발해진 냉전연구는 자연스럽게 냉전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현대사와 동북아 냉전 연구의 활성화도 동시에 가져왔다. 냉전의 두 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서술한 이론 틀과 냉전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냉전의 중심국가와 주변국가들에 각 이미지별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현대사에서 ‘한반도 분단’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한반도 분단’은 냉전의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한국현대사를 냉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면에서 본 논문에서 상정한 이론의 필요성을 더욱 잘 나타내준다.

다음 장은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동학’과 마지막 연구 주제인 ‘6·25전쟁과 냉전의 전개’를 더욱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소관계와 동북아 냉전의 전개’이다. 동북아 지역은 미소가 그 주도권을 두고 일말의 양보도 하지 않았던 중요한 곳이다. 한국현대사는 냉전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유럽에서의 냉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었고 동시에, 동북아 냉전과도 연결되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3장과 5장의 내용을 통합해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25전쟁과 냉전의 전개’는 냉전 초기 동북아 냉전의 지형을 완전히 고착화시킨 중요한 사건이다. 6·25전쟁은 한국현대사에서 뿐만 아니라 냉전사에 있어서도 큰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특히 ‘6·25전쟁의 기원’에 대한 냉전기 주장들은 탈냉전기 문서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오류로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이 장을 통해 전쟁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면

밀하게 고찰한다.

2. 논문의 구성과 자료

본 논문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1장은 서론이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 등을 설명한다. 제2장은 이 논문의 이론적인 부분이다. 이 논문에서 사용할 월츠의 이론과 그 이론이 국제정치 현상을 고찰하는데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그것을 원용하여 ‘냉전의 기원’ 논쟁에 적용한 부분이다. 3장, 4장, 5장 역시 같은 이론 틀로 조명하여 비교분석한다. 6장은 결론으로서 최종적인 연구결과를 요약 제시하고 제언을 한다.

본 논문의 자료는 냉전과 한국현대사 관련 문서를 사용하였다. 먼저 냉전의 경우, 탈냉전기 소련이 공개한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우드로 윌슨 센터(Woodrow Wilson Center)의 ‘다국적 냉전사 연구 기획(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사이트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³⁰⁾ 이 사이트에서는 냉전관련 주제에 따른 소련 문서들을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연구자들에게 모두 번역,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 각 장의 자료도 이 사이트의 자료를 일부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사이트에 있지 않은 중요 소련 측 문서를 활용한 영문 2차 자료도 활용하였다.³¹⁾ 또한 미국

30) 인터넷 주소는 <http://www.wilsoncenter.org/digital-archive>

31) 대표적인 자료로서 Vladislav M. Zubok and Konstantin Pleshakov, *Inside the Kremlin's Cold Wa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Eduard Mark, "Revolution by Degrees: Stalin's National-Front Strategy for Europe, 1941-1949,"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이하 CWIHP로 약칭) *Working Paper* No.31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Feb. 2001); Kathryn Weathersby,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CWIHP Working Paper* No.8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November, 1993), pp. 5-36; *Idem*,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lude to War," *CWIHP Bulletin* Issue5 (Spring 1995), pp. 1-9; *Idem*,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CWIHP Working Paper* No.39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2), pp. 1-26; *Idem*,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2-4 (Winter 1993), pp. 425-458. 이 자료들은 소련 측 1차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활용하였다.

무성이 제공하는 ‘미국의 대외관계(*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역시 냉전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인 자료들이다. 이 자료 역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³²⁾ 또한 웹상의 루즈벨트 도서관, 트루먼 도서관의 자료도 활용하였다.³³⁾

다음으로 각 장의 주제로 택한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동학’, ‘중소관계와 동북아냉전의 기원’, ‘6·25전쟁과 냉전의 전개’에 관한 자료는 정부간행물이나 핵심적 인물의 회고록, 각 주제별 2차 자료를 근간으로 설명하였다. 탈냉전기 소련측 자료들은 소련 전문가들이 번역한 자료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전현수의 『쉬떡꼬프일기』나, 국사편찬위원회의 『소련군정문서, 남조선 정세보고서』 같은 자료는 한국현대사를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나누어 설명할 때 유용한 매우 가치있는 자료들이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가 구축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도 활용하였다. 한국현대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웹상으로 열람이 가능하게 해 놓았다. 해방 후 신문자료나 ‘이승만 문서철’ 모두 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³⁴⁾

32)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

33) <http://www.fdrlibrary.marist.edu/>; <http://www.trumanlibrary.org/>

34) <http://db.history.go.kr/url.jsp?ID=pm>

제 2 장 세 가지 이미지로 본 냉전의 기원: 이론적 틀

제 1 절 이론적 틀에 대한 설명

1. 이미지 틀의 이론적 위상에 대한 논의

월츠가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1959년 출판된 『인간, 국가, 전쟁』을 통해서다.¹⁾ 월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국제정치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그 현상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이미지(Image)를 ‘누군가가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세계를 특정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뜻한다.²⁾ 예를 들어 소설에서의 ‘시점’은 소설에 나오는 사건을 주인공의 시점으로 보느냐, 관찰자의 시점으로 보느냐를 의미한다. 주인공의 시점에서 보는 사건의 서술과,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는 사건의 서술이 다르듯이, 어떤 이미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은 달라지는 것이다.

월츠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국제정치 현상 중 전쟁의 원인들을 찾으려고 하였다.³⁾ 즉 그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전쟁의 다양한 원인들을 세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월츠는 단지 하나의 이미지만으로 전쟁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세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 전쟁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 원인들을 제거해서 평화수립의 방법을 찾고자 했다.

1) Kenneth Neal Waltz,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2) Waltz (2001), p. ix.

3) Waltz (2001), p. 225.

제 1이미지에 의한 전쟁의 원인 분석은 개인적 요인에 의거한 해석이다.⁴⁾ 월츠는 이 저서를 통해 인간본성에서 전쟁의 요인을 찾고자 했다. 인간의 이기심, 잘못 통제된 공격성, 그리고 우매함 등이 전쟁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⁵⁾ 그는 다른 요인들은 부차적인 것이며, 이 부차적인 요인들은 근본 원인들에 비춰 보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월츠는 제 1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역사 속의 사건들은 그 역사를 만드는 인간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⁶⁾ 또한 정치적 제도나 정치행위의 중요한 원인들을 인간의 본성과 행위에서도 찾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⁷⁾ 이와 같은 월츠의 제 1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개인적 요인에 의거한 설명의 근거를 제시해 준다. 이처럼 제 1이미지는 인간의 속성 뿐 아니라 인간적 속성이 나타나는 모습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국제정치상의 국가의 행동에 투영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월츠의 제 1이미지, 즉 인간의 본성에 근거해서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그 연원이 매우 길다. 4~5세기 사이에 활동한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e), 17세기의 홉스(Thomas Hobbes)와 스피노자(Baruch Spinoza), 그리고 20세기의 니부어(Reinhold Niebuhr), 모겐소(Hans J. Morgenthau)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⁸⁾ 특히 현대 국제정치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모겐소는 ‘정치는 인간의 본성에서 창조된 법에 의해 작동된다’고 주장하고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의 권력투쟁을 강조하였다.⁹⁾ 구체적으로 그가 주장한 정치적 현실주의의 원칙 중 인간의 본성을 강조한 내용은 “정치도 사회와 같이 인간본성에 근원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법에 의해 지배받는

4) Waltz (2001), pp. 16-41.

5) Waltz (2001), p. 16.

6) Waltz (2001), p. 27.

7) Waltz (2001), p. 42.

8) 이근욱, 『월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09), p. 29.

9)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Knopf, 1973).

다는 것”이다.¹⁰⁾ 그는 인간의 본성을 근간으로 국가 행위에 대해 설명 하였고, 국제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각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 권력투쟁으로 바라본 것이다.

제 1이미지인 인간의 속성을 근간으로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월츠 이후 꾸준히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스토신저(John G. Stoessinger)의 경우, 그는 여섯 개의 전쟁 사례를 분석하며 그 기본단위를 인간성(personality)에서 찾고 있다.¹¹⁾ 또한 바이만(Daniel L. Byman)과 폴락(Kenneth M. Pollack) 역시 제 1이미지인 정책결정자의 역할이 국가행동이나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한다.¹²⁾ 그린스타인 역시 정치행태에 있어 개인의 정신과 심리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¹³⁾

이처럼 제 1이미지가 전쟁의 개인적 설명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주었다면 다음 제 2이미지는 그 개인이 속한 국가를 통해 전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준다. 즉, 국가의 내부체제에 따라 그 국가의 군사력 사용이나

10) Morgenthau (1973), p. 4. 이밖에 정치적 현실주의의 나머지 원칙은 국제정치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권력에 의해 정의되는 이익이라는 것, 그 이익은 객관적인 범주에서 존재하지만 그 의미가 고정 불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 정치적 행위에 도덕적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정치와 도덕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 전 세계를 다스리는 보편적인 도덕원칙은 없다는 것, 정치적 영역에서 그들만이 가지는 독자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Morgenthau (1973), pp. 5-15.

11) John G. Stoessinger, *Why Nations Go to War*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78). 그는 이 저서를 통해 제 1,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인도·파키스탄 전쟁, 아랍·이스라엘 전쟁을 당시 정책 결정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이 전쟁들 중에서 특히 베트남 전쟁이 다른 어떤 전쟁보다 개인의 특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12) Daniel L. Byman and Kenneth M. Pollack, "Let Us Now Praise Great Men: Bringing the Statesman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25-4 (Spring 2001), pp. 107-146을 참조할 것. 이밖에 국제관계에서 개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Fred I. Greenstein, *The Presidential Difference: Leadership Style from FDR to Clinton* (New York: Free Press, 2000); David Shambaugh (ed.) *Deng Xiaoping: Portrait of a Chinese Statesm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를 참조할 것.

13) Fred I. Greenstein, *Personality and Politics: Problems of Evidence, Inference, and Conceptualization* (New York: Norton, 1975) 그린스타인의 또 다른 저서는 *Idem*, "The Impact of Personality on Politics: An Attempt to Clear Away the Underbrus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3 (September 1967), pp. 629-641; *Idem*, *The Presidential Difference: Leadership Style from FDR to Barack Obama* (Princeton, N.J.; Woodstock: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를 참조할 것.

대의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다.¹⁴⁾ 전쟁의 원인을 개인의 본성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개인이 소속된 국가의 행동을 통해 전쟁의 원인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전자가 끊는다’고 말을 할 때 실제로 끊는 것은 주전자가 아닌 물인 것처럼, 제 2이미지는 내용물보다 그 내용물을 품고 있는 ‘상자’에 주목을 하는 설명이다.¹⁵⁾

이와 같은 제 2이미지에 의해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내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전쟁을 할 것’이라는 레닌의 주장은, 그가 국가의 체제속성을 통해 전쟁의 원인을 찾으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⁶⁾ 일본 팽창주의의 원인을 천황제에서 찾고 있는 이승만의 분석도 제 2이미지를 통해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였다.¹⁷⁾ 또한 국가의 전쟁 원인을 ‘국가들이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그 처방을 ‘모든 국가가 공화정으로 바꾸는 것’ 혹은 ‘민족자결주의’를 통해 해결하려 한 칸트(Immanuel Kant)나 윌슨(Woodrow Wilson) 역시 제 2이미지인 국가의 체제 특성을 중요시 한 인물로 볼 수 있다.¹⁸⁾

특히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전쟁 개입가능성이 더 낮다’는 칸트의 명제는 럼멜(R.J. Rummel)이나 도일(Michael Doyle), 그리고 러셋(Bruce Russet) 등에 의해 계승, 발전되었다. 럼멜의 경우 1816년부터 1965년까지 벌어졌던 50개의 전쟁을 분석하며,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자유주의와 권

14) Waltz (2001), p. 125.

15) Waltz (2001), p. 80.

16) 자세한 내용은 Waltz (2001), pp. 80-158을 참조할 것. 특히 pp. 137-141.

17) Rhee Syngman, *Japan Inside Out* (New York: London and Edinburgh, 1941), pp. 13-22.

18) Immanuel Kant,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in Hans Reiss (ed), *Kant: Political Writ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p. 99-102; Arthur Bernon Tourtellot(ed), *Woodrow Wilson: Selections for Today*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1945), pp. 53-54, 143-144. 166.

위주의 국가 사이에서는 열네 개의 전쟁이, 그리고 자유롭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서른여섯 개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¹⁹⁾ 독일은 19세기 이후의 역사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국가들 간에 전쟁이 없다’라는 명제를 검증하였다.²⁰⁾ 러셋도 민주주의 국가들의 특수한 제도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었다.²¹⁾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이유를 국가의 체제적 속성에서 찾았다는 것이다.²²⁾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는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이었다. 앞의 두 요인, 즉 개인적 요인과 국가적 요인은 전쟁을 일으키는 직접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²³⁾ 그러나 월츠의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백만 달러를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은행을 터는 것은 아닐 것이다.²⁴⁾ 다만, 만일 은행을 터는 조건이 훨씬 더 수월하다면 강도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제정치 상에서도 전쟁의 직접적 조건들을 촉진시키는 상황이 존재한다. 제 1, 2 이미지가 전쟁을 촉발하는 직접적 원인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는 이러한 전쟁을 더 쉽게 하는, 이른바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구조를 나타내는 설명이었다.

물론 월츠의 무정부성(anarchy)의 개념이 당시에 나온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국제정치 상에서의 무정부성은 이미 1750년경 루소에 의해 설명된 바 있었다. 루소는 전쟁의 원인을 ‘사슴사냥’의 예로 설명하였다. 무인도에

19) Daniel S. Geller and J. David Singer, *Nations at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 86에서 재인용. 럼멜의 저서는 R.J. Rummel, *Understanding Conflict and War* (Beverly Hills: Sage, 1979).

20) Michael Doyle,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4 (December 1986), pp. 1151-1169.

21) Bruce Russett,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iples for a Post-Cold War Wor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22) 방어적 현실주의 이론가인 스나이더(Jack Snyder)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하지 않으나 민주화 과정의 국가들은 전쟁을 더 많이 수행한다는 주장을 하며, 국내정치의 역동성을 강조하였다. Jack Snyder, *From Voting to Violence* (New York : W. W. Norton, 2000)

23) Waltz (2001), p. 232.

24) Waltz (2001), p. 231.

표류한 사람들이 사슴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비유는 국제정치상에서 개별 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세계정부의 부재가 전쟁을 야기한다는 것을 뜻한다.²⁵⁾

월츠는 이와 같은 무정부성을 전쟁을 더욱 촉발시키는 요인인 제 3이미지, 즉 국제체제라고 설명한다.²⁶⁾ 국제정치 영역은 국내정치와 다르게 최상의 권력 행위기관, 즉 합법적인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없는 ‘무정부상태’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배경적 조건으로 작용하며, 국가들 간의 행위를 설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건이다. 이렇게 국제정치 체제에서의 구조를 강조한 월츠는 결국 1979년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를 통해 구조를 가장 중요시하는 신현실주의 이론의 창시자가 되었다.²⁷⁾

월츠는 국제정치 상에서 국가의 최고 목적을 안보라고 주장하였다.²⁸⁾ 무정부상태는 각 국가의 안보를 보장해줄 수 없으므로 국가들은 안보를 최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정부성의 성격을 두고 그 후에도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존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는 무정부상태는 매우 위험한 체제라고 주장한다. 그와 월츠의 가장 큰 차이는 월츠가 국제정치의 무정부 구조가 국가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전쟁보다는 안보를 위한 현상유지를 피하게 한다고 본 데 반해, 미어셰이머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국가들은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데에 있다.²⁹⁾ 단순히 구조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무정부상태에서 국가들이 어떻

25) 이근욱 (2009), p. 30.

26) Waltz (2001), pp. 159-186.

27) Kenneth Neal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Mass.: McGraw-Hill, 1979).

28) Kenneth Neal Waltz, "The Origins of War in Neorealist Theory," in Robert I. Rotberg and Theodore K. Rabb (eds.), *The Origin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 40.

29)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p. 21. 이러한 월츠의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와의 차이에 대한 해석은 황지환,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현상유지경향과 상대적 손실의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논총』 제 47집 (3)호 (2007),

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도 주목한 것이다. 또한 구성주의자라고 불리는 웬트(Alexander Wendt)는 월츠를 비판하며 무정부상태에서 중요한 요소는 국가들의 사고(idea)라고 주장한다. 그는 국제구조가 물질적인 요소가 아닌 사회적 요소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⁰⁾ 그러나 이러한 무정부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이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원형은 월츠의 제 3이미지에서 시작한 것이다.³¹⁾ 이처럼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제 3이미지는 필수적인 것이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제정치 현상 중 하나인 전쟁을 고찰하기 위해 월츠가 내세운 세 가지 이미지의 설명과, 각 이미지에 대한 논의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시 한 번 세 이미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이미지는 인간의 본성에 의거한, 두 번째 이미지는 정치 체제의 속성을 중요시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구조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었다. 그는 각 이미지를 기반으로 전쟁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평화수립의 방법을 찾으려 한 것이다. 그렇지만 월츠는 평화수립을 위해 각 이미지에 해당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처방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제 1이미지의 경우, 인간의 또 다른 성향인 선함과 그로 인한 평화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 이미지에 의한 ‘모든 국가가 선량한 국가들로 바뀌면 전쟁은 사라질 것’이라는 처방 역시, ‘모든 국가의 협력’이라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에 의한 처방인 ‘세계정부의 수립’ 역시, 모든 국가 구

pp. 12-14;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과주: 한울아카데미, 2009), pp. 75-96도 함께 참조할 것.

30) 무정부 구조와 국가 사이의 행동에 대한 웬트의 주장은 Alexander E.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3 (Summer 1987), pp. 335-370; *Idem*,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2 (1992), pp. 391-425를 참조 할 것.

31) 이근욱 (2009), pp. 46-48. 또한 무정부상태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Barry Buzan, Charles Jones, and Richard Little, *The Logic of Anarchy: Neorealism to Structural Re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을 참조 할 것.

성원의 차이를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월츠는 이렇게 각 이미지에 해당하는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의 한계점을 제시하여 세 가지 이미지가 서로를 보완해 준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세 가지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전쟁의 원인을 고찰한 그의 시도는 한 가지 이미지만으로 전쟁을 분석했을 때 제기되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국제정치 현상 중의 하나인 전쟁의 원인을 인간의 본성, 국내체제 그리고 무정부적 국제정치 상태로 나눈 그의 분류는 단지 전쟁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면 첫 번째 이미지 이론이라 부르며 국내 정치체제에 초점을 맞추면 두 번째 이미지 이론이라고, 마지막으로 국제구조를 강조하는 이론은 세 번째 이미지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³²⁾ 물론 분석수준에 대해서는 기준에 많은 해석이 존재한다. 싱어와 저비스의 경우 개인과 국가사이에 관료주의 수준(bureaucratic level)을 추가해 체제, 국가, 관료주의, 개인이라는 네 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³³⁾ 로제나우(Rosenau)는 개인의 특성, 기대 역할, 정치체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비 정부적 요소와 체제적 차원이라는 다섯 단계를 제안한다.³⁴⁾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석수준이 존재한다고 해도 결국 그 분류는 월츠가 제시한 세 가지의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³⁵⁾ 이렇듯이 월츠의 이미지 틀은 출판된 지 반세기가 지난 아직

32) 이근욱 (2009), p. 30.

33) J. David Singer, "The Level-of-Analysis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14-1 (October 1961), pp. 77-92;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 15.

34) J.N. Rosenau,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in R. Barry Farrell (ed.), *Approaches to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olitics*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6), p. 43.

35) 이밖에도 분석수준에 관한 문헌은 A. Nuri Yurdusev, "Level of Analysis' and 'Unit of Analysis': A Case for Distinction,"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2-1 (1993), pp. 77-88; Martin Hollis and Steve Smith,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Clarendon, 1990); Barry Buzan, Charles Jones, and Richard Little, *The Logic of Anarchy*:

까지도 그 위상이 결코 변하지 않은 것이다.

2. 냉전분석에서 이미지 틀 적용의 유용성

기존문헌에서 보았듯 이러한 이미지 틀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틀을 통해 냉전을 설명한 시도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국제 정치 현상의 기본 분석 단위인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 전쟁의 원인을 찾고자 한 월츠의 이론적 시도는 냉전에도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석보다 훨씬 더 잘 냉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냉전 역시 다른 형태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냉전의 현상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이론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월츠의 틀을 기본으로 하되, ‘냉전의 기원에 대한 종합적 이해’라는 본 논문의 목적에 맞게 이론적 틀을 재구성하여 논지를 전개하겠다.

각 이미지의 적용 방법을 보면, 우선 제 1이미지를 통한 냉전 설명은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성향, 행위와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전 초기 사건들을 분석할 때 미소 정책지도자들의 선택은 큰 영향을 미쳤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에 큰 영향을 미친 핵무기 투하도 트루먼의 결정으로 실행될 수 있었고, 이것은 냉전사에 많은 논쟁을 가져왔다. 냉전사에 중요한 이슈인 봉쇄정책이나 마셜플랜도 그 입안자인 케난을 보지 않으면 사건에 대한 이해가 힘들다.

이와 같이 냉전을 분석할 때에 중심적인 인물들을 통하여 본다면 특정사건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나 정책결정의 원인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Neorealism to Structural Re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Barry Buzan, "The Level of Analysis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considered," in Ken Booth and Steve Smith,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oday* (Cambridge: Polity Press, 1995), pp. 198-216을 참조 할 것.

있다. 그러나 전쟁의 원인을 찾고자 할 때의 권력욕이나 이기심만으로 제 1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할 수 있다. 가령 루즈벨트의 외교를 그의 권력욕만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고, 트루먼의 핵무기 투하 역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 중의 하나인 이기심으로 전쟁원인 요인을 분석한 것을 확장시켜 여기에서는 그것을 ‘정책 지도자들의 성향’이라는 요인으로 그 분석범위를 확대시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제 2이미지 역시 냉전을 설명할 때 유용하다. 미국과 소련의 다른 정치 속성이 어떻게 냉전에 영향을 주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냉전정책의 변수로 여론이나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소련의 경우 체제속성상 그러한 변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³⁶⁾ 자유주의 체제인 미국과 전체주의 체제인 소련은 그 체제의 속성으로 인해, 국가정책을 시행할 때 각각 다른 수단과 방법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러한 다른 체제적 속성이 어떻게 냉전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 3이미지를 통해 전쟁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 월츠의 시도 역시 냉전 설명에 큰 도움이 된다. 냉전이라는 현상 역시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는 국제적 무정부상태를 배경으로 발생하였다. 미소관계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정한 대치상태였고, 두 강대국의 상호작용은 양극구조라는 국제체제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적 이미지 만으로 냉전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냉전은 상기한 국가 정책지도자들의 성향, 양 국가의 정치체제 속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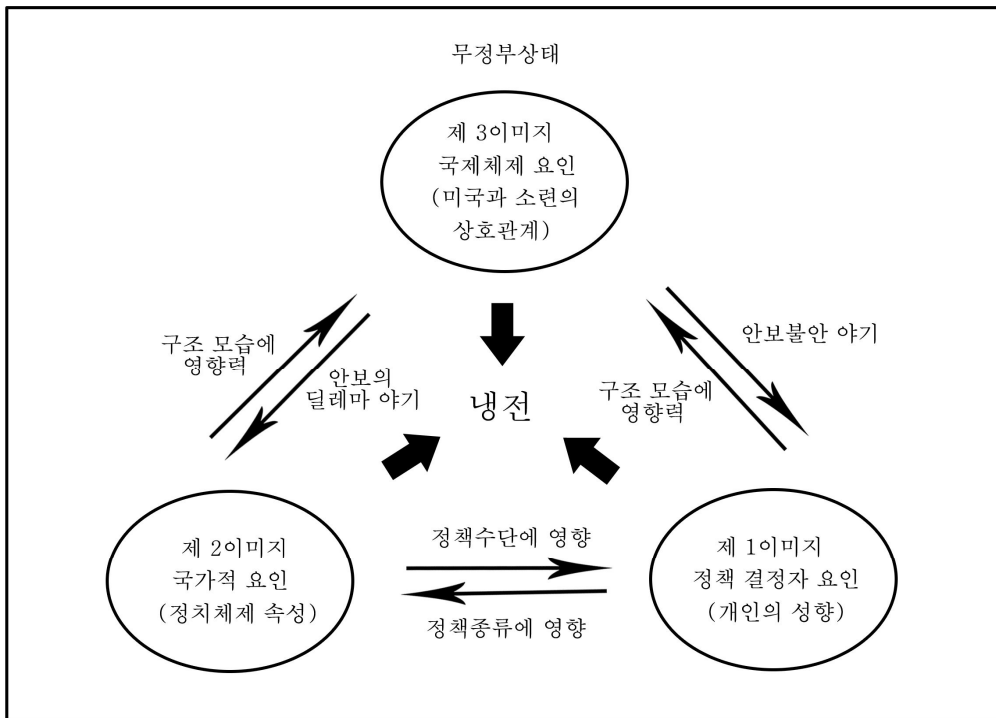
이상에서 본 것 같이, 각각의 이미지를 냉전에 적용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유용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사이의 상관관계도 설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겠다. 먼저

36)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John Lewis Gaddis,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1941-1947*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 pp. 353-361을 참조할 것.

무정부상태는 냉전을 설명하기 위한 상수(常數)로 설정한다. 개인이나 국가가 무정부상태를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건은 냉전기간 기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과 소련의 상호관계를 제 3이미지로 설정한다. 이러한 제 3이미지는 제 2이미지, 그리고 제 1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정책결정자나 양국이 행한 정책이 냉전구조의 모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제 2이미지는 국가의 속성이다. 국가가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냉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제 2이미지 역시 제 1, 제 3이미지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국가의 체제적 특성이 제 3이미지의 모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정체제에서 살아온 정책 결정자는 체제적 특성을 가진 채 정책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제 1이미지 역시 제 2, 제 3이미지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제 3이미지의 배경인 무정부상태는 정책지도자들에게 안보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고, 지도자들의 특성은 구조모습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각 이미지들이 냉전에 미친 영향과 이미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함께 보며 냉전을 분석하면, 그 설명력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림 1> 설정된 이미지들³⁷⁾



이렇게 설정된 이미지들을 통해 본 논문은 세 가지 이미지가 각 주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고,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도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세 가지 이미지가 동일하게 각 주제에 작용했는가?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그럴 경우, 어떤 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을 가지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본 논문은 역사적 사건과 이론적 연관성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한다.

37) 각 이미지 간 화살표의 방향은 영향력이 작용하는 방향이다. 또 화살표의 길이는 영향력의 정도를 나타낸다. 각 중심 주제를 향하는 검은 화살표 역시, 그 크기가 영향력의 정도를 나타냄을 미리 언급한다.

제 2 절 제 1이미지로 본 냉전의 기원

‘역사 속 사건과 그 안의 인물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월츠의 제 1이미지에 대한 설명이었다. 다른 형태의 전쟁인 냉전을 설명할 때, 이러한 제 1이미지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렇다면 냉전의 기원 논쟁에 있어 핵심적 인물로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 것인가? 본 절에서는 냉전 초기 과정의 소련과 미국의 지도자들, 즉 스탈린, 루즈벨트, 트루먼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물론 케난 같은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냉전의 기원에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이유는, 결국 국가의 정책은 최고 지도자들의 결정 후에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스탈린이 냉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하겠다.

1. 스탈린과 냉전

1) 제 1이미지의 형성

냉전의 기원에 있어 스탈린이 미친 영향을 보기 전에, 먼저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다. 소련 고리시(현 그루지야) 출신인 스탈린은 1878년 12월 6일 농민 출신의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났다.³⁸⁾ 그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다가도 그것을 즉시 바꾸는 내성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³⁹⁾

스탈린은 개인적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아 그의 성격을 파악하기는 매우

38) 로버트 서비스, 윤길순 역, 『스탈린: 공포의 정치학, 권력의 심리학』 (서울: 교양인, 2010), pp. 35-36; Isaac Deutscher, *Stal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p. 1-3.

39) Vladislav M. Zubok and Konstantin Pleshakov, *Inside the Kremlin's Cold Wa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 11.

힘들다.⁴⁰⁾ 그렇지만 그가 알콜 중독인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점, 또 그의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쓴 편지에서 친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나마 그가 마음을 연 첫 부인이 결국 의문의 자살을 했다는 점을 통해 전반적인 그의 가정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¹⁾

14세 때 신학교에 입학한 스탈린은 러시아어를 조금 습득한 후 막스와 그의 추종자들의 저작들을 비롯한 러시아 및 번역서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곧 급진적, 반러시아 사상들을 가졌던 젊은 그루지야 지식인들에게 매료되었다.⁴²⁾ 16~17세 쯤에 스탈린은 교사들이 강요하는 러시아화와 권위주의에 반발하여 비밀혁명 활동에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그는 스무 살이 되기 전 학교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았고 퇴학조치를 당한다.⁴³⁾

이러한 신학교 생활은 스탈린의 독특한 인성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⁴⁴⁾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스탈린이 신학교에 들어가 맷게 된 교우관계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다. 스탈린은 신학교 내 소수의 친구들끼리만 밀접한 교우관계를 맺었고, 또 그들로부터 충성심도 확보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후일 그가 권력투쟁을 할 때도 그대로 재연된다.⁴⁵⁾ 신뢰를 최고의 덕목으로, 배신은 가장 큰 죄악이라는 의식 속에서 그는 정적을 무자비하게 처단했다. 자신과 대립하던 트로츠키를 추방한 후 암

40) 김남섭, “그루지야의 혁명사에서 소련의 독재자로: 스탈린의 신화와 현실,” 『인문논총』 제 57권 (2007), p. 212.

41) Zubok and Pleshakov (1996), pp. 11, 20; 존 M. 톰슨, 김남섭 역,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서울: 사회평론, 2004), pp. 311-314. 또한 그의 개인적 면모를 알려주는 일화가 있다. 스탈린과 그의 당 친구 두 명이 1923년 여름 휴식을 취하며 ‘살아오면서 가장 좋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했을 때의 대답이 그것이다.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큰 기쁨은 적을 지목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여 철저히 복수 한 다음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톰슨 (2004), p. 314.

42) 톰슨 (2004), p. 312.

43) 톰슨 (2004), p. 312.

44) 김남섭 (2007), p. 219.

45) 김남섭 (2007), p. 219.

살했고, 그의 동지들 뿐 아니라 트로츠키와 아무 관계도 없는 수십만 명의 목숨도 빼앗았다.⁴⁶⁾

1901년 봄 스탈린은 전문적인 전업 혁명가로서의 삶을 시작하였고 짧은 투옥생활도 하였다. 1905년 스탈린은 레닌과 처음으로 만났고, 1912년 볼셰비키 당 중앙에 선출, 레닌을 도우며 정치를 배워나간다. 스탈린은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새 소비에트 정권에서야 비로소 서서히 중앙정치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어나가기 시작했다.

여러 정적들과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스탈린은 1924년 1월 레닌이 죽은 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올랐다. 그가 50세 생일을 맞이한 1929년 12월 소련 언론의 반응은 그가 권력의 정점에 섰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증거이다. 스탈린에 대한 찬사, 그리고 그를 돋보이게 하는 사진은 열흘간에 이르는 시간동안 신문지상에 도배되었다.⁴⁷⁾ 스탈린에 대한 찬사와 찬양은 시, 소설, 영화, 음악, 회화, 조각 등 모든 분야로 퍼졌고, 심지어 산, 호수, 도시도 그의 이름을 따서 불려지게 되는 등 ‘스탈린 숭배’는 끝없이 확산되었다.⁴⁸⁾

1936년부터 1938년의 대테러 시기 스탈린은 대규모 숙청을 시작하였고, 이 시기 그의 절대권력은 공고화된 반면, 정치국의 기능은 소멸되었다.⁴⁹⁾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그는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한 사건은 그에게 더욱 권력이 집중되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8월까지 기존의 총서기, 각료회의 의장직 뿐 아니라 국가방위 위원회 위원장, 소련군 최고 사령관, 국방 인민위원, 최고 사령부 의장도 모두 역임하게 된다.⁵⁰⁾ 이렇게 스탈린은 내부적으로는 소

46) 존 루이스 개디스, 강규형 역, 『역사의 풍경』 (서울: 에코리브르, 2004), pp. 178-179.

47) 톰슨 (2004), p. 393.

48) 톰슨 (2004), p. 393.

49) 김남섭 (2007), pp. 230-232. 또한 이 기간 스탈린의 대규모 숙청에 대해서는 서비스 (2010), pp. 534-549를 참조할 것.

련의 정치정비, 경제계획을 주도하였고, 대외적으로는 1940년대 초·중반 제 2차 세계대전을 치렀다. 또 1950년대 한국에서 발발한 6·25전쟁에도 깊이 개입했을 뿐 아니라, 1953년 사망할 때까지 소련정치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며 최고 권력을 행사하였다.

2) 스탈린의 이념적 청사진

후기수정주의자들은 냉전의 기원에 스탈린의 성격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을까. 그러나 후기수정주의자들은 스탈린의 성향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스탈린의 성격적인 측면으로 인한 냉전의 도래는 전통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그 논의는 전통주의자들의 설명과 제 4장인 ‘중소관계와 동북아 냉전의 기원’ 논의의 스탈린 부분에서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후기수정주의자인 개디스의 대표적 문헌 ‘냉전의 기원에 대한 후기수정주의종합의 출현’이란 논문에 나오는 스탈린 요인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그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⁵¹⁾ 또한 나머지 이미지들에 대한 주장도 개디스의 논지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되, 논의에 따라 다른 후기수정주의자들의 주장도 포함하여 다룬다는 것을 미리 언급한다.

냉전 초기 매우 중요했던 쟁점 중 하나는 동유럽 문제였다.⁵²⁾ 제2차 대전 중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점령했던 이 지역을 1944년부터 1945년 사이에 소련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 기간 소련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점령한 뒤, 공산화를 진행시켰다.

50) Kevin McDermott, *Stalin: Revolutionary in an Era of War* (Basingstoke [England]: Palgrave Macmillan, 2006), p. 125.

51) John Lewis Gaddis, “The Emerging Post-Revisionist Synthesis o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Diplomatic History* 7-2 (1983), pp. 171-190.

52) 냉전 초기 중요이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① 폴란드의 자유선거 문제와 동유럽 ② 소련에 대한 미국의 원조 중단 ③ 독일의 전쟁배상금 지불방법 문제 ④ 동아시아에서의 영토 분배 문제 ⑤ 핵무기 문제 ⑥ 중동에서의 군대주군 문제 Nye (2003), pp. 118-121.

전통주의자들은 이러한 동유럽의 공산화가 스탈린의 이념적 확산이라고 해석하였고, 수정주의자들은 이것을 미국의 압박에 대한 스탈린의 방어적인 태도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후기수정주의자들은 ‘스탈린의 의중에는 세계혁명을 위한 이념적 청사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⁵³⁾ 그는 스탈린이 어떤 장기간의 전략을 가지거나 소련 영역을 넘어서는 공산주의 확대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분석한다. 스탈린은 단지 전략적으로 허점이 있는 곳에서 이득을 취하려 했던, 빈틈없지만 불안정한 기회주의자였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후기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당시 동유럽의 공산화는 우연의 산물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미국 지도자들과 냉전

1) 루즈벨트와 트루먼의 다른 대(對)소관: 제 1이미지의 차이

스탈린에 대한 후기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을 탈냉전기 문서로 점검하기 전에 먼저 미국의 지도자들이 냉전의 기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후기수정주의자들은 루즈벨트와 트루먼의 대소정책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⁵⁴⁾ 루즈벨트는 개인외교로 스탈린과의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소련을 대했지만, 트루먼은 반공성향을 가지고 대소외교를 행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루즈벨트와 그의 대소정책을 살펴보자.

53) Gaddis (1983), pp. 180-181; Adam Bruno Ulam, *The Rivals: America and Russia Since World War II* (New York: Viking Press, 1971); William Taubman, *Stalin's American Policy* (New York: Norton, 1982).

54) Thomas G. Paterson, *On Every Front* (New York: W.W. Norton, 1992), pp. 119-138; *Idem*, *Soviet-American Confrontation: Postwar Reconstruction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pp. 38-43; George C. Herring, *Aid to Russia, 1941-1946*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3), pp. 30-45, 196-199; Gaddis (1972), pp. 6-7, 217-218, 283-284.

미국의 제 32대 대통령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는 1882년 1월 30일 뉴욕 하이드파크(Hyde Park)에서 태어났다.⁵⁵⁾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네 번의 연임을 한 루즈벨트는 2차대전이 시작되면서, 미국 외교정책을 고립주의 외교에서 개입주의 정책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나는 전쟁을 증오한다”는 공개적 발언처럼 그는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교전국들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나 교전국들의 선박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⁵⁶⁾ 그러나 1941년 6월 22일 나치 독일이 소련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자, 루즈벨트는 자신이 신임하는 홉킨스를 모스크바로 보내 스탈린과 회담하게 하였다.⁵⁷⁾ 스탈린은 홉킨스와의 회담에서 ‘전쟁무기 지원’을 요청했는데 홉킨스는 귀국보고에서 스탈린이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바라고 있고, 그가 세계혁명론을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루즈벨트는 장관 헨리 스티imson(Henry L. Stimson)과 재무장관 헨리 모겐소(Henry Morgenthau Jr.)에게 소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하였다.⁵⁸⁾

루즈벨트는 1941년 8월 9일 영국의 처칠과 대서양현장을 채택하여 나치 독일에 맞서기로 한다. 독일 잠수함의 미국 선박공격을 계기로 미국은 영국과 소련에 무기대여법을 적용시켜 이들을 도왔다. 또, 1942년 1월 1일에는 대서양현장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스물여섯 개의 국가들과 함께 ‘단결된 국가들에 의한 선언(Declaration by United Nations)’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을 통해 각 정부들은 나치와의 투쟁과 서명국들 간의 협력을 약속한다. 또한 1943년에 열린 테헤란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4대 경찰국가론’을 주장하며, 전후 국제관계에서 소련, 미국, 영국,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⁵⁹⁾

55) 그에 대한 자세한 연보는

<http://www.fdrlibrary.marist.edu/aboutfdr/biographiesandmore.html>를 참조할 것.

56) Stephen E. Ambrose, *Rise to Globalism* (New York: Penguin Books, 1993), pp. 1-3.

57) 김학준, 『북한의 역사(1)』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a), pp. 501-502.

58) Robert Dallek, *Franklin D. Roosevelt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32-19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280-281.

이처럼 강대국 간의 협력으로 전시상황과 전후 국제질서를 해결하려 했던 루즈벨트는 소련에 많은 군사적 지원을 하였다. 그렇지만 루즈벨트가 단지 2차대전에서의 승리만을 목표로 소련을 도우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루즈벨트는 스탈린을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의 유복했던 가정환경에서 형성된 바가 컸다.

1901년부터 8년간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을 지냈던 시오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와 같은 집안인 루즈벨트는, 일찍부터 정계에 투신해 뉴욕주의 상원의원, 지사를 역임한 뒤 대통령에 당선된 명문대가의 후예였다.⁶⁰⁾ 사회복음주의 정신이 투철한 그로턴(Groton School)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하버드대학, 컬럼비아 법대에서 수학한 그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긍정적이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⁶¹⁾ 그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정치에서는 라디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즐겼다. 그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⁶²⁾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향은 외교에도 투영되었다.

따라서 루즈벨트는 스탈린 역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⁶³⁾ 이러한 점은 그가 1933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내 보수세력, 그리고 카톨릭 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련에 대한 외교적 승인을 추진하는 점에서도 드러난다.⁶⁴⁾ 또한 1942년 3월 초 루즈벨트는 처칠에게 편지를 보

59) "Roosevelt-Stalin Meeting, November 29, 1943, 2:45 P.M., Roosevelt's Quarters, Soviet Embassy,"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이하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 530.

60) 김학준 (2008a), p. 551; 우준모, "루즈벨트의 대 소연방 외교정책: 루즈벨트 개인변수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22권 (2)호 (2006), p. 35.

61) 우준모 (2006), p. 35.

62) 루즈벨트가 라디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한 내용은 김진희, 『프랭클린 루즈벨트』 (서울: 선인, 2012) pp. 159-171을 참고할 것.

63) Michael Dobbs, *Six Months in 1945: FDR, Stalin, Churchill, Truman, and Truman-From World War to Cold War* (New York: Knopf, 2012), p. 20. 또한 스탈린에 대한 루즈벨트의 우호적인 태도는 Robert A. Nisbet, *Roosevelt and Stalin* (Washington, D.C.: Regnery Gateway, 1988), pp. 1-14를 참조할 것.

내, 미국 국무성이나 영국의 공식외교를 통해 스탈린과 대화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스탈린을 만나 설득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다.⁶⁵⁾ 이는 루즈벨트가 스탈린을 대하는 기본적인 성향을 말해준다.

또한 루즈벨트는 소련체제가 독일체제보다 덜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루즈벨트는 최소한 소련은 군사적인 방법으로 세계정복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⁶⁶⁾ 그 뿐 아니라 그는 소련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루즈벨트는 소련군이 없이는 2차대전의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⁶⁷⁾ 1942년 5월 6일 맥아더에게 보낸 서신에서 루즈벨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련군이 살상한 추축국의 병력 수와 파괴한 물자는 다른 스물다섯 국가의 전투 성과보다 많다. 따라서 미국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탄약을 소련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독일의 육군과 공군을 소련 전선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군사작전을 계획해야 한다.⁶⁸⁾

이렇게 소련의 군사력을 높이 평가하고, 소련에 대한 우호적 감정도 가지고 있었던 루즈벨트는 전후까지도 소련과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⁶⁹⁾ 그러나 전후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는 이러한 루즈벨트의 의향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건강으로 인해 루즈벨트가 사망했기 때문이다.⁷⁰⁾

64) 루즈벨트의 소련에 대한 외교적 승인 동기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주천, 『루즈벨트의 친소정책: 1933-1945』 (서울: 신서원, 1998), pp. 33-41을 참조할 것.

65) Frederick W. Marks, *Wind Over Sand*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8), p. 172.

66) 이주천 (1998), p. 217.

67) Dobbs (2012), p. 18.

68) Maurice Matloff and Edwin M. Snell, *Strategic Planning for Coalition Warfare, 1941-1942*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t. of the Army, 1953), p. 214. In Herbert Feis, *Churchill, Roosevelt, Stalin: The Way They Waged and the Peace They Sough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p. 42에서 재인용.

69) Gaddis (1972), pp. 64-65.

루즈벨트에 이어 취임하게 된 트루먼은 루즈벨트 사망 나흘 뒤, 양원합동회의에 앞선 연설을 통해 루즈벨트가 추구했던 세계평화와 진보를 위한 이상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힌다.⁷¹⁾ 그러나 루즈벨트와 트루먼은 여러모로 달랐다. 트루먼은 상원의원과 부통령직을 수행했지만 외교적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이었고, 전후 처리문제를 두고 지연외교를 폈던 루즈벨트의 정책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⁷²⁾

2) 트루먼의 반소 성향: 제 1이미지 요인⁷³⁾

트루먼과 루즈벨트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얄타협정의 합의내용을 보는 태도에서 나타났다. 트루먼은 얄타회담에서 미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여겼다. 실제로 얄타회담 이후 주소대사였던 해리먼은 트루먼에게 소련 태도의 악화 및 여러 문제점을 이야기 하였다. 그렇지만 트루먼은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자신은 결코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태도를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트루먼은 “미국이 소련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소련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⁷⁴⁾

트루먼은 특히 폴란드 문제에 있어서 스탈린과 대립각을 세웠다. 트루먼

70) 루즈벨트는 얄타회담 후 2개월 뒤인 1945년 4월 12일 오후 5시에 조지아주 워밍 스프링스(Warm Springs)의 휴양지에서 만 63세로 숨을 거뒀다.

71) Henry S. Truman, “President Truman’s Address Before a Joint Session of the Congress,” April 16, 1945. <http://www.trumanlibrary.org/ww2/stofunio.htm>(검색일: 2012년 4월 11일), 연설 전문을 볼 수 있다.

72) Walter Lafeber, Richard Polenber, and Nancy Woloch, *The American Century (Vol.2)* (New York: Alfred A.Knopf, 1986), p. 321; Athan Theoharis, “Roosevelt and Truman on Yalta: The Origins of the Cold Wa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87-2 (June 1972), pp. 224-225; Wilson D. Miscamble, *From Roosevelt to Truma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91-96.

73) 제 1이미지는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personality)에 의거한 설명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논지를 감안하여 트루먼의 성향은 제 4장에서 다룬다.

74) Henry S. Truman, *Memoirs by Harry S. Truman (Vol.1)* (New York: A Sigent Book, 1955a), p. 86.

이 알타회담에서의 결정은 소련이 루브린(Lubin)에 있는 친소정부 지지의 증식을 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스탈린은 그러한 결정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⁷⁵⁾ 이는 루즈벨트가 폴란드 문제에 대해 스탈린에게 보인 태도와 매우 다른 것이었다. 트루먼은 소련과 미국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Give-and-Take)임을 분명히 했다. 결코 소련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미국적 원칙, 전통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루즈벨트와 트루먼의 다른 대소관과 정책은 냉전의 기원을 논할 때 영향을 준 제 1이미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의 소련의 정책자들도 이러한 두 지도자의 태도에 영향을 받았는가? 만일 그러한 영향이 실제로 작용했는지 확인된다면 후기수정주의자들의 입장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전에 먼저 스탈린에 대한 후기수정주의자들의 논거를 점검해 본다.

3. 탈냉전기 살펴본 스탈린의 이념적 지도

후기수정주의자들이 ‘스탈린은 팽창정책을 이념적 청사진 없이 무계획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들이 당시 스탈린의 팽창 원인을 이념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탈냉전기에 공개된 자료로 판단해 볼 때, 스탈린의 팽창정책에는 이념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⁷⁶⁾

먼저 스탈린의 핵심 참모들의 전후 세계전략을 보면 이들은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 그리고 양 진영 국가간의 전쟁’을 예상한 공산주의적 사고를 견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44년 7월 14일 주미대사 그로미코(Andrei Gromyko)가 외무인민위원이자 스탈린의 최측근인 몰로토프에게

75) Truman (1955a), p. 87.

76) 아래 문헌은 스탈린이 이념을 어떻게 국가전략에 활용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 Zubok and Pleshakov (1996), pp. 11-19.

제출한 ‘소련-미국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라는 보고서에는 ‘미국과 자본주의 국가 엘리트층의 정치적 이념적 적대감으로 양국간에 심각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⁷⁷⁾

또한 주영국 대사 메이스키(Ivan Maisky)의 보고서에도 이러한 이념적 사고를 볼 수 있다. 메이스키는 당시 전후세계에 대해, 미국은 서구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역동적인 제국주의 요새를 구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⁷⁸⁾ 그렇지만 영국의 세력은 쇠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결국 전후세계가 이러한 영·미간의 모순에 의해 특징 지워질 것이라는 공산주의적 사고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참모들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우선적으로 영·미와의 협력을 꾀했다. 왜냐하면 전후 그의 동유럽 공산화 계획은 민족 전선 전략(National-Front Strategy)에 기반을 두고 행해졌기 때문이다.⁷⁹⁾ 이 전략은 영국과 미국을 자극시키지 않고 대중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었다. 그는 동유럽의 공산화 과정에서 영·미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의 지도자와의 회담에서 그는 반정부 정당도 수용해야 한다고 충고했으며 또한 불가리아와 소련이 영국,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⁸⁰⁾ 또한 1944년 12월 스탈린이 헝가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직접적인 방

77) "On the Question of Soviet-American Relations," 14 July 1944, AVPRF, f.6, op.6, d.603,p.45, ll.1-34. 이 보고서는 Vladimiro O. Pechatnov, "The Big Three After World War II: New Documents on Soviet Thinking about Post Wa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이하 CWIHP로 약칭) *Working Paper* No.13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May 1995), pp. 6-9에 재 인용되었다. 상기내용은 p. 8.

78) "Maisk's Memo," 11 January 1944, Archiv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f.6, op.6, d.147, ll.14, 1-40. 이 문서 역시 Pechatnov (1995), pp. 2-6에서 재인용됨. 인용한 부분은 pp. 4-5.

79) Eduard Mark, "Revolution by Degrees: Stalin's National-Front Strategy for Europe, 1941-1949," *CWIHP Working Paper* No.31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Feb. 2001); Melvyn P. Leffler, *For The Soul of Mankind: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and the Cold War* (New York: Hill and Wang, 2007), pp. 28-37.

80) Vasselin Dimitrov, "Revolution Released: Stalin, The Bulgarian Communist Party, and the Founding of the Cominform," in Francesca Gori and Silvio Pons (ed.), *The Soviet Union and*

식이 아닌 점차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라고 한 충고도 그의 이러한 전략을 잘 나타내준다.⁸¹⁾

결국, 스탈린은 점진적인 계획에 따라 유럽 지역에서의 공산주의화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 영역은 단지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뿐 아니라 그 외의 지역까지 포함한 것이었고, 그 전략은 민족전선의 탄생, 민족주의의 강조, 부르주아 민주주의(bourgeois democracy)에 대한 존중,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약속, 동맹의 공고화로 구성되어 있었다.⁸²⁾ 그는 이러한 계획의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동자들의 통합을 추구하고 이 기반 위에서 사회주의가 달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 이러한 과정은 노동자들에 대한 독재 없이도 사회주의 체제의 성공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한다.⁸³⁾

이렇게 드러난 점진적 공산화 전략을 통해 스탈린에게 이념적 청사진이 없었다고 주장한 후기수정주의의 입장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점진적 공산화전략은 후술된 스탈린의 양면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적 특성이 매우 잘 드러나는 전략이었다. 명시적으로 공산화 전략을 한 것이 아니었을 뿐, 이념적 지도 역시 그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의 일부였던 것이다.

Europe in the Cold War, 1943-53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6), p. 280.

81) János M. Rainer, “Stalin and Hungary: A General Overview of Contact, 1944-1943.” (Paper Prepared for the Stalin Conference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Yale University, 23-26 September 1999), 2. In Mark (2001), p. 17에서 재인용. 또한 다음발언은 스탈린의 전략을 명확하게 나타내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탈린은 1948년 동독 공산주의자들에게 “당신들은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zigzags)방식을 택해 사회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오”라고 말했던 것이다. Vladimir K. Volkov, “German Question as Stalin Saw It (1947-1952),” (Paper Prepared for the Stalin Conference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Yale University, 23-26 September 1999), pp. 11, 14. In Mark (2001), p. 17에서 재인용. 이런 측면에서 스탈린의 전략은 냉전기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정교했다고 해석해야 한다.

82) Mark (2001), pp. 17-20.

83) Dimitrov (1996), p. 284.

4. 루즈벨트-트루먼 차이에 대한 탈냉전기 평가

다음으로 루즈벨트와 트루먼의 차이를 지적한 후기수정주의자들의 설명을 새로운 자료를 통해 평가해보면 이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구소련 인사들은 미국 행정부의 변화로 미소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1945년부터 1947년까지 주미 소련대사였던 노비코프는 루즈벨트의 죽음이 미국의 대 소련 정책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한다.⁸⁴⁾ 그는 루즈벨트는 소련과 협력적이었다고 본 것과 달리, 트루먼은 그렇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노비코프는 특히 1945년 4월 15일에 있었던 트루먼의 첫 의회연설을 미국정책의 세계패권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것으로 보았다. 그가 1946년 본국에 보낸 전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현재 전시에 반(反)히틀러 연합에 기본을 둔 삼국 협력을 강화하려던 루즈벨트 시기와 같이 민주당 내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지만 확고한 보수적 성향의 인물인 트루먼이 권력을 잡게되었고, 국무장관으로 번즈(James Byrnes)를 임명한 것은 민주당 외교정책의 가장 보수적인 영향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동시에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위한 루즈벨트의 전철을 따르려는 인사들은 외교정책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 의회,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자 그룹 안에서 이 인사들은 점점 더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있다.....⁸⁵⁾

84) Scott Parrish, "A DIPLOMAT REPORTS," *CWIHP Bulletin* Issue. 1 (Spring 1992), p. 21.

85) AVP SSSR, f. 06. op. 8, p. 45, p. 759, Published in *Mezhdunarodnaya Zhizn'* #11, 1990, pp. 148-154. Translated for CWIHP by Gary Goldberg.

http://legacy.wilsoncenter.org/va2/index.cfm?topic_id=1409&fuseaction=home.document&identifier=952E8C7F-423B-763D-D5662C42501C9BEA&sort=collection&item=Cold%20War%20Origins&print=true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또한 "The [NIKOLAI] NOVIKOV REPORT ["TELEGRAM"]," in Ralph B. Levering, *Debating the Origins of the Cold Wa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p. 161에 부분적으로 실려 있다.

위 보고서의 내용처럼 실제로 소련은 루즈벨트와 트루먼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소련 정책자들은 트루먼이 이제까지 소련과 협조적이었던 정부 인사들을 바꾸고 새 국무장관으로 번스(James Burns)를 임명한 것도 그 후 미국 외교정책 방향의 변환을 이야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소련의 외무부장관 몰로토프 역시 트루먼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회고한다. 루즈벨트 사후 미소관계에서의 첫 대면에서, 몰로토프는 트루먼이 그에게 고압적으로 말했다고 하며, “루즈벨트는 소련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감추는 방법을 알았으나 트루먼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말한다.⁸⁶⁾ 이렇게 스탈린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보인 미국 지도자들의 성향은 냉전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탈냉전기의 자료들은 냉전의 기원에 정책결정자들이 미친 영향을 냉전기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결정자들을 통한 냉전의 기원 고찰만으로 냉전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스탈린의 경우, 그가 이념적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냉전발생의 원인을 전부 설명할 수 있는가? 또한 미국 행정부의 교체가 미소관계를 경직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원인에 트루먼의 개인성향이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냉전의 발생을 예단할 수는 없다. 이들이 냉전의 기원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인 설명일 뿐이다. 보다 완전한 설명을 위해서 제 2, 제 3 이미지의 설명도 살펴보기로 한다.

86) Albert Resis (ed.), *Molotov Remembers* (Chicago: I.R. Dee, 1993), pp. 51, 55.

제 3 절 제 2이미지로 본 냉전의 기원

1. 제 2이미지 설명: 미국의 경제적 원조정책

제 2이미지에 따른 월츠의 주장은 국가 내부의 체제나 국력이 국가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냉전의 기원에 적용해 보면 미국 혹은 소련의 국내적 요인, 혹은 국가적 요인이 냉전의 기원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기수정주의는 미국의 국내적 요인이 냉전의 기원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바로 “후기수정주의자들은 미국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충분히 귀를 기울인다”⁸⁷⁾는 것이다. 즉 냉전 초기 미국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한 것이 소련에게 어떤 자극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냉전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확한 정치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필요가 있지만, 후기수정주의의 이러한 주장에는 어느 정도 미국의 경제적인 우위를 인정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로 전후 미국의 경제력은 매우 압도적이었다. 미국의 기업들은 1947년까지 전 세계 석유 비축량의 59퍼센트를 소유, 혹은 통제하고 있었고 자동차 생산량은 프랑스, 영국, 독일의 여덟 배 였는데 1951년에는 지표상, 러시아의 6만 5천대에 비교할 수 없는 수인 7백만 대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⁸⁸⁾ 뿐만 아니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및 철강의 생산자이며 소비자였다. 1948년 미국은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의 약 41퍼센트를 생산했고, 전체 산업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담당할 정도로 경제 강국이었다.⁸⁹⁾ 후기수정주의자들은 미국이 이러한 경제적 우위를 전후 외교 협상이

87) Gaddis (1983), pp. 180-181.

88) Paterson (1973), p. 11.

89) Paterson (1973), p. 11.

나 전후 국제질서 재편에 이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후기수정주의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이 경제적인 요건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는가? 헤링은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통해 소련에게 압력을 가하려 했다고 말한다. 특히 루즈벨트 사후 대통령이 된 트루먼은 알타협정의 실행 과정에서 소련과 큰 대립을 보였는데, 이러한 외교관계의 해결을 위해 무기대여나 차관 등의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⁹⁰⁾ 실제로 1945년 4월 미국은 만일 소련이 알타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련의 재건을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터슨의 경우도 냉전 초 미국이 군사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며, 미국은 경제적 힘을 외교적 지렛대로서 활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⁹¹⁾ 그는 미국이 소련과 동유럽에 경제적 원조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것이 동유럽에서 소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노력이라고 보았던 것이다.⁹²⁾ 또한 후기수정주의자들은 마셜플랜 역시 단순한 유럽의 경제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으려는 미국의 정치적 목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보았다.⁹³⁾ 이렇게 후기수정주의자들은 경제적 요인은 등한시한 전통주의자들의 입장과 경제적 요인만을 강조한 수정주의자들의 입장이 아닌, 미국이 국가적인 목적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했다.

2. 제 2이미지 설명 2: 소련의 국내적 사정 고려

다음으로 후기수정주의자들은 소련이 동유럽에서 추구한 정책을 안보적

90) Herring (1973).

91) Paterson (1973), pp. 8-14.

92) Paterson (1973), pp. 11-12; J. Samuel Walker, "Historians and Cold War Origins: The New Consensus," in Gerald K. Haines and J. Samuel Walker (eds.), *American Foreign Relation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81), p. 216.

93) Paterson (1973), pp. 231-234; Gaddis (1983), pp. 174-175.

견지에서 바라보았다.⁹⁴⁾ 소련의 대외정책을 무제한적인 팽창 야욕으로 바라본 전통주의자들의 입장과, 소련은 동유럽에서 오직 수비전략 만을 취했다는 수정주의자들의 입장을 절충하여 받아들인 것이다.

소련은 전쟁으로 인해 산업자원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었는데 이것을 동유럽을 통해 보상받길 원했다. 소련은 독일이 대전 중에 차지한 루마니아와 헝가리의 석유 생산시설을 몰수했고,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과의 교역이 자국에 이롭다는 것이 밝혀지자, 이들 국가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⁹⁵⁾ 즉 소련에게 동유럽은 소련의 재건과 안보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었다. 후기수정주의자들은 그러한 지역에서 소련에게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한 미국에게도 냉전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⁹⁶⁾

또한 후기수정주의자들이 이러한 소련의 안보불안을 수용한 데에는 이들이 소련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한 측면이 있다. 소련은 침략이 용이한 지형적 특성⁹⁷⁾으로 인해 끊임없이 외부의 침략을 받았고, 이로 인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종전 후 전시 동맹국들 사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폴란드 문제 또한 폴란드의 지정학적 요인에서 기인한 바가 컸다. 소련은 폴란드를 외부세력이 소련으로 침투해오는 ‘통로’, 혹은 ‘소련의 사활(死活)’이 걸린 지역으로 여기고 있었고, 스탈린 역시 전시회담 중에 소련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독일이 두 번이나 폴란드를 통해 소련을 침입한 사실을 강조했다.⁹⁸⁾ 이처럼 후기수정주의자들은 소련의 전후정책을 안보

94) 차상철 (1997), p. 90.

95) Paterson (1992), pp. 175-176.

96) Paterson (1973), pp. 260-261; Herring (1973).

97) 러시아의 서쪽 국경은 수비할 수 있는 자연적인 수단, 예를 들어 해양이나 돌산, 혹은 높이나 침투하기 힘든 밀림 등이 부족하다. Arthur Meier Schlesinger, JR., "Origins of the Cold War," *Foreign Affairs* 46-1 (October, 1967), pp. 22-52. In Erik P. Hoffmann (ed.),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 (New York: Aldine Pub. Co., 1980), p. 235.

98) Paterson (1992), pp. 173-174.

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였다.⁹⁹⁾

3. 미국의 경제적 정책의 영향

후기수정주의자들이 냉전기에 주장한 제 2이미지를 통한 냉전의 발발설명을 탈냉전기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 과연 미국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한 것이 냉전의 기원에 요인이 되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

먼저 미국의 무기대여 중단은 실제로 소련에게 미국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품게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소련은 갑작스러운 무기대여법 중단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탈린은 “만약 이러한 조치가 소련에게 압력을 가하려거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면 그것은 근본적인 잘못일 것”이라고 했다.¹⁰⁰⁾ 물론 그러한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루즈벨트의 보좌관 홉킨스는 그 후 미국은 소련이 극동전략을 수행하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결코 무기대여 중단을 소련에 대한 압력으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의 반응은 그만큼 소련이 무기대여법 중단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이러한 홉킨스의 해명은 소련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미코얀은 미국이 소련에게 무기대여 중단 사안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전쟁기간 협력적이었던 양국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왜 그러한 결정을 하였느냐는 것이다.¹⁰¹⁾

무기대여법 중단이라는 경제적 수단이 미소간의 냉전기류에 어느 정도 영

99) Adam Bruno Ulam, *Expansion and Coexistence* (New York: Praeger, 1974), pp. 403-404, 420-423; Gaddis (1972), pp. 354-355.

100) Herring (1973), pp. 206-207.

101)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First Secretary of Embassy in the Soviet Union(Page),” (Moscow, June 11, 1945), *FRUS*: 1945, 5, p 1021.

향을 미쳤다면, 마셜플랜은 그 영향의 정도가 훨씬 컸다. 마셜플랜이 발표되기 3개월 전, 비록 표면상 ‘그리스나 터키의 원조’를 언급했던 트루먼 독트린은 사실상 그 연설 속에 ‘무장한 소수나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종속당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원하는 것’¹⁰²⁾이라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공산주의 세력을 막고자 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지만 탈냉전기 연구를 보면 트루먼 독트린은 생각보다 소련 지도자들에게 위기감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¹⁰³⁾ 소련은 그 선언을 이제까지 있었던 미국의 팽창주의로서 묘사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무익한 것”으로 그 의미를 한정시켰다.¹⁰⁴⁾ 그러나 마셜플랜의 경우는 달랐다. 미국은 마셜플랜에 소련도 초청했는데 소련은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미국의 패권을 위한 방책이라고 받아들여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마셜플랜 참여를 두고 벌인 협상 과정에서 소련은 동유럽에서의 영향력도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¹⁰⁵⁾

소련은 마셜플랜에 대항해 동유럽에서의 영향력을 좀 더 확고히 했다.¹⁰⁶⁾ 그 후 두 달 뒤인 1947년 9월 22일부터 23일, 소련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아홉

102) Robert H. Ferrell, *American Diplomacy* (New York: Norton, 1975), p. 643.

103) Vojtech Mastny, *The Cold War and Soviet Insecur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26.

104) Vladimir O. Pechatnov and C. Earl Edmondson, “The Russian Perspective,” in Levering (2002), p. 125.

105) 마셜플랜이 냉전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는 주장은 Mastny (1996), pp. 27-28; 김영호, “탈냉전기 냉전 기원의 새로운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2)호 (2001), pp. 445-461; John Lewis Gaddis, *We Now Know* (Oxford: Clarendon Press, 1997), pp. 31-36; Zubok and Pleshakov (1996), pp. 50-51; Scott D. Parrish and Mikhail M. Narinsky, “New Evidence on the Soviet Rejection of the Marshall Plan, 1947: Two Reports,” *CWIHP Working Paper* No.9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1994), pp. 1-51 등을 참조할 것.

106) Vladimir O. Pechatnov and C. Earl Edmondson, “The Russian Perspective,” in Levering (2002), pp. 130-131.

국가의 공산당·노동자당 대표들과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모여 회의를 열고 코민포름을 창설하였다. 표면적인 비난에 그쳤던 트루먼 독트린 때와 달리, 마셜플랜에 대한 소련의 대응은 냉전을 전세계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양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 국가들도 대결구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탈냉전기 미국의 경제적 수단 사용에 대한 후기수정주의자들의 설명은 많은 부분 입증될 수 있게 되었다.

4. 소련의 국내 정치적 사정의 영향

다음으로 소련의 안보적 목적을 어느 정도 수용한 후기수정주의자들의 입장을 살펴보자. 이들은 동유럽이 소련에게 사활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련이 팽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되, 그 팽창의 정도는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탈냉전기 연구는 소련의 팽창 기준이 민주국가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탈린은 ‘만약 처칠이 북프랑스에 제 2전선 설치를 1년만 지연시켰어도 소련군은 프랑스에 입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¹⁰⁷⁾ 즉 독일의 패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동유럽 뿐 아니라 서유럽도 장악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탈린의 소련에게 제한적인 안보불안은 설정하기 힘들었다.¹⁰⁸⁾ 따라서 소련의 안보적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고 해도, 스탈린의 높은 안보기준과 그에 따른 정책이 서방세계에 안보불안을 높여 냉전에 기여한 측면은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탈냉전기 자료는 소련의 전후 국내 정치적 사정도 소련의 동유럽에서의 영향력 공고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단지 안보적 목적을 위한 동유럽으로의 팽창이 아니라, 내부적 단속을 위한 팽창

107) “Record of Stalin-Thorez Conversation(November 18, 1947),“ in Levering (2002), p. 174.

108) Gaddis (1997), pp. 30-33.

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스탈린의 소련은 매우 억압적인 국가였다. 스탈린의 숙청은 그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지만 전쟁으로 인해 그것은 잠시나마 중단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날 때 즈음, 스탈린은 새로운 문제 앞에 놓이게 되었다. 바로 서구의 우월한 생활수준과 그들의 사고에 노출된 후 고국에 돌아오게 된 소련 난민들과 군인들로 인해, 소련이 외부적 정치적 오염(contamination)에 취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¹⁰⁹⁾

이 문제는 그 후 소련의 동유럽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소련은 전쟁이 남기고 간 서구의 영향력이 동유럽에도 흡수될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소련은 상기한 점진적 공산화 전략을 폐기하고 좀 더 급진적인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다. 1946년 말부터 1947년 초에 이르자 소련은 동유럽의 지도자들에게 이제까지 비공산주의자들을 허용했던 정책을 폐기하고 더욱 격렬하게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¹¹⁰⁾

소련의 안보적 목적을 위한 팽창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해보면 제 1이미지와 제 2이미지가 동시에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탈냉전기에 공개된 여러 자료와 연구들은, 스탈린의 안보불안이나 소련의 안보적 필요가 구별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¹⁾ 또한 소련의 국내적인 이유로 인한 팽창은 제 2이미지에 속하는 요인이 스탈린과 소련의 안보불안을 자극, 체제유지를 위한 전략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준다.

109) Mark Kramer, "Stalin, Soviet Policy and the Consolidation of a Communist Bloc in Eastern Europe, 1944-53," in Vladimir Tismaneanu, *Stalinism Revisited* (Budapest: New York, 2009), p. 72. 따라서 스탈린은 전쟁 전의 안보기관을 부활시키고 더욱 억압적인 정책을 펴 나간다.

110) Kramer (2009), p. 73.

111) Mastny (1996), pp. 11-29; Gaddis (1997), pp. 41-46, 289-294; Norman M. Naimark, *Stalin's Genocid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Zubok and Pleshakov (1996).

제 4 절 제 3이미지로 본 냉전의 기원

지금까지 냉전의 기원에 대한 후기수정주의의 주장을 제 2이미지로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제 3이미지에 의거한 후기수정주의의 주장을 살펴 볼 것이다. 상기한 것처럼 월츠는 제 1이미지인 인간과 제 2이미지인 국내정치 체제를 포괄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이 있음을 지적했다. 인간이 국내, 국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국가도 국가를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¹¹²⁾ 월츠는 국내정치와 다르게 국제정치는 무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위체가 없음을 지적한다.¹¹³⁾ 월츠의 제 3이미지는 이러한 권위체가 없는 국제정치에서의 무정부상태가 전쟁의 배경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무정부상태는 냉전의 기원을 설명할 때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배경이다. 특히 후기수정주의가 대두된 이후 이러한 무정부상태를 고려한 냉전의 기원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1. 미 제국론

후기수정주의자들은 냉전의 기원에 있어 ‘미국이란 제국’을 인정하였다.¹¹⁴⁾ 전통주의자들과 달리 수정주의자들은 미 제국의 존재를 강조하였는데, 후기 수정주의자들 역시 미국이 과거 다른 거대 제국과 경험적인 면에서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을 보인다고 하며, ‘미국은 제국’이라는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그러나 후기 수정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차이는 바로 그 제국의 성격이다.

후기수정주의자들은 수정주의자들이 제국이 방어적 이유로 일어날 수 있

112) Waltz (2001), p. 230.

113) Waltz (2001), p. 205.

114) Gaddis (1983), p. 181.

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이 제국을 태동시키는 추동력을 경제력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후기수정주의자들은 제국의 역사를 보면 “제국은 내부적 불안정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적 인식으로부터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¹⁵⁾ 제국은 제국을 부인하려 했던 측의 강제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안보를 추구하는 측의 초대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후기수정주의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당시 미국은 “초대받은 제국”이었던 것이다.¹¹⁶⁾

이들은 소련은 군사적인 힘에 의존하였기에 주변국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였지만 미국은 이와는 달리, 오히려 외부 세계에서 좀 더 활발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장려되었다고 주장했다.¹¹⁷⁾ 정리하자면 후기 수정주의자들은 미 제국이 오래된 계획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즉흥적으로, 공격적 팽창보다는 수비적 모델에 더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¹¹⁸⁾

이러한 후기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들이 바라본 당시 국제정치적 환경을 말해준다.¹¹⁹⁾ 그들은 전쟁 후 절대강자가 없던 유럽에서 소련의 팽창 움직임이 있었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그것을 자국의 안보불안으로 인식하여 미국에게 안보를 맡기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무정부적

115) Gaddis (1983), p. 181.

116) Geir Lundestad, “Empire by Invitatio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1945–1952,” *Journal of Peace Research*, 23–3 (1986).

117) Lundestad (1986), p. 263.

118) Gaddis (1983), p. 180.

119) 안보의 딜레마(Security Dilemma)라고 하는 이 개념은 1950년대 허츠(John Herz)가 자국의 안전 강화가 타국의 안전을 해치고 역으로 자국의 불안을 낳는다는 모순을 설명하며 제시한 것이다.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상)』 (서울: 아카데미서치, 2002), p. 1392. 또한 같은 시기 영국의 역사학자 버터필드(Herbert Butterfield)는 이 상호의 불안을 ‘홉스의 공포’라고 하였다.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02), p. 1392. 주지할 것은 안보의 딜레마는 미국과 소련에 대한 국가 개념에 따라 냉전의 책임을 어느 국가에게 물을 수 있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소련을 둘 다 현상유지국가(status-quo-power)로 볼 경우, 냉전의 책임은 어느 한 국가가 아닌 양국 구조에 있다. 그러나 최소한 한 국가가 현상타파국가(revisionist state)라면 그 책임은 팽창을 시도한 국가에 돌아간다. 자세한 설명은 이근욱, 『냉전: 20세기 후반의 국제정치』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2), pp. 29–30을 참조할 것.

국제정치 상황은 2차대전 이후 힘의 공백(Power Vacuum)을 야기했고, 미소의 대립구도 속에서 ‘방어적 형태의 제국’을 탄생시킨 것이다.¹²⁰⁾ 미국과 소련 어느 한 측의 책임공방을 넘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국제적 상황에서 냉전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¹²¹⁾

이와 같은 국제정치상의 무정부상태는 제 3이미지로 냉전의 기원을 볼 수 있는 타당성을 부여해준다. 냉전의 기원에 있어 앞에서 본 스탈린이나 미국의 국가적 요인은 분명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냉전이란 한 측면에 책임을 부가시키거나 필수불가결한 결정론에 의해 논의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다.¹²²⁾ 따라서 제 1이미지, 그리고 제 2이미지 만이 아닌 제 3의 이미지도 냉전의 기원에 분명한 역할을 했음을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볼 수 있다.

2. 두 개의 제국

지금까지 제 3이미지에 비추어 냉전기 냉전 기원에 대한 후기수정주의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무정부적 국제정치 상황은 2차대전 후 각 국가에게 안보불안의 상황을 가져왔고, 그러한 가운데 미국은 ‘즉흥적이고 방어적 제국’으로 탄생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탈냉전기에 이들의 논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탈냉전기 이러한 미제국론은 소련문서를 근간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미국 뿐 아니라 소련도 제국을 건설하였고 환영받길 원했다는 것이다.¹²³⁾ 즉 2차대전 후 미국과 소련은 비록 같은 종류는 아니더라도 모두 제국을 건설하였다는 것이다.¹²⁴⁾ 개디스는 “스탈린 역시 독일과 동

120) 2차대전 후의 힘의 공백을 논한 문헌은 Paterson (1992), pp. 21-40을 참고 할 것.

121) Kenneth W. Thompson, *Cold War Theories*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1), pp. 53-55.

122) Gaddis (1972), p. 360.

123) Gaddis (1997), p. 285.

유럽의 여러 곳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본에서조차도 ‘초대’를 희망하였다”고 주장한다.¹²⁵⁾ 그러나 개디스는 미국의 지위는 대중의 절대적 지지, 그리고 미국을 초대했던 정부가 정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굳건하였던 것과 달리, 소련은 그러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분석했다.¹²⁶⁾

왜 소련은 많은 국가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을까. 개디스의 분석은 그 이유를 살펴보는데 매우 적절하다. 그는 소련 군인들이 1945년부터 1946년까지의 기간 2백만명이나 되는 독일 여성을 강간했다는 내용을 소개한다.¹²⁷⁾ 이는 어느 정도 상부의 묵인 아래 자행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시기가 소련이 독일 전체의 지지를 바라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1946년 독일 지역에서의 선거에서 독일여성들은 비공산주의 후보자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포함으로서 그들의 의사를 나타냈다.¹²⁸⁾ 만일 소련군대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독일의 공산당은 큰 성공을 했을 것이라는 독일 언론인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¹²⁹⁾

이렇듯 소련의 점령정책을 둘러싼 그들의 문화는 결코 타 국가에게 환영받기 힘든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소련 지도자의 성격, 그리고 국가정책과 맞물려 냉전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대립감, 혹은 적대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비록 소련은 환영받지 못한 제국이었으나, 분명 제국이었던 것이다. 소 제국과 미 제국은 이렇게 전후 큰 두 축을 형성하며 냉전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124) Gaddis (1997), pp. 284–286.

125) Gaddis (1997), p. 285.

126) Gaddis (1997), p. 285.

127) Gaddis (1997), pp. 286–287.

128) Norman M. Naimark, *The Russians in Germany*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p. 121.

129) Naimark (1995), p. 120.

3. 핵과 냉전

제 3이미지인 미국과 소련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핵을 빼놓을 수 없다. 제2차 대전 중인 1941년 10월 독일을 견제하며 시작된 미국의 핵개발은¹³⁰⁾ 1945년 7월 16일 포츠담 회담 기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미국은 일본에 핵무기를 투하했고 전쟁의 조기 종결을 이끌었다. 문제는 미국만이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핵으로 인해 세계 힘의 균형이 깨졌고, 핵은 군사적 의미 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개디스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¹³¹⁾ 핵은 당시 미국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다.

탈냉전기 문서에 따르면 스탈린은 1946년 1월 25일 소련의 핵개발 계획 책임자 쿠르차토프(Igor Kurchatov)와의 회동에서 핵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소규모로 진행시킬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진행시키라고 지시하고 있다. 스탈린은 또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빨리 완성시키거나 저비용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과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도 약속하였다.¹³²⁾ 이것은 소련이 미국의 핵 독점에 대한 안보의 불안을 느낀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실제로 소련의 물리학자 유리 카리톤(Yuri Khariton)은 ‘소련은 미국의 핵 투하를 소련에 대한 핵 협박으로 해석했다’고 회고하고 있다.¹³³⁾

130) Gaddis (1997), p. 92.

131) Gaddis (1972), p. 245.

132) APRF, Fond 93, delo 2/47, listy 43-46.

Reprinted in L.D. Ryabev, *Atomnyi Proekt SSSR: dokumenty i materialy*, vol. 2, book 1 (Moscow-Sarov: Nauka Fizmatlit-VNIIEF, 1999), pp. 173-176. Translated by Sergey Radchenko, http://legacy.wilsoncenter.org/va2/index.cfm?topic_id=1409&fuseaction=home.document&identifier=6659E8BF-C5D2-2E2A-C8E4F9E407527833&sort=collection&item=Soviet%20Nuclear%20History&print=true (검색일: 2012년 9월 22일). 또한 쿠르차토프의 생애,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David Holloway, *Stalin and the Bom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pp. 36-41을 참조할 것.

133) Pechatnov and Edmondson, in Levering (2002), p. 105.

미국은 핵확산을 금지하는 바루크 플랜을 제안하였으나, 결국 소련은 1949년 핵개발에 성공했다. 핵 독점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신경전은 냉전이 심화되는데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핵을 만들기 위한 스파이 활동이 양국에 불신감을 가중시켜 냉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탈냉전기 연구도 존재한다.¹³⁴⁾ 핵을 두고 벌어진 미국과 소련의 대응은 이것이 냉전의 기원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준다.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소련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이것은 냉전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 5 절 탈냉전기 냉전의 기원에 대한 종합적 평가

지금까지 냉전의 기원에 관한 후기수정주의의 논거를 월츠의 이미지틀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냉전의 기원은 각 하나의 이미지만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세 가지의 이미지를 모두 사용하여 고찰하는 것이 그 전개과정을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냉전의 기원논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해 간략하게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냉전의 책임에 있어, 전통주의는 크게 스탈린과 소련책임론을 주장함으로써 제 1, 2 이미지를, 수정주의는 미국의 군사적 능력과 미 제국론에 초점을 둠으로써 제 2, 3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전통주의는 제 3이미지 요인에 대한 고려가, 수정주의는 제 1이미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상기한 이론틀로 각 학파의 주장을 재조명 하되, 전통주의의 경우 제 1, 2이미지 요인을, 그리고 수정주의의 주장은 제 2, 3이미지 요인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134) Campbell Craig and Sergey Radchenko, *The Atomic Bomb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1. 전통주의에 대한 재평가

1) 제 1이미지에 의거한 전통주의 주장과 평가: 스탈린

전통주의자들의 주장 가운데 핵심은 바로 냉전의 책임이 스탈린과 소련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탈린이 국내정치에서 보인 무자비한 숙청과 대외관계에서 보인 공격적인 행동들을 근거로, 냉전의 소련책임론을 주장했다.¹³⁵⁾ 그의 행동이 서방세계에 위협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탈냉전기 들어 스탈린의 집단학살을 나타내 주는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구소련 비밀경찰의 기록에 따르면 1930년대 초부터 1953년까지 1,600만명에서 1,700만명의 시민들이 강제노동소에 수용되었다. 그들 중 6백만의 소련 시민들은 추방당했으며 3백만은 반혁명의 죄목을 받았고 1,100만명에서 1,200만명의 소련 시민이 처형당했다.¹³⁶⁾ 또 다른 연구는 스탈린의 정책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1,700만명에서 2,2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¹³⁷⁾ 국내정치에서 유독 잔인함을 보였던 그의 행동에는 내부적 전복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깔려있었다.¹³⁸⁾ 그의 측근이었던 몰로토프는 이러한 숙청은 사실상 정권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고 회고한다.¹³⁹⁾

이러한 그의 학살은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냉전기 동안 소련에 의해 부인되었던 ‘카틴 숲 학살사건(Katyn Forest Massacre)¹⁴⁰⁾’ 역시, 탈

135) 대외관계에 있어서 1939년 8월 23일 소련이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맺고 그해 10월 핀란드를 침공한 사건들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파시스트나 공산주의 이념을 인류의 자유와 관용을 부인하는 것, 더불어 독일이나 소련 역시 국제적 침략자로서 바라보게 하였다. Les K. Adler and Thomas G. Paterson, "Red Fascism: The Merger of Nazi Germany and Soviet Russia in the American Image of Totalitarianism, 1930's-1950'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75-4 (1970), p. 1051.

136) Naimark (2010), p. 131.

137) Gaddis (1997), p. 8.

138) Leffler (2007), p. 18.

139) Resis (ed.) (1993), pp. 256, 265, 339.

140) 소련군이 폴란드 사회 지도층 2만여 명을 집단 사살한 사건. 냉전 기간, 소련은 이와 같은 사실을

냉전기 들어 “폴란드가 독립국으로 일어설 수 없도록 폴란드 엘리트의 씨를 말릴 것”이라는 스탈린의 지시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¹⁴¹⁾ 전통주의자들은 그가 국내적으로 보인 면모가 대외정책에도 투영되고 있다고 그를 비난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¹⁴²⁾ 그리고 이것은 냉전의 발생에 기여했다.

또한 세르고 베리야(Sergo Beria)¹⁴³⁾의 회고에 따르면, 스탈린은 주요 전시회담에서 미국과 영국 대표단의 침실, 그리고 회의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그 대화록을 들었다.¹⁴⁴⁾ 베리야는 과학자이자 무기 엔지니어로 군사정보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스탈린은 그를 책임자로 하는 도청단을 구성해 회의장 전반에 걸쳐 도청을 지시하고 도청기록을 자세히 작성, 아침마다 보고하게 하였던 것이다.

스탈린은 미국 참가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심지어 억양과 목소리 톤까지도 알기를 원했다. “루즈벨트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던가?”,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은 우리가 도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부인해왔다.

141) 『동아일보』 (2010. 4. 12).

142) 특히 그는 말년에 주변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점점 더 치달았다고 한다. 후르시초프의 회고에서 나온 “전후의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스탈린은 점점 더 종잡을 수 없고, 신경질적이고, 잔인해졌어요. 특별히 그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피해망상은 믿을 수 없는 차원에까지 다다랐습니다.....그는 어떤 누구, 어떤 것의 구애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스탈린의 완고함은 외교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의심과 오만함을 개인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당과 국가관계에서도 보여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은 이러한 스탈린의 성격이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잘 나타내준다. Schlesinger (1967), p. 251에서 재인용. 스탈린은 일을 맡긴 측근에 대해 어느 순간부터 의심을 시작했으며, 그 후에는 결국 처형시키곤 했다. 이와 관련된 일화들은 Nikita Sergeevich Khrushchev, Edward Crankshaw, and Strobe Talbott, *Khrushchev Remembers* (Boston, MA: Little, Brown, 1970), pp. 306-315을 참조할 것.

143) 그는 소련의 정규경찰 및 비밀경찰을 모두 관리하는 국가안전 총장관 겸 내각 부총리 겸 국가방위위원회 부위원장 라브렌티 베리아(Lavrentii Pavlovich Beriya)의 아들이다. 스탈린의 총애를 받은 라브렌티 베리아는 스탈린 사후 처형당했고, 세르고 베리야는 추방당한 후 2000년에 사망하였다.

144) Gary Kern, “How ‘Uncle Joe’ Bugged FDR?,” *Journal of the American Intelligence Professional* 47-1 (2003), p. 29.

<https://www.cia.gov/library/center-for-the-study-of-intelligence/kent-csi/vol47no1/pdf/v47i1a02p.pdf>에서 전문을 다운 받을 수 있다.

까?”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¹⁴⁵⁾ 베리아는 또 스탈린의 책상은 항상 비밀자료들과 문서들, 그리고 질문 목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며, “그렇지만 실제 회담에서 스탈린은 무관심한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⁴⁶⁾

또한 알타회담에서도 스탈린의 도청과 도청기록 검토는 계속되었다.¹⁴⁷⁾ 그는 루즈벨트와 처칠을 비롯한 영·미 대표들의 실내나 정원에서 나눈 대화록을 철저히 도청하고, 회담 전에 그것을 샅샅이 살펴보았다.¹⁴⁸⁾ 스탈린은 그의 용의주도한 성격을 기반으로 소련의 전략을 구상, 실행했고 이것은 냉전의 도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자료들은 스탈린 요인을 중시한 전통주의자들의 설명이 탈냉전기 들어서도 설득력이 있음을 말해준다.

2) 제 2이미지에 의거한 전통주의 주장과 평가: 소련의 이데올로기

소련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냉전이 발생했다는 전통주의자들의 주장은 제 2이미지에 해당된다. 전통주의자들은 후기수정주의자들과 달리 이데올로기가 냉전에 미친 영향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이념적 측면이 실제 냉전의 기원에 영향을 미쳤음은 이미 살펴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지적할 부분은 스탈린을 중심으로 이념적 영향을 바라볼 때 이는 제 1이미지에 속하지만, 이것을 소련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바라보고 서술할 때는 제 2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소련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으므로 그의 생각과 행동은 바로 소련의 정책이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갈수록, 스탈린의 국내정책과 대외정책, 심지어 그의 개인행동과 대외정책은 더욱 구별하기 힘들다”는 개디스의 설명은

145) Sergo Beria, *My Father: Inside Stalin's Kremlin* (London: Gerald Duckworth and Company, 2001), p. 93.

146) Kern (2003), pp. 30-31; Beria (2001), pp. 117-119.

147) Beria (2001), pp. 103-105.

148) Kern (2003), pp. 30-31.

시사하는 바가 크다.¹⁴⁹⁾ 그러나 스탈린이 냉전에 미친 요인이 어느 이미지에 포함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전통주의자들의 제 1, 제 2 이미지만의 해석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논거에는 구조적인 면이 포함되지 않았고, 제 2이미지에 의한 분석도 미국의 경제적인 전략은 경시하는 측면이 있었다.

2. 수정주의에 대한 재평가

이번에는 냉전기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재평가를 해보자. 수정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책임론을 개진한 것이다. 경제·군사적으로 우세했던 미국이 냉전에 큰 책임이 있고, 또한 미국이 그들의 체계를 타국에 이식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1) 제 2이미지에 의거한 수정주의 주장과 평가

전통주의자들이 소련의 이념적 특성을 냉전 도래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한 반면, 수정주의자들은 소련 정치체제의 특성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소련은 당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경제문제에 좀 더 집중했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¹⁵⁰⁾ 대표적인 수정주의자 콜코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은 강했고, 소련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약했다고 주장한다.¹⁵¹⁾ 소련은 전쟁을 일으킬 만한 여력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당시 군사적 지표를 보면, 미국은 군인의 수에서만 소련과 각각 1천 2백만으로 동률을 이룰 뿐이었지, 그 외의 다른 지표에서, 특히 1944년에는 그

149) Gaddis (1997), p. 293.

150) 2차대전 후 소련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Joyce Kolko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New York: Harper & Row, 1972), pp. 53-54를 참조할 것.

151) Kolko (1972), p. 480.

우위가 정점에 달았다고 분석된다.¹⁵²⁾ 미국의 항공기 생산은 9만 5천대에 다다랐다. 그런데 그 수치는 단지 소련만을 능가한 것이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생산 합계를 능가했다. 미국의 해군은 가장 규모가 컸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었으며, 특히 군사적 무기 중 가장 강력한 핵폭탄은 1945년 미국만이 소유하고 있었다.¹⁵³⁾ 따라서 이들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냉전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미국이 소련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¹⁵⁴⁾

수정주의자들은 경제상황이 피폐했던 소련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미국과의 대결이 아니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주의자들은 경제·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던 미국이 냉전 초기과정에서 전략적 선택권이 더 많았고, 그것으로 인해 냉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국가적 요인인 군사, 경제력의 우위를 말한 제 2이미지를 통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탈냉전기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먼저 핵 우위에 있어 당시의 소련은 실제로 압박을 느낀 것으로 나타난다. 후루시초프나 그로미코 등 구소련 관료들의 회고록에는 스탈린이 미국이 소련에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핵무기 투하를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¹⁵⁵⁾ 미국이 핵통제에 대해 소련과 공공연히 논의하려 했던 움직임에 대해 노비코브는 1945년 말에 본국에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핵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통제는) 소련과 연결된 새로운 전술을 나타낸다. 이것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한편으로 소련에게 미국

152) Lundestad (1986), p. 264,

153) Lundestad (1986), p. 264. 냉전초기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우위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은 Paterson (1973), pp. 8-14를 참조.

154) Gar Alperovitz, *Atomic Diplomacy* (London; Boulder, Colo.: Pluto Press, 1994).

155) Melvyn P. Leffler, "The Interpretive Wars Over the Cold War," in Gordon Martel (ed.), *American Foreign Relations Reconsidered, 1890-1993*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4), p. 110.

의 의지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정치적 압력으로서 핵을 사용하여 소련이 유엔과 동유럽, 그리고 그 외의 곳에서 입지를 상실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핵 강대국’ 으로서의 미·영의 공격적 특성을 완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¹⁵⁶⁾

그 후 스탈린은 이전에 비해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한다.¹⁵⁷⁾ 1945년 12월에 스탈린이 그의 심복들에게 보낸 전문에는 전후 미국과 영국을 대함에 있어 두려움을 보이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음을, 그래서 좀 더 확고하고 빈틈없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⁵⁸⁾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설사 미국이 핵을 지렛대로 사용하였다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가? 스탈린은 이미 미국의 핵개발을 알고 있었고 그의 스파이들이 폭탄 제조과정의 보안망 침투에 성공한 시도가 적어도 세 번 있었다.¹⁵⁹⁾

결국 1949년 소련도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보유시기의 문제였을 뿐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핵을 지렛대로 사용했다는 비난을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따라서 제 2이미지인 군사적 우위에 근거하여 냉전의 원인을 미국에게 부과한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불충분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156) *Archiv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USSR* (AVP USSR), f. 048g, op. 28g, p. 19, d. 1, l. 120, citing AVP USSR, f. 059, op. 15, p. 47, d. 274, ll. 202–203. In Parrish (1992), p. 21에서 재인용.

157) 존 루이스 개디스, 정철·강규형 역, 『냉전의 역사』 (서울: 에코리브르, 2010), p. 45.

158) “Stalin to “POLITBURO FOUR” Molotov, Beria, Mikoyan, and Malenkov, Ciphred Telegram, December 9, 1945,” in Levering (2002), pp. 155–156.

159) 개디스 (2010), p. 44.

2) 제 3이미지에 의거한 수정주의 주장과 평가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후기수정주의자들이 동의한 ‘미 제국론’이다. 그들은 미국을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타국에 이식시키려는 경제적 제국으로 보았고, 제국을 태동시키는 추동력을 미국의 경제적 힘에서 찾았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가적 특징이 자본주의의 확장을 위한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대표적 수정주의자 윌리엄스(William Appleman Williams)의 말로 표현하자면 ‘자본주의 확대를 위한 미국의 공세로 냉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¹⁶⁰⁾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미국의 문호개방정책(open-door policy)이 냉전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¹⁶¹⁾ 윌리엄스는 냉전을 19세기 말 이후 미국 외교의 기조로 자리잡은 문호개방 제국주의 정책의 결과로 인식하였다. 그는 문호개방정책이 ‘세계 경제정의’라는 미명으로 미국 기업들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설명한다.¹⁶²⁾ 즉, 미국이 다른 나라에 문호를 개방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그들의 정책을 타국에 이식하려 했는데, 이러한 정책에 소련이 거부감을 가졌고 그로 인해 냉전이 심화되었다는 논리이다.

다시 말해 수정주의자들의 미 제국론은 ‘미국이 자신들의 국가적 속성을 외부에 주입시키려 한 것이 냉전의 요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제 2이미지인 국가적 특성이 제 3이미지인 체제에 영향을 미쳐 냉전을 발생시켰다는 분석이고, 두 가지의 이미지가 동시에 작용한 설명이다.

이렇게 냉전기 수정주의자들은 전통주의자들과 달리 냉전의 책임을 경제

160) 윌리엄 애플맨 윌리엄스의 생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인숙, “윌리엄 애플맨 윌리엄스(William Appleman Williams)의 美國 外交史論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 pp. 9-16; 차상철, “William Appleman Williams와 미국외교사,” 『역사와 담론』 제18권 (1990), pp. 177-185를 참조할 것.

161) William Appleman Williams, *The Tragedy of American Diplomacy* (New York: W.W. Norton & Co., 2009); *Idem, The Contours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W.W. Norton, 1988).

162) Williams (2009), p. 229.

적 우위에 있는 미국에게 지우려 했다. 또한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타국에 이식시키려고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수정주의는 냉전을 보는 시각의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과 동시에 그 주장이 경제적 결정론에 의거해 있음을 비난 받았다.¹⁶³⁾ 그렇다면 탈냉전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자본주의 이식을 위한 미국의 확장이라는 주장의 경우, 그것은 미국의 목표를 경제분야에 맞춘 것이었다. 즉, 경제적 동기로 인해 미국이 2차 대전후 반소연합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레버링(Levering)은 그러한 주장이 해석적 오류라고 말한다.¹⁶⁴⁾ 물론 미국인들이 경제적인 가치를 중요시 하는 점도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 단일차원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은 미국의 행동을 분석할 때 미국인들의 정서에 대해 잘못 생각하거나 반소정서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인 이유로 다른 민주국가들에게 우호적이었다. 반면 소련에 대해서는 스탈린이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반소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수정주의자들은 이 같은 미국인들의 정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¹⁶⁵⁾

이와 같이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을 이론적으로 평가해보면 이들은 냉전의 원인에 있어 제 2이미지를 과도하게 부각시킨 측면이 있다. 제 2이미지가 제 3이미지에 미친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제국론은 앞서 살폈듯이 그러한 제국을 소련도 추구하였음을 볼 수 있었기에 이 주장의 설득력은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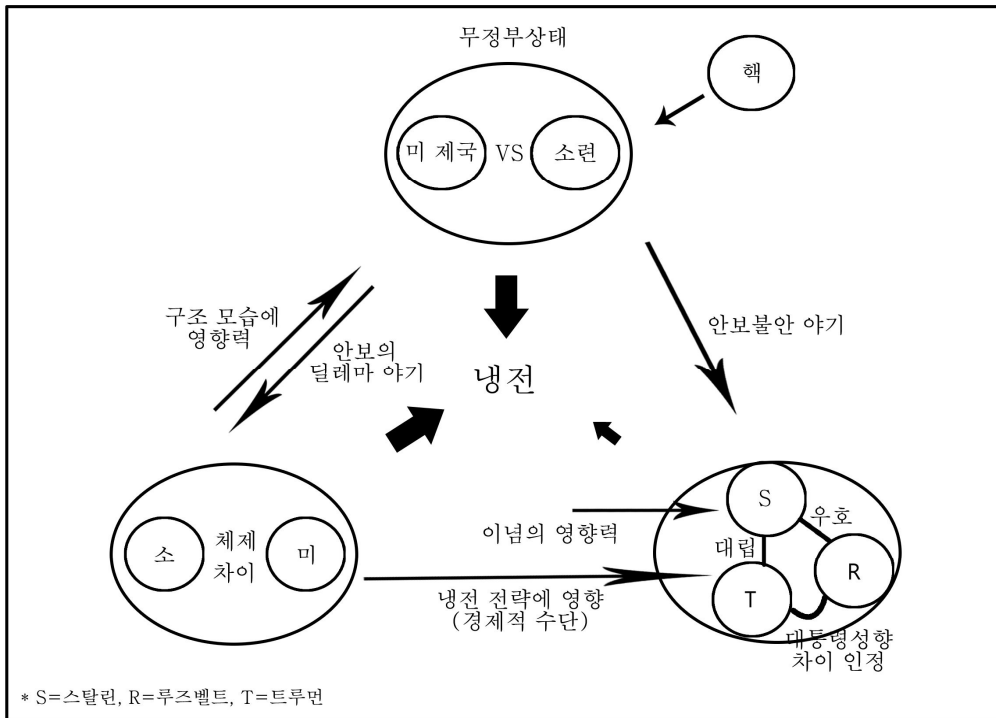
163) Thompson (1981), p. 55.

164) Ralph B. Levering and Verena Botzenhart-Viehe, "The American Perspective," in Levering (2002), p. 25.

165) Levering and Botzenhart-Viehe (2002), p. 25.

제 6 절 분석결과

<그림 2> 냉전기 후기수정주의자들의 ‘냉전의 기원’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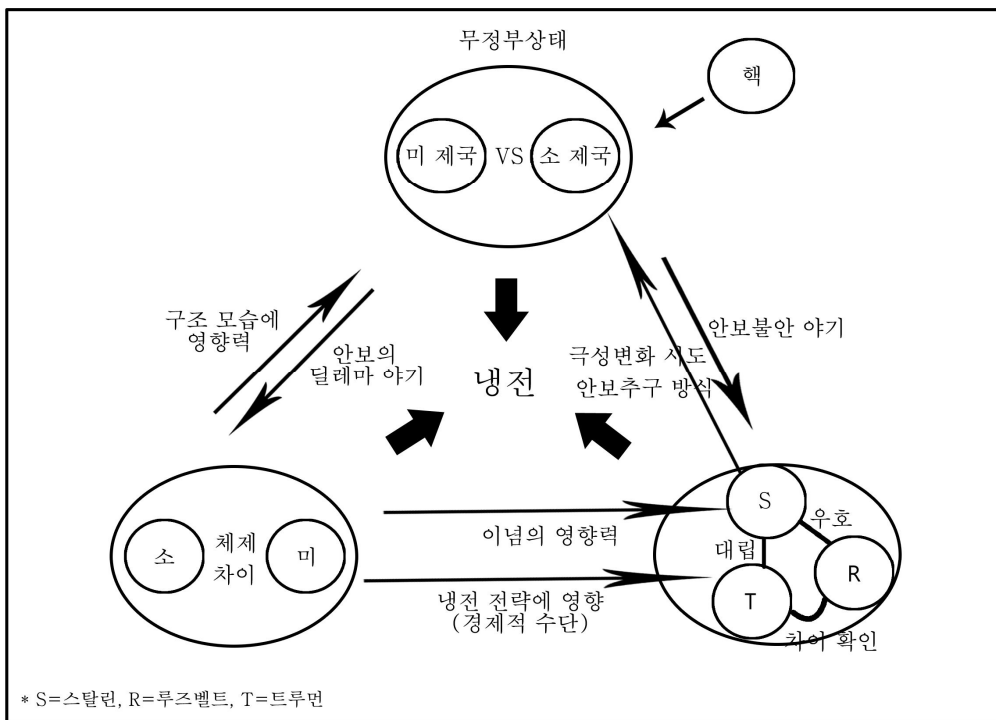


후기수정주의자들의 논의를 설정된 이미지들에 맞추어 설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이미지에 의한 설명의 경우, 후기 수정주의자들은 스탈린에게 세계 공산화의 이념적 청사진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루즈벨트와 트루먼의 대소관의 차이를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후기수정주의자들은 제 1이미지인 지도자의 성향이 냉전의 기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후기 수정주의자들은 제 2이미지에 의한 냉전의 발발을 미국이 경제적 수단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후기수정주의자들은 소련의 국내적 목적을 위한 팽창도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후기수정주의자들은 제 3이미지인 무정부상태에서 미국과 소련이 양극질서를 이루었고, 이것으로 인해 양국은 안보의 딜레마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냉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는 제 1이미지인 정책결정자들에게 안보 불안을 야기하였다. 또한 핵은 냉전의 기원에 영향을 주었다.

<그림 3> 탈냉전기 ‘냉전의 기원’ 분석결과



후기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을 탈냉전기 문서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이미지에 의한 냉전발생 설명의 경우, 비록 후기수정주의자들은 개인의 영향은 크게 다루지 않았으나,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스탈린이 냉전에 미친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냉전기의 설명과 달리 ‘공산

화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전략은 드러나지 않는 '점진적 공산화 전략'이었음이 밝혀졌다. 소련이 루즈벨트와 트루먼 행정부의 대소전략의 차이를 느끼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다음으로 제 2이미지에 의거한 설명이었던 '미국이 경제적 수단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 냉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미국의 경제적 전략이었던 마셜플랜은 냉전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 3이미지인 양극 체제하에서 미국과 소련은 모두 제국을 추구함으로써 냉전의 기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먼저 제 2이미지인 체제차이가 제 1이미지인 정책결정자들의 성향과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소련의 정책가들은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을 예상하며 스탈린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비록 스탈린은 '점진적 공산화 전략'에 의거한 팽창을 피하였지만, 기본적인 정치체제 이념이 이들에게 준 영향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제 1이미지인 스탈린의 안보불안은 소련의 팽창과 핵개발의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제 3이미지인 양극 구조의 견고화에도 일정부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제 2이미지인 전쟁 후 소련의 국내 정치적 사정은 소련의 전후 정책에도 영향을 주어 더욱 견고한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각 이미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냉전의 기원에 영향을 준 것이다.

제 3 장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동학

지금까지 살펴본 냉전 기원론에 대한 고찰은 냉전의 일반론적 내용을 이론에 적용한 것이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주제는 ‘한반도 분단의 기원’이다. 그렇다면 왜 분단의 기원인가? 분단은 식민지 기간을 끝낸 한반도에 냉전의 여파가 그대로 전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냉전체제 하에서 벌어진 국제적인 사건인 분단을 내부에서의 시각만으로 살펴보면 결코 그 원인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세 가지 이미지 틀을 통해 분단의 모습을 고찰한다면 당시의 상황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해방이 되기 전 한반도의 상황을 전시회담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제 1 절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의 전초전: 전시회담을 중심으로

1. 분단의 정의

한반도 분단은 단순히 국토가 나누어진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국제정치적 사건이다. 따라서 분단을 세 가지 이미지로 분석하기 전에 먼저 분단이라는 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¹⁾ 차기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분단은 영어로 ‘나누다’라는 뜻의 ‘divide’의 명사형인 ‘division’이다. 영어권의 학자들은 그것을 ‘divide’와 ‘partition’이라는 동사 그리고 ‘division’과 ‘partition’이라는 명사로 표현했으며, 독일어권의 학자들은 ‘trennung’ 또는 ‘teilung’ 등의 명사로 표현했다. 일본의 학자들은 한자로 분단(分斷)·분리(分離)·분열(分裂)·분할(分割) 등으로 표현했으며, 영어로 ‘division’·‘disjunction’·‘dismemberment’·‘partition’·‘secession’ 등으로 표현했다. 한민족 스스로는 때때로 ‘분할’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으나 대체로 ‘분단’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그래서 ‘분단국’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김학준, 『북한의 역사(2)』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b), pp. 1120-1121.

분단(division)이란 뚜렷한 인종적 동질성, 공통된 역사전통 그리고 오랜 정치적 통일성을 유지해 온 경험을 가진 민족국가가 **인위적으로 외부의 압력에 의해** 두 개 이상의 정치 단위로 갈라진 경우를 일컫는다.²⁾(강조는 필자)

이 정의는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오랜 기간 민족국가를 이뤄온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국제정세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한 압력으로 해방과 동시에 분할점령을 당해야 했던 현실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의에서 간과된 부분은 바로 내부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동안의 다음 정의가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단이란 하나의 영토위에서 장기간 단일의 통치체에 의해 통치되어 온 정치 단위가 **내·외적 요인들의 작용으로 인해** 토착민들의 복수의 주권적 정치단위로 분열되어 영토를 분할 지배하는 것³⁾(강조는 필자)

위의 정의를 따르면 한반도의 분단에 작용한 내외적인 측면을 모두 다 생각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의 분단은 결코 내적인 측면이나 외적인 측면만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의를 생각할 때에도 이와 같이 두 측면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⁴⁾ 그렇다면 내인과 외인은 무엇일까?

앞에서 제시한 분석틀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한다. 제 1이미지는 개인적 차원으로 정책결정자 요인이었고, 제 2이미지는 국가의 이념이나 특정 경제나 체제 등의 국가적 요인이었다. 또 제 3이미지는 무정부적 국제정치 상태, 그리고 그 안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상호관계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

2) 차기벽, 『민족주의원론』 (서울: 한길사, 1990), p. 373 각주 38.

3) 양동안,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 규명." 『정신문화연구』 제30권 (4)호 (2007), p. 142. 그는 또한 '원인'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법의학의 사인판정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양동안 (2007), pp. 142-144를 참조 할 것.

4) 그러한 분류는 김학준, 『한국전쟁』 (서울: 博英社, 2003), pp. 4-5.

지를 냉전의 기원에 적용했을 경우와 한반도 분단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냉전의 기원을 설명할 때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한반도 분단은 남한과 북한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때, 제 3이미지는 단순히 미국과 소련의 관계만이 아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남, 대북 정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 2이미지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체제적 특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아직 정부수립이 되지 않았으므로, 우선적으로는 각 지역에 진주해 있는 미국과 소련의 체제적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 1이미지의 경우, 남한과 북한에 주요 지도자가 존재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역시, 미국과 소련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상기한 이미지의 기본개념을 분단의 내인과 외인에 맞추어 볼 경우, 제 1, 3이미지는 외인에 제 1, 2이미지는 내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분단의 원인은 이 세 가지 이미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2. 제국주의 질서의 종식: 대서양 현장

해방을 맞이하기 전부터 이미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영토분쟁에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추축국 중 하나인 일본의 식민지로서 연합국들에 의해 해방되어야 할 부분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연합국의 전시 회담 중 한반도에 관한 논의는 전후 한반도의 운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윌즈는 제 3이미지를 통해 국제정치 영역에는 합법적인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없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것은 분단의 근본적인 시초,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강제로 이루어진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⁵⁾의

5)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도 부르는 이 조약은 1910년 8월 29일 공포되었고, 대한제국은 이것으로 국권

배경적 조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후 변화된 국제정치 상황에서 한반도해방의 조건으로도 작용했다. 그 후 한반도에서 전개된 상황에는 이러한 무정부적 상태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상호작용이 큰 영향을 미친다.

흔히 전후 강대국들의 한반도 처리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카이로 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한반도의 독립이 최초로 승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대서양 헌장이다.⁶⁾ 카이로 선언 역시 이 대서양 헌장의 정신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이고 이 헌장의 원칙이 식민지조선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것이기 때문이다.⁷⁾ 그렇다면 대서양 헌장이란 무엇인가?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약 2년째 되던 1941년 8월 14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은 대서양 해상의 영국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 호(號)에서 전후 양국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그 후 발표된 논의 결과를 대서양 헌장이라고 하는데, 이 헌장은 후일 국제연합의 원칙이 되었으며 소련 및 33개국의 승인을 얻었다.⁸⁾ 총 여덟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이 헌장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 해방의 국제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일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국은 어떠한 영토나 그 외의 세력 확장을 꾀하지 않는다.

을 상실했다.

6) 대서양 헌장에 관한 다양한 해석은 Douglas Brinkley and David R. Facey-Crowther, *The Atlantic Charte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를 참조할 것.

7) 김영호, “탈냉전과 38선 획정의 재조명: 동주(東州) 이용희(李用熙)의 「38線 劃定 新稿」를 중심으로,” 『국가와정치』 제16집 (2010a), p. 5.

8) 이 헌장이 발표되었을 1941년 당시, 그것은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장은 주축국에 대한 미국과 영국 사이의 연대성을 강조한 점, 전후 세계질서에 대한 루즈벨트의 월슨적 가치(좀 더 자유로운 교역, 민족자결, 군비축소, 집단안보)를 주창한 점, 제 3세계 식민지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을 자극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http://history.state.gov/milestones/1937-1945/AtlanticConf>(검색일: 2012년 10월 26일)

2. 양국은 국민들의 자유롭게 표현된 소망에 부합하지 않은 어떤 영토변화도 바라지 않는다.
3. 양국은 모든 국민이 살기 원하는 형태의 정부선택 권리를 존중한다. 그리고 양국은 **강압적으로 박탈당한 주권과 자치정부를 국민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바란다.**
6. 나치의 완전한 패배 후,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국경 내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고 또 모든 국민들에게 두려움과 궁핍에서 자유롭게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줄 평화가 확립되길 바란다.⁹⁾(강조는 필자)

나치즘의 격퇴를 목표로 하여 치러지고 있던 2차 대전 중 발표된 이 헌장의 중요내용 가운데 하나는, 제 1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과 영국이 더 이상의 영토확장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19세기형 제국주의의 종언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¹⁰⁾ 또한 한반도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 사항은 제 3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압적으로 박탈당한 주권을 그 국가국민들이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박탈당한 우리 주권을 국제적 공인 하에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

이 헌장은 식민지의 해방과 더불어 식민지 지역 주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정치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¹¹⁾ 그 후 한반도에서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은 이 대서양 헌장의 정신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리고 상기했듯이, 이 헌장이 발표된 뒤의 카이로 선언은 이 헌장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해방에 영향을 미친 세 번째 이미지를 볼 때에는 이 대서양헌장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하는 것이다.

9) <http://www.fdrlibrary.marist.edu/archives/significant.html>(검색일: 2012년 6월 13일)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10) 김영호 (2010a), p. 5.

11) 김영호 (2010a), p. 5.

3. 신탁통치 형태로의 한반도 독립논의: 카이로, 테헤란 회담

“한국민의 노예상태를 감안하여, 적절한 과정을 거쳐(in due course) 한국을 독립시킨다”¹²⁾는 카이로 선언의 내용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독립이 강대국들의 논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명시된 첫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독립의 형태였다. ‘한국의 경우, 한국인은 아직 독립국가를 운영,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보호감독(tutelage)에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강대국들에 의해 수궁되었기 때문이다.¹³⁾

비록 한국문제가 주요 의제는 아니었지만 회담 8개월 전에 있었던 워싱턴 회의에서도 루즈벨트는 한국문제가 신탁통치의 형태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1943년 3월 27일 영국의 이든(Anthony Eden)외상과의 회담에서 그는 만주와 한반도, 대만과 인도차이나문제를 언급하며 인도차이나에서는 신탁통치를 하고, 대만과 만주는 중국에게 반환하며, 한국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한 두 국가를 참여시키는 신탁통치하에 놓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¹⁴⁾

그가 실행하고자 했던 신탁통치는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되고 연합국들 중 한 개국이나 두 개국이 더 참가, 신탁통치 위원단을 구성해 독립 때까지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왜 루즈벨트는 한국을 바로 독립시키지 않고 신탁통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가?

12) “British Draft of the Communiqu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 404; “3대 연합국(미, 영, 중)의 카이로 선언문,” 『선언문』, 1943년 11월 27일자.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1_1943_11_27_0010(검색일: 2013년 4월 5일)

13) “Minutes of a Meeting of the Pacific War Council,” *FRUS*: 1943: The Conference at Cairo and Teheran, p. 869.

14)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Secretary of State (March 27, 1943),” *FRUS*: 1943, 3: *The British Commonwealth, Eastern Europe, The Far East* (Washington, D.C.: USGPO, 1963), p. 37.

먼저, 루즈벨트의 대소협력론과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전후 문제 처리방식이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주장하게 했다.¹⁵⁾ 한국에 대한 소련의 야심은 이미 중국에 의해 감지되고 있었다. 1942년 4월 장제스정부의 외교부장 송쯔윈(송자문)이 루즈벨트에게 전달한 메모에는 “소련은 시베리아 극동군 내에 두 세 개의 조선인 사단을 가지고 있으며, 만일 소련이 대일전에 참여할 경우 이들을 파견할 것”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¹⁶⁾ 곧이어 장제스 정부의 외교부 부부장 역시 유사한 취지의 각서를 미 국무부에 전달했다.¹⁷⁾ 국무부 역시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련에 대한 강경한 대처를 주문하는 건의를 대통령에게 했다.¹⁸⁾ 그런데 루즈벨트는 이러한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야심을 중화시키는 방편으로 신탁통치를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세력균형론적 시각이었다.¹⁹⁾ 이론적으로 보면, 분단은 제 3 이미지인 미국과 소련의 세력권 논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루즈벨트가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를 구상한 것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편견 때문이었다. 서양의 지배층에 확산되어 있던 사회진화론,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열등한 자를 문명화 시키려면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하나의 인종적 편견론을 루즈벨트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²⁰⁾ 미국은 이미 필리핀을 식민지로 다스렸던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필리핀에 민주주의를 훈련시켜 자치정부 제도를 이끌었듯이, 조선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15) 김학준, 『북한의 역사(1)』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a), pp. 538-539.

16) “Memorandum by the Chines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Soong),” *FRUS*: 1942, 1, p. 868.

17) 이정식, “해방전후의 이승만과 미국,”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서울: 일조각, 2006), p. 303.

18) 김학준 (2008a), p. 538.

19) 김학준 (2008a), pp. 538-539. 또한 세력균형 이론으로 한반도 분단을 분석한 글은 김계동, “한반도 분단·전쟁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1)호 (2001), pp. 345-363을 참조할 것.

20) 김학준 (2008a), p. 539.

당시 미국인들이 무작정 한국을 무능하다고 생각하여 신탁통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분명 미국도 한국의 신탁통치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자치능력을 타고 났으며”²¹⁾ 문화적 전통과 자연자원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자치능력의 부족은 근대국가에 필요한 민주적 정부, 행정·경제·기술을 관리하는 능력의 부족이며, 경쟁적이고 적자생존적인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이었던 것이다.²²⁾ 미국이 보기에 한반도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었다.

워싱턴 회의 후 얼마 되지 않은 4월, 미국과 영국은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그 후 제한된 기간 동안(for a limited period) 국제 신탁통치하에 놓인 후 독립국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²³⁾ 또한 그해 9월 루즈벨트는 친구에게 보낸 서간을 통해 ‘미국, 소련, 중국, 영국이 전후의 혼란한 세계를 당분간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²⁴⁾ 앞에서 보았듯이, 이 ‘4대 경찰국가론’은 그가 국가들 간에 힘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네 개의 강국이 전후세계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준다.²⁵⁾ 이렇게 소련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루즈벨트의 정책기조는 미소관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한반도에는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카이로 회담 하루 뒤, 회담에 참여하지 않은 스탈린과의 의견조정을 위해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이 참석한 테헤란 회의에서 스탈린은 카이로 회담에서의 성명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명을 확실하게 약속할 수는 없음을 분

21) “The people of Korea have the inherent capacity for self rule” 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2)』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275.

22) 구대열 (1995), p. 275.

23) “Memorandum by the Chief of the Division of Far Eastern Affairs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43, 3, p. 1090.

24)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to George W. Norris, Letter, 21 September 1943, Describing the Basis for Great-Power Relations in the Postwar Period,” in Michael H. Hunt, *Crises in U.S. Foreign Poli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6), p. 132.

25) Thomas G. Paterson, *On Every Front* (New York: W.W. Norton, 1992), p. 46.

명히 한다. 그러나 ‘한국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²⁶⁾

이렇게 해방 전에 이미, 한반도 문제는 강대국들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의제였다. 무정부상태의 국제무대에서 전시 동맹국들의 전후 식민지 처리문제는 식민지 국가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제 1이미지인 정책결정자(루즈벨트)가 분단에 미친 영향을 볼 수 있다. ‘루즈벨트 특유의 낙관적 세계관’은 한국 신탁통치 주장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분단의 시초를 제공하였다. 이 신탁통치문제는 해방 후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된다.

4. 얄타회담에서의 한반도 논의

1945년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약 2주간 열린 얄타회담은 전시 회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비록 한반도 의제가 주요의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담에서의 논의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카이로 회담에서 한반도의 신탁통치 기간은 40년으로 논의되었지만 이 회담에서 그 기간은 다소 줄어든다. 얄타회담 중 루즈벨트와 스탈린은 처칠을 배제한 채 양자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이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미국이 했던 필리핀에서의 ‘신탁통치경험’을 언급하며, 필리핀에서는 50년이 소요되었지만, 한국 같은 경우 20년에서 30년이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²⁷⁾ 그렇지만 스탈린은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답했다.

미국과 소련의 탁치기간 문제 뿐 아니라 과연 어느 나라들이 한반도의 군

26) “Roosevelt-Churchill-Stalin Luncheon Meeting (Nov. 30, 1943),” *FRUS, 1943: The Conference at Cairo and Teheran*, p. 566.

27) “Roosevelt-Stalin Meeting (February 8, 1945),” *FRUS: 1945: The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Washington, D.C.: USGPO, 1955), p. 770.

사점령에 참여해야 하는가도 문제점이었다. 앞서 루즈벨트와 스탈린의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탁치참여 문제를 영국에게 권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만일 소련이 한국을 점령할 경우 만주와 북중국에서의 소련 영향력 확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국들은 다음과 같은 합의를 보았다.

- 1) 중국과 소련은 한국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한국에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 2)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은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약속 한 바 있다.
- 3) 단일 세력에 의한 한반도 점령은 심각한 정치적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²⁸⁾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공유되는 곳이었다. 한반도가 특정국가에 속하게 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즉 ‘세력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강대국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 딜레마의 해결이 보장되지 않는 한, 통일된 한반도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은 동의되었다. 만약 신탁통치가 과도 국제 관리(interim international administration)로서 계획된 국제조직에 의해 설립된다면, 그 조직은 원칙적으로 한국에 이익을 가진 미·영·중·소가 그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⁹⁾ 또한 카이로 회담에서의 합의처럼 신탁통치 기간을 거쳐 독립된 나라를 세우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논제가 이 회담에서 다루어졌다. 과연 소련의 대일전 참

28) “Post-War Status of Korea: Briefing Book Paper, Inter-Allied Consultation Regarding Korea: Summary,” *FRUS: 1945: The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p. 359.

29) *FRUS: 1945: The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p. 360.

여가 한반도 통치 참여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가, 아니면 비록 소련이 대일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련의 전통적인 한국에서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신탁통치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³⁰⁾ 결국 이 회담에서 소련은 대일전 참전을 약속했고 이것은 후일 한반도의 미소지분과 관련된 여러 논란거리를 남겼다.³¹⁾

5. 포츠담 회담에서의 한반도 논의

알타회담 이후, 그리고 2차 대전 종식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인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미·영·소 지도자들은 독일의 포츠담에 모여 전후문제를 최종적으로 논의하였다. 앞서 본대로 미국은 행정부가 교체되어 트루먼이 이 회의에 참여했다. 7월 16일, 육군장관 스티븐슨은 4개국에 의한 한국의 신탁통치를 건의하였다.

저는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 문제가 알타에서 구두로만 논의되었고 공식적인 의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국제적 신탁통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시간동안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국가를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대통령(루즈벨트)의 견해였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 소련은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동의했지만 그 이상의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탈린이 어떤 외국군대의 한국 주둔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국제적 신탁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련은 이미 훈련받은 한 개 혹은 두 개 사단으로 한반도를 지배하고 이것은 독립된 국가보다는 소련이 지배하는 지방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폴란드 문제를 극동으로 이식시킨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신탁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0) *FRUS: 1945: The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pp. 360-361.

31)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결국 한반도 문제를 신탁통치에서 분단으로 변질시켰다는 주장은 이용희, “38선 劃定 新攷,” 이용희, 『李用熙 著作集1』, (서울: 민음사, 1987), pp. 11-63을, 이 논문에 대한 재조명은 김영호 (2010a), pp. 1-25를 참조할 것.

저는 적어도 상징적인 규모의 미 육군과 해군이 신탁통치 기간에 한반도에 진주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³²⁾(강조는 필자)

위의 제안을 보면 스티븐슨은 소련이 그전의 회담에서 동의된 ‘4개국에 의한 한반도 신탁통치’를 이행하지 않고 한반도를 소비에트화 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얄타합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폴란드의 공산화문제가 이곳 한반도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제안을 보면 당시 미국은 신탁통치에 관한 얄타에서의 구두합의를 무시하고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까봐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아주 짧게 언급되고 끝났다. 트루먼이 신탁통치에 대해 영국과 소련의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영국과 소련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던 것이다.³³⁾ 이 자리에서 소련은 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식민지를 거론하였는데 이에 대해 영국의 이든 외상이 소련이 영국의 세력권을 원하는 것이냐고 거세게 대응한다. 그에 당황한 소련측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몰로토프[스탈린] : (나는 꼭 당신들의 세력권인 이탈리아 식민지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3거두가 합의한 원칙에 부합하는 다른 지역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요, 예를 들어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얘지요.³⁴⁾

32) “The Secretary of War (Stimson) to the President,” *FRU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 of Berlin, 1945*, 2, p. 631.

33) 이완범, 『38선 획정의 진실』 (서울: 지식산업사, 2001), pp. 114-121.

34) 이완범 (2001), p. 116에서 재인용. 이완범은 7월 22일 회의록을 톰슨 회의록과 코헨노트를 보완본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톰슨회의록이 코헨노트보다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톰슨 회의록은 *FRU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 of Berlin, 1945*, 2, pp. 252-256을 코헨노트는 *FRU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 of Berlin, 1945*, 2, pp. 264-266을 참조하며 볼 것.

위 소련의 반응은 한반도 문제의 토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영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³⁵⁾ 사실상 포츠담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중요하게 거론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다음날의 회담에서도 신탁통치 문제는 이탈리아로부터 식민지를 박탈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각국정상들에게 있었을 뿐이고 한반도 논의는 없었다.³⁶⁾

당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점령계획은 모호한 상태였다. 24일 제 2차 미·소·영 참모총장 회담에서 안토노프 장군은 마셜장군에게 “만약 소련군이 한반도에 공세를 취하게 되면 미국이 한국 해안에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이냐”고 묻자, 마셜은 그러한 상륙작전은 가까운 미래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³⁷⁾ 한반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은 규슈상륙 이후에나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³⁸⁾ 회담이 끝날 때쯤 안토니프는 마셜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 것을 감사하며, 그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것이라고 대답했다.³⁹⁾

이 대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먼저, 사실상 미국이 소련에게 그들이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이다. 소련은 이날의 대화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를 소련의 영향권으로 인정했다고 속단했을 것이라는 것이다.⁴⁰⁾ 반면 이 대화를 통해 소련이 한반도에 대한 계획에 더 소극적이 되었다는 해석도 있다.⁴¹⁾ 그러나 분명한 것

35) 이완범과 에릭 반리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완범 (2001), p. 116; Erik Van Ree, *Socialism in One Zone* (Oxford England: Distributed in the US and Canada by St. Martin's Press, 1989), p. 46.

36) 7월 23일의 신탁통치 논의는 *FRU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 of Berlin, 1945, 2*, pp. 281-285를 참조할 것.

37) “Joint Chiefs of Staff Minutes,” *FRU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 of Berlin, 1945, 2*, p. 351.

38) *FRU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 of Berlin, 1945, 2*, p. 352.

39) *FRU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 of Berlin, 1945, 2*, p. 352.

40) Robert M. Slusser, “Soviet Far Eastern Policy, 1945-50: Stalin's Goal in Korea,” in Yonosuke Nagai and Akira Iriye,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pp. 134-135.

은 해방되기 전에 있었던 회담 속에서 한반도는 즉각적인 독립이 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1945년 8월 6일과 8일 미국은 일본에 원폭을 투하했고, 8월 9일 소련은 알타회담의 합의대로 대일전에 참여하며 한반도로 남하하기 시작한다. 이제까지 분단의 배경적 조건인 전시회담에서 강대국들의 한반도 논의를 살펴보았는데, 본격적으로 제 1이미지를 통해 한반도 분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2 절 제 1이미지로 본 한반도 분단: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지금까지 강대국들이 전시회담에서 한반도의 독립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분할통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사국이었던 한반도 구성원들이 주요 정책결정에 개입하거나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적었다. 그러나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한반도 해방과 분단통치를 내부구성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할 수는 없다. 일제 식민지기간 수많은 한반도의 독립 운동가들은 치열하게 일제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투쟁 하였고, 그 영향이 해방과정에서 빛을 보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냉전기 제 1이미지를 통한 분단의 원인론을 남한과 북한의 대표적 정치인 이승만과 김일성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⁴²⁾ 그렇다면 왜 이승만과 김일성인지 그 이유를 보겠다.

먼저 이승만의 경우, 해방 정국에서 대중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당시 이승만만큼 고른 인지도를 가진 인물은 찾기 쉽지 않다. 1946년 7월 23일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행인 6천 671명 가

41) Ree (1989), p. 50.

42) 이승만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이승만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사이트 주소는 <http://www.syngmanrhee.or.kr/>, <http://syngmanrhee.yonsei.ac.kr/?mid=index>

운데 1천 916명(29%)이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⁴³⁾ 김구는 11퍼센트로 2위를, 김규식과 여운형이 각각 10 퍼센트로 그 뒤를 따랐다. 김규식, 여운형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정치인이었고, 김구 역시 해외에서 명망있는 독립 운동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이들보다 더 높은 이승만의 지지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대중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대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였기에 그 행동과 발언은 대중적인 영향력 면에서 훨씬 유리한 면이 있었다.⁴⁴⁾

다음으로 그동안 그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그를 통하여 분단의 원인을 살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준다. 건국 60년이 지난 지금, 이승만처럼 평가가 나뉘는 인물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분단 대통령’과 ‘건국 대통령’ 으로까지 양분된다. 그러나 이승만은 해방 후 박헌영과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에서 주석으로 추대된 명실공히 당시 좌우세력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⁴⁵⁾

그렇지만 그는 결국 좌익세력과 결별하고 우익을 이끌어간 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도대체 이러한 과정이 왜 발생하였는가? 좌우를 망라한 그의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길,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면 분단의 기원을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련붕괴 후 그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 역시 제 1이미지에 해당하는 인물로 이승만을 꼽을 수 있는 이유이다.

43) 『동아일보』, 1946년 7월 23일자.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np_da_1946_07_23_0350(검색일: 2013년 6월 14일)

44) 이승만이 이렇게 높은 인지도를 가지게 된 데에는 그가 태평양 전쟁시기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라는 단파방송을 통해 독립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파방송은 여론 주도층인 좌우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한편으로는 그의 ‘신화화’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 정병준, 『우남이승만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2005), pp. 399-401.

45) 정병준 (2005), p. 169.

다음으로 김일성을 한반도 분단에 있어 중심인물로 뽑을 수 있는 이유는 이승만이 남한에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김일성도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 1대 내각 수상으로 선출되어 북한을 통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1인 통치체제를 구축하여 반세기 가량 북한 최고 권좌에 있었다. 과연 그가 어떻게 북한지도자가 되었는지 살펴본다면 분단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의 평가 역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북한의 경우 극단적으로 김일성에 대한 찬사를 해 왔으며, 남한에서는 그에 대한 비판만을 했다.⁴⁶⁾ 그러나 1980년대 후반들어 점차적으로 김일성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기존 주장에 대한 오류나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⁴⁷⁾ 이러한 경향은 탈냉전기 들어 새로운 문서의 공개에 따라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분단과정에서 그의 행적이 밝혀짐에 따라 분단에 작용한 그의 영향력을 좀 더 자세히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의 대표적 정치인을 통해 분단의 기원에 대해 살펴본다면 제 1이미지 요인이 분단에 미친 영향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승만의 성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이승만의 제 1이미지 요인 형성: 초기 활동

이승만⁴⁸⁾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에서 출생한 양녕대군의 후손

46) 북한의 경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력사연구소, 『조선노동당 력사』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 1979). 이명영의 경우에는 가짜 '김일성론'을 주장하며 그의 무장투쟁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명영, 『金日成烈傳』 (서울: 新文化社, 1974).

47) 대표적 연구로 이종석, "북한지도집단과 항일무장투쟁," 『해방전후사의 인식 5』 (서울: 한길사, 1989), pp. 35-156; 스칼라피노·이정식(공저), 『한국 공산주의운동사』 (서울: 돌베개, 1987); 서대숙, 서주서 역, 『(북한의 지도자)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48) 이승만의 생애를 단지 몇 줄로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가 미국에서 활동했던 기간은 제외하고 초기생애와 해방 후의 행보를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그에 관한 연보는 오영섭,

이다. 6대 독자로 태어난 그는 어머니가 용꿈을 꾸고 태어났다고 하여 아명이 승용(承龍)이었다.⁴⁹⁾ 그러나 그는 두 살 때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평생 서울사람으로 통했다.⁵⁰⁾

1895년 4월 2일 이승만은 배재학당에 입학했다. 이승만은 영어에 특출한 재능을 나타냈는데, 입학 6개월만에 신입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조교가 될 정도였다.⁵¹⁾ 그는 배재학당에서 발행하는 학생신문 <협성회회보>의 편집장을 맡고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했다.

당시 조선은 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1894년의 청일전쟁, 다음해 벌어진 명성황후 시해사건, 그리고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俄館播遷)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적응하지 못했던 조선의 모습을 보여준다. 1896년 이승만은 독립협회에 들어갔다. 독립협회는 근대적 사회정치 단체였고 처음에는 고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적 성향의 독립협회는 정부의 외세의존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1897년 가을에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租借)요구가 제기된 이후 독립협회는 급격히 반러, 반제국주의 노선을 추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승만은 친러성향의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다.⁵²⁾

독립협회가 이렇게 반정부 단체가 되자 고종도 이들을 더 이상 신임하지 않았다. 정부 내 친러파들은 이 틈을 타 반정부 세력제거를 목표로 한 황국협회(皇國協會)를 조직, 독립협회 시위대를 탄압하였다. 당시 『독립신문』에 반정부 논조로 글을 쓴 협회창시자 서재필⁵³⁾은 국외추방까지 당하게 되는

“이승만연보,”(2012)를 참조 할 것.

<http://syngmanrhee.yonsei.ac.kr/files/chronology.pdf>(검색일: 2012년 9월 22일)

49) 로버트 올리버, 황정일 역, 『이승만』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p. 17.

50) 이주영, 『(우남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서울: 김&정, 2008), p. 41.

51) 이주영 (2008), p. 43.

52) 김용직, “이승만의 『독립정신』 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 송복 외,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p. 90.

53) 서재필은 1884년의 갑신정변의 주도자이다. 그는 정변실패 후 일본을 거쳐 미국에 가서 한국

처지가 되었다. 이승만의 투옥도 이러한 반정부 활동 중에 일어났다. 그 역시 중추원 첫 회의에서 일본에 있는 모든 정치 망명객의 사면과 박영효(朴泳孝)의 중추원 의장 등용을 제안하다 1899년 투옥되고 만 것이다.

이승만은 5년 7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는데 이 수감생활은 여러모로 이승만을 변화시킨다.⁵⁴⁾ 그는 감옥에서 종교를 받아들였고,⁵⁵⁾ 유명한 『독립정신』을 비롯한 10여권의 책, 그리고 80여편의 신문이나 잡지논설을 집필하였다.⁵⁶⁾ 이승만은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이루어진 일부 정치범들에 대한 석방조치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출옥 후 이승만은 1904년 11월 4일 29세의 나이로 신분을 숨긴 채 인천항을 떠났다. 그는 고종황제의 밀사자격으로 워싱턴의 주미공사관에 보내는 정부 훈령을 가방 밑에 숨기고 미국으로 향했다.

이승만은 비록 고종의 밀사자격으로 미국을 갔지만 고종에 대한 감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는 고종을 ‘유악하며 세계정세에 몽매한’(weak and ignorant of the world situation) 임금으로 파악하였고,⁵⁷⁾ 떠나기 전 민영환의 주선으로 고종을 만날 기회도 거절했다.⁵⁸⁾ 이승만은 고종이 나라를 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⁵⁹⁾ 또한 1905년 7월 12일자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진정서에서 이승만이 자신을 고종황제의 대표가 아닌 1천 2백만 한국

인 최초로 의학박사가 되었는데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개화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중추원 고문자격으로 1895년 귀국했다.

54) 이정식, 권기봉 역,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청년시절』 (서울: 동아일보사, 2002), pp. 98-101, 189-196.

55) 이승만은 감옥에서 하느님을 만났다고 고백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문득 배재학당에서 들은 예배가 생각났고, “하느님, 내 나라와 내 영혼을 구하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다. 올리버 (2002), p. 65.

56) 유영익, 『젊은날의 이승만 : 한성감옥생활(1899-1904)과 옥중잡기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p. 153.

57) 올리버 수집, 이정식 소장문서, Syngman Rhee, “Connection or Relation between Christian Missions and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p. 5. In 유영익 (2002), p. 223에서 재인용.

58)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서울: 중앙일보사, 1996), p. 38.

59) 이정식 (2002), pp. 222-223.

백성의 의견을 대변하는 8,000명 하와이 교포의 대표로 자처 한 것도 그가 고종을 경시하였다는 증거이다.⁶⁰⁾

이승만은 도미 후 학업에도 열중했는데 그 결과 5년 반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결과를 얻었다.⁶¹⁾ 그러나 결국 1910년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이승만도 식민지 국민이 되고 만다. 그 후 그는 본격적으로 외교독립론을 주장하며 독립운동에 매진했지만 그 노력은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1941년 그는 임시정부의 '주미외교 위원부' 위원장 자격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에 대항한 한국인들의 투쟁 상황을 설명하고 임시정부의 승인과 무기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다.⁶²⁾ 그러나 같은 해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은 한국 독립의 가능성도 커졌다고 생각했고 임시정부 승인을 위해 더욱 노력하였다.⁶³⁾

1942년 3월 1일 3·1절을 기념한 한인자유대회에서 그는 한국인의 독립을 위한 임시정부 승인과 무기지원을 호소하고 6월 13일에는 미국의 소리(VOA)단파방송을 통해 고국동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⁶⁴⁾ 그해 11월 말, 이승만은 중국 외교부 차관 빅터 후로부터 임시정부의 목표를 문서

60) 유명익 (2002), p. 223. 이 진정서는 유명익 (2002), pp. 224-227에서 볼 수 있다.

61) 그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이고 1912년 Princeton University에서 출판되었다. 2004년도에 관악사에서 재출판 되었고, 이미 2000년도에 번역서도 소개되었다. Syngman, Rhee,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Seoul: Kwanksa, 2004), 이승만, 『이승만의 진시중립론: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서울: 나남, 2000). 그의 논문은 미국 대학에서 교과서로 쓰일 정도로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 이승만은 이 논문으로 '교역에서의 중립의 대가'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독창성으로 프린스턴 대학 당국은 역사학·정치학·법학 세 개 부서에서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기로 했다. 최정수, "이승만의 『미국의 영향 하에 성립된 중립론』 과 외교독립론," 송복 외 (2011), p. 127.

62) 이주영 (2008), p. 89.

63) 이승만은 1941년 『일본, 그 가면의 실체를 벗기다』 라는 책을 출판했다.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12월 7일 실제로 진주만 사건이 발생했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Rhee Syngman, *Japan Inside Out* (New York : London and Edinburgh, 1941).

64) 이주영 (2008), p. 90.

로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승만은 답변서에서 한국인들은 대서양 현장의 자유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썼다. 한국인들은 해방이 되면 자유선거를 통해 국가를 세울 것이며, 그 국가는 극동에서 완충국 역할을 하게 됨으로서 동양의 평화유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승만은 같은 내용의 서한을 코델 헬 국무장관에게도 보냈다. 이 서한에는 “만일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전쟁이 끝났을 때 한반도에 공산정권이 수립되는 불행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⁶⁵⁾ 그렇지만 결국 해방 전, 그리고 후에도 임시정부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의 독립운동활동은 식민조선의 국민들에게 그의 명망을 알려지게 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서두에서 밝힌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그가 행한 독립운동의 결과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해방 전까지 형성된 이승만의 성향 중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1)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지향

우선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배재학당에 입학하며 배운 서구식 교육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이승만에게 큰 자극을 준 것은 자유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제도였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호를 갖는다’라는 내용이나 ‘모든 사람은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의 주장은 군주제와 신분제밖에 모르던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⁶⁶⁾ 또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방식 역시 그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군주제 방식과 달리 그것은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 다수결로 합의를 도출하는 원리였기 때문이다.⁶⁷⁾

65) 이주영 (2008), p. 96.

66) 이주영 (2008), p. 44.

이승만은 이러한 합의 도출 방식의 성과를 독립협회 활동을 하며 체험할 수 있었다. 당시 협회 간부 17명이 체포된 사건을 만민공동회를 통한 지속적인 석방요구를 통해 관철시켰던 것이다. 이승만은 이 사건을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다.⁶⁸⁾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그의 긍정적 인식은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민주정치 제도를 미국, 프랑스 및 부강한 나라에서 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민주정치제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⁶⁹⁾ 물론 이승만은 이러한 제도가 바로 조선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먼저 그 안의 구성원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우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감옥에서 더욱 미국식 민주정치체제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⁷⁰⁾ 또한 석방 후 미국에서의 학업과 생활 속에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몸에 익히면서 그러한 사고를 더욱더 굳히게 된다. 제 1이미지인 지도자의 성향 중,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향은 그의 활동을 통해 형성되게 되었다.

2) 반공·반소 사상의 형성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그의 성향은 강력한 반공·반소 사상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게 된 것과 대조적으로 공산당, 그리고 소련에 대해서는 반대의 성향이 형성된 것이다.

67) 올리버 (2002), p. 41.

68) 최종고(편저), 『우남 이승만 : 독립, 자유, 민주를 외치다』 (파주 : 청아, 2011), p. 33.

69) 이승만, “세 가지 정치구별,” 리승만, 『독립정신』 (서울: 정동출판사, 1993), p. 78. 또한 이승만은 이 글에서 후일 그가 선호한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인군이 아닌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결코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닌, 관원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섬기는 것이 민주정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가장 선미한 제도로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미국식 제도가 우수하다는 인식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70) 이승만, “백성의 마음이 먼저 자유할 일,” 리승만 (1993), pp. 112-130.

그의 반공주의의 시작은 반러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이 반러인식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지식인, 위정자들에게 널리 퍼진 고정관념이었다.⁷¹⁾ 한국에는 이미 1880년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을 통해 유입되었던 이 고정관념을 이승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유영익은 이에 덧붙여 이러한 이승만의 반러주의가 그가 감옥에서 ‘러시아 피터 대제의 유언’을 읊길 때 뇌리에 인각(印刻)된 것이라고 설명한다.⁷²⁾ 이미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 태동된 반러인식이 ‘러시아 피터 대제의 유언’을 접한 감옥에서 더욱 확고해 진 것이다.

러시아의 피터대제가 유언으로 남긴 이 글은 첫 부분에 “러시아는 반드시 늘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여 전쟁하는 일로써 담략(膽略)을 훈련시켜야 한다. 잠시라도 전쟁을 중지하는 것은 군량미(軍糧米)가 부족할 때에 한하여야 한다.....”⁷³⁾고 쓰여 있을 정도로 러시아의 팽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피터대제는 이 글에서 러시아가 팽창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반드시 멸망시켜 분할하되 전 국토를 얻고자 할 때에는 이웃나라의 손을 얻어야 한다”⁷⁴⁾는 식으로 구체적인 국가를 언급하며 러시아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 중 ‘러시아 정치내력’이라는 장에서 피터대제의 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⁷⁵⁾

.....이 인군(피터대제를 칭함)이 평생에 각국을 병탄(併呑)할 욕심이 있어 사방으로 토지를 널리 확장하고 마침내 장생(長生)할 계책이 없어 욕심을 채우

71) 유영익 (2002), p. 156.

72) 유영익 (2002), p. 156. 이 ‘러시아 피터대제의 유언’은 유영익, “우남 이승만의 「옥중잡기(獄中雜記)」 백미(白眉),” 『인문과학』 제80권 (1999), pp. 56-58에 번역, 수록 되어 있다.

73) 유영익 (1999), p. 56.

74) 유영익 (1999), p. 57.

75) “러시아 정치내력,” 이승만 (1993), p. 144.

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줄 먼저 생각한 지라 미리 열네 조목 유언을 지어 깊이 간수하고 그 후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유전하며 비밀히 감추고 형편을 따라 본떠 행하라 하였나니, 그 중 대지가 강한 나라와 먼저 합하여 적은 나라를 나누어 없이 하고 그 후에는 틈을 타서 그 나라를 마저 쳐 없애며 자유하는 나라에는 혼인을 통하거나 달리 결련하여 먼저 내정을 간섭하여 권리를 주장하라 하며 모든 이런 꾀술(詭譎) 간교한 계책의 뜻이 가장 음험한지라.....76)

이처럼 이승만은 피터대제의 유언이 러시아의 팽창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러시아는 대국과 연합하여 소국을 분할한 후 없애며, 그렇지 않은 나라와는 혼인 등의 방법으로 일단 관계를 맺은 후에, 내정간섭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꾀술 간교한 계책”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승만은 감옥에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승만은 또 다른 글을 통해서도 러시아가 아직도 예전의 전제정치를 쓰고 있다고 하거나, 그들의 정치는 “남의 토지를 빼앗기로 위주하매 혹 기회를 타서 계책을 부리거나, ...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부려한 조각 땅이라도 저의 세력에 넣으면 영원히 제 것을 만드는”77) 팽창주의적 이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이승만은 청년시절의 활동과 감옥생활을 통해 강력한 반러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그의 반러인식은 제정러시아가 혁명을 거쳐 소련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되었을까? 유영익에 따르면 이승만의 반러의식은 후일 그의 미국 유학시절에도 변하지 않다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후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되고 공산정부가 들어서자 반공의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78) 그는 이 시기부터 공산주의를 ‘원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해 가며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체’ 라고 간주하고, 이 이

76) “러시아 정치내력,” 이승만 (1993), p. 144.

77) “세 가지 정치구별,” “갑오 을미 후 일·러시아,” 이승만 (1993), pp. 75-76, 194-195.

78) 유영익 (1996), p. 221.

념을 따르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⁷⁹⁾ 유영익은 이러한 그의 반공사상이 1933년 외교 차 모스크바를 잠시 방문했을 때 더욱 확실해졌다고 분석한다.⁸⁰⁾ 이승만이 이 방문을 통해 러시아 백성의 처참한 생활을 더욱 절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⁸¹⁾ 그 뿐만 아니라 이 방문에서 소련 외무성으로부터 추방된 경험은 이승만이 소련에 더욱 반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⁸²⁾ 즉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이제 소련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점차 변한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반공의식은 그가 해방 후 돌아온 조국에서 공산당, 그리고 소련과 대립하게 된 강한 원동력이 된다.

2. 냉전기 이승만 분단책임론 비판

이승만은 해방까지 4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이다. 예를 들어 김도현은 “이승만은 한반도의 분단을 민족사적 입지에서 거부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권력을 잡을 긍정적인 기회로 받아들였다”고 하며 이승만에게 분단의 책임을 묻는다.⁸³⁾ 한승인 역시 이승만은 귀국 후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정부수립에만 몰두했다고 주장한다.⁸⁴⁾

79) “장석윤 증언 (1979년 3월 22일),” 유영익 (1996), p. 222에서 재인용.

80) 유영익 (1996), p. 222.

81) 이승만은 이 글을 통해 그를 만난 러시아인이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며,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당시 러시아를 방문한 미국인들이 러시아인들이 길가에서 굶어죽는 모습을 목도했다는 일화도 소개한다. 이승만, “일민주의정신과 민족운동,” 이승만, 『일민주의개술』 (서울: 一民主義普及會, 1949), pp. 12-17. 특히 pp. 13-14.

82) 유영익 (1996), p. 176. 이승만은 당시 소련 외무부가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소련에 입국하였다. 그러나 당시 만주의 동청철도 매입 사안으로 모스크바에 와 있던 일본 협상단은 이승만의 입국사실을 알고 소련에게 그의 축출을 요구하였다. 이승만은 다음날 오후 11시 소련을 떠나게 된다. 유영익 (1996), p. 176.

83) 김도현, “이승만 노선의 재검토,”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1)』 (서울: 한길사, 1995), p. 390.

84) 한승인, 『독재자이승만』 (서울: 일월서각, 1984), pp. 125-126.

왜 이승만은 분단의 책임자라는 비판을 듣게 되었을까? 냉전기 이승만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1946년의 정읍발언이었다. 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 우리는 공위가 무기 휴회되고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이에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귀정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⁸⁵⁾

그는 위와 같이 공개적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때문에 큰 반론 없이 ‘이승만의 정권욕에서 단정수립 발상이 일어났다’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⁸⁶⁾ 진덕규는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의 위치는 불안정했고 그를 지지하는 조직체가 없었다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국무성 등 일부관리에 의해 단독정부론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이승만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단정론을 내세웠다는 것이다.⁸⁷⁾

그러나 이승만이 권력욕 때문에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했다는 것은 단지 그의 행동을 결과론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앞의 여론조사에서 보았듯이 이승만이 귀국했을 때만 해도 좌, 우익에 상관없이 그에 대한 정당 및 사회단체의 태도는 호의적이었다. 1945년 8월 17일 오후, 조선인민공화국 부주석 여운형, 총리 허헌 등이 그를 방문했고, 18일에는 송진우, 백관수, 김병

85) 『서울신문』 (1946. 6. 4). In 우남실록편찬회, 『雲南實錄』 (發行地不明: 雲南實錄編纂會, 1976), p. 400.

86) 이정식 (2006), p. 429.

87) 진덕규, “이승만의 단정론과 한민당,” 신용하 외,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1』 (서울: 동아일보사, 1988), p. 172.

로 등의 한민당 간부들이 이승만에게 와서 한민당 당수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다음날에 허헌 역시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취임을 간청했다.⁸⁸⁾ 조선공산당 당수 박헌영도 그에게 공산당 당수직을 제안했다.⁸⁹⁾

그렇지만 이승만은 이러한 제의들을 모두 거절하고 1945년 11월 2일, 서울 천도교 대강당에서 한국민주당·조선국민당·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 등 네 정당들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이하 독촉)를 출범시켰다.⁹⁰⁾ 그러나 네 정당들의 협력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이승만의 독촉은 그들의 기치를 '임정봉대'로 내세우며 반공노선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승만은 당시 소련이 한반도를 공산화 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⁹¹⁾ 정당수립에 있어 제 1이미지인 그의 반공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승만의 독촉이 반공노선을 분명히 하고 1945년 11월 7일 다시 한번 인민공화국 주석취임을 거절하자,⁹²⁾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은 독촉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 역시 그의 반공노선을 더욱 분명히 밝히기 시작했다. 11월 21일 '공산당에 관한 나의 관념'이라는 성명을 통해 결국 공산분자들은 일인재정(日人財政)을 얻어 각 지방에 소요를 일으키며, 외국인 배척과 임시정부를 반대할 것이며 중국에는 중국과 폴란드같이 내전의 상황으로 이끌 것이라며 공산당을 비판하였다.⁹³⁾

이승만은 당시 한반도의 상황을 폴란드에 비교하고 있었다. 전후 미소관계에서 중요했던 의제는 폴란드에서의 자유선거였는데, 결국 폴란드는 내전 끝에 친소정부가 들어서서 국면을 맞았다. 이승만은 한반도 역시 그와 같은

88) 김학준 (2008a), p. 898.

89) 로버트 (2002), p. 232.

90) 김학준 (2008a), p. 899.

91) 김학준 (2008a), p. 900.

92) 정해구, "분단과 이승만," 『역사비평』 (32)호 (1996), p. 259.

93) 『자유신문』 (1945. 11. 23).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1_1945_11_21_0060(검색일: 2012년 8월 24일)

운명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었다.

12월에 들어서자 이승만은 자신의 반공노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다. 19일 그는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담화를 발표하는데, ‘비록 모든 공산당이 그러는 것은 아니나, 마치 양의 무리에 이리가 섞여있듯이 공산당의 극렬분자들이 독립조국 파괴운동을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싸우자’고 그의 분명한 입장을 내세웠다.⁹⁴⁾ 또한 다음날 그를 지지하는 청년세력을 결집, ‘독립축성전국청년총연맹’을 결성한다.

이렇게 이승만은 10월 중순에 귀국 한 이후,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통합시키려 노력하였으나 정국은 그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좌익과 우익 측에서 친일파청산 문제, 경제체제 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승만의 기본입장은 우익 측에 훨씬 가까웠다. 또한 12월 말부터 전개된 신탁통치 정국은 이승만이 더욱 강하게 그의 노선을 밀고 나가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제 1이미지인 이승만의 반공주의는 해방 후 그의 정치투쟁의 근원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가 반공주의 노선을 주장하였다고 해서 처음부터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1945년 말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로 ‘신탁통치’ 결정이 알려지고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도중에 나온 발언이 단독정부수립 주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단지 국내정치적 목적으로만 나온 게 아니었다.

여기에서 잠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1946년 6월은 처칠이 소련이 행한 동유럽의 공산화를 보고 ‘철의 장막’이라는 표현으로 당시의 냉전의 전개를 알린 지 얼마 안된 시점이었다. 또한 6월은 폴란드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된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 폴란드의 좌우연립은 명목상 뿐이었고 실질적인 공산정권이었으며, 그 정권은 우익의 숙청을 단행하였다.⁹⁵⁾ 따라서 이승만은 그러한 소련의 행태가 한반도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94) 우남실록편찬회 (1976), pp. 122-124.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물론 위의 비판처럼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 주장에 국내정치적 목적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확고한 국내정치적 기반을 원했다면 오히려 당시 남한을 장악하고 있던 미군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유리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그 시기 좌우합작을 추진하고 있던 미국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러취 군정장관은 다음과 같은 말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없음을 못 박았다.

나는 이박사가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는 모른다. 만일 이박사가 남조선에 따로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하였다면 그것은 그의 입장에서 한 말이고, 군정청을 위해서 한 말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 이박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한다. 나는 군정장관으로서 남조선 단독정부수립에 대해서는 전연 반대한다.⁹⁶⁾

이 같은 러취장군의 발언은 이승만의 단독정부론과 상치되는 발표였다. 또한 이승만을 위대한 정치가라고 인정했던 하지도 그의 지속적인 반소연동 때문에 이승만은 미국이 한국에 세울 정부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⁹⁷⁾ 1946년 7월에 미소공위의 미국측 대표인 테이어(Charles Thayer)는 ‘이제 이승만은 한국정치로부터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그해 말 하지는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통해 “이승만은 모든 것을 그 자신만의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하길 원하고,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성가신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를 묵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이승만을 비판했다.⁹⁸⁾

95) 이정식, “이승만의 단독정부론 제기와 그 전개,” 이정식 (2006), p. 431.

96) 『서울신문』 (1946. 6. 11).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2_1946_06_11_0110(검색일: 2012년 8월 24일)

97) 우남실록편찬회 (1976), pp. 165-166.

이렇듯 그의 정읍발언과 단독정부 수립시도는 당시 미군정이 그를 배척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을 권력욕 때문이나 혹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고 본 기존 주장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의 강력한 반소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철순의 지적대로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은 공산주의, 그리고 소련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한 반소·반공주의가 그 배경이다.⁹⁹⁾ 또한 그의 또 다른 성향인 민주주의 체제 지향이 이승만이 단독정부론을 주장한 원인이다.

3. 탈냉전기 밝혀진 소련의 단독정부 수립의지: 제 3이미지 요인

그 뿐 아니라 탈냉전기 문서는 분단의 원인에 이승만의 정읍발언보다 더 큰 영향을 준 요인을 보여준다. 바로 탈냉전기 공개된 1945년 9월 20일자 스탈린의 지령이 그것이다. 정읍발언이 나오기 9개월 전, 이미 소련은 한반도 이북 지역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다. 지령의 내용을 보자.

1. 북한 영토 내에 소비에트나 소비에트 정권의 다른 기관을 수립하거나 소비에트 제도를 도입하지 말 것.
2. 반일적인 민주주의 정당단체의 광범한 동맹에 기초하여 북한에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데 협조 할 것.
3. 적국에 의해 점령된 조선 지역에서 반일적인 민주적 제단체 및 정당의 조직을 방해하지 말 것이며 그 작업을 도와 줄 것.
4. 현지 주민들에게 다음을 설명해 줄 것.
 - a) 적군은 일본 약탈자들을 분쇄할 목적으로 북조선에 진주한 것이며, 조선에

98) “Memorandum of Conversation Held in the Division of Japanese Affairs,” *FRUS*: 1946, 8, p. 716,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46, 8, pp. 785-786.

99) 이철순,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에 대한 일고찰,” 『社會科學研究』 제23권 (2)호 (2007), p. 221.

소비에트 제도를 도입하거나 조선영토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b) 북한 시민의 사유 및 공유 재산은 소련군 당국의 보호하에 있다.

.....

6. 북조선 주둔군에게 기율을 엄격히 지키고,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예의바르게 행동하도록 지시할 것, 종교의식과 예배를 방해하지 말 것이며, 사원 및 기타 종교시설 등에 손을 대지 말 것.

.....100)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탈린은 이 지령 여러 곳에서 북조선에서 일본세력을 제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련은 동북아에서 항상 일본을 견제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북한에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한 것은 일본견제라는 목적이 작용하였다. 또한 이렇게 반일세력의 퇴치를 주장한 것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으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¹⁰¹⁾ 소련군에게 기율을 엄격히 지키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라고 한 것이나, 종교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것은 소련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우호적 감정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였다.

왜 스탈린은 이러한 지령을 보낸 것일까? 이에 대해 이정식은 스탈린이 이 지령을 내린 것은 사실상 그가 북한에 단독정부 수립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⁰²⁾ 그게 사실이라면, 왜 스탈린은 북한에 단독정부수립을 계획하게 된 것일까? 이정식은 9월 지령에 194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열린 런던회담결렬이 큰 도화선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¹⁰³⁾ 전후

100) 이 지령은 이완범, “분단국가의 형성 2-소련점령군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 김용직 편, 『자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pp. 120-121에 수록되어 있다.

101) 김학준 (2008a), p. 783.

102) 이정식, “냉전의 전개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유영익(편),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pp. 67, 90-91.

103) 이정식, “스탈린의 한반도정책, 1945,” 이정식 (2006), pp. 189-194.

전승국들의 최초모임으로서 이 회담은 매우 중요했는데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던 일본통치문제가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야기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22일에 전후 일본점령을 단독으로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에 몰로토프가 일본에 연합국 관리기관의 설치를 요구하고 격론을 벌였다.¹⁰⁴⁾ 미국은 일본에 대한 단독적인 권한을 계속 주장하였고, 이에 격분한 소련은 이제 자신들도 점령지역에 독단적인 권한을 주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¹⁰⁵⁾ 이미 미국이 일본에 원폭투하를 했을 때부터 소련은 미국을 가상의 적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강경한 미국의 태도에 더 이상 협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 한반도에서 단독정부수립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령에 대해 김성보는 다른 견해를 보인다. 그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권력을 만들라는 스탈린의 지령은 북한지역에 배타적인 국가권력을 수립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북한지역에서 개혁을 추진할 때 사회주의적 성격이 아닌 ‘부르주아 민주주의’ 성격의 개혁을 추진, 이에 입각한 권력구조를 형성해 나가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한다.¹⁰⁶⁾ 김성보는 당시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미소관계는 대립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지령이 단독정부수립의 증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이 지령을 두고도 다른 견해가 표출되지만 그 후의 소련이 북한정권 창출에 관여한 내용을 보면 이 지령이 사실상 북한에 단독정부를 구상하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지령은 ‘소비에트 제도를 도입하지 말 것’을 명령했지만 북한주민의 사유재산을 소련당국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이 지령이 나오기 전인 9월 14일 소련군 사령부가 발표한 ‘인민정부수립요강’에서도

104) 런던회의에 관한 내용은 *FRUS: 1945, 2*, pp. 99-559를 참조할 것.

105) W. Averell Harriman and Elie Abel,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New York: Random House, 1975), pp. 514-515.

106) 김성보, “소련의 대한정책과 북한에서의 분단질서 형성, 1945~1946,” 역사문제연구소,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76.

소련군은 농민정권수립을 원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¹⁰⁷⁾ 비록 이 농민정권이 친소정권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소련이 후원하는 한, 그 정권의 성격은 친소적일 가능성이 농후하였다.¹⁰⁸⁾

이렇게 소련은 해방 직후부터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그들의 계획을 하나씩 실행시켜 나갔다. 스탈린이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 구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음은 9월 20일의 지령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쓰여진 ‘슈킨보고서’에서도 보여진다.¹⁰⁹⁾

1쪽: 전체 6개도 인민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출이 아니라 소련군 사령부가 임명하였다.....총 1만명이 넘는다.....

2쪽: 현 북조선의 정당들은 공산당, 민주당, 사회민주당이 있다. 공산당원의 수는 1945년 12월 현재 약 4,500명에 이른다.

3쪽: (공산당의) 목적은 소련에 우호적인 단일 독립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8쪽: 지방자치 기관과 북조선의 경제, 정치를 지도할 능력이 있는 단일한 조선 행정 중심이 없다는 사실이 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도 인민위원회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1945년 9월 21일자 최고사령부 훈령에서 언급한, ‘북조선에서 민주 정당·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블록에 기초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 창설’을 목표로 한 노선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9쪽: 결론

2. 조선에서 소련군대가 철수할 경우 소련의 국가이익을 보장 할 굳건한 정치·경제적 교두보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민족 간부가 아직 충

107) 이 문서는 이완범 (2005), pp. 118-119에 수록되어 있다.

108) 이완범 (2005), p. 100.

109) 이 비밀 보고서의 이름은 ‘북조선 정세에 관한 보고서’였고, 그것을 쓴 슈킨은 당시 소련군 군사위원회 위원이었다. 그는 이 보고서를 몰로토프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이지수, “제2차 세계 대전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 이인호 공편,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서울: 기파랑, 2009), pp. 89-92에서 발췌 번역되어 있다.

분히 파악되지 않았다. 현재 북조선에서 인기가 높은 인사들은 공산당 지도자 김일성과 박헌영, 민주당 지도자 조만식이 있는데 소련에 대한 조만식의 정치적 입장은 아직 모호하다.....

3. 인민 민주주의 운동은 대지주의 토지소유 현실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른 시일내에 농지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먼저 9월 20일 스탈린의 지령의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이기도 했다. 8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슈킨은 그 진행이 아직 미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1쪽의 내용을 통해 비록 인민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었지만, 위원을 소련군정 사령부에서 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⁰⁾ 사실상 북한의 행정기구는 소련이 장악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 보고서는 농지개혁의 실행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본 동유럽에서의 소련전략과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또 이들은 한반도에 통일보다는 소련의 국가이익을 충실히 이행할 간부를 원하고 있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소련은 한반도에서 통일독립정부 수립을 약속했었는데, 그 기간 중에 쓰여진 이 보고서의 어디에도 그러한 목적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소련이 한반도의 통일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소련이 해방시기 남북간 통일 임시정부보다는 북한을 자신들의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일종의 교두보로서 확고히 세우기를 원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분단이 된 이유는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해서가 아니었다. 이미 그가 단독정부 수립을 말하기 이전에 나온 소련의 북한단독정부 수립계획과 실천이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과 6월의 마셜플랜 등으로 전개된 미국과 소련의 냉전심화로 한반도에서 양국은 더 이상 타협점을 찾지 못하

110)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과주: 한울, 2008), p. 129.

였다. 1947년 5월 미소공위가 부결된 후 미국은 9월 17일 한국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했고, 소련은 10월 20일 서울을 떠났다. 11월 14일 한반도에서 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안은 43대 0으로 가결되었고, 미소점령군을 1월 1일까지 철퇴(撤退)시킨다는 소련안은 부결되었다.

이 시기에 와서야 비로소 이승만의 반공주의는 단독정부론 전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 중도파 위주의 정책,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도맡았던 하지도 12월 17일,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의 위협을 경고하고 유엔과 협력하여 독립정부를 만들라는 성명을 밝히며 입장의 변화를 나타낸다.¹¹¹⁾ 압도적인 냉전의 여파는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에 매우 유리한 작용을 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한반도 분단에는 양극체제 상황에서 미소의 작용인 제 3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탈냉전기 문서는 당시 소련이 북한지역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도 2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소련과 타협하지 않고, 남한지역에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이 시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제 1이미지인 이승만의 반소성향은 제 3이미지인 미소냉전의 심화라는 국제 체제적 요인과 결부되어 단독정부 수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승만의 성향이라는 제 1이미지가 한반도 분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의 반공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지향이라는 특징은 초기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미소 양국에 의해 분할점령 된 한반도의 상황에서 지도자 개인의 성향이 정부수립에 미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남한에서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3이미지인 양극체제에서의

111) 『동아일보』 (1947. 12. 18).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5_1947_12_17_0120(검색일: 2012년 8월 26일)

미국과 소련의 적대적 상호작용이 그의 반공주의 주장에 유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항들로 미루어 볼 때, 이승만에게 분단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그의 단독정부론은 냉전이 심화된 뒤에야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그전에 이미 스탈린의 지령으로 북한에는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분단이 된 상황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북쪽의 상황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남쪽에서는 결국 반소성향의 이승만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북쪽에서는 강력한 반미성향의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4. 김일성과 북한 단독정부

북한에서는 어떻게 단독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는가? 사실상 북한연구의 영역인 북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경위를 알기 위해서는 김일성이 어떻게 북한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¹¹²⁾ 그러나 냉전기 북한지역의 공산화 과정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이용할 수 있었던 자료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¹¹³⁾ 그렇지만 탈냉전기 북한의 공산화 과정에 관계되었던 소련 측 인사들의 회고와 증언이 나오게 됨에 따라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김일성의 활동과 그가 어떻게 북한의 지도자가 되어 단독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12)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상)』 (서울: 中央日報社, 1992a), p. 32.

113)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 33.

1) 김일성과 소련의 관계에 대한 두 해석

냉전기 김일성이 북한에서 권력을 잡게 된 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했다. 먼저 김일성의 배후에 소련이 철저히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회고록이 있다. 「북조선 문학예술 총동맹」 서기장, 북한의 기관지 「민주조선」 주필, 북한 관영통신 「조선중앙통신」 주필 등을 지내다 월남한 한재덕은 이렇게 주장한다.¹¹⁴⁾ 그는 해방 초 북한에서 있었던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¹¹⁵⁾

.....김일성이 조만식 선생의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의 지지나 받았을까? 어렵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하리요 이곳은 소련 군정하.....김일성의 뒤에는 쏘련의 붉은 무력이 버티고 있었다. 이것은 공산주의 팽창을 위하여는 수단도 명분도 가리지 않는 침략의 무력이다. 바로 이것이 해방된 우리나라, 특히 북한의 서러운 운명을 결정한 절대의 「힘」이었다. 그 「힘」 앞에 여기에 모인 수만 군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 온 겨레의 판단과 의사는 그것을 표시해 볼 기회조차 없이 완전히 무시되고 말았다.....¹¹⁶⁾

이와 같이 당시 김일성은 소련군에 의해 철저히 보호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날의 주인공은 당시 북한지역 최고 명망가였던 조만식이 아니라 김일성이었다. 소련의 무력에 힘입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김일성과 소련의 관계는 철저한 상하관계였다.

한편, 위의 주장과 달리 소련과 김일성의 관계를 대등하게 본 연구도 있다. 양성철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14) 공산권문제연구소(편), 『김일성을 고발한다』 (서울: 신명, 1982), p. 46.

115) 공산권문제연구소(편) (1982), pp. 60-71.

116) 공산권문제연구소(편) (1982), p. 70.

소련 점령군은 북한에서 소련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김일성을 이용한 반면, 김일성은 자신의 세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데에 소련 점령군의 힘을 이용했다. 그리고 적어도 권력다툼의 초기단계에서 김일성은 북한을 ‘소비에트화’ 하기 위해 소련이 그를 필요로 했던 것 못지 않게 소련의 지원을 필요로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관계는 단순히 소련 점령당국이 일방적으로 김일성을 후원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소련간의 쌍방 공모(共謀)였다. 실제로 소련군은 북한에 진주하기 전부터 또는 그 직후, 김일성을 자기네 ‘사람’으로 내세우려고 결정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전혀 없다.¹¹⁷⁾

즉 해방 정국에서 소련이 김일성을 이용한 것처럼 김일성도 소련을 이용하여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상반된 주장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냉전기 소련측 자료의 부재는 김일성의 배후에는 소련이 있었다는 주장과 이같이 소련과 김일성의 관계를 대등하게 보는 시각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탈냉전기 소련문서의 공개는 김일성의 배후에서 소련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나타내 주고 있다. 김일성이 소련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그의 활동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2) 김일성의 초기 활동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현재의 만경대)에서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¹¹⁸⁾ 평양의 유명한 미션스쿨 승실중학을 다닌 아버지 김형직과 교회장로 강돈욱의 딸 강반석의 사이에서 난 김일성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¹¹⁹⁾

117) 양성철, 『분단의 정치』 (서울: 한울, 1987), pp. 147-148.

118)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397.

119) 이종석 (2000), p. 397.

1919년에 부모님, 그리고 동생을 따라 만주로 이주한 김일성은 교육은 조선에서 받길 바라는 부모의 뜻대로 1923년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외가가 있는 평안남도 대동군 용산면 하리에서 창덕학교를 다녔다. 1924년 아버지의 체포로 다시 만주로 간 김일성은 탈출한 아버지, 가족과 함께 후송(撫松: 무송)으로 가 학업을 이어나간다.¹²⁰⁾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육문중학에 입학한 김일성은 그곳에서 마르크시즘-레닌이즘에 접하고 공산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중국공산당 당원인 중국인 교사 상웨(尙鍈: 상월)로부터 강한 항일교육과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다.¹²¹⁾

김일성은 18세 되던 1929년 5월 지린시의 조선공산청년회에 가입했고, 그해 가을 반일 활동혐의로 중국 군벌당국에 체포되어 수개월동안 감옥살이를 한다.¹²²⁾ 1931년 9월 18일 일제가 일으킨 만주사변 직후, 김일성은 겨울을 전후로 중국공산당에 입당했다.¹²³⁾ 1937년 6월 4일 보천보전투를 통해 김일성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비록 그 전투의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당시 암흑기였던 식민지 조선상황의 탈피욕구의 반영으로서 그 전투의 기사는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¹²⁴⁾

만주에서 활동하다 1939년 말부터 시작된 일제의 대토벌로 인해 1941년 소련에 입국한 김일성은 1942년 8월 동북항일연군 교도여단(일명 '88여

120) 북한 측 문헌에 따르면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일종의 '반제민족해방운동'인 조선국민회를 창설했다. Baik Bong, *Kim Il Sung Biography(I)* (Beirut: Dar Al-Talia, 1973), pp. 19-28. 특히 p. 23. 스탈피노와 이정식은 김형직의 반일 민족주의 활동에 대해 회의적 견해를 보인다. Robert A. Scalapino and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 (Vol.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 204-205 Footnote. 그렇지만 양성철은 일본 공식문서에 의거해서 조선국민회 사건을 서술한 최영희의 연구를 근거로 '최소한 김형직이 조선국민회 활동에 연루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양성철 (1987), pp. 17-18. 김형직은 이 사건으로 1917년 옥살이를 했고 위에서 서술한 내용은 그의 두 번째 체포이다.

121) 김학준 (2008a), p. 297.

122) 김학준 (2008a), p. 299; 이종석 (2000), p. 399.

123) 김일성,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67-68.

124) 이종석 (2000), p. 401; 『신한민보』 (1937. 7. 29).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np_sh_1937_07_29_0290(검색일: 2012년 10월 18일)

단')¹²⁵⁾ 제 1교도영 영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소련군은 88여단 내 각급 부대의 정(正)책임자는 항일연군이 담당하도록 하는 대신 부(副)책임자는 소련군관이 담당토록 했다. 김일성은 여기에서 대위계급을 수여받는다.¹²⁶⁾ 김일성은 이렇게 항일운동 과정 중에 소련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부터 김일성은 소련과 불가분(不可分)의 관계가 되었다.

5. 탈냉전기 밝혀진 김일성과 소련의 관계

1) 제 88정찰여단과 스탈린

탈냉전기 새로 나온 문서와 연구들은 김일성과 소련과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말해준다. 그러나 먼저 김일성이 활동하게 된 제 88정찰여단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탈냉전기 자료에 따라 이 정찰여단의 탄생 및 활동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련 비밀 문건에 따르면 이 여단은 1942년 6월 스탈린의 직접지시에 따라 창설되었다.¹²⁷⁾ 광복 하루 전, 여단장 저우바오중 대좌는 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레프스키 소련원수에게 제 88정찰여단에 대한 긴급보고서를 보낸다. 보고서에서 저우바오중은 제 88정찰여단의 창설 목적과 지난 3년간의 활동, 준비상태 등을 보고한다. 그 목적은 “중국과 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일제와의 전쟁에 대비해 이들 지역에서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고 군사·정치 전문가를 양성한다”였고, “1946년 6월, 이 과업이 완성됐다”고 강조했다.¹²⁸⁾

125) 1941년 4월 13일 소련은 독일의 소련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우선 동부의 국경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일본과 5개년 유효의 중립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렇지만 그 후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1942년 8월 1일, 소련극동군은 B야영을 A야영과 합쳐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유격대원들과 조선인 유격대원들로 구성된 ‘동북항일연군 교도려’(일명 88특별보병여단 또는 88특별국계여단)를 창설하였다. 더 자세한 설명은 김학준 (2008a), pp. 473-475를 참조할 것.

126) 이종석 (2000), p. 404.

127) 제 88정찰여단에 관한 내용은 김국후 (2008), pp. 53-84에 자세히 소개되었다.

이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소련이 동유럽에서 처럼 북한에도 위성국가를 세우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련 영토 내에 있는 제 88정찰여단은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등 빨치산 부대들의 모범에 따라 군사·정치 전문가 양성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국 인민의 해방을 위해 일제를 몰아내는 투쟁에 붉은 군대와 함께 적극 참가하기 위해 군부대인 여단도 준비했습니다.....¹²⁹⁾

저우바오중은 이 여단의 중국 동지들 대부분을 중국 공산당원이거나 공산주의 청년동맹들이며, 만주에서 일본 강점자들과 맞서 빨치산 운동에 참가한 지도자라고 소개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중국 동지들 속에 ‘김일성 부대’ 80여명도 포함된다는 것이다.¹³⁰⁾ 김일성이 해방 후 북한에 들어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이 부대에서 교육받고 활동한 것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스탈린은 치밀하게 해방 전부터 북조선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제 88정찰여단 활동의 전기는 해방 직전인 1945년 6월에 이루어졌다. 소련극동군은 소련이 곧 일본을 상대로 개전할 것임을 알리며, 제 88정찰여단의 여단장 저우바오중을 통해 협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다음달, 교도령에 속한 약 290명의 조선인 전사들이 중국인 전사들과 소련인 전사들로부터 분리해 조선공작단 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여기에서 김일성은 군사와 정치의 책임을 맡게 된다.¹³¹⁾

128) 김국후 (2008), p. 57.

129) 김국후 (2008), p. 57.

130) 김국후는 그 이유를 ‘당시 김일성을 비롯한 조선인 대부분이 제 88정찰여단에 들어가기 전에 만주에서 중국공산당원이나 공청원으로서 빨치산 운동을 했고, 이 때문에 저우바오중이 조선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중국 대원 속에 포함시켜서’라고 말한다. 김국후 (2008), p. 56.

131) 김학준 (2008a), p. 480.

김일성, 최용건, 김책이 주도해 만든 이 조선공작단에서 최용건은 당의 영도 책임을, 김책은 김일성과 최용건의 진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당위원회의 경우, 이들이 조선으로 돌아가 조선 공산당을 건립하기 전까지는 중국공산당과 연계를 가지나, 당조직 후에는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선공산당의 영도책임은 전적으로 김일성이 맡기로 했다.¹³²⁾ 그러나 제 88정찰여단의 대일전 참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일 전투가 시작된 지 4일 후 여단의 대일작전이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소련 국방성은 대일전에 참전하지 못한 제 88정찰여단의 ‘김일성부대’를 북한에 파견하기로 결정, 여단장 저우바오중에게 북조선에 보낼 제 2극동전선 제 88정찰여단 제 1대대 명단을 보고하라는 긴급지령을 했다.¹³³⁾

또 8월 29일 “북조선에 파견될 김일성 부대원 가운데 17명에게 장교칭호를 수여할 계획이니, 그 명단을 보고하라”는 지령을, 8월 31일에는 “조선에서의 사업을 위해 제 88정찰여단에 있는 소련출신 조선인을 북조선에 파견할 계획이니 명단을 보고하라”는 지령을 저우바오중과 참모장 치린스키에게 보냈다.¹³⁴⁾

그렇다고 해서 소련이 당시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낙점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평양에 진주한 소련군 25군 정치사령부 정치담당관이었던 메크레르 중좌는 “김일성이 가장 유력한 후보자 중의 하나였지만 그것은 당시 조만식 선생도 마찬가지였고, 최용건, 김책, 그리고 후일 박헌영도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한다.¹³⁵⁾ 그렇지만 제 88정찰여단 조직에 스탈린이 있었고, 그가 이 여단을 해방 후 북한에 파견했다는 것은 그의 결정에 따라 북한의 지도자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132) 김학준 (2008a), p. 480.

133) 김국후 (2008), p. 60. 날짜는 8월 25일이다.

134) 이들이 보고한 명단은 김국후 (2008), pp. 61-65쪽에서 볼 수 있다.

135)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p. 48-49.

2) 해방 전 결정된 소련의 김일성 지원: 스탈린의 결정

비록 김일성이 소련군에서 활동하였다고 하나 입국당시 그의 위상은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은 그가 만주에서 유격대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만 하고 있을 뿐이었지, 한인 공산주의 운동에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그를 제외하였다.¹³⁶⁾ 따라서 해방 후 김일성이 조만식 등 북한지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기는 했으나, 장래 북한지도자로서 큰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김일성은 해방 전 소련으로 입국하여 소련군으로 활동하다 해방된 조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적인 기반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은 국내적 기반도 없이 북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냉전기에는 왜 소련이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¹³⁷⁾ 그러나 탈냉전기 소련 측 자료의 공개로 소련이 김일성을 지도자로 선택한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가 된 데에는 스탈린의 낙점이 결정적이었다. 우선 제 1차 낙점은 해방 전에 이루어졌다. 제 88정찰여단이 북조선에 입국하기 전, 소련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리에프스키 원수에게 스탈린으로부터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 바로 소련군이 점령한 북한을 소련의 뜻에 맞게 끌고 갈 조선인 지도자를 추천하라는 지시였다.¹³⁸⁾

이 지시에 따라 추천된 인사가 김일성이었는데, 당시 극동군 제2방면 군사령부의 고위간부들은 김일성을 면접하였다. 사령관 푸르카예프 육군대장 및 군사위원 이오시프 바실리에비치 슈킨(Iosif Vasilievich Shikin) 육군대장과 김일성과의 대화를 보면,

136) 서대숙 (1989), p. 54.

137)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p. 60.

138) 김학준 (2008a), p. 742.

-당신은 조선인인가?

-예

-당신은 평양 남쪽지방에서 태어났나?

-예

-당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가족사항은?

-기혼이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붉은 군대에서 계속 근무하길 원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북한에 일하러 가라고 제안한다면?

-세계혁명과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면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소...139)

이러한 대화를 마치고 제2방면 군사령부는 극동군 총사령부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고, 총사령부는 김일성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소련군이 작성한 김일성의 이력서와 극동군 총사령부의 추천서들은 베리야를 거쳐 스탈린에게 올려졌고 스탈린은 이 보고서들을 읽었다.¹⁴⁰⁾

1945년 8월 말 소련군 제 25군 군사정치위원이었던 레베데프는 직속상관이었던 스티코프 상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한달여 후 쯤 제 88특별정찰여단의 김일성대위를 평양에 들여보낼 테니 그에게 주택과 자동차·생필품등을 지급하라”는 지시였다.¹⁴¹⁾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김일성이 북한에

139) 가브릴 코로트코프, 어건주 역, 『스탈린과 김일성(1)』 (서울: 동아일보사, 1992), p. 180. 이 책의 저자는 이 문서를 소련 국방부에서 발굴하였다.

140) 코로트코프 (1992), pp. 183-185. 특히, 스탈린의 총애를 받은 슈트이코프 장군은 김일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김일성이 평양으로 보내질 수 있게 스탈린에게 청원하라고 메레츠코프 원수를 설득하였다. 코로트코프 (1992), p. 185.

141)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 (서울: 中央日報社, 1992b), p. 290.

입국하여 누린 지위가 스탈린의 재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비록 북한의 지도자로서의 낙점은 아니었지만 이미 이때부터 소련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소련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거부한 조만식을 배제하였고, 김일성은 더욱 유력한 지도자 후보가 되었다.

입국 전 낙점된 지도자 김일성은 북한에 들어와 소련의 비호 속에 북조선 분국 설치, 그리고 토지개혁을 진행 할 수 있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미 당시 소련은 1945년 9월 스탈린의 지령으로 북한에 단독정부 수립계획을 진척시키고 있었다. 한편 남한에서 미국은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 좌우합작을 위한 중도인사를 찾고 있었다. 6월부터는 좌우합작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스탈린이 김일성을 북조선의 지도자로 최종 낙점한 사건이었다. 레베데프 장군의 회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946년 7월 말이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소미공동위원회가 중단되면서부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주관으로 「민주개혁」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중국에 출장갔던 제 1극동방면군 사령관 메레츠크프 원수로부터 「오늘 밤 평양에 갈테니 대기하라. 절대비밀이다」라는 전문이 날아왔다.¹⁴²⁾

계속되는 회고에 따르면, 이날 레베데프 장군은 메레츠크프 원수를 마중하러 공항에 가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바로,

그는 「스탈린 대원수가 김일성과 박헌영을 면접하겠다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장군은 지금 나와 함께 모스크바로 가자」고 명령했다. 그러나 나는 군복차림이 아니어서 곤란하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메레츠크프 원수는 「시간이 없다」며 옆에 있던 로마넨코 장군에게 모스크바 동행을 요구했다. 잠시 후 도착한 김일성과 그의 비서 문일, 그리고 서울주재 소련영사관 부영사 샤브신과 박

142)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 326.

현영, 비서 등 여섯 명을 태우고 모스크바로 직행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당시 서울에 있던 박현영은 샤브신의 주선으로 비밀리에 해주를 거쳐 평양에 와 대기하고 있었다.¹⁴³⁾

이렇게 모스크바로 가게 된 김일성과 박현영은 소련에 가서 스탈린을 만났다. 당시 제 1극동 방면군 군사위원 스티코프와 로마넨코 장군이 김일성과 박현영의 면접자리에 책임자로 배석했다. 스티코프는 좌석배치를 보고 김일성이 지도자로 낙점된 것을 알았다고 한다. 스탈린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김일성, 왼쪽에 박현영이 앉았는데 오른쪽이 상석인 소련의 관례에 따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¹⁴⁴⁾

김일성과 박현영의 간단한 남·북한 정세보고가 있는 후,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소련군정의 협력을 받아 북조선의 소비에트화 정책을 조기에 실현시키도록 투쟁하라’고 지시했고, 박현영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투하는 그대의 혁명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며 격려했다. 김일성에게 지시한 소비에트와 정책은 토지개혁, 노동법령, 산업국유화 등을 가리키며 이를 조기에 실현시키라는 명령은 스탈린이 김일성을 지도자로 지명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¹⁴⁵⁾

이러한 중요한 비밀면접에 대해 레베데프 장군을 면담한 김국후는 샤브신의 부인인 쿨리코아, 박현영의 딸 박비비안나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면접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쿨리코아는 “남편이 해방 직후부터 박현영과 여운형을 비밀리에 만나 남한정세를 논의 했으며 1946년 7월 하순 서울에서 미군정의 눈길을 피해 박현영을 해주를 경유해 평양비행장까지 데리고 갔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함께 스탈린 면접에 배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 비밀’이었죠”라고 하며 레베데프 장군의 증언을 뒷받침했다.¹⁴⁶⁾

143)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p. 326-327.

144) 김국후 (2008), pp. 209-210.

145) 김국후 (2008), p. 210.

박비비안나 역시, 당시 그의 아버지 박헌영을 모스크바 시내 호텔에서 만났다는 증언을 하며 스탈린과 박헌영·김일성 면접의 신빙성을 높여주었다.

왜 스탈린은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최종 결정했는가? 소련군정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은 스탈린이 김일성을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스탈린은 동유럽의 공산권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도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가보다 군인출신을 선호했다는 것, 또 스탈린은 코민테른 활동전력을 싫어했는데 김일성은 그러한 경력이 없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당시 김일성이 북한에서 ‘항일투쟁 민족영웅’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지도자로 부상시키기에 용이했다는 것이다.¹⁴⁷⁾

이러한 자료는 당시 북한지도자로 김일성이 낙점된 데에는 스탈린의 최종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스탈린의 성향이라는 제 1이미지가 북한의 지도자 선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이다. 당시 남한은 좌우합작의 시작, 이승만의 정읍발언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시기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관계없이 소련은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 후 8월, 연안파 지도자 김두봉의 신민당과 김일성의 공산당이 합당하여 이루어진 ‘북조선노동당’ 창당은 소련이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최종 결정한 후, 북한지역에 더욱 빠르게 민주화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추진했던 작업의 일환이었다.¹⁴⁸⁾

이러한 과정의 고찰은 분단의 기원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한반도 분단의 기원에는 남북한 지도자의 성향이 아닌 김일성을 낙점한 스탈린의 성향과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비록 냉전기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분단의 원인에 미친 김일성의 영향은 단편적으로 소련의 비호가 있었다는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이와 같

146) 김국후 (2008), p. 211.

147) 김국후 (2008), pp. 212-213.

148) 김국후 (2008), pp. 210-211.

이 구체적으로 스탈린의 성향에 맞추어 김일성이 지도자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3) 김일성의 권력 장악

이와 같이 김일성은 스탈린에 의해 북한의 지도자로 선택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김일성 역시 해방정국에서 권력 장악을 위한 나름대로의 수완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노력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서대숙의 평가는 주목이 된다. 서대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엇보다도, 그를 따르는 빨치산들의 수는 적고 무명에 가까웠던 반면, 국내에 꽤 알려진 공산주의자들은 수적으로도 월등했다. 북한에 마침내 정부가 수립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공포되었을 때 김일성이 당당히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은 소련군의 도움도 있었지만 스스로 주어진 조건을 잘 이용해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성취한 것이다.....¹⁴⁹⁾

서대숙의 주장처럼 김일성은 권력 장악과정에서 자신의 경력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적절히 이용한 측면이 있다. 우선 그는 군인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십분 활용하였다. 그는 군대를 조직하고 무력을 장악하는 일에 능숙했으며, 무력을 독점하는 것이 권력장악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해방 후 얼마 되지 않은 8월 20일 김일성의 발언은 중요하다. 그는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건군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¹⁵⁰⁾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해방 초부터 군을 이용하여 권력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북한의 조선

149)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p. 64.

150)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 pp. 250-268. 특히 263-266.

인민군이 창군되기도 전인 1945년 11월에 정치간부와 군 장교 양성기관인 ‘평양학원’을 세웠다.¹⁵¹⁾

또한 당시에는 소수파에 불과했던 김일성의 공여지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가 속한 빨치산 파를 군 계통에 투입했던 것도 그의 정치기반을 견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¹⁵²⁾ 그는 수적으로 불리했던 국내 정치무대에서 그가 속한 빨치산파의 인물들을 정치조직에 참여시키기보다 경찰 및 북한 인민군의 전신인 경비대 등 군 부분에 집어넣었던 것이다.¹⁵³⁾ 이와같은 방법으로 김일성은 무력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력운영 능력을 보인 것이다. 또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 확고해 진 1947년 4월 15일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소련에 북한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군사요청 전문을 보내기도 했다.¹⁵⁴⁾ 자신을 지원해준 소련의 세력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권력의지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가 정치적 계략에 능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주요 인사들을 요정에 초청해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요정정치’를 구사했다.¹⁵⁵⁾ 또한 심리적 방법도 사용하였다. 김일성과 함께 원산으로 입국한 인물로서 전 조선인민국 작전국장이었다가 결국 김일성과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해 소련으로 되돌아간 유성철은 타슈켄트에서 발행되는 『고려일보』 1991년 5월 29일자에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원산시 인민위원회의 초청을 받고 추석행사가 한창인 시공설운동장으로 가

151) 조선인민군의 창군일은 1948년 2월 8일이다.

152) 서대숙 (2000), p. 68.

153)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보안국에는 빨치산파인 최용건이, 동해 8월 중앙보안간부학교에는 역시 빨치산파 안길이가 책임자로 선정되었다. 서대숙 (2000), pp. 70-71.

154) 김광운, “전쟁이전 북한 인민군의 창설과정,”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 42.

155)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 301.

게 됐다. 이에 앞서 김성주(김일성)는 우리 일행을 모아놓고 이렇게 지시하기 시작했다. “동무들, 오늘은 추석날인데 조심하시고, 술도 마시지 말고 방탕질도 하지 마시오, 혹시 사람들이 김일성을 보았는가 하면 우리는 선발대가 되어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그 분은 뒤에 올 거라고 말하시오. 연세를 물으면 보지 못했기에 모른다고 하시오.” 이것이 고국땅에서 한 김일성의 첫 교시였다.....156)

소련이 김일성에 대한 이상화작업을 지원한 것 외에도 김일성은 스스로에 대한 신비화를 입국시점에서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귀국 후 일대일 방식으로 당시 도(道)책임자나 부책임자 등 국내정치 세력과의 만남을 시도했고, 심복들을 지방에 보내는 식으로 자신을 중앙으로 하는 ‘중앙지도부’를 형성했다.¹⁵⁷⁾ 당시 빨치산 파들은 김일성을 만나고 오면 ‘지도부에 갔다왔다’는 식으로 김일성에 대한 선전을 하여 김일성이 ‘중앙지도부’라는 분위기를 은연중에 만들었다.¹⁵⁸⁾ 김학준의 지적대로 김일성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신을 힘이 있어 보이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뭔가 신비스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하는 심리전을 펼쳤던 것이다.¹⁵⁹⁾

다음으로 김일성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초기 권력 장악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아닌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북한체제의 이념적 지형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¹⁶⁰⁾ 이러한 모습은 전미영의 분석에서 확인되는데,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김일성저작집』에 언급된 1940년대 후반 김일성 담화에서 ‘민주주의’의 언급은 1947년에는 31회, 1948년에는 22회, 그리고 1949년에는 13회였던 것에 반해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언급된 담화는 각각 5회, 7회, 7회였고 ‘공산주의’의 언급은

156)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 74.

157)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 83.

158)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 84.

159) 김학준 (2008a), p. 753.

160) 이시형, “해방후 북한체제 형성 과정에서 김일성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9권 (2)호 (2006), p. 266.

전무했다고 한다.¹⁶¹⁾ 김일성은 이렇게 정권초기 당장 공산주의를 강조하기 보다는 식민지 시절 고조된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했던 것이다. 덧붙여 김일성은 자신의 항일투쟁 경력도 활용했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김일성은 1945년 9월 레베데프 장군을 찾아가 자신을 비롯한 항일 빨치산도 해방전에 참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간청을 하였다.¹⁶²⁾ 자신이 한반도 해방에서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왜곡하여 대중들에게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당이나 임시 위원회 등의 중간 간부로 천거된 사람들 중 친일경력을 가진 인사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방식으로¹⁶³⁾ 대중들의 지지기반을 확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권력 장악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가 소련의 명령에 충실했다는 점이다. 김일성이 당내 권력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소련의 방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였기 때문이다. 해방 후 얼마 되지 않은 9월, 북한지역에서는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조선공산당의 북한지역에서의 분국 설치를 비롯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논의가 벌어진 1945년 10월 10일에서 13일 까지의 ‘조선공산당 서북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김일성은 자본가들과 지주를 포함한 민족통일전선의 형성을 제안한다.¹⁶⁴⁾ 새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모두를 동참시켜야 된다는 것이었다. 반면, 오기섭을 비롯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자본가들과 지주들은 제외하는 인민전선의 형성”을 주장하였다.¹⁶⁵⁾ 이들은 제국주의 세력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본 김일성과 달리 내부적 파시스트 세력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¹⁶⁶⁾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민족통일

161) 전미영, “북한 지배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1)호 (2001), p. 236.

162)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 77.

163)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 301.

164)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p. 113-123.

165) 백학순, “북한에서의 ‘단일적 지도력’의 확립과 당-국가 건설,”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 (1999), pp. 11-15.

166) 김학준 (2008a), p. 825.

전선’ 노선은 바로 소련의 노선이었다는 것이다. 비록 이 대회에서는 논란 끝에 ‘민족통일전선’ 내용의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련의 의도대로 분국이 설치될 수 있었고, 이로서 해방 후 한달이 채 안된 시점에 김일성은 서서히 북한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 분국 2,3차 집행위원회와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기점으로 김일성은 박헌영과의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된다.¹⁶⁷⁾

그 뿐 아니라 당시 공산주의 청년동맹(이하 공청)문제에 있어서도 김일성은 소련의 노선을 철저히 따랐다. 국내파나 소련파들은 소수의 공청으로 혁명세력을 조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김일성은 공청을 해체하고 원하는 청년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으로 조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⁸⁾

이러한 김일성의 주장은 역시 소군정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 소련군정은 공청과 우익 청년단체들과의 충돌이 잦았던 것을 고려하여 지지기반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공청만이 아닌 민청으로 청년들을 모으려고 했기 때문이다.¹⁶⁹⁾ 결국 공청은 민청으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은 탁치논쟁시기 반탁으로 갈 수 있을 청년들을 묶어둠으로써 김일성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¹⁷⁰⁾ 한때 소련이 김일성만큼이나 관심을 가졌고, 당시 북한에서 김일성이 결코 그 명성을 따라가지 못했던 조만식을, 그가 소련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하고 박해한 사실은 결국 해방시기 북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소련이었음을 말해준다.¹⁷¹⁾

따라서 김일성의 권력 장악에는 김일성을 낙점한 스탈린의 성향이라는 제 1

167) 분국 2,3차회의에서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p. 170-177을 참조할 것. 또 박헌영이 월북하기 전에 북한의 김일성과 비밀리에 회동한 내용에 대해서는 박병엽, 유영구·정창현 엮음,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 (서울: 선인, 2010), pp. 13-104를 참조할 것.

168)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p. 307-309

169)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 310.

170)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 313.

171) 조만식에 대한 소련군의 태도 변화는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p. 196-199를 참조할 것.

이미지와 함께 또 다른 제 1이미지인 김일성의 권력의지, 그리고 그가 소련의 정책에 충실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 3이미지인 소련의 대 북한정책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4) 소련의 김일성 비호

앞서 본 김일성의 권력 장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가 소련의 의중을 철저히 따랐기 때문이었고, 그런 그를 소련이 비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탈냉전기 자료들은 김일성의 배후에 어느 정도까지 소련이 영향을 주었는지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다. 1945년 9월 19일 원산을 통해 조선으로 입국한 김일성은 10월 14일 평양 기림리(箕林里)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 시민대회’에서 연설을 한다. 그곳에는 소련 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 정치사령관 레베데프소장, 민정사령관 로마넨코 소장, 조만식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¹⁷²⁾ 여기에서 김일성은 조국을 해방시켜 준 위대한 소련, 그리고 스탈린에게 감사하다는 연설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소련사령부에서 작성해준 것을 김일성이 읽은 것이었다.¹⁷³⁾ 김일성에 대한 소련의 우상화 작업은 김일성이 입국하기 이전에 시작되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레베데프는 이렇게 증언한다.

김일성을 항일 민족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소군정의 긴급한 과제였습니다. 소군정은 가능한 모든 매체들로 하여금 「김일성이 소군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자이며 장차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는 점을 인민에게 암시하도록 했습니다. 김일성의 일거수 일투족을 부상시킬 것이며 국내파라든가 의용군·무정 장군 등은 거의 취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¹⁷⁴⁾

172)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p. 84-85.

173)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 88.

174)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b), p. 60.

김일성은 이러한 소련의 뒷받침 속에서 정권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그가 속한 빨치산파가 아닌 소련파에 의해서 행해졌다. 소련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 중에서 소련이 차출해 온 소련파들은 세 가지 정도의 그룹으로 나뉜다.¹⁷⁵⁾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소련군인 신분으로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그룹, 징병업무를 관할하던 특수기관인 군사동원부를 통하여 군인으로 선발된 그룹¹⁷⁶⁾, 마지막으로 1947년 이후 기술전문가 혹은 정부기구 내 각 분야에 고문으로 파견된 그룹이다.

이들은 사실상 북한 정권창립에 실무적 역할을 하였는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김일성의 우상화에 이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1955년 10월까지 북한 문화선전성 부상을 지낸 정상진과 김책 군관학교 교장이었으며 소련파인 장학봉의 증언에 따르면, 소련군정과 군정 이후의 소련대사관은 항상 소련파들에게 이러한 임무를 주지시켰다고 한다.¹⁷⁷⁾ 소련파에 의해 주도된 김일성 우상화 작업은 그의 어린 시절을 미화시켰고, 김일성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선전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김일성 지지는 김일성이 더욱 친소적 경향을 보이게 만들었고 결국 김일성이 분단 지향적으로 행동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분단에서 김일성의 성향은 영향을 미쳤을까?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김일성 역시 그의 개인적인 성향이 단독정부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었다. 김일성은 이승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소련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국제정세관은 제 3이미지인 미국과 소련의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받았다.

175) 서재진,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117.

176) 이들은 소련군 제 25군 참모부 관할에 있으며 1945년 10월 29일 우즈베키스탄의 타시켄트를 출발하였다. 가장 거물급 인사로 허가이가 이 집단에 속한다. 서재진 (2006), p. 117.

177) 서재진 (2006), pp. 131-132.

6. 김일성의 국제정세관 변화: 반미로의 전환

앞에서 보았듯이 김일성은 소련에서 대위계급으로 활동하였다. 해방 후 그는 연설을 통해 “쏘련 군대가 북조선으로 들어와 반세기 동안이란 긴 세월을 일본 압박 밑에서 신음하던 조선인민을 해방한 지 벌써 5개월이나 경과되었습니다...쏘련 군대의 위력으로 해방된 북조선은 결정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에 나섰습니다”¹⁷⁸⁾라며 한반도의 해방에 미친 소련의 역할을 부각 시켰다.

또한 해방 이듬해 실시된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그것을 성공으로 평가하며 “가장 인민이 사랑하는 인민의 민주와 자유를 절대 존중하는 쏘련군대가 진주하여”¹⁷⁹⁾ 가능하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진주하는 첫날부터 조선인민에게 조선인민의 손으로 국가를 건설하며 관리할 권리를 주었으며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함을 절대 찬양하였다”¹⁸⁰⁾라고 하며, 소련이 북한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해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친소 성향은 그가 소련 군대에서 활동하였고 소련의 도움으로 국내적 기반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확고해졌다. 그렇다면 그의 대미 성향은 어떠하였을까? 김일성의 미국에 대한 성향은 해방 직후에는 크게 극단적이지 않았다. 1946년 11월 김일성은 연설을 통해 한반도가 연합국 군대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말하였고,¹⁸¹⁾ 해방 2주년 연설에서도 “북조선 인민회의와 북조선 인민위원회와 북조선 인민들을 대표하

178) 김일성, “目前朝鮮政治形勢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組織問題에 關한 報告(1946년 2월 8일),” 김일성, 『인민공화국수립의 길: 중요보고집』 (평양: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부, 1947), p. 4.

179) 김일성, “토지개혁총결보고에대한 결론요지 (1946년 4월 13일),” 김일성, 『조국의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p. 27.

180) 김일성 (1949), pp. 27-28.

181) 김일성, “8.15해방 1주년을 기념하면서 조선동포에게 고함 (1946년 8월 15일),” 김일성 (1949), p. 162.

여 쏘·미·영 연합국 인민들에게 해방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¹⁸²⁾

비록 이 연설 중에 김일성이 “영국과 미국 내에서도 일부 반동 독점자들은 전쟁 중에서 결속된 쏘·미·영 삼국의 동맹을 파탄시키고 세계에 새 전쟁을 방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¹⁸³⁾라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영국과 미국 안의 일부세력으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연합국에 대한 기본적 태도는 중도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태도가 바뀐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1947년 12월 김일성의 연설은 주목이 된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유엔의 간판을 가진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기구로서 자기의 침략정책을 대행할 소위 「유엔조선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미 제국주의와 야합한 국내 반동파들은 남조선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기 위하여 「대한노총」 같은 반동 조직을 만드는 등 각 방면으로 매국적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¹⁸⁴⁾

이렇게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강도높게 비판하는 내용을 볼 때, 이 시기 이후 김일성이 사실상 미국과 ‘결별’했다고 본 기광서의 분석은 매우 적절하다.¹⁸⁵⁾ 이처럼 김일성의 대미인식은 당시 소련과 미국의 관계가 그대로 반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 김일성이 미국을 제국주의라 몰아세우던 시점은 해방 직후부터가 아닌, 점차 미소관계가 경직 되면서부터이다. 이승만이 반소성향을 일관되게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것은 다시

182) 김일성, “8.15해방 2주년 기념보고(1947년 8월 14일),” 김일성 (1949), p. 377.

183) 김일성 (1949), p. 386.

184) 김일성, “북조선직업총동맹 제2차 중앙대회에서 진술한 연설,” 김일성 (1949), p. 466.

185) 기광서, “8.15 해방에서의 소련군 참전 요인과 북한의 인식,”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 (2005), p. 12. 또한 양호민, “『북한학보』 제32집 논문 : 조선노동당의 “미제국주의론” 상(上) -그 구조와 생명력-,” 『한국논단』 제219권 (2007), p. 141도 참조 할 것.

말하면 김일성이 소련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¹⁸⁶⁾ 소련이 북한에서 김일성을 부각시킨 것은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권력 장악을 위해 매우 좋은 조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김일성이 소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의 대미인식이나 특성은 제 1이미지인 지도자 요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제 3이미지 설명의 핵심인 미소관계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이승만의 경우, 미군정은 남한에서 어떠한 임시정부나 지도자들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이승만이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 하는 데에는 유리한 조건을 구성하였다. 앞에서 본 좌우합작 시기, 미군정은 중도적 인사를 내세워 한반도 임시정부를 구성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그의 반소적인 주장을 계속 할 수 있었다.

제 1이미지를 통한 분단의 기원을 살필 때 볼 수 있는 주안점은 이들이 정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당시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었는가가 그들의 노선을 주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한 해방 직후의 한반도 상황에서 어느 한 개인을 놓고 분단의 원인을 말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냉전기 이승만의 단정수립론을 중심으로 분단의 원인을 그에게 돌리려 했던 주장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탈냉전기 소련의 대북한 정책과 김일성을 지도자로 낙점한 과정 등을 살펴보면, 결국 분단은 미소 냉전이라는 국제 체제적인 요인을 배경으로 그 안에서 국내 정치세력간의 세력다툼이 맞물려서 벌어진 결과라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해방 전후 좌익의 움직임 뒤에는 항상 소련이 개입하고 있었고, 그

186) 북한의 국가형성기에 김일성의 자율성 문제를 다룬 연구는 백학순, “북한의 국가형성에 있어서 김일성의 자율성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제28권 (2)호 (1995), pp. 385-403을 참조할 것. 백학순은 김일성의 자율성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민족통일전선 추구, 민족주의적 요소,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기반으로 김일성의 자율성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형성기의 북한은 소련이라는 구조적 영향력과 결정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자율성은 극히 낮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앞에는 소련이 선택한 김일성이 있었다. 이는 남한의 이승만이 점차 미국과 대립각을 보였던 것과는 반대의 모습이었다. 흔히, 국가적 사건의 책임론을 거론할 때에는 국가의 유력한 정책결정자들에게 그 책임이 돌려질 수 있다. 그런데 냉전기에는 해방직후 소련의 북한정책에 관한 자료이용의 한계로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해방정국에서 국내 정치세력의 영향력은 어떠하였을까? 과연 분단은 내부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결정되었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풀어보도록 한다.

제 3 절 제 2이미지로 본 한반도 분단: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지금까지 제 1이미지로 살펴본 분단의 기원은 지도자 중심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분석수준인 제 2이미지도 보지 않으면 분단의 기원을 완전히 파악하기 힘들다. 제 2이미지는 그 국가의 국내정치 구조의 속성, 즉 그 국가가 어떤 이념 혹은 어떤 국내적 정치·경제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냐로 특정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제 2이미지에 해당하는 요인을 기존연구에서 찾는다면 민족 내부의 역량 부족이나, 정치세력간의 이념대결, 좌우파의 협력실패를 들 수 있다.¹⁸⁷⁾ 냉전기 이러한 설명의 대표적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 분단의 확정 과정을 보면 분단이란 결론이 나온 데는 그 당시 한국 정치인들과 좌·우 정당세력들이 각각 그 나름의 이유 때문에 분단 지향적 방향으로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한국이 분단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정치역량과 선택이 한국 정치운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 같다. 한국의 분단확정에 우리 정치지도자와 국민의 역할이 좋

187) 대표적인 내인론은 강만길, “민족분단의 역사적 원인,” 강만길, 『한국민족운동사론』 (파주: 서해문집, 2008), pp. 108-136.

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컸었다고 한다면, 분단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한국을 유도하는 데도 한국민의 역할이 클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¹⁸⁸⁾(강조는 필자)

즉 한반도 분단에 있어 내부세력이 좀 더 결집할 수 있었다면 당시의 분단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제시한 것이다. 좌우세력이 각자의 목적만을 중요시하지 않고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했었다면, 비록 미소 양국에 의한 분할점령의 상황이었을지라도 남북한은 충분히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러한 주장에서 나오는 국내 정치세력들의 협력가능 시기는 언제였을까? 해방 이후 국내적 세력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시기는 대개 1946년 5월부터 1947년 9월까지 진행되었던 좌우합작 운동시기와 1948년 있었던 남북협상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단의 원인으로 살펴볼 시기는 1948년 남북협상 시기보다는 좌우합작 시기가 더 적절하다. 1948년은 이미 1947년 10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 단독선거가 결정되었던 해였고, 트루먼 독트린, 마셜플랜 등으로 심화된 미소냉전으로 사실상 두 나라의 타협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물론 중도파가 주체가 되었던 좌우합작 운동시기 역시 미소의 대처가 있었던 시기지만, 1948년에 비하면 그 대립정도는 강하지 않았다. 당시 미소의 대립양상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그 정도가 덜했던 좌우합작시기가 내부적인 결집을 통한 분단극복에는 좀 더 나은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시기는 해방 후 사실상 처음으로 극우와 극좌를 망라하여 나름대로의 타협을 모색한 시기였다.¹⁸⁹⁾ 따라서

188) 이호재, 『韓國 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 (서울: 法文社, 2000), p. 476.

189) 여기에서 용어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바로 중도파냐 중간파냐의 문제이다. 두 용어를 보는 관점에 따라, 중도파를 중간파보다 더 긍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혹은 중간파를 좀 더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파악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두 용어 모두 극단을 지양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큰 구별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 절에서는 좌우합작 시기의 국내적 움직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1. 이념의 분파

한반도에서 이념적 갈등은 사실 그 유래를 해방시기부터 찾으면 안 된다. 그 기원은 이미 해방 전부터 배태되어 있었다.¹⁹⁰⁾ 그러나 논의의 특성상 그 시기를 해방 전후시기로 잡고 그 이념의 분파도 좌익과 우익으로 단순화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방 전후, 정당과 정파들의 이념적 차이는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1) 좌익의 상황

좌익이념의 최대 특징은 계급투쟁론에 입각, 무산계급의 해방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국가의 수립을 옹호한 것이다.¹⁹¹⁾ 또한 그들의 국제관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소련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한반도 좌익의 상황을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해방 후 북한의 정치파별은 북한정권 수립 전과 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¹⁹²⁾ 북한정권 수립 전 북한에는 다섯 개의 파별이 있었고 그들은 우익 민족주의 세력, 국내파 공산주의 세력, 소련파, 갑산파, 연안파로 나뉘었다. 이 중에서도 일제시대부터 기독교 논리에 따라 배일(排日)의 자세를 지녔던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이 발표된 후 탄압을 받

190) 조선후기의 이념적 분파에 대해서는 김학준, “第3章 韓國에서의 이데올로기적 갈등 - 解放부터 韓國戰 休戰까지(1945-195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7권 (1)호 (1990), pp. 61-62를 참조할 것.

191) 김학준 (1990), p. 62.

192) 김학준, 『한국전쟁』 (서울: 博英社, 1989), pp. 109-140.

거나 월남하여 북한의 정치에서 멀어졌다.¹⁹³⁾ 따라서 나머지 정치세력들 간에 심각한 이념적 갈등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¹⁹⁴⁾

남한에서는 좌·우익이 공존했는데 좌익의 최초 조직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¹⁹⁵⁾(약칭 건준)라고 할 수 있다. 중도 사회주의 노선을 가진 여운형이 당수였는데 그는 해방 1년 전 여름, 비밀리에 조직한 조선건국동맹을 모태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여운형은 해방 날 아침 조선총독부의 엔도총감과의 만남을 통해 당시 정치경제범의 즉시 석방, 앞으로 3개월간의 식량 확보, 국가건설 과정에서의 일체의 불간섭 등을 일본에게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¹⁹⁶⁾ 건준의 구성원들에는 소수 우파 지도자들이 있었으나 비교적 좌우익의 지도자가 고루 포진되어 있었다. 8월 28일 그들이 내세운 강령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강령

- 一.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 一.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기함
- 一.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¹⁹⁷⁾

193) 김학준 (1990), p. 64.

194)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북한의 이념 갈등은 따로 다루지 않는다.

195) 건준은 여운형이 일제 말기 조직했던 항일 지하단체 건국동맹을 모체로 삼되 일제로부터 치안권 등을 포함한 통치권의 중요한 부분을 이어받은 터전 위에서 1945년 8월 16일 공식 출범되었다. 김학준 (1990), p. 66.

196) 『매일신보』 (1945. 8. 17).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1_1945_08_16_0050(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197) 『매일신보』 (1945. 9. 3).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1_1945_09_02_0010(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이 같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건준은 완전한 독립국가건설을 제 1의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또한 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하고 있었고 정부수립 전 임시적 성격으로서 그 역할을 맡는다는 것을 말하였다. 여운형은 비록 사회주의자였지만 건준의 강령을 보면, 이들의 이념적 성향은 이때까지만 해도 중도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건준의 부위원장이었던 안재홍이 9월 1일 조선국민당의 중앙집행 위원장에 추대되고 부위원장자리를 사퇴함에 따라 건준의 위상은 약화되었다.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협동을 주창한 그의 사퇴는 신간회 세력과 우익 세력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건준의 민족통일전선적 성격은 상당부분 퇴색되게 된 것이다.¹⁹⁸⁾

그 후의 건준은 박헌영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선공산당이 좀 더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고, 9월 6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약칭 인공)으로 재창당되었다. 이들의 이념적 지향은 친일파의 숙청을 통한 일제잔재의 완전한 청산을 바탕으로 토지와 공장의 소유제도를 개혁해서 조선왕조의 봉건체제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노동자와 농민중심의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것이었다.¹⁹⁹⁾ 이는 인공의 정치성향은 앞의 건준보다 확실히 좌익 쪽으로 기울어졌음을 말해준다. 인공은 그 후 남한 내에서 우익과 갈등관계를 가지며 정권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2) 우익의 상황

다음으로 우익이념의 최대 특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립지향, 반사회주의혁명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기본적인 국제관에 있어서도 미국, 영국 등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지했다.²⁰⁰⁾

198) 정병준, 『몽양 여운형 평전』 (서울: 한울, 1995), p. 125.

199) 김학준 (1990), p. 67.

그렇다면 해방을 전후로 한반도에서 우익세력은 어떻게 그들의 입지를 세워나갔는가? 앞서 말한 건준에서 안재홍이 탈퇴한 후, 건준내부의 소수 우익인사와 그 지지자들은 건준의 후신(後身)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의 강령에 반발하며 임정봉대(臨政奉戴)를 주장한다. 이러한 인사들과 애초부터 건준에 반대한 국내 우익인사들이 모여 만든 정당이 한민당이다.

이들은 좌익진영에 대항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건준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이며, 따라서 이들을 타도하는데 한민당이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좌익이 무소불위의 세력을 떨치려 할 때, 민족진영을 대표해 공산주의와 대결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²⁰¹⁾ 이들은 다음과 같은 정강을 내세웠다.

강령

- 1) 조선민족의 자주독립국가 완성을 기함
- 2) 민주주의 정채수립을 기함
- 3)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기함
- 4) 민족문화를 양양하여 세계문화에 공헌함
- 5) 국제헌장을 준수하여 세계평화의 확립을 기함²⁰²⁾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민당은 강령 중 첫 번째로 자주 독립국가를 내세웠다. 완전한 독립국가를 지향한 민족주의 이념이 이들의 정치이념 중 하나였던 것이다.²⁰³⁾ 또한 정치제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한민당의 구성원은 주로 해외유학 등으로 국내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²⁰⁴⁾ 또한 지주 출신이 많았으며 항일투사나 진보주의 인사도 있었지

200) 김학준 (1990), p. 63.

201) 조병옥, 『나의回顧錄』 (서울: 語文閣, 1963), p. 145.

202) “전단,” (1945. 9. 6).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1_1945_09_06_0020(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203) 심지연, 『韓國 民主黨 研究』 (서울: 풀빛, 1982), p. 64.

만 친일파로 지목받는 이들도 많았다.²⁰⁵⁾ 따라서 이들은 결성 초기부터 친일파 청산의 입장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은 경제정책면에서 수정자본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²⁰⁶⁾ 정강 세 번째 내용인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제도를 시정,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해주고 대기업은 국유나 국영으로 하며 근로계급에게 생활의 안정, 경제적 균점(均霑)의 기회부여를 목표로 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나 대기업은 국가경영으로 하여 대자본의 절제를 기하고 대토지 소유는 금지, 자작농 정도로 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²⁰⁷⁾

이러한 강령에도 불구하고 한민당의 강령에는 다른 정당이 표방하고 있는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의 언급이 전혀 없어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었다.²⁰⁸⁾ 그렇지만 미군정이 진주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세력은 확장될 수 있었다. 미군정은 한국인에 의한 어떠한 단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시 국내정치적으로 세력이 컸던 인공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미군정은 인공 대신 친일파를 재기용하고 한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한민당은 미군정하에 사실상의 여당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⁰⁹⁾

그렇다면 김구를 위시로 한 임시정부계열은 해방 후 어떤 행보를 취했을까? 이승만에 이어 귀국한 김구와 임정의 간부들은 한국독립당(약칭 한독

204) 심지연 (1982), p. 64.

205) 김학준 (1990), p. 68.

206) 심지연 (1982), p. 62.

207) 심지연 (1982), p. 64.

208) 심지연 (1982), p. 63. 당시 친일파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국민당은 <일인토지의 회수와 농민에게 분배>, 조선공산당은 <봉건적 잔재 일소>, 신민당은 <친일파·반민주분자 등 반동세력을 제외한 민주역량의 집결>, 조선인민당은 <조선 내의 일본재산 및 민족반역자의 재산몰수>, 한국독립당은 <매국적과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징치>, 신한민족당은 <일본인과 민족반역자의 토지몰수>를 주장했다. 심지연 (1982), p. 63.

209) 김학준 (1990), p. 69.

당)을 창당했는데 이들은 우익에 속한 것은 분명했으나, 그렇다고 한민당과 이념적 성향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경제정책에 있어 계획경제를 표방하고 있었고, 일제잔재의 청산, 그리고 사회개혁에 동의하고 있었다.²¹⁰⁾ 그렇지만 이들은 이러한 이념차이에도 불구하고 신탁통치 정국에서 힘을 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해방 직후에 한반도에는 북한과 남한을 중심으로 좌익과 우익 세력이 포진하고 있었다. 좌익세력들은 거의 북한에 있었고 남한에는 이 두 세력이 공존하였다. 이론적으로 평가해보면 제 2이미지에 속한 이념, 그리고 표방하고 있던 경제정책의 차이가 확연히 구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분단을 극복하려면 서로의 차이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달리 국내 정치세력들이 좌우 이념에 따라 분열되어 있었다.

2. 제 2이미지 요인이 분단에 미친 영향(1945.8~1946.5)

1) 국내 정치세력간의 이념 대립

이러한 좌익과 우익세력의 중간에 있는 중간파의 이념적 성향은 어떠하였는가?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인 삼균주의(三均主義)²¹¹⁾를 채택했지만 그것은 좌익의 마르크시즘·레니니즘의 모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익의 이념도 수용하는 면을 가지고 있었다.²¹²⁾ 바로 이러한 세력들이 주체가 된 운동이 좌우합작운동인데 우선 이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배경

210) 김학준 (1990), p. 70; 또한 이들의 초기 구체적 강령에 대해서는 “전단,” (1945. 8. 28)을 참조 할 것.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1_1945_08_28_0010(검색일자: 2012년 11월 2일)

211) 상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소앙(趙素昂)이 독립운동 내부의 좌우익사상을 지양, 종합하여 독립운동의 기본방략 및 미래 조국건설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 체계화한 민족주의적 정치사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6495(검색일: 2012년 11월 2일)

212) 김학준 (1990), p. 63.

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해방 직후 한반도의 국내 정치세력들은 오랜 시간의 식민지 생활로 통일 정부의 수립이라는 동일한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은 국내 정치세력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구체적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자 좌·우익 할 것 없이 거센 반대선언들이 표명되었다.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조직된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 위원회’는 위원장에 권동진, 부위원장에 안재홍과 김준연을 임명하여 거족적인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좌익세력들도 비록 이 위원회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5년이 아니라 5개월도 타치는 불가’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²¹³⁾ 그러나 다음해 1월 2일 의외의 성명이 발표된다. 조선인민공화국이 ‘중앙인민위원회’의 이름으로 다음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모스크바 결정은 카이로 결정을 더 발전,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결정은 금일 조선을 위하여는 가장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한다. 3국의 우의적 원조와 협력(신탁)을 흡사 제국주의적 위임 통치체라고 왜곡하는 소위 반신탁 통치운동은 조선을 위하여 극히 위험 천만한 결과를 나타낼 것은 필연이다. 하루 속히 민주주의의 원칙(친일파, 민족 반역자, 국수주의자를 제외함)을 내세우고 이것을 중심으로 조선 민족 통일 전선을 완성함에 전력을 집중하여야 한다.²¹⁴⁾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좌익측이 그들의 기초를 ‘신탁통치 찬성’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불과 며칠 사이에 왜 좌익인사들은 입장을 바꾼 것일까? 냉전기에는 좌익의 입장변경에 소련의 지시가 있었다는 해석과, 그들이 입장을 변경해도 권력 장악에 상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태도를 바꿨다는 해석이 있었다.²¹⁵⁾

213) 송남현, 『解放三年史(1)』 (서울: 까치, 1985a), p 246.

214) 송남현 (1985a), p. 251.

소련의 지시에 대해서는 당시에 알려진 것이 없었으나, 권력투쟁의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조선인민공산당은 1월 1일 임시정부(약칭 임정)에 대해 두 단체의 해체를 전제로 한 합작과 그 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미소공위에 대응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임정으로부터 이 제안을 거부당했다.²¹⁶⁾ 임정이 이를 거부한 이유는 자신들이 있는데도 별개의 정부수립을 선언한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²¹⁷⁾ 내부적 결속이 어느 때보다 필요했던 시기에 서로의 입지문제에 타협을 하지 못한 상황은 그 후의 상황을 더욱 악화일로로 만들게 되었다.

좌익측이 탁치에 동조하자 한반도는 반탁 대 찬탁의 구도로 나뉘게 되었다. 우익은 2월 1일 이승만, 김구, 김규식, 권동진, 오세창, 김창숙, 조만식, 홍명희 여덟 명을 포함한 정당·사회단체·해외교민 단체 대표들로 비상국민회의를 개최하였고, 이것은 2월 14일에 ‘남조선 대한민국 대표 민주위원(약칭 민주의원)’으로 변환하여 조직화 되었다.²¹⁸⁾ 또한 이에 대항한 좌익도 실질적으로 인민공화국을 계승한 이른바 ‘민주주의 민족전선(약칭 민전)’을 결성했다.²¹⁹⁾

이론적으로 평가해보면 해방 후부터 제 2이미지인 이념의 차이는 항상 불화의 씨를 가지고 있었다. 소련 측에 있던 좌익과 미국 측에 있는 우익의 대립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두고 폭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좌익, 우익 모두 국가건설 시기에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려 하고 있었다. 시대적인 특수성 요인도 작용하였던 것이다.

215) 송남현 (1985a), p. 246.

216) 조선 인민공화국 중앙 인민위원회가 임시정부에 제시한 통일정부 수립 방안공문 전문은 송남현 (1985a), p. 262에 실려있다.

217) 김학준 (2008a), p. 962.

218) 그런데 민주위원의 경우 ‘자주적인 과도정부의 수립’이라는 처음의 목적에서 ‘미군사령관의 과도정부 수립’ 노력에 자문하는 기관으로 변하였다. 김학준,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송건호 외 (1995), p. 99.

219) 민전의 주축세력은 조선공산당과 여운형의 조선인민당이였다. 김학준 (1990), p. 99.

덧붙여 제 2이미지인 국민들의 입장차이도 분단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국제적 현실(신탁)과 국내적 요구(통일)사이에서의 타협이 힘든 상황에서 일반대중들과 정당과 정파의 입장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의 나라에서는 일반대중의 경우 국제적인 현실조건을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정당과 정파들은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보이게 된다.²²⁰⁾ 당시에 한반도의 정치적 성숙도는 시대적 특수성, 국민들의 국가경험 부족 등으로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당시 절실했던 내부적 통합에 있어서 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한반도문제에 있어 2이미지에 속한 이념대결은 단순히 국내 정치세력만의 몫이 아니었다. 바로 미국과 소련의 대립역시 동시에 작용했던 것이다. 이들의 대립은 구체적으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표출된다.

2) 미국과 소련의 이념 대립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국내 정치세력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미소공위는 예정대로 개최를 앞두고 있었다. 미소공위가 개최되기 전인 2월 28일, 국무부가 육군부에 보낸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메시지의 초안’은 후일 맥아더 사령관에게 지침으로 전달되었다.²²¹⁾ 이 문서에서 미국은 당시 그들이 원하는 지도부의 상(像)을 권고하고 있다. 그들은 극우적인 인사, 그리고 소련의 지배를 받는 인사들이 새로운 지도부로 선택되면 안 된다고 말한다.

국무부는 배제할 인사들로 이승만과 김구를 지명했는데, 그 이유는 김구 그룹은 망명객 출신으로 중국국민당에 의한 지원을 받은 그룹이기 때문이고, 이승만은 오랫동안 국무부와 갈등을 빚어 온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220) 이호재 (2000), p. 213.

221) “Proposed Message to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Draft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as a Suggested Message to be Sent to SCAP,” *FRUS*: 1946, 8, pp. 645-646.

국무부는 미소공위의 기본목표가 경제적, 정치적 국가통일임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이들은 네 가지 자유(언론과 종교의 자유, 궁핍,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토지, 재정개혁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추진시킬 수 있는 진보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의 목적은 공산주의적 프로그램을 유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미국 쪽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었다.²²²⁾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은 남한 내의 극우적 성향의 인사들을 지도자로 점치지 않고 있었다. 그 다음해 미소냉전이 굳어진 후에야 미국은 반공 성향의 인사들을 남한의 지도자로 지원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1946년에는 아직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표면화 되지 않은 때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한반도에서도 같은 기초를 유지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미국이 후일 한반도에 세워질 정부의 형태가 소련화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미국은 비록 이 시기, 극단적인 반공정책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트루먼 행정부의 반공정책은 점차 고개를 들고 있었다. 후일, 미국의 그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1946년 1월 16일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덕수궁 석조전에서 예비회담을 가진 미국과 소련은 1개월 이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2월 5일 폐회하였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합의대로 1946년 3월 20일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미국측은 아놀드 소장이, 소련측은 스티코프 상장이 대표단장이었으며 공동의장을 맡았다. 소련대표단은 스티코프, 북조선 주재 소련공사 짜라프킨, 북조선주둔소련군 군사위원 니콜라이 게오르기예비치 레베제프(Nikolai Georgievich Lebedev), 소련 국가공안부 북조선 지부장 게라심 마르티노비치 빨라사노프(Gerasim Martynovich Balasanov), 북조선주둔소련군 민정관리총국 산업부장 코르쿨렌코(T.I. Korkulenko) 등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²²³⁾, 수행인원은 100명을

222) *FRUS*: 1946, 8, pp. 645-646.

223) 『해방일보』 (1946. 3. 23).

조금 넘었다.²²⁴⁾

미국 대표단은 랭던(William R. Langdon)고문, 소련문제에 관해 구체적 지침을 받아 입국한 전 주소(駐蘇)미국대사관 서기관 타이어(Charles W. Thayer), 러취(A. L. Lerch)소장, 스팔딩(Sidney P. Spalding)소장, 베닝호프, 부드대령, 연합국 총사령부에서 파견된 브리튼(Frank H. Britton)대령, 언더우드(J. C. Underwood) 대령, 헐리히(W. J. Herlihy)중령, 코넬슨(A. J. Cornelson)중령, 엔더스(G.B. Enders)중령 및 전문보조원들로 구성되었다.²²⁵⁾ 이러한 양측의 배석 하에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미 군정청 사령관인 하지 중장은 개최연설을 하였다.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모든 한국민들은 미래 그들의 장래에 대해 굉장한 희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오늘을 한국사에 있어 위대한 시작으로 여길 것입니다.....이 공동위원회의 토의 결과는 미소가 오랜 시간 압제적인 세력에 의해 고통당했던 국가를 자유국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지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미국과 소련의 협력 능력을 전세계에 내 보일 것입니다.....우리는 정치, 경제, 행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정당하고 평화롭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²²⁶⁾

하지의 축사에 이은 스티코프의 연설이 있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일은 바로 이 나라의 재건과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임시한국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임시한국 민주정부는 모든 민주정당과 조직의 광범위한 통합을 기반

224)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과주: 한울, 2011), p. 334.

225) 신복룡 (2011), p. 334.

226) "Statement of Lt. Gen. John R. Hodge at Opening Session of Joint Sovirt-US Commission (20 March 1946)," RG 332, Box 66, Suitland: WNRC, in 신복룡(편), 『韓國 分斷史 資料集 3-3』 (서울: 原主文化社, 1991b), p. 511.

으로 탄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들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여야 합니다. 오직 그러한 정부만이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삶에서 일제식민의 잔재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내부의 반동적 그리고 반민주적 세력들과의 투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생활의 재건에 있어 신속함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극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싸울 수 있고 한국인의 정치적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련은 미래에 한국이 소련의 공격에 기반이 되지 않게 하는 민주적이고 독립적 국가가 되게 하는 데에 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임시적 신탁통치는 한국인들의 근본적 희망과 부합하는 것입니다.²²⁷⁾(강조는 필자)

이러한 연설문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다. 먼저 미소공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 임시정부 참가 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위에서 처럼 스티코프는 그 조건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미소공위가 처음부터 그 결렬의 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신탁통치 결사반대’였던 우익은 위의 조건에 부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연설문에는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구상이 나타난다. 소련은 한국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한국이 소련에 공격적 기반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후술된 해방 전 한국에 대한 소련의 전략 보고서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것은 한반도에 친소정권을 세우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미소공위가 진행 되어감에 따라 소련은 더욱 ‘합의를 통한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수립’은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²²⁸⁾

이렇게 시작된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협의대상 문제, 그리고 ‘민주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난항을 거듭했다. 미국대표단은 ‘민주적’이

227)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46, 8, pp. 652–654.

228) 이정식·캐스린 웨더즈비, “스탈린은 해방 한국의 제주도를 욕심냈다,” 『신동아』 (1993년 9월호), p. 570.

라는 단어가 모스크바 협정에서 규정되지 않았는데도 소련이 자기들 구미에 맞게 그것을 규정하려 한다고 했다.²²⁹⁾ 예를 들어, 모스크바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반도에서의 민주주의도 반대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이다.²³⁰⁾

그러나 미국은 ‘민주적’이라는 의미를 평등,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기초로 하는 서구적 개념의 통치원칙으로 해석했고, 협의대상에 있어서도 그들이 반드시 모스크바 협정에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²³¹⁾ 따라서 이러한 논쟁은 공위의 원활한 진행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론적 주안점은 제 2이미지인 이념의 차이는 체제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이나 북한,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모두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확연히 달랐다.

결국 1946년 4월 18일 소련과 미국은 ‘지금부터라도 미소공동위원회에 협력하면 과거 반탁운동을 불문에 붙이고 협의대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공동성명 5호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익진영은 이 사항 때문에 분열했다. 이들은 애초에 탁치반대를 기치로 움직였는데 이 공동성명에 응한다는 것은 바로 탁치에 찬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입장은 ‘먼저 공위에 참여한 후 그 후에 신탁통치를 반대해도 된다’는 입장과 ‘어떤 이유에서든 공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양분되었다.

하지 중장은 성명을 통해 신탁이나 반탁에 상관없이 일단 선언서에 서약을 해야 공동위원의 협의상대가 될 수 있다는 성명을 낸다.²³²⁾ 즉 선언서에

229) “Report of U.S. Delegation US-USSR Joint Commission (20 August 1947),” RG 332, Box 66, Suitland: WNRC, p. 3. In 신복룡(편), 『韓國 分斷史 資料集 2』 (서울: 原主文化社, 1991a), p. 543.

230) 신복룡(편) (1991a), pp. 587-588.

231) 신복룡(편) (1991a), pp. 544-545.

232) 『동아일보』 (1946. 4. 28).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np_da_1946_04_28_0030(검색일4월 7일)

선언을 한다고 해서 신탁과 반탁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니, 일단 선언서에 서약을 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탁치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우익진영에게 참여의 변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5월 1일 비상국민회의, 한민당, 한독당 등 우익 민족진영에 속한 20여 단체가 이 선언서를 제출하게 된다.²³³⁾ 그러나 서명을 끝낸 정당, 사회단체 구성원의 수가 당시 남북한 인구의 두 배가 넘는 약 7,000만명에 이른 것에 대한 소련측의 반발이 있었다.²³⁴⁾ 미국은 이 현안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여겨 38선 철폐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임시정부 구성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운 소련측과의 대립으로 이 또한 쉽지 않게 되었다.²³⁵⁾

1946년 5월 6일 미국측 단장의 말은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 준다. “소련 대표단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 제 2항하에 개최되고 있는 논의의 절반도 토론하지 않았다. 따라서 38도선의 제거를 통해 한반도를 통일시키기 위한 문제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²³⁶⁾ 결국 이러한 소련과 미국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50일 만에 걸친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무기휴회에 들어갔다. 소련측 대표 스티코프는 5월 9일 특별열차 편으로 대표단과 함께 평양으로 철수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 한반도에서는 국내 정치세력간의 이념 차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이념차이도 미소공위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중심으로 협의 용어를 해석하고 있었다.

233) 송남현, 『解放三年史(2)』 (서울: 까치, 1985b), pp. 322-323.

이 선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국가로서의 한국의 재건, 민주적 원칙하에 국가를 발전시키는 조건 창조, 그리고 일본지배결과와 비극적 결과를 가급적 빨리 종식 시킨다’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한다. 또한 임시정부 수립에 있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두번째 사항을 이행한다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더 나아가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정부에 참여함으로써 모스크바 결정 3항에 예시된 방법에 관한 제안을 수행하는 데에 공동위원회와 협조한다.” “Joint Communique No.5,” (17 April 1946). In 신복룡(편) (1991a), pp. 592-593.

234) 소련은 이것을 우익 민족진영이 제출한 ‘유령명부’ 때문으로 보았다.

235) 송남현 (1985b), p. 324.

236) “Exhibit No.19,” in 신복룡(편) (1991a), p. 597.

3. 제 2이미지 요인이 분단에 미친 영향 2(1946.6~1947.9)

1) 국내 정치세력간의 이념 대립

미소공위가 휴회되고 좌우합작운동을 미국이 지원하기 전, 서울의 미국 정치고문관 랭던과 테이어는 당시 남한정세를 미국정부에 보고하였다. 앞서 본 미소공위 대비지침에서와 같이 이들은 “소련의 한반도 정책이 마치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것과 유사함”을 지적하였다.²³⁷⁾ 이들은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소련이 한반도에서 동유럽에서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묵과하면 그 같은 정책은 아마 한반도 전체를 뒤덮을 것”이라고 하며 “미국은 소련에게 확고함을 보여주고(소련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에 미국이 반대한다는 것), 공산주의자들이 중도 인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음을 이용, 남한에서 이들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여 북한에 대한 그들의 저항을 장려해야 한다”²³⁸⁾는 이들의 전략을 밝혔다.

미소공위가 휴회되고 시작된 좌우합작운동은 중국의 ‘국공합작’ 모형과 관계가 있다. 미국 측은 당시 중국에서 추진하던 마셜장군의 이 모형에 따라 좌·우 정치 세력을 타협시켜서 미소공위를 재개시키고 통일정부 수립의 기반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²³⁹⁾ 따라서 미국은 역시 이 시기에도 극우적 인사는 배제하려고 했다.

이러한 극우적 인사로는 앞에서 본, 김구와 이승만이 대표적이었는데 랭던과 테이어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다. “김구는 스스로의 불찰로 정계에서 물러났고, 이승만의 경우 비록 그가 전국적 인물

237)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K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 (24 May,1946),” *FRUS*: 1946, 8, p. 685.

238)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K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 (24 May,1946),” *FRUS*: 1946, 8, pp. 685-686.

239) 이호재 (2000), p. 301; 이정식, “해방정국과 좌우합작,” 이정식 (2006), p. 330; 강만길, “좌우합작운동의 경위와 그 성격,” 송건호·강만길(공편), 『한국민족주의론2』 (서울:창작과 비평사, 1989), p. 69.

중의 하나라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지중장은 그를 임시정부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인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²⁴⁰⁾

그렇다면 미군정은 좌우합작을 주도할 인물로 누구를 주시하고 있었는가? 바로 여운형과 김규식이었다. 여운형은 미소공위가 휴회된 후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共倭는 휴회되었으나 실망은 않는다. 조선독립을 약속한 삼상결정이 엄존하는 이상 현지 외교절충에서 생긴 일시적 齟齬(저어)로 문제될 바 아니오 華府(워싱턴)와 莫府(모스크바)에서 그 타개점을 발견하여 해결 지으리라고 믿는다. 會談이 7주 간이나 계속되었으나 朝鮮人은 참가한 일이 없으니 우리 政府樹立이 지연된 책임은 오직 양국에 있다. 휴회케 된 이유는 재검토하여 보아야 하겠지만 朝鮮人을 한번도 부르지 않고 共倭를 무기휴회하는 것은 절대반대다. 共倭에 대한 만반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의사를 듣기 위하여 빨리 속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민족은 엄정한 자기비판을 해서 聯合國이 보장하여 준 獨立을 완수하기 위하여 또 민족이익을 위하여 聯合國과 협조하여야 한다. 민족분열과 국제고립을 초래할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며 진정한 애국적 양심으로 자유통일을 급히 하며 續開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한다.²⁴¹⁾

이와 같이 여운형은 미소공위에 한국인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삼상회의의 ‘조선독립에 대한 합의’를 언급하며, 그 목적을 위해 최대한 빨리 공위의 속개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는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진 여운형, 그리고 김규식을 굿펠로우의 후임인 버취 중위로 하여금 만나게 하였다. 처음에 이러한 합작이 힘들 것임을 예상한 김규식은 주저하였지만, 이승만의 설득과 하지의 권고로 이를 받아들인다. 당시 그는 “좌우

240) *FRUS*: 1946, 8, pp. 688-689.

241) 『중앙일보』 (1946. 5. 11).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2_1946_05_11_0070(검색일: 2012년 8월 16일) 괄호 안 표기는 필자 주.

합작이 독립을 위한 한 단계라면 독립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 형님(이승만)이 나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 댈 것도 안다. 또 떨어뜨린 후에는 나를 짓밟을 것도 안다. 그러나 나는 독립정부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내가 희생된 다음에 형님이 올라서면 될 것이다”²⁴²⁾ 라는 말로 그의 의사를 대신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미군정은 온건우파의 대표 김규식과 온건좌파의 대표 여운형을 중심으로 내세워 좌·우 연립정부의 결성을 구상하였다. 이렇게 미소공위 휴지기에 시작된 좌우합작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1946년 5월 25일 좌우합작운동의 대표들은 첫모임을 가졌다. 그 후, 여러 번의 접촉이 있었고, 6월 13일에는 좌우합작 준비회담이 벌어졌다. 민주의원 의장대리의 김규식, 한민당 총무 원세훈, 인민당 당수 여운형, 민주주의 민족전선 의장단의 허헌 등 거물급 인사 네 명이 참가하여 국민들의 합작운동 성공에 대한 열망과 지지가 집중될 수 있었다.²⁴³⁾ 그 후, 원세훈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이 합의되었음을 발표하였다.

- 1) 대내·대외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대내적으로는 부르조아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불편불당한 선린 외교정책이라야 할 것
- 2) 좌우를 막론하고 진실한 애국자며 진정한 혁명가라면 절대로 배격이나 중상을 금하고 이를 절대로 옹호하여야 될 것
- 3) 남북합작은 북조선에 있어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제외하고 언론 집회 사상자유가 허여된 후에야 비로소 합작이 가능할 것²⁴⁴⁾

이 같은 합의내용은 우선 우익과 좌익세력이 정치체제로서 공산당 일당 독

242) 송남현 (1985b), pp. 255-256.

243) 이호재 (2000), p. 302.

244) 『조선일보』 (1946. 6. 19).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2_1946_06_18_0080(검색일: 2012년 10월 24일)

재체제는 배제하고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또한 친일파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한 애국자’라 칭함으로서 합작과정에서 친일파를 배제할 것을 표명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은 극좌파와 극우파의 지지를 받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또한 6월 29일 러치 군정장관이 제의한 ‘입법의원안’을 좌익측인 민주주의 민족전선 측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안’으로 간주하여 미군정을 비난한 사건이 벌어졌다. 좌익측이 좌우합작 5원칙을 제시한 후 휴회된 합작위원회는 우익측이 합작의 8원칙을 제시한 후 다시 혼돈 속으로 들어갔다.

이 원칙 중에 문제가 된 것 중 하나는 친일파에 대한 좌·우익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지지’와 ‘친일파 민족반역자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좌익의 주장과, 그러한 것들은 임시정부 수립 후에 결정하자는 우익의 입장은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좌익 극좌파들은 ‘우익 8원칙’을 이승만식의 구태의연한 ‘무원칙한 원칙’이라고 비난하였고,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들은 ‘좌익 5원칙’에 대해 그것은 ‘합작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김규식과 여운형은 다시금 좌우합작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여운형은 10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합작문제는 우익이 싫든 좌익이 싫든 간에 할 수 없이 합작하여 연립내각과 같은, 좌우를 통한 합작이 있어야 비로소 통일이 되고 독립이 될 것이다. 북조선에서도 좌우 합작은 최초 미-소 공위 속개를 목적인 것이므로 반대가 없었으나 다만 입법기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말로 합작이 계속되어야 함을 호소하였다.²⁴⁵⁾

1946년 10월 7일 마침내 ‘좌측의 5원칙’과 ‘우측의 8원칙’을 절충한 ‘좌·우 합작 7대원칙’이 발표되었다. 10월 10일 트루먼 대통령의 배상특사 폴리는 이와 같은 7원칙 제안에 대해 이것은 ‘민주주의적 정부가 조선에 수립되

245) 송남현 (1985b), p. 378.

는 데 일보 진전을 보인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이승만, 김구, 신민당, 한독당, 사회민주당 등은 찬성의 의사를 나타냈다.²⁴⁶⁾ 다음이 좌·우 합작 7원칙의 내용이다.

본 위원회의 목적(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조국의 완전독립을 촉진할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을 下와 如히 議定함.

-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 (2)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조건부몰수, 채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大建物を 적정처리하며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며, 사회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하며 민주주의 건국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 (4)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의·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 (5)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하에 검거된 정치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토록 노력할 것.
- (6) 입법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기능과 구성방법 운영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 (7)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의 자유가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²⁴⁷⁾

그렇지만 모두가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은 아니었다. 독촉국민회는 아직 잘 모른다는 입장을, 한민당도 몇 가지 점에서 모호한 점이 있는 것이 유감이

246) 송남현 (1985b), pp. 381-382.

247) 이호재 (2000), p. 306.

라고 했는데, 특히 제 1조가 신탁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 3조의 토지문제에 대해서도 무상분여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적 파탄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²⁴⁸⁾ 신민당은 토지 개혁과 입법 기관의 문제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²⁴⁹⁾ 10월 10일 비상국민회의는 토의 끝에 이 원칙을 반대하였고 공산당은 아예 이 움직임을 파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절충시키기에 각파들의 주장은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좌익은 그때부터 그들의 협상방식을 바꾸었다. 10월의 대구 폭동사건으로 대표할 수 있는 공산세력의 유혈폭력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는데 다음해 5월 제 2차 미소공위가 개최되기 전까지 이러한 폭력은 파업과 폭동 등의 형태로 계속 진행된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본 제 2이미지 중 좌익이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좌익은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사회주의국가 수립을 지향한다. 또한 남한에서의 좌익은 북한에서의 우익이 탄압을 받은 후 ‘월남’의 방법을 택한 것과 달리, 즉시 ‘월북’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산으로 들어가 군사적 저항을 하거나 대중을 동원한 ‘항쟁’ 혹은 ‘폭동’을 벌였다.²⁵⁰⁾

우익 역시 그들의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였다. 한민당은 비록 토지개혁엔 이의를 제기했지만 입법의원에는 찬성을 하여 동년 12월에 입법의원엔 참여한 후 합작위원회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여운형은 입법의원엔 반대하고 합작위원회는 찬성하여 그들의 대립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에 더욱 거세졌던 공산당의 폭력사태에 대해 미군정이 강력하게 대처하기 시작하면서 정국은 더욱더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제 2이미지인 이념의 차이가 남한 국내정치에서의 분열에 영향을 준 것이다.

248) 『동아일보』 (1945. 10. 9).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3_1946_10_08_0340(검색일: 2012년 8월 17일)

249) 송남현 (1985b), p. 382.

250) 김학준 (1990), p. 65.

2) 미국과 소련의 이념 대립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한 미국은 처음에 다음과 같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① 중간좌우의 정치세력이 단합하여, ② 입법기관 설립에 참여하고, ③ 민주적 개혁안을 세워 실천함으로써, ④ 일반 대중이 미국정책을 적극 지지하게 되어, ⑤ 소련이 압력을 느껴 미소공위에서 미국의 주장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다.²⁵¹⁾

그렇지만 비록 불충분하기는 했어도 2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그 목표를 완성했을지 몰라도 3, 4, 5단계는 그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정식의 지적처럼 개혁안을 세운다는 것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사회의 부조리, 그리고 일제시대에 더욱 악화된 한국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시정하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 국민이 수궁할 수 있는 제도를 이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었다.²⁵²⁾ 그러나 좌우측이 큰 의견차를 보였던 토지문제나 친일파문제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미국의 정책변경도 좌우합작 운동전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좌우합작위원회와 미군정은 남한에서 입법기구설립을 서둘러 추진하였다. 당시 북조선에서 같은 해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출범, 11월 3일 각급 인민위원회 선거가 실시되며 거기에서 뽑힌 인민위원들이 자신들의 대의원들을 선출해 북조선 인민회의를 구성하게 할 것이라는 예고가 그들을 자극하였기 때문이었다.²⁵³⁾ 1946년 10월 30일의 민선의원 45명에 대한 선거와 12월 관선의원 45명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12월 11일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 개최되었다. 21일 김규식은 기자회견에서 “최단기간 안에 좌우와 남북이 연결된 총선거에 의한 입법기구로서 임시

251) 이정식 (2006), p. 345.

252) 이정식 (2006), p. 370.

253) 김학준 (2008b), pp. 557-558.

정부를 수립토록 노력할 것이며, 미-소공위가 계속 지연된다면 남북을 통한 확대 입법기구 만으로도 삼상결정에 충실한 임시정부의 수립이 가능할 것”²⁵⁴⁾이라며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 시작된 좌우합작운동이었지만 미소양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공위재개를 계획하고 있었다. 1946년 8월 12일, 하지는 공위의 재개를 요청하는 서한을 소련측 대표에게 보냈고 그에 대한 답신이 오고간 끝에 공위의 재개문제는 진전되게 된다.

1947년 5월 21일 다시 속개된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하지 중장은 “전 세계의 이목이 이 회의에 집중되고 있으며, 한국민이 임시정부의 출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때 양국간에 철저한 양해가 성립되어 가장 절박한 통일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이루자”고 개회사를 했으며, 스티코프는 “공동위원회에 부담된 책임 전체를 인식하면서 한국에 관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정확히 실천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연설했다.²⁵⁵⁾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소련측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최우선시하고 있었다. 비록 미소공위 휴지기에 좌우합작운동이 진행되었으나 극우나 극좌세력이 그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그 나머지 세력을 중심으로 입법위원의 설립과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 2차 미소공위가 그러한 불만세력들과 공존하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익세력들은 23일 돈암장에서 신탁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익의 최고슬로건은 ‘반탁’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였을 경우, 제 2차 미소공위에 어떠한 의견도 내지 못하는 현실이 우익의 고민이었다. 따라서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의 반탁 대표들은 우선 미소공동위원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 그리고 신탁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254) 송남현 (1985b), p. 396.

255) 송남현 (1985b), p. 475.

단체연서로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방향을 정하기로 결정한다.

좌우합작위원회도 미소공위재개에 따라 김규식 명의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합작 7월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의 최대의 목표인 공위가 재개되었으므로 최단기간내에 통일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성취하자”는 것이었다.²⁵⁶⁾

그렇지만 사태는 결코 순탄하게 흐르지 않았다. 이승만과 김구 등 우익세력은 결국 사실상의 반대와 다름없는 참여보류의 뜻을 선언했고, 좌우합작의 중심인사들의 신변에도 문제가 생겼다. 김규식은 부인의 뇌물연루를 내세운 비난여론으로 곤경에 빠졌고, 여운형은 1947년 5월 12일 암살의 위기에까지 몰렸던 것이다.²⁵⁷⁾ 협의대상을 놓고 또 다시 대립국면을 지속한 끝에 결국 1947년 8월 28일 미국은 한국 문제를 미, 소, 영, 중 4개국 회담에 맡기자고 제안, 다음해 한국문제를 국제연합에 상정한다. 9월 26일 소련은 미국과 소련의 양국 군대를 동시 철군하자고 제안했으며 다음해 18일과 21일 미국이 공위 휴회제안, 그리고 소련대표단 철수로 미소공위는 해산되었다. 그해 말 6일에는 좌우합작위원회도 공식해체를 선언, 결국 내부의 힘으로 독립국가를 수립하려 했던 움직임은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여기에서 볼 이론적 관점은 제 2이미지를 통해 살펴본 분단 기원의 원초적 문제(신탁통치)가 이미 제 3이미지인 미소의 국제적 대립과 갈등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정치세력간의 대립은 서로 타협을 통해 합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국내적인 합의가 있었다라면 아무리 미소의 대립과 압박이 심하였더라도 분단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내재적 역량 중시’의 입장이 과연 실질적인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준다.

그 뿐 아니라 미소공동위원회에서의 상황은 내부적으로 해결되기 매우 힘

256) 송남현 (1985b), p. 476.

257) 김학준 (2008b), p. 728.

든 것이었다. 특히 소련은 협상대상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국가가 건설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 힘으로 체제적 영향을 극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모스크바 삼상회의 찬성의 배경

이상과 같이 냉전기 분단의 원인을 제 2이미지로 살펴보았다. 당시 모든 정파의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 뒤에 실질적 세력인 미국과 소련의 이념차이 역시 한반도의 통일된 국가설립을 힘들게 하였다. 앞 절에서는 ‘과연 내부적 역량으로 분단을 막을 수 있었을지’의 문제를 주로 미국 측의 대응으로 살폈는데, 이번에는 탈냉전기들어 새롭게 밝혀진 소련측의 자료를 통해 고찰해본다.

앞에서 본 것처럼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은 우익이나 좌익에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불과 5일정도의 시간이 흐른 1946년 1월 2일, 좌익진영은 갑자기 이 결정을 찬성했다. 냉전기의 설명에서처럼 이 찬성 배경을 두고, ‘소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다소 막연한 추측과, ‘찬탁을 해도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좌익들의 자신감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문서, 그리고 연구로 이러한 태도변경 뒤에는 소련의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조선공산당의 수장이었던 박헌영이 북한에 가서 사실상 소련의 지시를 받고 온 것이었다.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는 발표에 남측에서는 거센 반발이 있었던 반면, 이북 측의 큰 동요는 없었다. 소련통신의 보도도 없었고 소군정의 민정사령관 로마넨코도 평양으로 돌아오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전 노동당 고위간부의 증언에 의하면 소련본국에서 아무런 훈령이 없자, 조선공산당 지도부, 서울 주재 소련부영사 샤브신은 박헌영에게 평양행을 권했다.²⁵⁸⁾

258)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 188.

1945년 12월 28일 밤에 평양으로 출발한 박헌영은 29일 평양에 도착해 김일성과 회동을 하여 반탁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했다. 30일 로마넨코는 평양으로 돌아와서 박헌영과 김일성을 만나 신탁통치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신탁통치를 주장해 하는 수 없이 절충안으로 5년간 후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후견제는 신탁통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²⁵⁹⁾ 즉 소련은 신탁통치의 발원지는 미국이고 신탁통치라는 용어를 ‘후견제’라고 설명하며 신탁통치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장을 밝힌 당시 소련의 태도는 박헌영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닌, 사실상 그들이 결정한 내용을 통보한 것이었다.²⁶⁰⁾

이에 덧붙여, 소련은 전국적인 반탁열기를 잠재우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대비했다.²⁶¹⁾ 이들은 신탁통치가 실현될 수 있게 당과 대중단체를 확대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집단을 중심으로 당시의 삼상회의 결정과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 청원운동, 지지운동으로 확산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시사항을 들은 조선공산당과 북조선 분국은 다음해 1월 2일 찬탁입장을 천명했다. 그리고 2주일 내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소련과 미국 군정에 청원서, 진정서를 보내는 것도 논의했다. 특히 조선공산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반탁진영을 분열시키고 삼상회의에 대한 지지여론을 확산시켜, 반탁의 고립을 꾀하려는 방안도 논의되었다.²⁶²⁾

여기에서 당시 이렇게 입장을 변경한 좌익입장에 대한 분석을 해 볼 수

259)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 191. 미국은 이 문서의 러시아본에 나와있는 어뻐까(опека 오빠까(러시아식), 오페카(영어식))라는 단어를 영어의 트러스티십(trusteeship)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김학준 (2008a), p. 963.

260)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 191.

261)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 191.

262)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a), p. 191.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소련의 결정이다. 불과 며칠사이에 좌익이 입장을 바꿀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당시 소련의 태도는 확고했다고 볼 수 있다. 미소양국이 점차 대립을 보이던 이 시기, 소련의 의지를 국내정치 세력이 막기는 힘들었다.

다음으로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의 권력욕이다. 소련의 압박이 있었다 해도 별 저항 없이 소련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의 동기에는 해방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들의 권력의지가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는 외압에 굴하지 않는 내부적 통합이 있었어야 했는데 당시 그들은 외압에 편승, 그들의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었다.

5. 미소공위의 근본적 딜레마: 이념 차이

앞 절에서는 미소공위를 준비할 때의 미국 전략을 살펴보았다. 당시 미국은 비록 그들의 체제에 부합하는 인사들을 내세우려고 했지만, 극우적인 인사들은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탈냉전기 새로운 연구는 소련 역시 미소공위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몰로토프 소련 외무성 장관은 1946년 3월 16일 소련군정 사령부 대표단에게 훈령을 보냈다. 총 네 개 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훈령에는 소련의 구상이 나타나 있다.²⁶³⁾ 그 가운데 제 2절인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와 지방자치 기관 창설에 관한 권고 작성’의 주요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3) 총 네 개절로 구성된 이 훈령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창설에 대한 소미공동위원회의 소련군사령부 대표단을 위한 훈령’이다. 전체분량은 A4지 여덟 쪽이고, 1. 회의 절차, 2.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와 지방자치 기관 창설에 관한 권고 작성, 3. 정치강령, 4. 민주정당과의 협의로 이루어져 있다. 뒤에 인용한 부분은 바로 2절의 부분이다. 기광서. “훈령으로 본 소련의 미소공동위원회 전략,” 『역사문제연구』 (24)호 (2010), p. 302를 참조할 것.

2. 임시정부는 민주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정부 구성시 상(相; 장관)직책은 남북 조선 민주정당과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들로 똑같이 배당된다.
3. 임시정부 상 직책 후보로는 남북조선 민주정당 사회단체 대표가 추천된다.
4. 임시정부는 조선 영토전력에서 입법권 및 행정권을 행사하며, 지방행정권은 보통·직접·평등·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 인민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행사한다.
5. 새 정권기관에 일본과 협력한 인물들은 등용하지 않는다.
8.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내각수상, 부수상 2인 그리고 다음의 성들: 1) 내무성 2) 외무성 3) 국방성 4) 재정성 5) 산업성 6) 상업성 7) 농림성 8) 교육선전성 9) 사법성 10) 보건성 11) 노동사회보장성 12) 교통성 13 체신성²⁶⁴⁾

먼저 제 5조에서 알 수 있듯이, 소련은 1945년 9월 20일의 스탈린의 지령에서부터 강조했던 ‘반일 인사의 등용 거부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다. 미소공위가 시작되고 3일 후인 1946년 3월 23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미소공위를 통해 수립될 조선인의 임시정부의 지향강령으로 ‘김일성장군 20개 정강’을 발표한다.

여기에서 제 1항은 ‘조선의 정치 및 경제 생활에서 과거 일본통치의 일체 잔여를 철저히 숙청할 것’²⁶⁵⁾이었는데 이 내용 역시 당시 소련의 미소공위 대비 지령 제 1호 ‘일제 지배의 잔재에 대한 철저한 청산, 국내 반민주적인 반동분자들과의 투쟁, 친파쇼 반민주 정당사회 단체, 그룹 및 개별 분자들의 활동 금지’²⁶⁶⁾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소련 측이 모스크바 결정에 반대하는 모든 인사를 이 지령에 포함되는 반민주주의 인사로 간주한 데에 있었다. 그러한 기준으로는 미소 협상은 처음부터 불화의 씨를 품고

264) 기광서 (2010), pp. 303-304.

265) 조선중앙통신사(편), 『조선중앙년감(국내편) 1949년』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p. 67.

266) 기광서 (2010), p. 309.

있었다.

다음으로 소련은 임시정부의 내각을 제 8항에서처럼 매우 세부적으로 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이 구상했던 임시정부 내각 구성안 3월 15일자 내용을 보면 수상에 여운형, 부수상에 박헌영과 김규식의 남측 인물을 배치했고 국방상, 내무상과 산업상에는 김일성, 최용선, 무정으로 북측인사를 배치하였다. 역시 이들은 내각 후보 명단에 이승만, 김구 및 반탁인사를 배제하였다.

이렇게 탈냉전기 밝혀진 소련의 훈령은 미소공위가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미국 역시 그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을 위주로 임시정부를 구성하려 했었지만, 소련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내각, 정부운영 방침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던 것이다. 그리고 공위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모스크바결정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배제여부를 두고 문제가 생겼다. 결국 5월 7일 미소공위는 무기휴회 되는데, 31일 스티코프는 당국에 양보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공위 재개문제에 대해 소련이 먼저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보고했다.²⁶⁷⁾ 소련의 견고한 태도는 시종일관 유지되었던 것이다.

위 훈령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소공위의 근본적 딜레마는 서로 내세우려는 인사가 결코 합치되기 힘들었다는 것이었다. 당시 남측에서는 아직 친일 파문제의 작업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미군정에 의해 그들의 세력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또한 이런 세력들도 미소공위 참여를 바랬는데, 그러한 인사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했던 소련의 훈령은 공위의 앞날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친일 인사들이 많았던 우익의 입장에서 만일 소련의 제안대로 미소공위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결코 물러설 수 없었던 것이다.

267) 기광서 (2010), p. 314.

6. 미공에 빠진 통합

1) 소련의 좌우합작 방해

1946년 5월 7일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재개되기까지는 근 1년의 시간이 걸렸다. 앞에서 보았듯이 미군정은 이 시기에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소련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였는지 살펴본다.

반탁운동으로 말미암아 남한의 우파와 김구 중심의 임정은 비상국민회의(약칭 국민회의)로 그 세력을 통합하게 되었고, 미 군정은 이 국민회의를 자문기관으로 삼아 미소공위에 참여시키려 했었다.²⁶⁸⁾ 또한 이들은 이 국민회의를 민주의원으로 변환하였는데 이것은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었다. 미군정이 김규식과 여운형을 내세워 추진한 좌우합작운동의 목적 중 하나는 온건한 중도파가 모스크바협정을 지지하게 유도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미국은 중도파를 통해 미소공위를 진척시키면 우파 역시 따라올 것으로 계산했고, 중도파 중에서도 극좌파는 배제함으로써 우파를 강화시키려 하였던 것이다.²⁶⁹⁾

여기에서 상기 해 두어야 할 것은, 제 1차 미소공위가 진행되었던 1946년 5월까지의 북한의 사정이다. 북한은 이미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출범시켜 토지개혁에 착수하였고 사법제도 및 세제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했다.²⁷⁰⁾ 특히 토지개혁의 경우, 국가건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으므로 그것은 북한과 남한이 공동으로 실행했어야 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미소공위가 진행되던 중에 이미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실행해버린 것은

268) 남광규, “미소공위와 미소의 조선임시정부 수립대책,” 『국제정치논총』 제47집 (3)호 (2007), pp. 129-130.

269) 남광규 (2007), p. 130.

270) 김학준 (2008b), pp. 197-251, 165-169.

사실상 소련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미국과 협상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²⁷¹⁾

남한에서 본격적으로 좌우합작이 시작되었을 때, 소련은 남한내의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및 남조선신민당의 합당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각 당의 입장은 차이가 있었다.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은 3당 합당 후 본인을 당수로 하는 남조선노동당을 출범시키고 좌우합작을 반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신민당의 백남운은 본인의 당 독자성을 유지하려 했다. 여운형은 3당을 합당하되, 자신이 당수가 되어야 하며 좌우합작은 진행시키려하였다.²⁷²⁾ 이렇게 각 당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소련과 북로당²⁷³⁾의 지도부들은 여운형과 백남운 및 공산당내 반대파를 합당반대 세력으로 규정했고 이들의 행동을 미군정과 연결시켰다.²⁷⁴⁾

더군다나 북한공산당은 미소공위의 결렬을 미국의 탓으로 여기고 있었다. 전 노동당 간부가 말하는 당시 공산당지도부의 생각은 이러했다.

미국은 이북지역의 소비에트화를 우려한다. 특히 46년 2월 초에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3월부터 토지 개혁이 실시되자 미국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또 북쪽에서 좌익이 우세를 보이고 남에서도 좌익 우세, 우익 약세 분위기가 나타나 미국으로서는 임시정부 수립을 서둘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따라서 미국은 전략 수정의 기회를 가지려고 일단 미소공위를 휴회시켰다.²⁷⁵⁾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좌우합작운동의 전개와 여운형측의 합당

271) 이정식 (2006), p. 438.

272) 김학준 (2008b), p. 451.

273) 정식 명칭은 '북조선노동당'이며 1946년 8월 28~30일 창당되었다.

274) 진현수, "논문: 한국현대사와 소련의 역할(1945~1948), 《쉬띠꼬프일기》 연구," 『북현사림』 제27권 (2004), p. 19.

275)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b), p. 122.

반대는 북측인사들에게 ‘여운형이 미국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게 만들었다.

2) 남한 좌익세력들의 합당에 있었던 소련군정의 영향력

1946년 9월, 남한내 좌익정당들의 합당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소련군정과 북로당은 좌익인사들을 북으로 불러들여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여운형은 좌익 정당통합을 미군정이 탄압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당분간 통합을 추진하지 말 것을 제기한다.²⁷⁶⁾ 9월 26일 스티코프는 로마넨코에게 여운형과의 회담에서 ‘남조선의 좌우합작 운동을 저지할 것’, 그리고 ‘남조선 좌익 3당의 합당을 잠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²⁷⁷⁾ 그렇다면 왜 소련군정은 좌우합작을 허용하지 않았을까? 소련은 좌우합작이 미군정의 세력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티코프는 여운형에게 입법의원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미소공위재개를 서두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²⁷⁸⁾ 이렇게 소련군정과 북로당은 남한의 좌익통합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한 동년 12월 소련군정의 보고서를 보면 그들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발표한 7원칙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임무는 우익들이 제기한 7원칙의 허위성과 반동성을 폭로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대중들을 우익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우리의 지지자로 만들어 우익들을 격리시키는 데 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절대 다수의 대중들이 좌익의 민주주의민족전선에 합류할 수 있도록 대중을 쟁취하는 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친일분자들, 민족반역자들로 구성된 남조선의 우익 진영은 외국 제국주의의

276) 전현수(편저), 『쉬띠코프일기』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2004), p. 16.

277) 전현수(편저) (2004), p. 21.

278) 전현수(편저) (2004), p. 17.

비호 아래 있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규정된 민주주의노선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일 좌익이, 특히 남조선로동당과 그 주위에 결집한 조직들이, 정당하게 운동을 전개한다면, 우익들의 영향에서 대중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쟁취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다.²⁷⁹⁾

위의 문서에 나온 것처럼 당시 소련은 남한에서의 우익 제거, 북한에서는 그들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온건중도파를 위시로 해 협작을 이루려던 미국과 중도파가 그 목적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미국의 태도도 결코 통일된 한반도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었다. 제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인 5월 24일, 미군정의 정치고문관의 역할을 했던 랭던과 테이어는 한반도를 소비에트화 하려던 소련의 의도가 동유럽에서의 그들의 전략과 유사하다고 하며 미국이 그것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건의했다.²⁸⁰⁾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국무부 점령 지역담당차관보 존 힐드링(John H. Hilldring)이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리지 않으면 미국은 남한에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해야한다”고 대답했던 것이다.²⁸¹⁾

이러한 상황은 당시 미국이나 소련 어느 한 나라도 분단극복의 의지가 없었음을 말해준다. 소련이 이미 북한에 자신들의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고, 미국 역시 그들의 우호적인 정부수립을 위한 여러 구상을 하고 있었던 ‘외부의 의지 부족’ 상황은 결국 좌우협작의 실패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제 2 이미지인 이념의 근본적 대립 즉, 미국과 소련이 각자 원하는 이념 세력들을 내세우며 한 정책들은 당시 협작운동에 큰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

279) 국사편찬위원회(편), 『소련군정문서, 남조선정세보고서』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2003), p. 184.

280) 김학준 (2008b), p. 317.

281) Bonnie B. C. Oh (ed.), *Korea Und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1945-1948* (Westport, Conn.: Praeger, 2002), pp. 110-111.

7. 소련의 이념 고수

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하며 1946년 8월 24일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이라는 군정법령 제 118호를 제정, 10월 12일 발효시켰는데 이 입법의회에 좌익을 참여시키고자 했다.²⁸²⁾ 그러나 소련은 이러한 미군정의 의도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 좌우합작을 방해하고 미소공위의 재개를 서둘렀다.

1947년 5월 21일 제 2차 미소공동위가 재개되기 전, 소련 외무성은 소련 대표단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외무성 장관 몰로토프의 지시에 따라 말리크(Y.A. Malik) 이름으로 전달된 이 지시사항을 보면 2차 공위에 대비하는 소련측의 전략을 알 수 있다.²⁸³⁾

소미공위를 재개할 때 소련 대표단은 조선의 민주정당·사회단체들과 협의문제에서 중전 입장을 고수하라. 즉, 위원회는 조선 문제에 대한 모스크바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민주정당·사회단체들과만 협의해야 하며, 이러한 조선의 민주정당·사회단체들은 모스크바 결정과 이의 실현을 적극 반대했거나 반대하고 있는 동맹국들(또는 동맹국들 중 한 국가)을 공위와의 협의에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 한다.²⁸⁴⁾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대표단은 제 1차 공위의 대비책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스크바협정을 지지하는 정당, 단체들과만 협의해야 한다는 중전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협의대상 문제가 1차 공위의 결렬 원인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소련의 훈령은 공위를

282) 김학준 (2008b), p. 454.

283) 말리크, 「몰로토프 동지, 소미공동위원회 소련대표단에게 보내는 훈령」(1947.5.17), 소련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문서번호: M, 265/MA). 이 지령은 김국후 (2008), pp. 176-186에 소개되어 있다.

284) 김국후 (2008), pp. 177-178에서 재인용.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 공위를 재개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좌우합작 움직임에 대한 소련측의 대응도 있었지만, 다른 하나는 1946년 12월 26일 하지장군이 공위재개를 위한 수정제의가 기초가 되었다. 하지는 공위재개의 조건으로 “공동성명 제 5호에 실린 선언서에 서명한 정당·사회단체는, 모스크바 결정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후일 공동위원회나 미·소연합국의 활동과 모스크바결정의 이행에 대한 적극적 반대를 선동해서는 안 되며, 만일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경우 그들은 향후의 공동위원회의 협의에서 배제될 것이다. 그러한 개인이나 정당·사회단체를 배제하는 결정은 공동위원회의 합의로써 이루어진다”²⁸⁵⁾는 수정안을 제의했던 것이다.

미국은 앞서 전개된 1차 미소공위에서 선언서에 성명한다고 그것이 신탁과 반탁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고 우익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선언서에 성명한 후 모스크바 결정 이행에 적극적 반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반탁운동을 금지시키겠다고 한 것으로 봐야하며, 결국 이점은 소련 측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하여 내린 제안이었다. 또한 이러한 제안에 대한 대응방안도 훈령에는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하지 장군이 제의한 수정안에 형식상 동의하기는 했으나, 소련대표단은 협의에 임하는 제 정당·사회단체나 개인이 지녀야 할 자격은 ① 진정으로 민주적이며, ② 모스크바 결정과 그 실행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③ 모스크바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호의를 행동으로 보였으며, ④ 모스크바 결정과 이의 실행, 그리고 동맹국을 반대하는 자들을 협의에 추천하지 않았으며, ⑤ 소미공동위원회 사업과 동맹국, 그리고 모스크바 결정을 과거나 현재 반대하거나 사족하지 않았는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²⁸⁶⁾

285) C. L. 호그, 신복룡·김원덕 공역, 『한국분단보고서(하)』 (서울: 풀빛, 1992), p. 226.

286) 김국후 (2008), p. 178에서 재인용.

하지의 수정안에 비해 소련측 훈령의 내용은 훨씬 엄격한 잣대를 미소공위 참여 단체에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스크바 결정과 실행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또한 전적으로 지지하는 행동을 보인 단체를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남한 내 우익은 사실상 참여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었다.

소련은 또한 이 공위를 통해 가장 우선한 당면과제를 ‘임시정부수립’에 두었다. 이들은 만일 미국 측이 임시정부 수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안, 예를 들어 ‘경제적 통합문제’를 의제로 제시한다면 협의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지시했다.²⁸⁷⁾ 이것은 미국의 경제통합 우선주장에 대한 대응이었다.²⁸⁸⁾

이렇게 제 2차 미소공위를 준비하는 소련의 태도는 1차 미소공위와 변함 없거나 더 완강했다. 소련은 1차공위 준비기, 공위휴지기, 그리고 2차 공위 준비기에 공위의 핵심사안 중 하나인 임시정부 내각의 구성비율에 대해서도 훈령을 통해 준비해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87) 김국후 (2008), p. 179.

288) 기광서 (2010), p. 325.

<표 1> 협의단체 대표자(임시정부 내각) 구성비율

	제1차공위훈령	공위휴지기훈령	제2차공위훈령- A안	제2차공위훈령
	-북조선 50% -남조선 50%	-북조선 정당과 사회단체 40% -남조선 민주정당·단체(민주주의민족전 선) 30% -남조선 우익정당 30%	-북조선 45% -남조선 55%	-북조선 50% -남조선 50%
북 : 남	5 : 5	4 : 6	4.5 : 5.5 (4 : 6으로 양보 가능)	5 : 5
좌 : 우	언급없음	7 : 3	7.25 : 2.75 (7 : 3로 양보가능)	7.5 : 2.5

출처: 기광서 (2010), p. 327.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은 북한 측 단체비율을 50%에서 40%로, 또 2차 공위를 준비하면서는 그 비율을 45%로 높였다가 결국 최종 훈령에서는 다시 50%로 높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비율보다 그 안에서 좌우익의 비율이 점차 좌파우위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남한내에 좌파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련의 임시정부의 의도는 좌파우위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²⁸⁹⁾ 소련은 철저하게 제 2이미지인 이념을 고수했던 것이다. 그 후, 좌우합작을 추진했던 여운형의 7월 19일 피살은 가뜰이나 교착상태의 미소공위의 추진력을 약화시켰고 결국 제 2차미소공위는 미소가 타협할 수 없었던 근본적 문제로 또다시 결렬된다.

이처럼 탈냉전기 소련측 문서는 당시 좌우합작이나 미소공위가 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말해준다. 소련은 이북 지역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었고,

289) 이 외에도 소련은 공위의 훈령을 통해 임시정부의 지도적 지위, 그리고 배분까지 정해놓는 치밀함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기광서 (2010)을 참조할 것.

그 영향력을 남한측 인사와 정당에까지 미치며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남한의 공산화를 방지하려는 미국과,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까지도 좌익세력으로 채워 넣으려는 소련의 대결이 한반도에서 표면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제 2이미지인 이념갈등은 통일 한반도 수립을 힘들게 한 것이었다.

또한 미국과 소련의 이념기조를 따르던 남북한 각 정파들의 권력다툼도 분단으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탈냉전기 제 2이미지를 통한 한반도분단의 원인분석은 이념대립이 국내정파와 미소양국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단독정부 수립과 분단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제 4 절 제 3 이미지로 본 한반도 분단: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지금까지 제 1, 제 2이미지로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구분하여 분단의 기원을 살펴보았다. 개인적, 국가적 수준에서 분단의 기원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지도자의 성향과 국가 이념이 한반도 분단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분단의 기원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세 번째 분석차원인 체제적 설명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가 분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 3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강제력을 가진 중앙정부가 없는 무정부상태가 국제정치에서 전쟁이나 다른 현상에 배경적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대결은 무정부상태에서 나타났는데 이러한 모습은 앞에서 본 미소공위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던 양국의 협상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냉전의 기원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상태는 미국과 소련의 제국론 논의와 연결되었다. 이러한 설명을 한반도 분단에 적용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도 제국으

로 존재했는가? 또 미소양국의 한반도에서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1. 미국과 분단

어느 한 국가가 분명한 힘의 사용에서부터 협박, 종속, 유인, 그리고 심지어 감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나 완전하게 혹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른 국가의 행위를 형성하는 상황²⁹⁰⁾

앞에서 살핀 제국에 대한 개디스의 정의다. 과연 미국과 소련은 2차대전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한반도에 자신들의 체제를 이식시키려고 했는가? 한반도 신탁통치에 관한 강대국들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전통적인 세력균형적 시각, 혹은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특히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제의한 루즈벨트의 시각에는 ‘한반도는 아직 근대국가의 대열에 서지 못했다’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루즈벨트의 구상대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친 후에 통일된 국가로 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신탁통치구상의 문제점은 바로 미국과 소련이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였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설명해보면 제 3이미지인 제국의 속성에는 제 2이미지인 이념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이념을 가진 두 세력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한반도에서 통일된 국가는 사실상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290) John Lewis Gaddis, *We Now Know* (Oxford: Clarendon Press, 1997), p. 27.

2. 미국의 한국 반공보루설을 둘러싼 배경

1) 냉전의 전조

미국은 한반도에서 제 3이미지인 제국으로서 체제이식을 하려고 했을까? 이와 연관된 분단 원인론은 바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반공보루설’이다.²⁹¹⁾ 그 내용은 당시에 격해지고 있던 냉전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을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한 보루로 삼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의 분단에 미국이 끼친 영향, 그리고 이념적 대결 측면의 역할이 매우 커진다. 상기하였듯 제 2이미지의 속성으로 제 3이미지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반공보루설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냉전의 전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1945년 4월 루즈벨트의 사망 후, 그를 이어 대통령이 된 트루먼의 등장은 냉전 전개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비록 그가 루즈벨트 외교의 기초를 따르려 했다고 해도 얄타회담의 협의를 실행하는 가운데 소련과의 견해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당시의 세계정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

앞서 보았듯이 2차대전이 끝나고 강대국들은 전후처리에 열을 올렸다. 특히 소련은 동유럽의 공산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은 서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며 동서간에 긴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처칠의 철의 장막연설이다. 1946년 3월 5일 윈스턴 처칠은 미국 폴턴(Fulton)시의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대학의 초청 연설에서 그 유명한 ‘철의 장막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발트해의 스테틴(Stettin)에서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Trieste)까지 ‘철

291) 이정식, “해방직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이정식 (2006), p. 153.

의 장막'이 대륙을 가로질러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선위에 모든 중, 동유럽의 수도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르샤바, 베를린, 프라하, 비엔나, 부나베스트, 벨그라드, 부카레스트, 소피아, 이 모든 유명한 도시들과 국민들이 소련의 영향권 아래 놓여있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점점 더 모스크바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러시아 지배의 폴란드 정부는 독일영토에 대한 거대하고 사악한 침해를 강요받고 있고 대규모의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추방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소수였던 공산당은 점점 그 숫자와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곳에서 전체주의의 통제를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일 소련정부가 단독행동으로 그들의 지역에 친(親)공산 독일을 세운다면 이것은 영국과 미국 지역에까지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것이고 이것은 패배한 독일에게 소련과 서구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그들의 힘을 키울 기회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자유화된 유럽이 아닙니다.....292)

위의 연설에서 볼 수 있듯이 처칠은 당시 소련이 동유럽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공산주의 확장을 위한 과정으로 보았다. 다소 강경책을 구사하려던 트루먼의 기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처칠의 연설 후인 3월 14일 스탈린은 소련 기관지였던 프라우다(Pravda)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인터뷰는 당시 고조되기 시작한 서구와 소련사이의 대치분위기를 잘 나타내준다는 면에서 주목이 된다. 여기에서 스탈린은 걱정적으로 처칠을 비판했다.²⁹³⁾ 스탈린은 처칠을 히틀러에 비유하며 마치 히틀러가 게르만 우월주의를 내세워 전쟁을 개시한 것처럼, 처칠 역시 영어권 나라의 우위를 내세우며 전쟁을 하려한다고 말한다. 처칠은 위의 연설에서 '소련의 무한한 팽창주의'를 언급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스탈린은 그러한 발언은 소련 뿐 아니라 처칠이 언급한 모든 동구권 유럽에 대한 모욕이

292) Thomas G. Paterson (e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Lexington, Mass.: Heath, 1974), pp. 14-15.

293) Joseph Stalin, "Stalin Interview with Pravda on Churchill," from the New York Times, March 14, 1946, p. 4. In Paterson (1974), pp. 18-23. 이하 이 인터뷰에서의 스탈린의 발언은 별도로 인용표시 않음.

라고 맞받아쳤다.

스탈린은 자신에게 독일점령지역에서 배타적으로 독일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처칠의 발언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하며 소련은 단지 독일 영토의 4분의 1만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독일은 핀란드와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헝가리를 거쳐 소련을 침략하였고 소련은 영국과 미국에 비해 몇 배의 피해를 입은 국가라고 말한다. 스탈린은 이어서 소련이 히틀러의 지배로부터 유럽을 자유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입었는지도 언급하였다.

그뿐 아니라 스탈린은 폴란드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선거 같은 경우는 처칠의 말대로 친소적인 정부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국을 위해 일할 뛰어난 지도자들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폴란드의 서부국경을 확장시킨 사항은 포츠담 회의에서 결정된 문제이며 기본적으로 폴란드의 요구였다고 이야기 한다. 스탈린은 인터뷰 말미에서 공산주의가 확장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닌 정상적인 작용이라고 말한다. 공산주의의 영향은 유럽에서 파시즘의 지배 하에서의 힘든 시간을 겪은 후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처칠과 스탈린의 연설에서 보듯이, 두 지도자는 한 치의 양보 없이 각 개별사안에 대립을 보였다. 루즈벨트 사후 벌어진 이러한 사건들은 미소 냉전이 점차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냉전 분위기 고조는 당시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체제적 분위기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2) 케난의 긴 전문과 트루먼 독트린

이러한 처칠의 연설 전에 이미 미국 행정부는 봉쇄정책의 이론적 근간인 케난의 전문을 본국에서 보고받았다. 이 전문은 그 후 미국의 대소정책을 결정지은 매우 중요한 보고서이다.²⁹⁴⁾ 케난은 이 전문을 통해 봉쇄정책을 위한 이론적 근간을 밝혔다. ‘사나운 유목민의 이웃으로서 살아야 하는 농민의 불안’으로까지 그 안보불안의 연원을 지적한 케난은 소련의 통치자들에게 고도로 조직화되고 부강한 국가들의 존재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이야기한다.²⁹⁵⁾

케난은 소련이 이러한 안보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더욱 거세게 군사력을 강조하는 방법을 취했고, 이러한 행동을 막시즘이라는 강령으로 포장했다고 설명한다. 즉, 외부세계를 적으로 묘사하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막시즘이라는 강령을 사용하여 어느 누구도 그러한 강령에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케난은 소련 정책을 ‘식민지역과 속국의 민족들을 서구와의 접촉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 정책이 성공할 경우 힘의 공백상태가 생긴다고 보았다. 케난은 소련이 이러한 공백상태에 공산주의 침투가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며, 왜 소련이 신탁통치 협정에 참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았다.²⁹⁶⁾ 즉 공식적인 신탁통치구도에 참여하지만 그 속내에는 어떤 비공식적인 방법을 구사하더라도 한반도와 서구와의 접촉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²⁹⁷⁾ 소련은 최대한 한반도에서 미국의 세력을 몰아내어 그 빈자리에 공산주의를 이식시키려 한다고 본

294) 이 전문은 George Frost Kennan, *Memoirs (1925-1950)* (Boston: Little, Brown, 1967), pp. 547-559에 수록되어 있다.

295) Kennan (1967), pp. 549-550.

296) Kennan (1967), p. 553.

297) Kennan (1967), p. 553.

것이다.

이렇게 공산주의의 침투를 우려했던 케난의 전문은 다음해 트루먼의 연설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된다. 또 이 독트린의 수사적 효과는 한반도 반공보루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47년 3월 12일의 트루먼 연설을 보면,

.....그리스는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이끌어진 수천의 무장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저는 미국의 정책이 외부에서의 위협이나 무장한 소수들에 의해 정복당하려는데 저항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저는 주요한 우리의 원조가 경제적 안정과 질서 있는 정치과정에 필수적인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통해서여야 한다고 믿습니다.....298)

위의 연설문에서처럼 트루먼은 당시 그리스의 위기 뒤에는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다고 말했다. 비록 경제적 원조를 요청하고 있었지만 트루먼은 이 연설을 통해 그리스 내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한다면 터키의 정치적 안정, 더 나아가 중동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공산주의세계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주장한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당시 ‘한반도 반공보루설’에 힘을 주었다.

이로부터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던 1947년 7월, 케난이 익명으로 발표한 『소련 행동의 기원』이라는 글에는 드디어 대소정책의 핵심이 된 ‘봉쇄’가 등장하게 된다. 이 글에서 그는 공산주의 이론의 기반에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대감의 강조가 있다고 말한다.²⁹⁹⁾ 또한 그

298) Henry S. Truman, "Recommendation for Assistance to Greece and Turkey," March 12, 1947. http://www.trumanlibrary.org/whistlestop/study_collections/bomb/large/documents/pdfs/1-7.pdf#zoom=100(검색일: 2012년 4월 5일)

299) George Frost Kennan(X),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25-4 (Jul 1947), p. 570.

이념은 외부세계가 적대적이며, 결국 그들은 소련 내부의 전복을 피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한다.³⁰⁰⁾ 케난은 나아가 소련의 이념은 ‘미국이 필연적으로 소련과의 전쟁을 유발할 것’을 말해준다고 분석했다.³⁰¹⁾

그는 ‘미국이 소련과 정치적 친밀감을 즐길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소련을 정치적 지형에서 파트너가 아닌 라이벌로 여겨야 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장기간의, 인내심을 가진, 확고하고 방심하지 않는 러시아의 팽창경향에 대한 봉쇄’라고 결론 내렸다.³⁰²⁾

이러한 미국의 봉쇄전략 실행의지 표현은 당시의 세계구조가 냉전구도로 짜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이러한 상황은 더욱 거세고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볼 이론적 주안점은 이러한 이미지에 의한 분석은 중심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냉전의 기원을 미국의 봉쇄전략에서 찾고자 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국가정책인 제 2의 이미지가 제 3이미지인 냉전체제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와 같이 한반도의 분단이 중심이 되었을 경우에 봉쇄정책은 제 3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간다.

3.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

케난의 긴 전문, 트루먼 독트린, 그리고 봉쇄전략 등에는 모두 미국이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따라서 당시 미소의 대립이 한창이었던 한반도도 그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공산주의의 팽창에서 지켜져야 할 지점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을

300) Kennan(X) (1947), p. 569.

301) George Frost Kennan, *Realities of American Foreign Poli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4), p. 70.

302) Kennan(X) (1947), pp. 570, 580.

통해 한반도에서 어떤 목적을 추구했는가?

1) 봉쇄의 지점

봉쇄전략을 입안한 케난은 국제정치에서 보편주의자(universalist)라기 보다는 개별주의자(particularist)였다. 그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희망이나 열망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한다는 가정은 미국외교에 적절치 못한 틀이라고 생각했다.³⁰³⁾ 따라서 그는 개별국가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여겼고, 보편적 원리를 추구하는 유엔같은 국제기구의 실효성에 회의적이었다. 케난은 철저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외교정책을 고안하였다.³⁰⁴⁾

케난은 1947년 3월에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에 대해서 그것이 미국의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케난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능력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봉쇄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그 방향이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³⁰⁵⁾

세계에는 현대적인 군사능력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다섯 개의 지역이 있다. 미국, 영국, 산업지역에 근접해있는 라인계곡³⁰⁶⁾, 소련, 그리고 일본이다. 이곳에서 단 한 지역만이 공산주의의 통제 하에 있다. 봉쇄의 주요업무는 이

303)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 28.

304) 김영호, "동아시아와 케난의 딜레마," 『한국과 국제정치』 제14권 (2)호 (1998), p. 259.

305) "Resume of World Situation," PPS/13(November 6, 1947) in Anna Kasten Nelson, *The State Department Policy Planning Staff Papers 1947-1949* (Vol. 1)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86a), p. 130.

306) 서부 유럽국을 말한다.

나머지 네 개의 지역을 공산주의의 지배로 넘겨주지 않는 것이다.³⁰⁷⁾

케난은 이렇게 다섯개 중심국가론을 펼치면서 중국은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케난은 중국이 높은 출생율과 사망률에 따른 인구문제와 식량문제, 취약한 산업기반,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등으로 상당기간 강대국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³⁰⁸⁾ 또 ‘왜 소련을 제외한 네 개의 국가들이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 지역들이 미국의 이익에 필수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봉쇄정책의 적용 가능한 지역은 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이 충분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서 한반도는 예외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미국정책의 현실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냉전기에는 트루먼 독트린의 수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반도의 분단원인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1947년 4월 27일 미군부가 조직한 ‘공동전략조사위원회(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는 미국의 안보와 연결하여 ‘세계 각국의 중요성’을 측정하였는데 1947년 4월 27일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6개국에서 15등, ‘원조의 시급성’에서는 5등, 이 두 가지의 고려를 통한 순위는 13등을 차지하였다.³⁰⁹⁾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문제가 미국에게 핵심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실제로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강력한 국가이고 극동에서 이념적인 적국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하며

307) Kennan (1967), p. 359.

308) “United States Policy Toward China,” PPS/39(September 15, 1948) in Anna Kasten Nelson, *The State Department Policy Planning Staff Papers 1947-1949* (Vol. 2)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86b), pp. 412-446.

309) “United States Assistance to Other Countries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JCS 1769/1) (April 29, 1947) in Thomas H. Etzold and John Lewis Gaddis (eds.), *Contain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pp. 79-83. 이 두 가지를 고려한 순위는 다음과 같았다.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이탈리아, 5. 그리스, 6. 터키, 7. 오스트리아, 8. 일본, 9. 벨기에, 10. 네덜란드, 11. 라틴 아메리카, 12. 스페인, 13. 한국, 14. 중국, 15. 필리핀, 16. 캐나다.

미국이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복구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³¹⁰⁾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반대의 평가가 내려졌다. 만약 현재 외교적 이념적 전쟁이 군사적 전쟁으로 번졌을 때 한국은 미국의 국가안보 유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원조는 미국 안보에 중요한 나라들의 경제를 복구시키기 위해 조달된 후, 재원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³¹¹⁾

2) 일본에 대한 역코스 정책

한국에 대한 이러한 정책과 대조적으로 다섯개 중심 지역의 하나였던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2차대전 직후와 냉전의 심화 속에서 변하게 되었다. 전후초기, 미국의 일본정책은 일본이 다시 미국의 안보나 평화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비군사화시키고 민주화시키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군의 무장해제, 군국주의적 단체의 해체, 전범용의자의 처벌이 있었으며, 1946년 11월에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는 국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을 제정하였다.³¹²⁾ 그러나 냉전의 심화로 인한 미국의 봉쇄정책입안과 그 지역에 해당했던 아시아에서의 일본에 대한 전략은 일본에 대한 전후전략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태평양과 극동세계의 어느부분이 우리 안보에 절대적 필수가 되는 지 주의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거나 의존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우리의 정책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내 관점에서는 일본과 필리핀이 태평양 안보체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³¹³⁾

310) Etzold and Gaddis (eds.) (1978), p. 79.

311) Etzold and Gaddis (eds.) (1978), p. 78.

312) 이원덕, “한국전쟁 직전의 주한미군 철수,” 하영선 (1990), p. 207.

313) “Review of Current Trends U.S. Foreign Policy,” PPS/23 (Feb. 24, 1948) in Nelson (1986a),

특히 일본에 대해서 케난은 다음과 같이 큰 중요성을 밝힌다.

일본에 관한 정책을 고안하는 것은 일본과 해당 섬들의 안보를 소련의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침투와 정복으로부터 보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안보보장은 이 나라의 경제적 잠재력을 허용하여 일본이 다시 극동에서 중요한 세력이 되게 할 것이고 이것은 태평양지역에 평화와 안정의 이익에 부응하는 것이다.³¹⁴⁾

이렇게 일본에 대한 정책변경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1946년의 미국이 시도한 중국에서의 국공합작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그들의 전략적 가치를 일본을 중심으로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는 어떨을까? 케난이 보기에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거점이 아니었다. 케난은 당시 한국의 군사적 가치를 저평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한국이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맞는다면 우리의 정책은 가능한 한 최대한 우리의 손실을 줄이되 최대한 빨리, 그렇지만 명예롭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³¹⁵⁾

케난은 이처럼 한국에서 미국이 최대한 빨리, 그렇지만 미국의 위신을 고려하여 명예롭게 나와야 됨을 밝혔고,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한반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반도 분단의 씨는 해방이 되기 전부터 배태되고 있었다. 무정부상태와 전시 연합국들의 전후 처리안에 포함되어있던 한

p. 123.

314) Nelson (1986a), p. 123.

315)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Staff(Kennan) to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Butterworth)," (September 24, 1947) *FRUS*: 1947, 6, p. 814.

반도가 제 3이미지인 미소대립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시회담에서의 협력 분위기가 깨지고 대립이 점차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트루먼 독트린’ 등은 미국이 한국을 반공의 보루로 삼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렇지만 케난의 분석 등을 보면 실상은 한국은 지켜야 할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소련 측 입장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주로 미국의 입장만을 부각시켜 분단의 원인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³¹⁶⁾ 냉전기 제 3이미지를 중심으로 분단의 원인론을 보았을 때 미국의 대한정책은 초기부터 체제이식적 성격을 띠지는 않았다. 제 1, 제 2이미지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최소한 한반도에서 중도적인 세력의 집권을 피하였으나, 냉전의 심화로 인해 점차 그들의 체제를 점령지역에서 고수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미국은 결코 초대된 제국이 아니었다.

4. 소련의 대미전략

제 3이미지를 통한 냉전의 기원론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냉전의 심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한반도에서 체제의 특성을 이입하는 제국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물론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거리가 먼 한반도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위신’을 생각하여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국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남한에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냉전의 심화와 함께 미국은 남한 내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상기하였듯, 해방시기 미소의 냉전은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협력 가능성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처칠의 ‘철의 장막’ 연설 후

316) 따라서 냉전기의 한반도분단에 대한 체제적 분석은 미군정, 그리고 미국의 대한정책을 중심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었다.

인 1946년 4월 초, 주소대사 스미스(Walter Bedell Smith)는 스탈린과의 회담을 가졌다. 거기에서 스미스는 “미국은 기꺼이 소련과 조금씩 양보할 수 있고 또한 그렇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약 두 나라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세계평화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며 미국이 기꺼이 소련과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³¹⁷⁾

스탈린은 스미스와의 회담에서 비록 처칠에 대한 비난을 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트루먼의 미국 초대를 거절했지만, 아직까지 스탈린은 미소의 화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회담 말미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우리는 한 가족, 심지어 형제간에 일어나는 의견차이로 놀라거나 염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와 선의지를 가지면 이러한 차이들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³¹⁸⁾

그렇지만 이 발언은 미국과 소련사이에 어느 정도의 불화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후의 상황도 결코 미소의 화합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2차대전 후 케난이 소련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했던 것처럼 스탈린역시 니콜라이 노비코프(Nicolai Novikov) 워싱턴 주재대사에게 미국에 대한 분석을 지시했다.³¹⁹⁾ 그에 따라 1946년 9월 노비코프는 소련에 미국에 대한 분석전문을 보내는데 그는 전후 미국의 외교정책을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³²⁰⁾

독점적 자본의 제국주의적 성향을 반영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은 전후의 세계를

317)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Smith) to the Secretary of State,” (April 5, 1946) *FRUS*: 1946, 6, p. 732,

318) *FRUS*: 1946, 6, p. 736.

319) 개디스 (2010), p. 50.

320) <http://academic.brooklyn.cuny.edu/history/johnson/novikov.htm>(검색일: 2012년 5월 9일)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다.

세계패권을 위한 투쟁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트루먼 대통령과 많은 미국지도층에 의해 행해진 선언, '미국은 세계를 이끌 권리를 가지고 있다'의 실제적 의미이다. 육, 해, 공군, 산업 그리고 과학 등 모든 미국외교의 추동력들은 이러한 외교정책에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팽창을 위한 광범위한 계획은 발전되고 있고 외교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목적은 미국의 경계를 초월한 해군 및 항공기지체계 설립, 그리고 더욱 새로운 무기생산에 의해서도 구현되고 있다……(강조는 필자)

위의 분석처럼 노비코프는 전후 미국의 외교를 제국주의적 팽창을 위한 시도로 보았다. 냉전기 케난은 소련의 이념적 특질이 미소 양국간의 타협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며 봉쇄정책을 입안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오히려 미국이 제국주의적 팽창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이론적으로 평가해보면 미국은 제 2이미지인 이념을 근거로 소련의 행동을 파악한 반면, 소련은 제 3이미지인 제국의 개념으로 미국의 반응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로에 대한 인식차이는 그들 체제의 차이에 근간을 두었으므로 상호 이해가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 3이미지에 의한 분단의 요인설명을 통해 볼 수 있는 주안점은, 미소양국의 체제차이가 그들의 전략과 그 전략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무정부적 국제정치 상황은 동일한 체제를 강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체제의 국가들도 상존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서로가 구사하는 전략은 내부체제의 특성에 따라 다른 분석을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제 2이미지가 제 3이미지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국가의 내부적 특성이 무정부적 체제에서 펼쳐지는 세력경쟁의 모습변화에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5. 소련의 한반도정책

앞에서 본 미소공위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주로 제 2이미지인 이념 차이에서 유래된 이들의 대립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 3이미지에서는 ‘소련의 국가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대 한반도정책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스탈린의 ‘점진적인 동유럽 공산화 전략’처럼 과연 소련이 체제이식적 모습을 북한에서도 보였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냉전기에는 주로 동유럽에서의 공산화와 북한의 공산화를 유사하게 보았다.³²¹⁾

1) 극동지역에서의 국가안보

한반도에서 소련의 국가이익은 무엇이었는가? 우선적으로 소련의 안보차원에서 한반도는 매우 중요했다. 한반도 자체보다 실질적 위협인 일본을 경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련은 1904년 러·일 전쟁의 패배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하고, 남만주 진출을 허용하게 되었다.³²²⁾ 일본이 언제든 소련에게 군사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소련의 입장에서는 2차대전 전후처리를 논하면서 일본에 대한 조치가 매우 중요하였다. 탈냉전기 자료는 소련의 북한정책이 일본에 대한 방어적 일환으로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1945년 6월 29일 소련외무부 극동 제2국의 국장 주코프(D.A. Zhukov)와 부국장 자브로딘(Evgeny

321)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전2권) (서울: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67-1972), 제 1권, 제2편, 특히 pp. 79-108; 박동운, 『북한통치기구론』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4), 제1장; 김갑철, “북한의 소비에트화과정,” 극동문제연구소(편), 『북한정치론』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6), pp. 87-89. 또한 동유럽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집권에 대한 네 가지 통로에 대해서는 양호민, 같은 책, 제1권, 제2장; R.V. Burks, “Eastern Europe,” in Cyril Edwin Black and Thomas Perry Thornton(eds.), *Communism and Revolution: The Strategic Uses of Political Viol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pp. 86-93.

322) 포츠머스 강화회담 및 조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용구, 『世界外交史』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p. 374-377을 참조 할 것.

Gregoryevich Zabrodin)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자.³²³⁾

1. 일본이 한국을 통해 아시아 대륙으로 팽창하려 한 데 대해 러시아가 투쟁한 것은 역사적으로 정당한 행위였다.....
2. 일본은 영원히 한국에서 축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 지배하의 한국은 소련의 극동에 대한 항구적인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한국의 독립은 극동으로부터 소련에 대한 압력을 기도하려는 일본으로부터는 물론 다른 국가들로부터, **한국이 소련에 대한 미래의 공격 근거지로 전환되지 않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효과적이어야 한다.** 한국의 독립과 극동에서의 안보를 위한 실제적이고 믿을 만한 보장은 소련과 한국 사이에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들이 창출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한국정부 형성에 반영되어야 한다.³²⁴⁾(강조는 필자)

위의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련은 일본 지배하의 한반도는 자국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인식하에 그동안의 대일투쟁에 대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는 러시아 공격의 근거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은 한국이 일본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차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한국을 타국들이 점령한다는 것은 러시아진출에 대한 교두보로서의 의미가 짙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극동지방에서 소련의 안보를 위해 지켜져야 할 지역이었던 것이다.

덧붙여 이 문건은 신탁통치에서 소련의 두드러진 역할을 강조하고 있

323) 주목할 것은 이 둘이 전부 일본 전문가였지 조선 전문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소련 외무부에 조선 전문가가 사실상 없었던 이유는 외무부 자체가 오랫동안 조선에 관심을 거의 갖지 않아서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김학준 (2008a), pp. 604-605를 참조할 것.

324) 이 문건은 김성보 (1995), p. 56에 부분적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Kathryn Weathersby,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CWIHP Working Paper* No.8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November, 1993), p. 11도 참조할 것.

다.³²⁵⁾ 이것은 소련이 이미 이 시기부터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제안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 4대 강국들과의 협상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한반도에서 미소대립은 예견되어 있었다.

2) 친소정권의 수립과 토지개혁

이렇게 극동지역에서 소련의 안보를 달성하려면 북한의 체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세워져야 했는데, 이러한 소련의 의지가 북한 국가형성에도 투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스탈린의 9월 20일 지령과 한 달 후의 슈킨 보고서는 당시 소련이 북한에 자신들의 체제를 이식하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내세우면서 시작한 체제 정비작업도 당시 한반도에서 그들의 목적을 나타낸다.

소련은 북한지역에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대한 지지를 한곳으로 집결시키려는 목적과, 이 위원회의 예비회의에서 김일성이 내세운 ‘북조선의 정치·문화 등 여러 부문들을 좀 더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위해서였다.³²⁶⁾ 이미 소련군정은 1945년 10월 14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조직했고, 조직 일주일 전 정도에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를 가졌다.³²⁷⁾

이 회의에서 치스티아코프(Ivan M. Chistiakov)대장의 연설은 북한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세우라는 지령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즉, 북한을 독자적인 정치경제적 단위로 분리해서 북한의 행정과 경제를 관리할 최고기구를 만들고, 그 산하에 열 개의 중앙행정 부서를 만들어 소련점령군 사령부가 지휘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이었

325) 이정식·웨더즈비 (1993), p. 562.

326) 김학준 (2008b), pp. 139-141.

327) 이정식 (2006), p. 436.

다.³²⁸⁾ 또한 이 회의에서 경제문제를 논의하며 ‘북조선중앙은행’ 창설도 결정되었다.³²⁹⁾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소련이 당시 남북분단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남북한의 통합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 같은 사항을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을 가졌어야 했는데 소련은 그러한 과정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³³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이러한 소련군정의 북한개혁 구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앞서 본 슈킨보고서의 내용 중 결론 부분에는 “인민 민주주의 운동은 대지주의 토지소유 현실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농지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³³¹⁾란 내용이 실려 있는데 실제로 다음해 2월 북한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미소공위를 개최하기로 미리 정해둔 시기이기도 했다. 한반도의 임시정부구상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도 하기 전에 소련은 자신들의 개혁을 수행할 기구를 만들고 토지개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정식의 지적대로 토지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였지만 북한에서의 실행 시기나 그 내용은 소련이 남북통합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³³²⁾

토지개혁으로 공산정권은 어느 정도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물론 토지개혁을 북쪽에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예비작업으로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이것이 독자정권 창출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다.³³³⁾

328) 『동아일보』 (2004. 10. 18).

329) 김성보 (1995), p. 79.

330) 이정식 (2006), pp. 436-437.

331) 본 논문 3장 2절을 참조 할 것.

332) 이정식 (2006), pp. 437-438.

333)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1992b), p. 65.

6. 소련이 한반도 분단에 미친 영향

앞선 논의에서 보았듯이 1946년 7월 김일성이 북조선의 지도자로 낙점된 후, 북한의 체제 정비작업은 가속화되었다. 1946년 9월 5일에는 임시인민위원회 제 2차 확대위원회에서 북조선의 면·군·시 및 도 인민위 위원 선거에 관한 규정 및 결정서를 발표하고, 평양을 특별시로 하는 결정서도 채택하였다. 소련군정은 북조선의 인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는데, 당시 이 선거에 대한 소련의 계획, 그리고 관심은 스티코프의 일기에서 볼 수 있다.

1946년 10월 21일

비행기로 해주에 갈 예정이다. 해주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선거와 관련된 문제들

- 1) 선거 선전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선전원들의 활동, 실물 선전자료(도표, 포스터 등), 간행물의 준비 상태를 점검한다.
- 2) 정당별, 사회 성분별(재산 상태별), 교육 수준별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 입후보자의 구성을 분석한다.
- 3) 유권자 수와 공민증 교부 상황을 점검한다.
- 4) 선거투표소 설치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 5) 각급 인민위원회에 특별 선전실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내린다.
- 6) 선거 선전사업에 대한 미술가, 문필가, 사진사, 영화촬영가의 활동을 점검한다.
- 7) 선거일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검토한다.
- 8) 보안경계에 대해, 경찰에 하달할 훈시와 군부대에 하달할 지시에 대해 점검한다.³³⁴⁾

334) 전현수(편저) (2004), pp. 25-26.

스티코프는 투표소 설치에서부터 입후보자의 구성 등 선거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관장하고 있었다. 그는 이날 김일성과도 대화했는데 당시 사회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조직한 여운형이 대중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스티코프는 이 위원회의 성원은 모두 종파주의자, 친미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³³⁵⁾

11월 3일 투표당일, 스티코프는 현지를 시찰하며 투표분위기를 기록했다. 500여명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선거위원회가 민첩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으며, 전남포를 방문하여 그곳의 분위기를 축제로 묘사하고 선거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했다.³³⁶⁾

이날의 선거는 98.7퍼센트의 투표율로 마무리되었다.³³⁷⁾ 스티코프는 선거 후 선거 총결산업을 진행할 것을 계획한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이 집회에서 소련군사령부와 미군사령부에 보내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채택한다. 호소문에서 조선인민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김구나 이승만과 같은 반동분자들을 용인하지 않으며, 이 반동분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중앙정부의 수립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또한 북조선의 선거는 북조선 인민대중이 하나로 단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었다고 지적한다.³³⁸⁾

소련은 이렇게 북조선에서의 인민위원회 선거를 통해 중앙정부 수립 지체의 책임을 김구나 이승만 같은 우익인사에게 돌리고 있었다. 1946년 11월

335) 전현수(편저) (2004), p. 27.

336) 전현수(편저) (2004), p. 38.

337) 이날 선거에는 전체 주민 4,480,627명 중 4,423,383명(98.7 퍼센트)이 투표했다. 도별 투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평안남도 687,748명(유권자의 99퍼센트), 평안북도 942,322명(유권자의 97.7 퍼센트), 함경남도 765,146명(유권자의 99.3 퍼센트), 함경남도 444,356명(유권자의 99.4 퍼센트), 황해도 891,413명(유권자의 98.5 퍼센트), 강원도 595,142명(유권자의 98.7 퍼센트), 평양시 167,256명(유권자의 99.6 퍼센트) 전현수, 위의 책, pp. 38-39. 이 책에는 함경남도가 두 번 표기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함경남도는 함경북도의 오자로 판단된다.

338) 전현수(편저) (2004), p. 39.

은 남한에서 좌우합작운동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 움직임과 관계없이 소련은 김일성을 앞세워 선거를 치루고, 이것을 증거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선거결과 탄생한 북조선인민위원회로 인해 지방인민위원회들은 그 조직과 권한이 축소되었다. 류길재는 이 선거의 결과 해방과 더불어 활동한 각 인민위원회들은 이제 중앙권력기구의 영향력 강화로 그 권한이 소멸되었다고 분석한다. “당과 국가의 형성과 고착이 결과된 1946년 말의 시점은 북한에서 시민사회가 철저히 박제화된 시점”이라는 평가다.³³⁹⁾

그 후 얼마 되지 않은 11월 23일~24일 소련의 관여 속에 남조선의 좌익 정당들도 합당에 성공, 남조선 노동당이 출범하게 된다. 앞서 보았듯이 좌우합작이 진행되고 있던 9월 말, 여운형은 평양을 오가며 분위기상 좌익의 합당이 여의치 않다는 사정을 소련에게 말했는데 당시 소련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그 속도를 조절하려 했었다. 그러나 좌우합작을 명백히 반대한 소련은 10월 남조선의 좌익지도자 백남운, 강진을 평양으로 소환, 좌익정당들의 합당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압력을 가했고, 11월 3일 선거 후 결국 남한 내 좌익정당들의 통합은 이루어진다.

선거후인 1946년 12월 11일 미군정은 소련이 반대해 온 남조선과도입법 의원을 설립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은 대립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해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1947년 7월 마셜플랜은 그것의 구체적인 시행이었다. 소련은 마셜이 6월 5일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행한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에 대해 초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³⁴⁰⁾ 그

339) 국사편찬위원회(편), 『북한관계사료집(5)』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p. 279. In 김학준 (2008b), p. 516에서 재인용.

340) 마셜의 하버드 대학연설은 Speech by George C. Marshall, “European Initiative Essential to Economic Recovery (June 5, 1947),” 아래 URL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http://www.trumanlibrary.org/whistlestop/study_collections/marshall/large/documents/pdfs/8-7.pdf#zoom=100(검색일: 2012년 4월 4일)

러나 최종적으로 소련의 정책자들은 마셜플랜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으로 인식하였고, 동유럽 국가들의 마셜플랜 참여를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된다.³⁴¹⁾

1947년 7월 소련의 마셜플랜 참여 거부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압력행사는 동해 5월 시작된 제 2차 미소공위에도 부정적 역할을 했다.³⁴²⁾ 6월까지만 해도 소련은 하지를 위한 만찬을 열었고, 「남·북조선 제(諸)민주정당 및 사회단체와의 협의에 관한규정」을 담은 ‘공동성명 제11호’를 채택하는 등의 협력적인 모습을 보였다.³⁴³⁾ 그러나 미소공위협의에 참여할 단체들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사업에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의 내용은 미국과 소련의 자의대로 해석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다.³⁴⁴⁾ 결국 미국과 소련 역시 결국 1차공위 시기부터 문제였던 협의 대상자 문제는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³⁴⁵⁾

341) 소련 정책가들이 마셜플랜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으로 여긴 내용은 Adam Bruno Ulam, *Expansion and Coexistence* (New York: Praeger, 1974), p. 436; “The Soviet Ambassador to the USA, Nikolai Novikov, to the Soviet Foreign Minister, Vyacheslav Molotov,” 24 June 1947 FPA RF, f. 059, i. 18, f. 39, d. 250, pp. 314–320. In Galina Takhnenko, “Anatomy of a Political Decision Notes on the Marshall Plan,” *International Affairs* 7–38 (1992), pp. 118–120을 참조할 것. 또한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에게 마셜플랜에 참여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한 내용은 Scott D. Parrish and Mikhail M. Narinsky, “New Evidence on the Soviet Rejection of the Marshall Plan, 1947: Two Report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9*.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1994), pp. 48–51; Vladimir O. Pechatnov and C. Earl Edmondson, “The Russian Perspective,” in Ralph B. Levering, *Debating the Origins of the Cold Wa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pp. 128–129를 참조할 것. 또한 Takhnenko (1992), pp. 122–127의 문서들도 참조할 것.

342) 김학준 (2008b), pp. 743–757; 김영호, “탈냉전기 냉전 기원의 새로운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2)호 (2001), p. 459.

343) 김학준 (2008b), pp. 743–744. 공동선언 제11호는 송남현 (1985b), pp. 477–481을 참조 할 것.

344) Van Ree (1989), pp. 243–244. 반 리 교수는 미국과 소련의 이러한 합의를 “상호 기만의 행동(an act of mutual deception)”이라고 표현했다. Van Ree (1989), p. 244. 또한 남한과 북한 내부에서도 각각 미소공위의 참여를 두고 분열이 일어났다. 남한 내 좌익계와 중간파들은 협의에 참가하기로 했지만 이승만 및 김구계열은 격렬히 반대했다. 북한에서는 북조선노동당이 대표로 참석했지만, 협의에 참가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창당 움직임이 소련에 의해 저지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김학준 (2008b), pp. 747–750. 북한에서 북조선노동당에 대항할 조선기독교자유당을 창당하려던 움직임은 소련 점령군에게 포착되어 무산되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현수, “소련의 미소공위대책과 한국임시정부수립구상,” 김용섭교수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韓國 近現代의民族問題와 新國家建設』 (서울: 지식산업사, 1997), p. 588을 참조할 것.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대립 가운데 미국은 소련의 반대에도 1947년 9월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했다. 소련은 같은 시기 동유럽 아홉개 국가들과 함께 코민포름(Cominform)을 창설했는데 당시 행해진 주다노프의 양대진영론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해소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미소냉전과 깊이 연관된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10월 18일 제 6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결렬되고 소련은 평양으로 철수했다. 제 3이미지인 양극체제에서의 미소냉전은 한반도 분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남한에서 단독선거를 하기 직전의 남북협상은 남북한이 통일정부를 수립하려 한 사실상의 마지막 시도였다. 김규식의 남북요인 회담제의를 시발로 진행된 남북 연석회의는 1948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서 그들은 미소 양군의 즉시 철수, 철수 후 남북 정당사회 단체들 간의 회의를 소집하여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남조선 단독선거 불인정 등의 네 개 항목에 합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³⁴⁶⁾

냉전기 남북협상에 대해서는 김일성과 북조선노동당이 주도했다고 알려졌지만, 이 남북협상 역시 소련군정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것이 밝혀졌다. 당시 소련군정 정치사령관과 민정사령관을 겸임했던 레베데프소장의 비망록에는 당시 소련이 이 회의에 김구, 김규식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① 남한의 총선 반대와 봉쇄, ② 조선에서 유엔한국임시위원회 추방 요청, ③ 소련군과 미군 철수, ④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남북 총선거는 외국군 철수 후 실시하는 등 한반도의 소비에트화를 위한 네가지 지침을 관철하라”고 지시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³⁴⁷⁾ 또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4월 28일~29일 북조

345) 소련은 공위에 참여하겠다고 한 남한의 425개의 단체들 중 대부분의 우익단체를 탈락시킨 118개의 단체만을 채택하자고 미국에 제의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한다. 조순승, 『한국분단사』 (서울: 형성사, 1982), pp. 130-132.

346) 『동아일보』 (1948. 5. 3).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6_1948_04_30_0040(검색일: 2012년 9월 1일)

347) 김국후 (2008), p. 249.

선 정권은 ‘북조선 인민회의 특별회의’를 열고 스탈린이 재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통과시켰다.³⁴⁸⁾ 그 후 남북한은 각각 8월 15일과 9월 9일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해방 후 통일 한반도의 꿈은 무산된다.³⁴⁹⁾

이와 같이 탈냉전기 제 3이미지를 통한 한반도분단에 대한 설명은 소련이 한반도에 그들의 제국적 모습을 충실히 실현하였음을 보여준다. 비록 그들은 표면상으로는 해방군을 지칭하고 자신들의 체제를 강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사실과 달랐다. 이들은 북한체제 형성과정에서 전면에 나오지 않고 뒤에서 배후를 조종하는 조심성 있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살핀 동유럽에서 소련이 행한 ‘점진적 공산화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하여 볼 수 있다. 해방초기 소련군은 잠시 해방의 주체자로 환영받았지만, 결국 북한지역에서 제국으로 활동하였고 한반도 분단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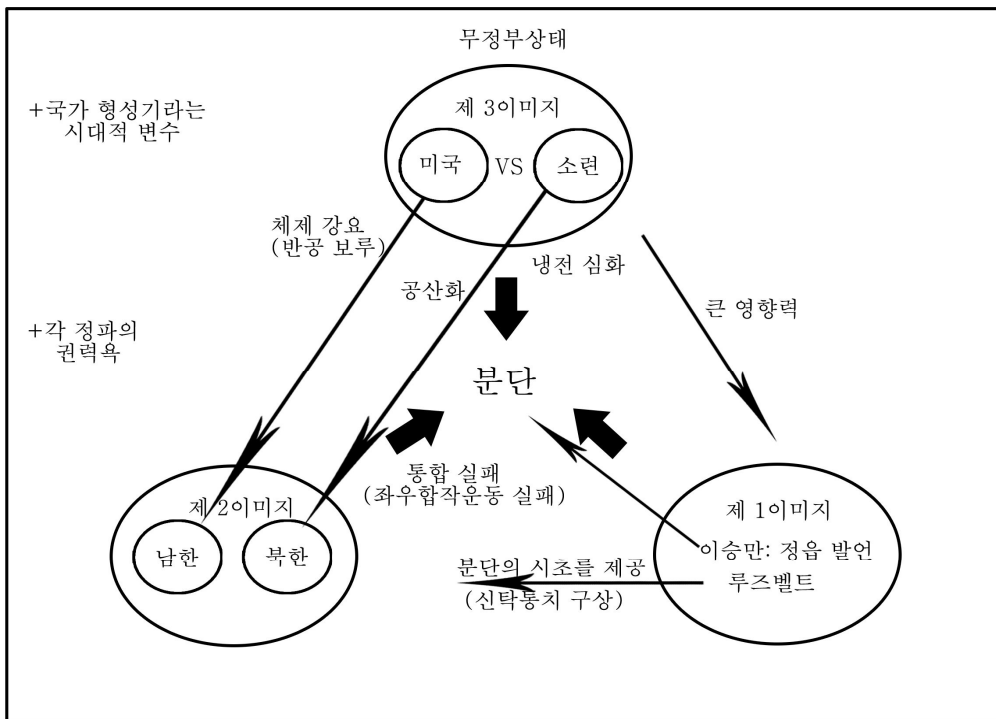
348) Andrei N. Lankov, *From Stalin to Kim Il Sung*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pp. 42-43.

349) 북한에서의 선거에서 소련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전현수(편저) (2004), pp. 157-173을 참조 할 것.

제 5 절 분석결과

이상과 같은 ‘한반도 분단의 기원’에 대한 고찰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냉전기 ‘한반도 분단의 기원’ 분석결과



냉전기 한반도 분단원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이미지로써 루즈벨트와 이승만이 냉전에 미친 영향을 들 수 있었다. 루즈벨트는 한국도 필리핀처럼 일정기간 신탁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를 구상하였다. 전시회담에서 그의 신탁통치 주장은 소련 및 강대국들에 의해 동의를 받았고, 결국 이것은 해방 후 분단의 시초로 작용하

였다. 또 다른 제 1이미지에 의한 설명으로써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분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앞에서 보았듯, 귀국 후 모든 정과를 망라하여 지지를 받은 그는 이후 반소사상을 기반으로 공산당과 결별하였다. 제 1차 미소공위가 무산되고 좌우합작도 여의치 않게 된 시점에서 나온 그의 발언은 냉전기 분단의 책임론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진 개인적 책임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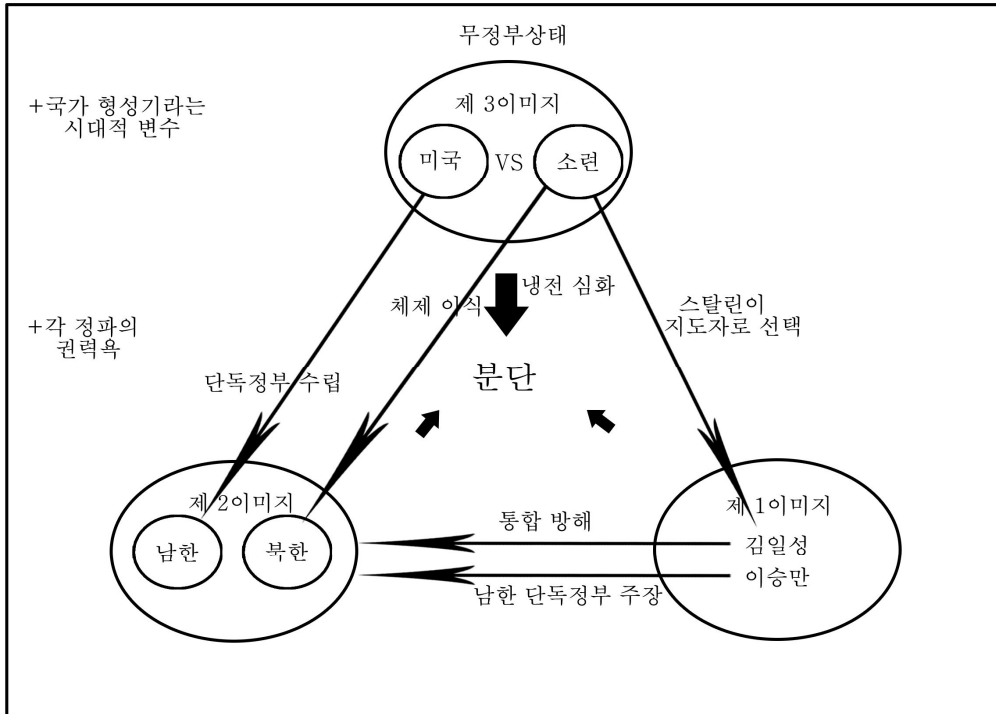
냉전기 제 2이미지인 국내적 요인이 분단에 미친 영향은 좌우합작의 실패 때문으로 설명되어 왔다. 제 1차 미소공위가 실패한 후 벌어진 좌우합작운동의 실패로 한반도가 분단되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제 3이미지가 분단에 미친 영향으로는 냉전의 심화를 들 수 있었다. 미소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분단이 고정화되었다는 것이다.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해 주로 ‘미국은 남한을 반공보루로 삼았다’는 설명이, 또 소련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합의를 이유로 시종일관 남한의 정치체력을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통일 국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 많았다.

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제 3이미지인 미국과 소련의 상호작용은 제 2이미지인 남한과 북한의 체제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되었다. ‘냉전의 기원’에서는 제 2이미지로 다루어진 미국과 소련의 정치체제가 ‘한반도 분단’에서는 제 3이미지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체제적 특징이 한반도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가 한반도의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국가형성기라는 시대적 변수로 인해 당시 남북한의 체제는 정립될 수 없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체제적 특성은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으며, 지도자들의 특성 역시 냉전이 심화되기 전에는 국내정치 체제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없었다. 또한 좌우합작운동이나 미소공위 과정에서 보인 각 정과의 권력욕도 분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탈냉전기 분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그림 5> 탈냉전기 ‘한반도 분단의 기원’ 분석결과



탈냉전기 문서를 통해 살펴본 한반도 분단의 원인분석에는 먼저 제 1 이미지로써 김일성 요인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스탈린의 선택에 있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스탈린에 의해 지도자로 최종 선택된 후, 남한 내의 통합움직임을 방해하고 소련의 뜻을 충실히 따랐다. 이승만은 강한 반공성향을 기반으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는데, 냉전의 심화 후에, 결국 미국과 함께 단독정부 수립에 성공하였다.

탈냉전기와 냉전기 설명에서의 차이점은 냉전기에는 제 1, 제 2 이미지의

영향력이 대등하게 다루어진데 반해, 탈냉전기 새로운 문서로 판단해보면 사실상 이러한 요인들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 1이미지인 김일성의 성향은 미소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이승만의 성향도 냉전이 심화되고 나서야 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또한 좌우합작의 경우도 그 배후에 있었던 소련의 영향력이 밝혀짐에 따라 사실상 국내세력의 역량으로는 분단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분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제 3이미지 요인인데 특히 소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 3이미지에 해당하는 소련의 영향력은 제 2이미지인 한반도 국내정치 체제와 북한의 지도자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소련은 해방 후 사실상 북한에 그들의 체제를 이식하였고, 이에 부합한 당시 북측 정치세력도 일정부분 한반도 분단에 영향을 미쳤다.

제 4 장 중소관계와 동북아 냉전의 기원

다음으로 볼 주제는 ‘동북아 냉전의 기원과 전개’이다. ‘동북아 냉전의 기원과 전개’는 앞에서 논의한 ‘한반도 분단의 기원’과 후술할 ‘6·25전쟁의 기원’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냉전 초기의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찰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동북아 냉전의 기원’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심의 ‘냉전의 기원’ 연구에 비해 그 논의가 매우 부족했다.¹⁾ 동북아 냉전은 미소 냉전의 지역적인 부분으로 취급되어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²⁾ 이러한 연구기준에서 볼 때, 동북아 지역은 부차적인 위치로 취급되었다.³⁾ 동북아에서의 냉전이 미국과 소련의 부주의나 실수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⁴⁾ 동북아 지역을 그러한 연구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다.

물론 기존연구 가운데에서도 아시아,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연구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완범은 기존의 연구가 주로 핵의 개발과 투하에 초점을 맞춘 것을 지적하며, 이미 핵을 투하하기 전에 트루먼이 핵을 이용하여 동북아에서 소련을 배제하려 했던 것이 동북아 냉

1) 동북아 냉전, 혹은 아시아에서의 냉전을 다룬 연구는 Marc S. Gallicchio, *The Cold War Begins in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이완범, “트루먼과 동북아 냉전,” 『미국사연구』 제21권 (2005), pp. 69-103; 이완범, “동북아냉전의 원초적 전개과정,”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권 (1)호 (2003), pp. 195-229; 김영호, “동북아시아 냉전의 기원에 관한 연구,” 『군사』 (67)호 (2008, 6), pp. 1-27; 차상철, “미국의 극동정책과 아시아에서의 냉전의 기원,” 『북미주학연구』 제11권 (2002), pp. 131-147; Tsuyoshi Hasegawa (ed.), *The Cold War in East Asia, 1945-1991*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11).

2) 국지적 냉전에 대한 심층적 접근법은 Stephen L. McFarland, “A Peripheral View of the Origins of the Cold War: The Crisis in Iran, 1941-47,” *Diplomatic History* 4-4 (October 1980), pp. 333-352; Richard Pfau, “Containment in Iran, 1946: The Shift to an Active Policy,” *Diplomatic History* 1-4 (October 1977), pp. 359-372를 참조 할 것.

3) Akira Iriye, *The Cold War in Asia: A Historical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4), p. 6.

4) John Lewis Gaddis, *We Now Know* (Oxford: Clarendon Press, 1997), p. 82; Louis Joseph Halle, *The Cold War as History* (New York, NY: HarperPerennial, 1991), p. 190.

전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⁵⁾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냉전에 대한 일본, 영국, 미국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볼 수 있는 오노스케 나가이(Yonosuke Nagai)와 아키라 이리에(Akira Iriye)가 편저자로 출판한 『아시아에서의 냉전의 기원』 역시 동북아 냉전연구에 대한 중요한 기존연구이다.⁶⁾ 이 연구에서의 학자들은 중국, 일본, 한반도, 동남 아시아에서의 냉전의 영향, 극동지역에서의 미국, 영국, 소련의 정책 등을 열 여섯편의 논문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냉전에 대한 이 책의 전반적인 주장은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미소 대립은 한반도에서보다는 직접적이지 않았으며, 아시아에서의 냉전은 1949년에 와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⁷⁾

이러한 연구들은 냉전 초기 동북아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을 자세하게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동북아 냉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고 있다. 당시 정책결정자들의 행동, 미소양국의 국가전략 등을 설명하며 동북아 냉전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동북아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 그리고 뚜렷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사건의 설명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동북아 냉전을 볼 때 단지 동북아 지역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북아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구도 하의 유럽의 냉전과 연결되어 있

5) 이완범 (2005).

6) Yonosuke Nagai and Akira Iriye,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또한 아시아에서 냉전의 기원 역사를 '아시아 태평양 국제관계'와 '미국과 동아시아 관계'의 맥락에서 추적한 아키라 이리에의 또 다른 저서는 Akira Iriye, *The Cold War in Asia: A Historical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74)를 참조할 것. 샤월 (Michael Schaller)은 일본에 대한 미국점령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냉전의 기원을 서술하고 있다. Michael Schaller,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7) 한편, 아시아에서 냉전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갈리치오(Marc S. Gallicchio)는 일본의 패망으로부터 냉전이 시작되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이 미국의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후계획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냉전의 기원에 대한 기존연구들이 주로 유럽, 중동, 그리고 핵을 두고 벌어진 미국과 소련의 분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적하고 1945년 4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냉전은 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Gallicchio (1988).

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냉전과 결부시켜 보지 않으면 그 전개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앞에서 논의한 ‘냉전의 기원’과의 연관성하에서 보아야 그 모습을 훨씬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주제는 상기한 세 가지 이미지 이론들과 전술한 ‘냉전의 기원’ 설명을 기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북아 냉전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동북아 냉전의 기원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그 해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 벌어진 중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사건들이 동북아 냉전의 기원이 되었는지 고찰, 검증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공개된 소련문서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이러한 검증의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다.

동북아 냉전의 기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들은 ‘알타협정’, ‘미소공위의 붕괴’, ‘한반도 분단’, ‘중소동맹’,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를 나타내주는 ‘역코스 정책의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사건들을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하여 분석하되, 그전에 다시 한 번, 세 가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제 1이미지는 정책결정자의 성향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 2이미지는 국가의 체제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다.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인 미국은 그 작동 원리가 다르므로 국가의 행동도 차이가 날 수 있다.⁸⁾ 마지막으로 제 3이미지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에서 미소양국은 불안정한 양극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 경우, 미국과 소련이 타협의 여지가 없는 특정 의제를 가지고 있다면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동북아 냉전을 야기한 사건들 역시 이러한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8) 그렇지만 당시 소련은 권위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자세한 설명은 후술된 부분을 참조할 것. 또한 이러한 권위주의, 전체주의 체제와 가장 구분되는 자유주의 체제의 특징은 삼권분립과 자유시장을 들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용직,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 도입과 시련과 발전,” 『한국현대사연구』 제1권 (1)호 (2013), pp. 134-137을 참조 할 것.

먼저 제 1이미지에 해당하는 지도자 역시 루즈벨트, 트루먼, 스탈린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냉전의 기원’ 설명에서 보았듯이 이들의 성향과 정책결정은 유럽뿐 아니라 동북아 냉전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 2이미지에 해당하는 체제적 특징으로는 ‘이념’을 들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이념 대결이 표면화된 사건은 ‘한반도 분단’, ‘6·25전쟁’, ‘중소동맹의 체결’ 등이 있다. 그렇지만 ‘한반도 분단’은 이미 다루었고, ‘6·25전쟁’ 역시 후술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중소동맹의 체결’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마지막으로 제 3이미지에 해당하는 논의는 양극체제 하에서 미국과 소련의 동북아 정책을 고찰하며 살펴보겠다. 그렇지만 소련의 극동정책은 제 1, 제 2이미지를 다루면서 중복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미국의 극동정책, 그리고 6·25전쟁으로 이루어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살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과연 어떤 사건이 ‘동북아 냉전의 기원’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

제 1 절 제 1이미지로 본 동북아 냉전의 기원: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1. 루즈벨트와 얄타협정

제 1이미지를 통해 동북아 냉전의 기원을 살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인물은 루즈벨트이다. 그는 전후 강대국들간의 협상을 이끌었고, 그 결과가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참여하여 극동지역에서 강대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얄타협정은 동북아 냉전의 기원을 고찰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할 중요한 협정이다. 이 협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동북아 냉전의 기원을 언제로 보느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얄타협정이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얄타협정을 동북아 냉전의 기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루즈벨트가 ‘다루기 힘든 스탈린으로부터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한다.⁹⁾ 이들은 다른 한편으로 이 합의가 국제 연합을 통한 세계평화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고도 판단한다.¹⁰⁾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는 얄타협정을 ‘루즈벨트가 소련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여 극동에서 과도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비판한다.¹¹⁾ 그들은 미국이 많은 것을 양보한 얄타협정으로 인해 국제정치가 불안정해졌다고 하며, 그런 양보를 한 루즈벨트의 정치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¹²⁾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동북아 냉전의 기원은 얄타협정에서 시작되었고 이 협정을 성사시킨 루즈벨트가 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합당한지 먼저 루즈벨트의 성향을 중심으로 왜 그가 얄타에서의 합의를 성사시켰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그것이 동북아 냉전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1) 루즈벨트의 얄타에서의 목적: 유엔을 통한 국제문제 해결

루즈벨트가 왜 얄타협정을 체결했는지를 보려면 먼저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회담에 임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루즈벨트가 우선적으로 얄타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유엔을 통한 전후문제 처리’의 원칙이었다. 그가 이러한 이상주의적인 국제질서를 지향하게 된 데에는 토마스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대통령 밑에서 차관보로 근무한 경험이

9) Amos Perlmutter, *FDR & Stalin: A Not So Grand Alliance, 1943-1945*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93), p. 168.

10) 이주천, “프랭클린 루즈벨트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냉전의 기원,” 『논문집』 제22권 (1)호(1988), p. 157.

11) 이러한 입장은 Winston Churchill, *Triumph and Tragedy* (New York: Bantam Books, 1962), pp. 333-335.

12) 김용구, 『世界外交史』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 827.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국제연맹’의 주창자 윌슨 대통령에게서 국제주의 신념을 물려받았던 것이다.¹³⁾

그러나 미국은 당시 먼로주의¹⁴⁾를 고수한 공화당의 반대로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루즈벨트는 큰 회의감에 빠졌지만 국제연맹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¹⁵⁾ 비록 초기의 연맹은 ‘평화구축’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신념은 그가 40살이 되던 1921년 갑작스러운 소아마비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후부터 더 확고해졌다.¹⁶⁾ 그는 이때부터 과거의 연맹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을 극복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내려고 하였다. 1932년 미국의 제 32대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그 동안 생각해 온 세계평화를 위한 구상을 좀 더 확고히 밝혔다. 그는 기존의 외교방식이나 간헐적인 국제회의, 또는 세력균형의 원리로는 더 이상 전쟁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루즈벨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 전쟁이 그가 주창한 ‘유엔을 통한 외교’를 확립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¹⁷⁾ 그리고 1941년 8월, 루즈벨트는 국제연합의 기초가 된 ‘대서양 헌장’을 발표한다.

루즈벨트는 상기했듯이 기존 국제연맹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했던 윌슨의 목표보다는 부분적이고 점차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했던 것이다.¹⁸⁾ 가령 명백한 침략국에 대해서는 전

13) 김진희, 『프랭클린 루즈벨트』 (서울: 선인, 2012) p. 75.

14) 먼로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외관계에 있어 불개입을 보인다는 고립주의이다.

15) Thomas H. Greer, *What Roosevelt Thought*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 Press, 1958), p. 196.

16) Greer (1958), p. 196.

17) Greer (1958), p. 196.

18) Greer (1958), p. 199.

쟁을 불사하더라도 그 세력을 격퇴시키고자 했다. 그는 국제연맹에 가입하고도 재무장을 하며 연맹에서 탈퇴한 독일, 만주를 침공하며 국제연맹에서 탈퇴한 일본의 경우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루즈벨트는 이러한 탈퇴에도 사실상 국제연맹이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고치고자, 강대국들에게 구속력을 주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국제관계에서 ‘4대 경찰국가론’을 주장하며 전후 국제관계에서 소련, 미국, 영국,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¹⁹⁾ 특히 네 개 국가 중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이다. 비록 루즈벨트는 당시 중국이 약하다는 것은 인지했지만 중국의 4억 인구가 가진 잠재성을 생각하여 그들을 우방국으로 삼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²⁰⁾

루즈벨트의 이러한 성향, 즉 유엔을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상주의적 국제관은 알타협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루즈벨트는 ‘4대 경찰국가’를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 방식의 실행에 필수적이었던 소련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정에서 그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락했기 때문이다.

2) 루즈벨트의 군사적 고려와 우호적 대소관의 산물

그렇지만 루즈벨트가 단지 ‘소련의 유엔참여’만을 목표로 알타에서 극동지역의 협정을 성사시킨 것은 아니었다. 알타회담에서 루즈벨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은 2차대전의 종전이었다.²¹⁾ 루즈벨트는 유럽에서 소련의 참전으로 미국의 희생을 줄일 수 있었던 것처럼, 동북아에서도 소련군의 참전은

19) “Roosevelt-Stalin Meeting, November 29, 1943, 2:45 P.M., Roosevelt's Quarters, Soviet Embassy,”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 530.

20) *FRUS* :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 532. 당시 스탈린은 과연 중국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1) Perlmutter (1993), p. 115; Churchill (1962), pp. 333-338.

미국에게 큰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²²⁾ 따라서 루즈벨트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회담 전에 이미 합동참모장들이 올린 ‘소련의 대일전 참전촉구 메시지’는 루즈벨트의 이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다.

러시아의 조기참전은 우리의 태평양 작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필수적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항한 우리 노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극동지역에서 일본과 맞서는 소련의 군사적 대응의 목적은 만주에서의 일본군 패배, 동시베리아에 기반을 둔 미 공군과 연합하여 일본본토에 대한 공군 작전을 하는 것, 그리고 일본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있는 일본의 해상교통을 최대한 방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²³⁾

이렇게 대일참전의 필요성을 촉구한 보고를 신뢰한 루즈벨트는 극동지역에서의 합의에 있어 소련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했다. 알타회담 기간이었던 2월 8일 루즈벨트와 해리먼, 그리고 통역관인 볼렌과 소련의 스탈린, 몰로토프, 그리고 통역관 파블로프(V.N. Pavlov)등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대한 협상을 한다.²⁴⁾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루즈벨트에게 소련의 요구가 대일전 참전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독일 같은 경우는 소련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소련국민들이 그들과의 전쟁을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는 소련국민들이 왜 굳이 소련이 큰 문제없는 국가와 전쟁을 해야 하

22) Michael Dobbs, *Six Months in 1945: FDR, Stalin, Churchill, Truman, and Truman—From World War to Cold War* (New York: Knopf, 2012), p. 19.

23)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President (23, January, 1945),” *FRUS: Malta & Yalta*, p. 396.

24) 스탈린은 이미 1944년 12월 해리먼과의 회담에서 극동에서의 그의 요구를 밝힌 바 있다. 즉 당시 스탈린은 사할린 섬의 남반부와 쿠릴열도를 러시아에 복귀시키는 것, 또 차르시대에 중국인과 합작하여 만든 만주 철도는 물론이고 다렌과 여순항의 조차도 원했다. 그리고 만주에서 중국의 주권에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외몽골에서의 현상유지도 요구했다. W. Averell Harriman and Elie Abel,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New York: Random House, 1975), p. 397.

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²⁵⁾ 그러면서 스탈린은 부동항과 만주철도의 사용권 등 제정러시아 때의 소련의 권리회복을 협상체결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²⁶⁾

루즈벨트는 최대한 스탈린을 배려하며 그의 요구를 수락하는 방향으로 회담을 진행하였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 루즈벨트는 우호적인 소련관을 가지고 있었고, 친분을 기반으로 한 스탈린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극동에서의 합의를 성사시켜 줌으로써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성사시키고 유엔에 대한 그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루즈벨트는 소련이 대일전에 참여하는 대가로 제정러시아의 권리를 모두 회복시켜주는 협상에 합의했다.

루즈벨트는 얄타협정을 통해 소련 참전하의 대일전과 ‘4대 경찰국가론’의 시행, 그리고 유엔을 통한 국제질서 확립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했다. 이 협정이 그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일방적인 행동, 배타적 동맹, 영향권, 세력 균형 원리를 종식시켰다고 확신했다.²⁷⁾ 그렇지만 사실상 얄타회담에서 극동지역에서의 합의는 소련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한 루즈벨트의 대소관과 미군의 희생을 줄이고자 하는 군사적인 고려(military consideration)의 산물이었다.

2. 루즈벨트의 얄타협정과 동북아 냉전의 기원

이상과 같이 루즈벨트의 이상적인 국제관과 우호적인 대소관은 얄타협정 체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합의가 동북아 냉전의 기원으

25) “Roosevelt–Stalin Meeting, February 8, 1945, 3:30 P.M., Livadia Palace,” *FRUS: Malta and Yalta*, p. 769.

26) 루즈벨트와 스탈린의 협상 내용은 “Roosevelt–Stalin Meeting, February 8, 1945, 3:30 P.M., Livadia Palace,” *FRUS: Malta and Yalta*, p. 769를 참조할 것.

27) Robert Dallek, *Franklin D. Roosevelt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32–19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 520.

로 작용할 수 있을까? 당시 소련이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살핀다면 이 물음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루즈벨트가 얄타협정의 ‘동북아 부분’에서 소련에 매우 유화적이었고 따라서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우선 그는 스탈린의 개인적인 성향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냉전의 기원’ 논의에서 보았듯이 스탈린은 도청장치까지 설치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 현실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루즈벨트는 스탈린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그로인한 선의에 많은 것을 의존하였던 것이다.²⁸⁾ 또한 극동지역에서 일본과의 전쟁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스탈린의 주장도 소련 체제에서 여론의 중요성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루즈벨트는 그 주장에 대해 다시 생각했어야 했다.²⁹⁾

또한 루즈벨트의 ‘4대 경찰국가론’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의 판단이 적절하였는가? 루즈벨트의 ‘4대 경찰국가론’ 실행을 위해서라면, 미국의 평화가 위협받는 곳에 미국의 개입은 필수적이었다. 그렇지만 루즈벨트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을 복구하는데 개입할 생각이 없었다.³⁰⁾ 그는 얄타에서 처칠에게 ‘미국은 유럽에 2년 이상 머무를 생각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던 것이다.³¹⁾

또한 ‘4대 경찰국가론’이 성립되려면 네 강대국이 공유된 목표가 같아야 하고 그들 사이의 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영국과 소련은 루즈벨트가 중국을 4대 경찰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³²⁾ 과연 중국이 4대 경찰국가가 될 정도의 국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

28) Henry Kissinger,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1994), p. 410.

29) 이주천, 『루즈벨트의 친소정책: 1933-1945』 (서울: 신서원, 1998), p. 354.

30) Kissinger (1994), p. 420.

31) “Second Plenary Meeting, February 5, 1945, 4 P.M., Livadia Palace,” *FRUS: Malta and Yalta*, p. 617.

32) Lloyd C. Gardner, *Spheres of Influence* (Chicago: I.R. Dee, 1993), p. 150.

을 품은 것이다. ‘분단의 기원’에서 보았던 것처럼, 스탈린은 전후처리에서 승자의 체제를 강요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스탈린이 이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4대 경찰국가론’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

‘4대 경찰국가론’의 또 다른 문제는 루즈벨트가 소련체제의 이념적 특성을 너무 간과한 데에서 나타난다.³³⁾ 본래 그의 ‘4대 경찰국가론’은 1815년 출범한 유럽의 ‘빈 체제’를 모방한 것이었다.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Klemens, Furst von Metternich)가 주축하였고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1세, 프랑스의 탈레랑(Talleyrand)등이 참여하여 합의한 ‘빈 체제’는 4국 동맹(Quadruple Alliance), 빈 협정, 그리고 제 2차 파리협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³⁴⁾ 이때 러시아는 ‘빈 체제’에 매우 협조적이었고, 4국 동맹은 기독교 사상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하며 1848년까지 협력관계를 이끌 수 있었다.³⁵⁾ 그러나 2차대전 직후의 러시아는 전제군주 체제였던 러시아와는 달리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였다. 기본적으로 소련은 미국, 그리고 영국과 이념적인 동질감을 보일 수 없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탈냉전기 문서에 따르면 소련은 영국과 미국 사이의 경쟁과 전쟁을 예상하고 있었다.³⁶⁾ 메이츠키는 1944년 1월의 보고서를 통해 전후 세계가 영·미간의 모순에 의해 특징 지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³⁷⁾ 루즈

33) 이주천 (1998), p. 380.

34) 오기평, 『세계외교사』 (서울: 박영사, 2007), pp. 23-24. 빈체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기평 (2007), pp. 21-28을 참조할 것. 알렉산더(Alexander) 1세 황제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를 이루고자 1815년 9월 신성동맹(Holy Alliance)를 제창하였는데, 이 동맹은 11월에 결성된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4국 동맹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이주천 (1998), p. 379.

35) 이주천 (1998), p. 379.

36) 본 논문 2장 2절을 참고할 것.

37) “Maisky's Memo,” 11 January 1944, *Archiv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f.6, op.6, d.147, ll.14, 1-40. 이문서는 Vladimiro O. Pechatnov, “The Big Three After World War II: New Documents on Soviet Thinking about Post Wa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이하 CWIHP로 약칭) Working Paper No.13*.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May 1995), pp. 2-6에서 재인용됨. 이 내용은 Pechatnov (1995), pp. 4-5.

벨트는 '4대 경찰국가론'으로 전후세계를 개편하려고 했지만, 당시 소련은 미국을 제국주의적 팽창국가로 인식했고, 그러한 팽창을 막기 위해 영국과 협조적인 정책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다.³⁸⁾ 전술했듯이 루즈벨트는 세력균형 체제보다는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선호했는데, 소련은 오히려 세력균형체제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미국과 소련지도층의 국제정세 예상이나 세력재편에 대한 사고는 상이한 점이 많았다.

또한 앞에서 본 1944년 7월 그로미코의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스탈린과 그의 참모들은 기본적으로 이념적인 사고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필연적으로 이념적 요인이 기반이 된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스탈린 역시 자본주의 국가의 멸망을 확신하며 당시 바르가(Eugen Varga)의 '자본주의는 전간기(戰間期)³⁹⁾보다 더욱 안정되게 발전될 것'이라는 분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⁴⁰⁾

루즈벨트가 소련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해도, 소련의 대미관은 기본적으로 루즈벨트는 제국주의적이고 자본의 우위를 기반으로 대외정책을 행한다는 것이었다.⁴¹⁾ 또한 루즈벨트는 대일전을 위한 시베리아 기지를 요구했지만 소련은 그것을 대일전을 위해서가 아닌 소련의 영토를 위한 요구라고 생각했다.⁴²⁾ 이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미국 행정부의 주장이 누군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⁴³⁾

이론적으로 평가해보면 제 1이미지인 우호적인 대소관을 기반으로 소련과 협력하여 전후 국제정치를 이끌려던 루즈벨트의 시도는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제 2이미지인 소련의 이념, 그리고 이념과 실리를 동시에 충

38) Pechatnov (1995), p. 5.

39)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시점과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시점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40) David Holloway, *Stalin and the Bom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p. 168.

41) Albert Resis (ed.), *Molotov Remembers* (Chicago: I.R. Dee, 1993), pp. 46-47, 51.

42) Resis (ed.) (1993), p. 23.

43) Gaddis (1997), p. 23.

죽시키려 했던 스탈린의 이중적 정치관은 루즈벨트의 그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련의 대미인식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의 대소 유화책으로 인한 얄타협정의 체결로 동북아 냉전이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얄타협정은 스탈린에게 극동지역에서 큰 이익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은 얄타협정을 “빛나는 금자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⁴⁴⁾ 또 그에 따라 1949년 12월 모택동과의 첫 만남까지만 해도 그 협정의 준수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따라서 얄타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 범한 루즈벨트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얄타협정이 체결된 시점은 동북아 냉전의 기원으로 보기에 불충분한 것이다.

3. 트루먼의 성향과 동북아 냉전의 기원

‘동북아 냉전의 기원’을 고찰하기 위해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트루먼이다. ‘냉전의 기원’을 트루먼의 대소전략과 연결시켜 보는 연구들에 비해 ‘동북아 냉전의 기원’을 트루먼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많지 않다. 탈냉전기 들어 트루먼의 핵무기 투하 시점을 동북아 냉전의 기원으로 본 이완범의 연구정도가 본 논문의 이미지 틀에 가장 부합한 연구이다.

이완범의 주장은 트루먼이 핵 실험을 성공함으로써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 미소간의 균열을 야기시켜 동북아 냉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1945년 7월~8월을 동북아 냉전의 발발 시점으로 보기 힘든 이유는 당시 소련과 미국은 전시 동맹국으로서 협력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트루먼이 핵 보유로 인해 대소 강경책으로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당시 동북아에서 미국과 소련의 세력구도가 확연하게 개편된 것은 아니

44) Vladislav Zubok, ““To Hell with Yalta!”—Stalin Opts for a New Status Quo,” *CWIHP Bulletin* Issues. 6-7 (1995/1996), p. 24.

었다. 미국과 소련은 중국, 한반도에서 공존하며 전후 세력권을 조정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트루먼의 핵무기 보유나 투하시점보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대전환을 알리는 ‘일본에 대한 역코스 시기’가 동북아 냉전의 기원으로써 검증해 보기 적절한 시기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트루먼의 성향과 그것이 동북아 정책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그 시기를 동북아 냉전의 기원으로서 볼 수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1) 트루먼의 초기 활동

트루먼은 1884년 5월 8일 미국 미주리(Missouri) 주의 라마(Lamar)에서 태어났다.⁴⁵⁾ 190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철도건설회사에서 시간 기록원으로 잠시 일했고, 그 후 캔자스시(Kansas City)의 두 은행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했다. 1905년부터 1911년까지 트루먼은 미주리 주 방위군(Missouri National Guard)에서 복무했다. 1917년 미국이 1차대전에 참전하자 그는 미주리 주 야전포병 제 2연대 조직을 도왔고 이 부대는 129야전포병대로 소집, 프랑스로 파병되었다.⁴⁶⁾ 트루먼은 이 전쟁에서 대위로 승진하여 전투를 지휘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은 후일 그가 대통령으로서 지도력을 보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전쟁 후 트루먼은 1920년 캔자스 시립법대(지금의 미주리-캔자스 시립법과대학)에서 2년간 법학을 공부했다.⁴⁷⁾ 그는 1922년 미주리 주 잭슨 카운티(Jackson County)에서 세 명의 판사 중 하나로 선출된다. 2년 후 그는 재선에 실패했지만 1926년 수석판사로 선출되었고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45) 그의 연보는 <http://www.trumanlibrary.org/hst-bio.htm>를 참조할 것. (검색일: 2013년 3월 27일)

46) 위의 사이트.

47) 김영호, “미국 외교지도자 연구: 트루먼,” 『2007년 한국세계지역학회,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공동주최 춘·하계 학술회의자료집』 (미간행), p. 2.

정계에 진출, 1934년 상원의원으로 당선된다.⁴⁸⁾

그는 1938년 민간항공법과 1940년 수송법을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1940년 재선된 후 국가 방위계획을 조사하는 상원특별위원회 (Senate Special Committee)의 의장을 맡으면서 전국적 지명도를 얻게 되었다. 이 활동에서 그는 후일 외교에서 구사하게 되는 정치적 기술을 연마했다. 설득을 선호하되 그러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강경책으로 구사하는 업무 성향을 보여 준 것이다.⁴⁹⁾ 이렇게 국내정치에서 여러 활동을 한 트루먼은 외교에서는 교전국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교전국의 선박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하는 중립화 법안을 찬성하는 고립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일 그는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같은 독재자를 보며 이러한 독재자들이 있는 상황에서의 중립화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그러한 법안으로 인해 독재국들을 돕게 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중립화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⁵⁰⁾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로 그의 외교노선을 바꾼 것이다.

1944년 7월 트루먼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으로 지명되었다. 루즈벨트와 다른 반소성향의 트루먼이 부통령후보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현직 부통령 윌리스(Henry Wallace)와 루즈벨트의 대안인 연방 상하원의원 출신의 변호사 번스(James Francis Byrnes)를 반대하는 당내 중추세력이 트루먼을 선호했기 때문이다.⁵¹⁾ 결국 대선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했고 1945년 1월 트루먼은 루즈벨트와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다.

48) Melvyn P. Leffler, *For the Soul of Mankind: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and the Cold War* (New York: Hill and Wang, 2007), p. 17.

49) Deborah Welch Larson, *Origins of Containmen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5), p. 137.

50) David G. McCullough, *Truman* (New York: Simon & Schuster, 1992), pp. 242-243.

51) 김학준, 『북한의 역사(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 581.

2) 트루먼의 대소 외교성향: 리가원리

트루먼은 부통령이 된 후 대통령인 루즈벨트를 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고, 만났을 때에도 대부분 국내문제만 토의하였다.⁵²⁾ 즉 트루먼은 루즈벨트에게 외교에 관해서는 전혀 들은 것이 없었다. 루즈벨트는 외교에 있어서 개인외교 스타일을 구사하며 그 내용을 그 자신과 측근 몇 명만이 공유했기 때문이다. 루즈벨트 사후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었을 당시 그는 알타협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 개발 계획인 ‘맨하탄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을 정도였다.⁵³⁾

트루먼은 취임 후 얼마 정도의 기간은 루즈벨트의 외교기조를 따르며 소련과의 협력을 추구했다.⁵⁴⁾ 예르긴(Daniel Yergin)은 소련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며 루즈벨트가 구상한 알타체제를 “알타원리(Yalta Axioms)”라고 불렀다.⁵⁵⁾ 이 원리를 주장했던 루즈벨트와 친소 성향의 정부 관리들은 이념이나 독재주의정권의 대외정책 결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소련을 국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국가가 아닌 그 체제 안에 있는 전통적인 강대국으로 바라보았다.⁵⁶⁾ 이들은 베르사이유 체제에 의해 성립된 방역지대 뒤에 고립된 소련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소련의 안보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⁵⁷⁾ 따라서 상기한대로 루즈벨트는 알타에서의 소련의 요구를 수용하며 전후 세계질서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다.⁵⁸⁾

52) Harry S. Truman, *Memoirs by Harry S. Truman (Vol.1)* (New York: A Sigent Book, 1955), pp. 1-2.

53) 김영호 (2007), pp. 3-4.

54) Larson (1985), p. 140.

55) Daniel Yergin, *Shattered Peace* (Boston: Houghton Mifflin, 1977), p. 11.

56) Yergin (1977), p. 11.

57) 김영호, “동아시아와 케난의 딜레마,” 『한국과 국제정치』 제14권 (2)호 (1998), p. 253.

58) 물론 루즈벨트 시대에도 대소 강경론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루즈벨트의 대소 유화정책 때문에 이들의 입지는 크지 않았다. 종전을 앞두고 루즈벨트 정부 내의 대소 강경파의 등장과

그렇지만 1930년대부터 케난과 같은 소련전문가들은 이러한 루즈벨트의 알타구상에 반대하였다. 예르긴은 이들의 입장을 “리가원리(Riga Axioms)”라고 불렀는데, 그 특징은 소련과의 공존가능성을 부인하고 소련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무자비한 이념전쟁을 시도하는 혁명국가로 보았다는 것이다.⁵⁹⁾ 케난은 2차대전 기간 중에 루즈벨트의 우호적인 대소유화정책에 반대했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⁶⁰⁾ 그러나 케난의 이러한 주장은 트루먼 시기 빛을 보게 된다. 케난은 스탈린과 헐리대사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보낸 보고서에서 ‘소련의 정책은 최소의 책임을 지면서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는데 맞추어져 있고, 여러 지역에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였다.⁶¹⁾ 덧붙여 그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의 목적과 그 실제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극동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과도하게 의지한다면 그것은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 놓았다.⁶²⁾

트루먼은 이러한 기초의 분석을 신뢰하였다. 소련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접근한 루즈벨트와 달리 트루먼은 소련을 신뢰하지 않았다. 상기했듯이 트루먼은 스탈린을 독재자로 여기고 있었다. 트루먼은 유년시절 영웅과 악당에 초점을 맞춘 책을 많이 봤는데 그것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⁶³⁾ 트루먼은 ‘정의’와 ‘불의’를 명확히 구분했고 중간 지점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았다.⁶⁴⁾ 트루먼은 국제질서에 큰 희생을 야기시키는 잔인한 정권을 ‘악’이라고 규정하였고 그 범주에 소련도 포

이들의 활동은 이주천 (1998), pp. 257-315를 참조할 것.

59) Yergin (1977), p. 11.

60) George Frost Kennan, *Memoirs(1925-1950)* (Boston: Little, Brown, 1967), p. 134.

61) Truman (1955), pp. 100-101.

62) Truman (1955), p. 101.

63) Steven Casey, “Harry S. Truman,” in Steven Casey and Jonathan Wright, *Mental Maps in the Early Cold War Era, 1945-68*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1), p. 36. 또한 그가 유년시절 본 책에 대해서는 McCullough (1992), p. 58.

64) Casey (2011), p. 34.

함시켰다.⁶⁵⁾

따라서 그는 당시 얄타협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유럽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외몽골에 대한 권리, 다롄항의 국제화, 여순항에 대한 조차권, 만주철도를 중국과 공동운영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소련에게 준 얄타협정은,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트루먼은 전후 소련이 동유럽에서 군사적 팽창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란에서 군사를 철수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더욱더 소련의 행동에 대한 불신을 강화했다. 이러한 와중에 케난 등의 대소 강경론자들의 정책 건의는 트루먼의 소련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트루먼은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유럽에서 ‘마셜플랜’을 시행하였다. 그렇다면 동북아에서 그의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동북아에서 일본을 중요시했던 그는 일본에 대한 ‘역코스 정책’을 추진하였다. 후술되었듯이 일본에 대한 ‘역코스 정책’은 일본을 일종의 공산주의의 보루로 설정한 것이었다. 트루먼 행정부는 일본에 공산주의, 그리고 전체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한 경제부흥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트루먼의 성향은 소련에 대한 강경책과 동북아에서 일본에 대한 역코스 정책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코스가 시작되었던 1947년 말에서 1948년의 시기는 동북아 냉전의 기원이라고 보기 힘들다.⁶⁶⁾ 후술된 자료에서 나오듯이 당시 소련은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사이의 이중정책을 구사하며 얄타협정을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협력을 기반으로 했던

65) Casey (2011), p. 36.

66) 역코스 정책의 시기, 혹은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는 Marc S. Gallicchio, “Recovery Through Dependency: American–Japanese Relations, 1945–1970,” in Warren I. Cohen (ed.), *Pacific Passage: The Study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on the Eye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Warren I. Cohen (ed.), *New Frontiers in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 Essays Presented to Dorothy Bor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pp. 199–207을 참조할 것.

알타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 역코스의 시기를 동북아 냉전의 분기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제 1이미지로 본 스탈린의 동북아 정책

마지막으로 볼 제 1이미지를 통한 동북아 냉전의 기원 고찰은 스탈린을 통해서다. 동북아에서 스탈린은 어떤 전략을 취했는가? 그러나 그전에 먼저 그가 속한 정치체제가 루즈벨트, 트루먼의 국가체제와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련의 체제는 권위주의 체제이며 집단주의 체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⁶⁷⁾ 권위주의 리더십의 특징인 독재자의 사고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⁶⁸⁾

그런데 이렇게 히틀러나 스탈린같은 독재자가 있는 국가는 독재자의 퍼스넬리티(personality)가 체제와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이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⁶⁹⁾ 터커의 지적처럼 그들의 성격인 편집형 퍼스넬리티(paranoial personality)의 욕구가 정책결정에 강한 동기로 작용하는 것이다.⁷⁰⁾ 따라서 의회와 여론의 영향이 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인 루즈벨트나 트루먼과 비교하여 스탈린의 성격적 측면은 소련의 정책결정에 훨씬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스탈린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탈냉전기 들어 그의 성격에 대한 분석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⁷¹⁾ 김남섭의 분석은 그의 성격을 보

67) 권위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는 장준영, “미얀마 군부의 이중적 지배: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아시아연구』 제9권 (3)호 (2007), p. 77을 참조할 것.

68) 장준영 (2007), p. 77.

69) Robert C. Tucker, “The Dictator and Totalitarianism,” *World Politics* 17-4 (July 1965), p. 566.

70) Tucker (1965), p. 566.

71) Kevin McDermott, *Stalin : Revolutionary in an Era of War* (Basingstoke [England]: Palgrave Macmillian, 2006); Simon Sebag Montefiore, *Stalin: The Court of the Red Tsar* (New York: Vintage Books, 2005); Erik Van Ree, *The Political Thought of Joseph Stalin : A Study in Twentieth-Century Revolutionary Patriotism* (England: Routledge Curzon, 2002).

기에 매우 적절하다.

그는 중앙의 정치무대에서 러시아인으로서 활약하고 싶어하면서도 그루지야인으로서 획득했던 인성적 특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고, 레닌을 자신의 영웅으로 추앙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그에게 도전하는 대담성을 보여주었다. 독재자가 된 뒤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주변의 동료들을 의심하였다. 나아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국가의 권력 구조를 공식적으로는 끊임없이 분화시키면서도 정책 결정은 소수의 비공식 그룹에 의존하였다. 어떤 정책은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결정하였으나, 많은 정책들은 부하들에게 완전히 위임하면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⁷²⁾

즉 스탈린의 성격은 모순적이면서도 양면적이라는 것이다.⁷³⁾ 서비스의 분석처럼 그의 성격은 이분법적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성격을 가졌다.⁷⁴⁾ 그는 현실정치와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늘 위험한 곡예를 했다.⁷⁵⁾ 이념을 중요시했지만 국가이익이나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념을 버리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성격은 동북아 지역의 외교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의 양면적인 성격은 중국에서의 전략에서 드러난다. 앞에서 보았듯이 스탈린은 알타회담에서 장개석의 중국과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유럽에서는 ‘점진적 공산화 전략’을 구사하며 이념적인 팽창을 시도했던 그가 왜 동북아에서는 이념적 동질성을 가진 공산중국보다 장개석의 국민당을 지지했

72) 김남섭, “그루지야의 혁명사에서 소련의 독재자로: 스탈린의 신화와 현실,” 『인문논총』 제 57집 (2007), pp. 235-236.

73) 김남섭 (2007), p. 285. 또한 Edvard Radzinsky, H.T. Willetts (Trans.) *Stalin: The First In-Depth Biography Based on Explosive New Documents from Russia's Secret Archives* (New York: Hodder&Stoughton, 1996)도 참조할 것.

74) 로버트 서비스, 윤길순 역, 『스탈린 : 공포의 정치학, 권력의 심리학』 (서울: 교양인, 2010).

75) 황동하, “소련 외교지도자 연구: 스탈린,” 『2007년 한국세계지역학회,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공동주최 춘·하계 학술회의자료집』 (미간행), p. 23. 또한 스탈린의 현실주의적인 면과 이념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Kevin McDermott, *Stalin : Revolutionary in an Era of War* (Basingstoke [England]: Palgrave Macmillan, 2006), pp. 117-119를 참조할 것.

는가?

우선 스탈린은 기본적으로 모택동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았다. 모택동은 그의 성장배경처럼 농민을 중시하며, 혁명에 있어서도 농민중심적 혁명을 주장했는데 스탈린의 경우 혁명계급의 주체는 노동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⁷⁶⁾ 이러한 모택동의 혁명노선은 스탈린의 사고와 큰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스탈린에게 혁명이란 항상 소련의 국가 이익 내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련이 중심이 되지 않는 혁명은 공산주의 세계에서 소련의 위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⁷⁷⁾

다음으로 스탈린은 현실적으로 국민당의 능력이 공산당보다 훨씬 높다고 여겼다.⁷⁸⁾ 그는 중국혁명의 승리를 예견하지 못하였다. 1948년 1월, 그는 유고슬라비아의 지도자 질러스와의 대화를 통해 “소련이 중국 공산당에게 장개석과 협력하라고 한 것은 실수였다”⁷⁹⁾고 한 것은, 스탈린이 중국혁명의 승리를 예상치 못했다는 증거이다. 제 2차 국공합작을 중용한 것도 이러한 판단에 의거한 것이었다.

또한 당시 영국과 미국이 국민당정부를 지지하고 있었고, 국민당정부가 카이로 회담에 참여할 만큼 정통정부로서 대외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도 스탈린이 국민당을 선택한 이유이다.⁸⁰⁾ 따라서 스탈린은 루즈벨트와 합의한 내용을 국민당의 중국과 조정하였다. 장개석은 이러한 타협을 통해 소련에게 이권을 제공하여 국민당정부의 승인을 요구한 것이고 스탈린은 승인을 대가로 이권을 원했다.⁸¹⁾ 포츠담 회담에서도 스탈린은 홉킨스와의 대화를

76) 지재운, “대소일변도정책의 결정배경에 관한 연구,” 『中國研究』 제15권 (1994), p. 66.

77) Milovan Djilas, *Conversations with Stali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2), p. 132.

78) Lyman P. Van Slyke (ed.), *The Chinese Communist Movement: A Report of the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July 19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8), pp. 221-225.

79) Djilas (1962), p. 182.

80) 정세현,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 (서울: 형성사, 1982), p. 113.

81) 이완범 (2005), p. 78.

통해 “국민당에 의한 정부구성을 위해 소련군대의 만주투입을 허용했다”고 하였다.⁸²⁾ 당시 스탈린의 목적은 얄타협정에서 합의한 제정러시아 때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념보다는 실리를 선택했던 것이다.⁸³⁾

문제는 스탈린이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공이간정책을 구사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이중정책으로 그가 불신했던 모택동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국민당을 지원하되, 한편으로는 강대한 중국이 출현하기도 바라지 않았으므로 국민당이 강해졌을 때는 공산당을 비밀리에 지원한 것이다.⁸⁴⁾ 그러나 이후 중국의 상황은 공산당에게 유리한 국면이 되었다. 1947년 3월부터 1948년 3월까지 국민당은 연안공약을 실패함으로써 1/3이 전멸하는 큰 피해를 입었고, 이미 1947년 말부터 1948년 초의 시기에 동북아의 중심거점을 일본으로 옮기기 시작한 미국은 장개석 부대의 원조를 거절하였다. 비록 그 전시기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정책과 국공이간전략을 구사했던 스탈린이지만 이러한 상황변화는 그가 중국정책을 재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스탈린은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념을 강조하며 중국과 합하여 서방세력과의 투쟁을 강조한다. 키신저의 지적대로 현실주의자 스탈린은 이념을 자신의 전략과 목적에 맞는 도구로서 사용한 것이다.⁸⁵⁾ 이렇게 스탈린은 초기엔 현실적인 여건이 유리했던 국민당 지지를 표명했고, 중국 혁명이 성공한 후에는 공산중국과의 이념을 강조하며 동맹을 체결하는 양면적 모습을 보였다. 스탈린은 또한 얄타협정을 파기하고 이 동맹을 체결하며 그동안 얄타에서의 합의를 이유로 수락하지 않았던 김일성의 전쟁 요구도 받아들였다. 결국 동북아 냉전의 기원은 스탈린의 양면적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친 중

82)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Harriman) to the President,” *FRU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 of Berlin (the Potsdam Conference)*, 1945, (I), p. 62.

83) 정세현 (1982), p. 113.

84) 이완범 (2005), p. 78.

85) Kissinger (1994), pp. 332-333.

소동맹의 체결에서 시작되었다.

제 2 절 제 2이미지로 본 동북아 냉전의 기원: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다음으로 제 2이미지를 통한 냉전기 동북아 냉전의 기원을 살펴보자. 제 2이미지로써 동북아 냉전을 설명하기 위해 볼 수 있는 사건으로는 1947년 10월 미소공위의 붕괴, 그리고 1948년 8월~9월에 한반도상에서 두 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한반도가 분단된 사건, 그리고 1950년 2월 중소동맹의 체결 등이다.

그렇지만 미소공위 붕괴나 한반도 분단을 동북아 냉전의 기원으로 보기 힘든 이유는 소련이 1949년 12월까지만 해도 모택동과의 회담을 통해 알타협정의 준수의지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의 협상이 성립되지 못하고 두 국가가 세워졌지만, 당시 소련이 동북아에서 본격적인 이념대결을 한 것은 아니다. 소련은 한반도와 중국에서 일본의 위협을 견제하는 목적이 더 큰 세력균형 전략을 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1949년까지 계속되는 김일성의 무력남침 요구를 ‘38선은 미국과의 합의에 의해 그어진 국제적 선’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던 것이다.⁸⁶⁾

따라서 제 2이미지로 ‘동북아 냉전의 기원’을 고찰할 때 가장 적절한 사건은 1950년 2월 맺어진 중소동맹이다. 월트는 두 국가의 국내체제가 유사할수록, 그리고 안보를 추구할수록, 또 양극체제에서, 이념적인 동맹이 맺어지기 쉽다고 설명한다.⁸⁷⁾ 이러한 점은 당시 중소동맹이 맺어지게 된 배경에도

86) Kathryn Wheathersby,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CWIHP Working Paper* No.39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2002), p. 4를 참조할 것. 또한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1949년 3월 5일,”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1949.1~1953.8)』 (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1994), p. 4도 참조할 것.

87)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 40. 월트는 동맹이 맺어지는 이유를 위협(Threat)인식, 이데올로기(Ideology), 해외원조(Foreign Aid),

적용된다. 특히 새로운 문서가 공개되기 전에는 이 동맹의 근간으로 이념적 동질성을 많이 부각시켰다.⁸⁸⁾

그렇지만 스탈린의 중국 정책에서 보았듯이 스탈린은 중국혁명이 성공하기 전까지 모택동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국공이간정책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스탈린이 이념적 동질성 때문에 중소동맹을 맺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모택동의 이념을 중심으로 냉전기 중소동맹이 맺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중소동맹 체결요인 1: 모택동의 이념지향

냉전기 중소동맹체결에 있어 모택동의 성향은 매우 중요하게 거론되었다.⁸⁹⁾ 특히 상기한 1949년의 대소일변도 발언은 그가 소련과의 이념적 동질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주의 성향을 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볼 것이 그의 민족주의적 성향이다. 모택동의 민족주의 성향의 배경에는 그의 고향특성이 영향을 미쳤다. 모택동이 태어난 호남성은 예로부터 민족의식, 자존심과 보수성, 그리고 강한 지역성이 있는 곳이며, 전국 시대 초나라 시기 유명한 시인이자 지사였던 굴원(屈原), 그리고 명말 청초기에 민족주의자로 이름난 왕선산((王船山)등의 선비들과 우국지사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기 때문이다.⁹⁰⁾

또한 호남성은 근대적 민족주의의 태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태평천국(太

다국적 침투(Transnational Penetration)로 설명하고 있다. Walt (1987), pp. 17-49. 또한 그는 위협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총체적 힘(Aggregate Power)과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 Proximity), 공격적 능력(Offensive Power), 공격적 의도(Aggressive Intentions)를 들었다. 자세한 설명은 Walt (1987), pp. 21-26을 참조할 것.

88) O. Edmund Clubb, *China & Russia: The Great Gam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1), p. 380.

89) 도날드·자고리아, “중·소분쟁에 있어서의 모택동의 역할,” 『동아세아의 평화와 안보』 (1974), p. 128.

90) 한주희, “모택동(毛澤東)의 민족주의와 대외정책,” 『통일전략』 제6권 (1)호 (2006), p. 295.

平天國)의 난의 용맹한 전사들을 배출한 지역이기도 했다.⁹¹⁾ 그뿐 아니라 이곳은 중화민국을 건설한 손문의 흥중회가 발족한 곳이며, 또한 의화단의 난으로 인해 서구 열강들이 천진을 점령한 곳이기도 했다.⁹²⁾ 따라서 모택동의 민족주의적 성향은 그가 살아온 곳의 특성이 근원적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19년 5.4운동의 발발은 모택동에게 정치적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모택동은 1919년 7월 주간신문 『상강평론(湘江評論)』을 발간, 반제·반봉건적 투쟁을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 중국인들의 단결을 위한 민족주의 사상 고취에 전력하였다. 그가 쓴 ‘민중의 대단결’이라는 글에서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5.4운동이 발발하였다. 그 움직임은 황화에서 양쯔강을 가로질러 남으로 남으로 나가고 있다.....우리는 깨어났다. 세계는 우리의 것이다. 민족은 우리의 것이다. 사회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할 것인가?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누가 행동할 것인가?.....중국이 위기에 처한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우리는 힘을 행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뿐이다.....우리 중화민족은 본래부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압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큰 저항이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눌려온 것들이 순식간에 터질 것이다. 위대한 중화민족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황금시대, 찬란한 영광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⁹³⁾

위의 글은 그가 가진 중화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위대한 민족인 중화민족이 단결해야 함을 촉구하는, 그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글이다. 5.4운동을 통해 모택동은 그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근간으로 공산주의의

91) 한수인, 김자동 역, 『대지의 별』 (서울: 일월서각, 1986), p. 16.

92) 한주희 (2006), p. 296.

93) Stuart R. Schram,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New York; London: Frederick A. Praeger, 1963), pp. 163-164.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성향과 함께 거론되는 모택동의 특성은 공산주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모택동은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마르크스 이론과 러시아 혁명사에 심취되었다. 그는 진망도(陳望道)가 번역하여 중국어로 출판된 마르크스주의 책인 『공산당선언』, 카우츠키의 『계급투쟁』, 키르쿱(Kirkup)의 『사회주의사』를 그의 마르크스주의에 확신을 심어준 책으로 꼽았다. 또한 1920년 여름 이후부터는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생각하였다.⁹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모택동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은 민족주의와 마르크스주의라고 볼 수 있다.⁹⁵⁾ 모택동의 민족주의는 중국전통 사상인 중화사상이 근대적 민족주의로 발전하면서 나타났고 이러한 근간위에 공산주의가 자연스럽게 융해된 것이다.⁹⁶⁾ 이와 같은 민족주의, 마르크스주의 성향의 모택동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세계를 제국주의 세력으로 칭하면서 ‘소련과 함께 가야한다’는 입장을 채택하게 된다. 비록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였지만 마르크스이념의 영향 역시 그의 외교 전략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2. 중소동맹 체결 요인 2: 이념대결의 심화

이러한 이념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그 전(前)시기 모택동은 ‘중간지대론’을 펼치면서 결코 미국이나 소련 어느 일방에 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946년 8월 모택동은 미국의 언론인 안나 루이스 스트롱(Anna Louise Strong)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모택동은 찻잔 두 개를 탁

94) 에드가 스노우, 홍수원 외 역, 『중국의 붉은 별(상)』 (서울: 두레, 2002), p. 182.

95) 한주희 (2006).

96) 석한섭, “중국 대외정책형성에 미친 민족주의의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3), p. 59.

자에 올려놓고 이것들을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에 비유했다.⁹⁷⁾ 다음에 그는 그보다 작은 술잔 몇 개를 그 두 찻잔 사이에 놓음으로서 그가 제 3지대라 부르는 지역을 표시했다. 그의 말대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자본주의, 식민주의, 반식민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었다.⁹⁸⁾

모택동은 미국이 이 나라들을 정복하기 전에 소련을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 지역에서의 투쟁을 강조하였다. 모택동은 이 중간지대의 투쟁강화를 통해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이 필연적이라고 보았던 스탈린의 입장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또한 모택동은 국제정치의 원동력이 강대국들에게 뿐만 아니라 중소국들에게까지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⁹⁹⁾

비록 그가 반미투쟁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모택동은 그러한 투쟁에 중국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모택동은 중국혁명이 강대국들이 가지고 노는 카드가 아니며 스스로의 권리를 가진 진정한 참여자이자, 심지어 공산진영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보증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정한 소련의 전략가라면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짐이 아닌 중요한 자산으로, 아랫사람이 아닌 동등한 관계로 여겨야 한다고 했다.¹⁰⁰⁾

그러나 이러한 중간지대론을 표방한 모택동의 입장은 결국 냉전의 심화와 함께 변화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마셜플랜, 1947년 9월에 있었던 즈다노프의 ‘양대진영론(Two Camp Theory)’ 등은 양극체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소련은 1939년부터 중국이 대소일변도 정책을 표명한 1949년까지 북쪽 방향으로는 핀란드에서부터 서쪽으로는 폴란

97)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 22.

98) Goncharov, *et al.* (1993), p. 23.

99) Goncharov, *et al.* (1993), p. 23.

100) Goncharov, *et al.* (1993), pp. 23-24.

드, 체코, 동독, 헝가리를, 남쪽으로는 루마니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를, 동쪽으로는 몽고, 일본의 북방 4도, 그리고 북한에 이르는 지역을 자국 영토에 합병시키거나, 공산당정권을 일으킴으로써 큰 공산주의 블록을 구축하였다.¹⁰¹⁾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내전 중이었고, 소련의 도움이 절실했던 모택동은 하나의 선택을 해야 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은 장개석 군대의 지원에 힘썼고 경제적 요청을 원하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였다.¹⁰²⁾ 또한 봉쇄정책은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마르크스주의자인 모택동이 미국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다. 1949년 12월부터 두 달간의 긴 협상을 통해 소련과 중국은 기존의 알타회담을 파기하고 중국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중소동맹을 맺게 된다. 이러한 소련과 공산중국과의 동맹은 동북아에서의 냉전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3. 중소동맹 체결의 전야: 제 2이미지의 영향

탈냉전기에도 중소동맹으로 인해 동북아 냉전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¹⁰³⁾ 거대 공산중국의 등장은 이념대결로 치닫던 미소의 대결에 큰 변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냉전기 중소동맹의 성립은 주로 모택동의 이념적 성향과 이념대립이 심화된 냉전 상황에 맞추어 설명되었다. 탈냉전기 중소동맹 체결과정 문서가 공개됨으로 인해 냉전기의 설명과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101) 지재운 (1994), p. 73.

102) 석한섭 (1993), p. 93.

103) Tsuyoshi Hasegawa, "Introduction: East Asia—the Second Significant Front of the Cold War," in Tsuyoshi Hasegawa (ed.), *The Cold War in East Asia, 1945–1991*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11), p. 3; Ilya V. Gaiduk, "The Second Front of the Soviet Cold War: Asia in the System of Moscow's Foreign Policy Priorities, 1945–1956," in Hasegawa (2011), pp. 63–80; 시모토마이 노부오, 이종국 역, 『모스크바와 김일성: 냉전기의 북한 1945~1961』 (서울: 논형, 2012), p. 95.

탈냉전기 공개된 중소동맹의 구체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택동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얻고자 했던 목적 중 하나가 경제적인 복구라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모택동은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우선적으로 경제복구를 부탁하였다. 다음으로 모택동은 신 중소조약을 맺으며 장개석과 스탈린사이의 구 중소조약의 파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스탈린은 이 시점만 해도 얄타회담에 의거한 구 조약의 준수를 인식하고 있었다. 신 조약을 원하는 모택동에게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알다시피 구 조약은 소련과 중국사이에 주요문제(쿠릴 열도, 남사할린, 여순항 등)를 두고 체결한 **얄타협정의 결과로** 맺어졌습니다. 즉, 미국과 영국의 동의 하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염두에 두어야 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까지는 이 조약의 어떠한 부분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조약의 변경이 일어나면 미국과 영국에게 쿠릴열도, 남사할린등의 조약항목을 수정할 법적근거를 주기 때문입니다.¹⁰⁴⁾(강조는 필자)

이렇게 ‘얄타에서의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스탈린은 대신 그 조약의 형식적인 틀을 유지하며 내부의 내용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구 조약에서는 여순항에서 소련군의 주둔권리를 인정했는데, 신 조약에서는 이러한 권리조항은 유지하되 중국정부의 요청으로 병력을 철수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또한 만주철도에 관한 내용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¹⁰⁵⁾

모택동은 이러한 제안에 여순과 만주철도와 관련된 구 조약은 중국의 힘이 제국주의적 공격에 효과적으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이익

104) "Conversation between Stalin and Mao, Moscow, 16 December 1949," *Archive of the President, Russian Federation* (APRF), fond (f.) 45, opis (op.)1, delo (d.) 329, listy (ll.) 9-17; Translation by Danny Rozas. In *CWIHP Bulletin* Issues. 6-7 (Winter 1995/1996), p. 5.

105) *CWIHP Bulletin* Issues. 6-7 (Winter 1995/1996), p. 5.

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즉, 모택동은 이 시점에서 미국 및 서방 세계의 공격을 의식하고 있었고,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소련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뜻을 스탈린에게 알린 것이다. 또한 모택동은 만주철도는 철도와 산업분야에서 중국의 간부를 양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형식적으로 구 조약의 틀을 유지하되 실질적 병력철수를 언급한 스탈린은 서구의 공격을 의식하고 있는 모택동에게 병력철수가 중국에 대한 원조의 거절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 공산주의자로서 우방국의 영토에 소련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주둔이 미국과 영국 역시 동경이나 홍콩에 그들의 군대를 주둔시킬 여지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여순에서의 소련 군대 철수는 기존의 국민당정부와 공산당이 다르다는 것과 또 기존의 정부가 얻지 못한 것을 현정부는 얻었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한다.¹⁰⁶⁾

스탈린은 이러한 조약으로 설사 소련이 여순항에서 철수한다고 해도 만약 이것이 중국의 이익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소련군은 2년, 5년 혹은 10년, 혹은 20년까지도 머무를 수 있다며 자신은 중국을 지킬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¹⁰⁷⁾

모택동은 이러한 스탈린의 대답을 들으며 자신이 알타협정에 관련된 미국과 영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소 협상의 과정을 통해 스탈린과 모택동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스탈린은 영, 미와의 대동맹시절 체결시킨 알타협정을 엄두에 두며 모택동과의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고, 이 협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택동은 그러한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소련과의 관계만 생각하여 협상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모택동에게 중요했던 것은 제 2이미지인 소련과의 이념적 공통점과 반제국주의적 투쟁,

106) *CWIHP Bulletin* Issues. 6-7 (Winter 1995/1996), p. 5.

107) *CWIHP Bulletin* Issues. 6-7 (Winter 1995/1996), p. 5.

그리고 자국의 경제복구, 안보보장이었고, 스탈린에게 우선 순위는 제 3이
미지인 미국과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론적 주안점은 정권안정이 안된 국가의 경
우, 제 3이미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
에 제 3이미지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중소 협상에서도 중요
한 요인은 제 3이미지였다. 모택동은 스탈린의 설명을 듣고서야 현시점에서
구조약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여순항에서도 소련군대의 철수를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모택동은 알타회담의 합의를 준수하고 스탈린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4. 알타협정의 파기: 스탈린의 이념 강조

그렇지만 다음해인 1950년 1월 2일 스탈린은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였고
중소동맹에 대한 논의도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몰로토프와 미코얀
을 모택동에게 보내 ‘신 중소조약’을 맺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
라 주은래가 적어도 1월 20일까지는 모스크바로 오기로 결정되었다.¹⁰⁸⁾ 모
택동은 ‘신 중소조약’을 통해 양국은 더욱 견고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중국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 좌익 민족자
본가들은 고양되는 반면, 우익 민족 자본가들은 고립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
다. 또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적 국가와 투쟁할 정치적 자산을 획득할 것이
고 중국과 과거 제국주의자들과의 조약을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
다.¹⁰⁹⁾

108) “Telegram, Mao Zedong to CCP CC, 2 January 1950,” *Source: JGYLMZDWG, 1:197; Translation from Shuguang Zhang and Jian Chen, eds.,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and the Cold War in Asia, 131-2. In CWIHP Bulletin Issues. 8-9 (Winter 1996/1997), pp. 228-229.* 또한 이 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Goncharov, *et al.* (1993), pp. 76-109도 참조할 것.

109) *CWIHP Bulletin Issues.8-9 (Winter 1996/1997), pp. 228-229.*

이러한 모택동의 대답은 그가 소련 도착 직후에 보인 태도에서 조금 변화되었음을 나타내준다. 그는 소련 도착 직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전문을 통해 “비록 소련과의 무역을 중요시하지만 폴란드나 체코, 독일,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었다.¹¹⁰⁾ 소련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있는 전문이었다. 그러나 그 후 스탈린이 동맹을 맺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모택동 역시 더욱 소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결국 이 방문에서 모택동은 군사, 산업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3억 불의 차관을 소련으로부터 받게 된다.¹¹¹⁾

1월 20일 주은래의 모스크바 도착이 있는 후, 22일 스탈린과 모택동은 다시 협상을 했다.¹¹²⁾ 이 협상에서 결정된 것은 중국과 소련이 일본이라는 공통의 적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일본에 의한 공격이 다시 재연되지 않고 미국을 포함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련과 중국 사이에는 일본과 미국 및 서방세계라는 공통의 위협인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모택동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상의 협력을 말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협력임을 말했다.¹¹³⁾ 이 회담에서 양 지도자 사이에는 제 2 이미지인 경제적인 협력과 이념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상정한 서구와 일본이라는 외부세력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택동은 12월에 있었던 스탈린의 ‘알타협정 준수 의사’를 거론하며 이러한 협상변경이 알타회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 물음에 대한 스

110) 이 전문은 “Telegram, Mao Zedong to CCP CC, 22 December 1949,” *Source: JGYLMZDWG, 1:197; Translation from Shuguang Zhang and Jian Chen, eds.,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and the Cold War in Asia, 129. In CWIHP Bulletin Issues. 8-9 (Winter 1996/1997), p. 227*을 참조할 것.

111) 당시 중국이 소련과 맺은 차관협정문서는 Goncharov, *et al.* (1993), pp. 263-264를 참조할 것.

112) 이 협상 전문은 “Conversation Between Stalin and Mao, Moscow, 22 January 1950,” *Source: APRF, f. 45, op. 1, d. 329, ll. 29-38; Translation by Danny Rozas. In CWIHP Bulletin Issues. 6-7 (Winter 1995/1996), pp. 7-9*에 실려있다.

113) *CWIHP Bulletin Issues. 6-7 (Winter 1995/1996), p. 8.*

탈린의 대답은 미소 합의의 상징인 알타협정의 파기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관심 없소! 일단 우리가 이 조약이 바뀌어
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이 방식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미국과 대항하여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 조율했습니다.¹¹⁴⁾(강조는 필자)

이 답변은 스탈린의 알타협정 준수 의사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록 마셜플랜으로 유럽에서의 냉전은 결정적 분기점을 맞이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에 의해 여전히 준수되었던 알타협정이 이제는 완전히 파기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또한 스탈린은 이제 중국과 소련의 공통의 적이 미국임을 말하고 있다. 스탈린은 제 2이미지인 중국과의 이념적 동질성을 강조하였고, 유럽에서의 냉전구도가 동북아에서도 확연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동북아 냉전의 근원은 스탈린이 알타협정을 파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새로운 조약에 미친 스탈린의 영향

이렇게 알타협상을 파기하기로 한 스탈린은 구체적으로 구 중소동맹의 조약들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우선 만주철도와 여순항에 대해서는 이 곳의 관할권을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즉시, 혹은 적어도 1952년까지는 중국에게 반환하고 소련군도 그 때까지는 철수하기로 했다.¹¹⁵⁾ 다롄항의 경우

114) *CWIHP Bulletin* Issues. 6-7 (Winter 1995/1996), p. 8. 강조한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rue, it does—and to hell with it!.....”

115) “Ageement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Chinese Changchun Railroad, Port Arthur, and Dairen, Feb. 14, 1950,” 이 협정문서는 Goncharov, *et al.* (1993), pp. 261-263에 재수록 되어 있다. 원 문서의 출처는 Sino-Soviet Treaty

일본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관할권은 즉시 중국 측에 넘기기로 했다.¹¹⁶⁾ 이것은 구 조약에서 설정되었던 30년 조차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협상은 스탈린의 의도대로 결정되었다. 1952년까지의 만주 철도 사용권은 포기되어야 했지만 2월 14일 체결된 다른 의정서에서는 사실상 구 중소동맹의 철도 조항을 다시 승인했던 것이다.¹¹⁷⁾ 이것은 소련이 중국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도 물자와 군사 장비를 철도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중국과 동일한 사용료로 병력과 물자를 북동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허용했다. 또한 여순으로 가는 군수물자의 관세는 면제받았고 중국 세관의 검사도 받지 않게 되어 있었다. 중국 역시 소련철도에 대해 같은 내용의 권한을 요구했지만 소련은 거부했다.¹¹⁸⁾

중소동맹의 체결에 관한 과정은 동맹체결에 있어 스탈린의 주도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앞서 보았듯이 중소동맹 추가협정의 비밀 조항은 소련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만주와 신장지역에 제 3국의 국민에게 무역 등의 활동을 제한한 내용은 중국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었다. 유소기가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때문에 당시에 이 협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말했던 것과, 이 문건이 문화혁명기간에도 비밀로 다루어졌던 것은 이 협정이 중국에게 얼마나 굴욕적이었던 것인지를 말해준다.¹¹⁹⁾

이 동맹의 체결에 대해 모택동은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먼저 이 협정은 중국의 내부건설을 완성시키는 데 이점을 준다는 것이었다.

and Agreement(Beijing, 1950), pp. 1-3.

116) Goncharov, *et al.* (1993), p. 262.

117) Goncharov, *et al.* (1993), p. 126.

118) Goncharov, *et al.* (1993), pp. 126-127.

119) Goncharov, *et al.* (1993), p. 122.

또 제국주의적 공격에 공통으로 저항할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위한 투쟁에도 이점이 있다는 것이었다.¹²⁰⁾ 이 연설을 통해 모택동은 조약의 체결이 중국과 소련의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투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제국주의적 투쟁을 위해서라면, 다소 불평등한 조약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당시 중국의 상황이 소련의 도움 없이는 단독투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은 비록 미국이 당시에는 중국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는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련과의 동맹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고 했다.¹²¹⁾ 마지막으로 당시 중국의 경제복원이 매우 시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동맹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모택동의 이념적 부분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모택동은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국주의적 투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2이미지인 그의 이념을 강조한 냉전기 설명은 여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소동맹의 체결과정을 보면 무엇보다도 스탈린의 역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1949년 12월 16일만 해도 스탈린은 얄타 협정의 준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1월 22일 그 협정이 파기되었음을 모택동에게 말하고 신 중소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후, 결국 2월 14일 중소동맹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지 이념적 목적으로만 성립된 동맹이 아니라는 것은 모택동이 ‘내정간섭’이라고까지 생각했음에도, 그가 신장과 만주지역에서 소련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나타난다. 탈냉전기의 자료를 통

120) “Mao Speech at the 6th Session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Council (April 11, 1950),” in Goncharov, *et al.* (1993), pp. 269-270.

121) 데이빗 쉰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中國의 6·25 戰爭 參戰』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pp. 104-105.

해 모택동이 내전에 승리함으로써 인해 스탈린과의 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고, 그 후 신 조약체결까지 성공하였지만 그 체결 배경에는 스탈린의 영향력이 훨씬 컸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6. 중소동맹의 체결이 동북아 냉전에 미친 영향

이렇게 스탈린의 결정적 역할로 맺어진 중소동맹체결과정을 보며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바로 6·25전쟁 수락이 이 시점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1950년 1월 19일 스티코프 대사는 계속되어온 김일성의 남침요구에 대한 전문을 본국에 보낸 바 있었다. 그런데 22일 스탈린은 구 조약을 파기하고 공산중국과 신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30일 김일성의 전쟁요구에 대해 논의할 의사를 북한에 전달한 것을 보면, 이 시점 스탈린은 중소동맹 체결을 추진하며 김일성의 남침의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 전(前)시기까지 스탈린은 미국의 개입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으며,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9년 8월 핵 보유에 따른 자신감과 공산중국과의 신 조약 체결은 스탈린이 이 시점 냉전대결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의 내용 중 ‘제 3이미지로 본 6·25전쟁의 기원’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스탈린은 6·25전쟁을 통해 남한을 적화시켜 미국의 위신을 꺾고자 했다.¹²²⁾ 또한 미국이 개입했을 경우 중소 방위조약을 통해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을 유도하고 만일 미국이 전쟁을 만주로 확산시킬 경우,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이곳에서 자신들도 전쟁에 참여하여 미국과의 냉전대결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¹²³⁾

122) “Stalin to Kim Il Sung, 8[7], 1950,” 이 전문은 *CWIHP Bulletin Issues*. 6-7 (Winter 1995/1996), pp. 116-117에 게재되어 있다.

123)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서울: 두레, 1998), pp. 20-21.

결국 이러한 과정을 보면 동북아 냉전은 알타협정의 준수를 두고 벌어진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뿌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갈등의 시작은 알타의 파기 후 맺어진 중소동맹이다. 이 조약에서 양국이 잠재적인 적국으로 일본을 명시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도 명백한 양극 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¹²⁴⁾ 또한 그 시점에 결정된 6·25전쟁은 동북아에서의 냉전을 열전으로 만들게 되었다.¹²⁵⁾

제 3 절 제 3이미지로 본 동북아 냉전의 기원: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이제까지 제 1, 제 2이미지를 통해 동북아 냉전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두 이미지로 본 논의를 통해 지도자들과 이념이 어떻게 동북아 냉전의 시작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제 3이미지인 체제를 통한 고찰이 있어야 동북아 냉전의 기원을 좀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론적 틀에서 보았듯이 제 3이미지의 기본 전제는 국제정치 질서가 무정부상태에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무정부상태에서는 권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유럽에서의 냉전이 무정부상태에서 미소 양국의 협력이 사실상 힘들어졌을 때 발생했듯이, 동북아 냉전 역시 무정부상태에서 존재한 양국의 대립 속에서 태동하였다. 그렇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소련과 미국은 어떻게 대립했는가? 소련의 동북아 정책은 앞에서 살폈으므로, 이번 절에서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중심으로 동북아 냉전의 기원을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124) 일본을 적국으로 명시한 중소동맹조약의 전문은 Goncharov, *et al.* (1993), pp. 260-261에 수록되어 있다.

125) 김영호 (2008), p. 23.

1. 미국의 중국 상실론: 제 3이미지에 의한 설명

동북아 냉전의 기원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주장은 미국의 ‘중국 상실론’이다. ‘중국 상실론’의 핵심의제는 중국의 민족주의가 소련의 안보라는 국가이익을 추구한 스탈린의 욕망과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유화정책을 추구하였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여서, 결국 중국이 소련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¹²⁶⁾ 즉, 중소동맹의 기원을 미국의 극동전략에서 찾는 것인데 이 논지에 따르면 동북아에서 냉전의 발생은 미국의 정책 때문이다.

1) 미국의 국민당 지지 정책

앞서 언급한 루즈벨트의 ‘4대 경찰국가론’에서 볼 수 있었듯이, 미국은 전후 세계를 이끌 나라에 소련, 영국과 함께 중국을 포함시켰다. 특히 루즈벨트 행정부는 장개석의 국민당을 지지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루즈벨트가 중국에 파견한 특사 헐리(Hurley)의 모택동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까닭도 있었다. 그가 보낸 중국의 정보는 왜곡될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¹²⁷⁾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모택동이 장개석보다 더 장래성이 있다고 해도, 또 설사 장개석 정부가 부패했다고 해도 중국에 공산정권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은 미국이 원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¹²⁸⁾ 상기하였듯 미국은 당시 4억 인구인 중국을 경제적으로

126) Michael Sheng, “The Triumph of Internationalism: CCP–Moscow Relations before 1949,” *Diplomatic History* 21-1 (Winter 1997), p. 95; Warren I. Cohen, “Introduction: Was There a ‘Lost Chance’ in China?,” *Diplomatic History* 21-1 (Winter 1997), p. 73; Nancy Bernkopf Tucker, *Patterns in the Dust : Chinese–American Relations and the Recognition Controvers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Chapter. 2,3. 이들은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의회 내의 반공산주의 여론과 중국의 반서방적 행동에서 찾는다.

127) John Gittings, *The World and China, 1922–1972* (New York: Harper & Row, 1974), pp. 108–113.

도 매우 매력적인 곳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미국은 겉으로는 ‘내전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개석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¹²⁹⁾ 이론적으로 평가해보면 당시의 미국은 제 2이미지인 이념적 요인,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목적이라는 요인으로 장개석의 중국을 지지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장개석 정부 지지는 트루먼 정부 때에도 계속되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루즈벨트 사후 대통령이 된 트루먼은 국공합작의 완결을 위해 마셜을 중국 특사로 파견하였다.¹³⁰⁾ 마셜은 1945년 12월 21일 중국에 도착한 후 국공합작 종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한다. 1946년 1월 7일에 마셜, 국민당의 장쑤(張群), 공산당의 주은래(周恩來)를 대표로하는 ‘국공합작을 위한 3인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월 10일에는 휴전협정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이 휴전 협정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통일된 강력한 중국을 원하지 않았던 소련은 중국에 대한 이중정책을 구사하였다. 협정은 국민당과 체결하고 중공에 대한 간접적이고 묵시적인 원조도 함께 행하였던 것이다. 원래 국공협정에 의하면 국민당군이 만주의 항복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만주를 점령한 소련은 철수를 지연시키는 작전을 쓰며 만주를 공산당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다.¹³¹⁾

또한 소련은 일본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나 의약품, 기계나 직물까지 공산당에게 제공하였다.¹³²⁾ 결국 4월 29일까지 만주에 머물렀던 소련으로 인해

128) Gittings (1974), p. 113.

129) 불간섭이라는 명분하에 실질적으로 장개석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미국의 중국정책은 Gittings (1974), p. 116-138을 참조할 것.

130) 마셜장군은 1945년 11월 27일부터 1947년 1월 6일까지 국공합작 특사를 역임한다.

131) 이완범, “한국전쟁의 국제적 기원: 세계적 냉전의 동북아 침투,” 한국전쟁연구회(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p. 135.

132) Odd Arne Westad, “Losses, Chances, and Myths: The United States and the Creation of the Sino-Soviet Alliance, 1945-1950,” *Diplomatic History* 21-1 (Winter 1997), p. 110; Nikita Sergeevich Khrushchev, Edward Crankshaw, and Strobe Talbott, *Khrushchev Remembers* (Boston, MA: Little, Brown, 1970), p. 238.

만주의 90%는 공산당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이는 장개석의 휴전파기와 내전의 가속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6월 26일 다시 시작된 내전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국공합작시도가 실패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단지 소련의 이중전략 때문에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국민당군의 부패도 그 실패에 한 몫을 하였다. 1947년 7월말 1월에 새로 취임한 마셜국무장관의 지시로 중국내전 상황을 살펴본 웨드마이어 육군중장은 장개석에 호의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조차 국민당군의 부패에 대해 비판하며, 이러한 국민당군은 공산당을 패퇴시킬 수 없으며, 이를 잘 아는 공산당도 국공합작에 관심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미국의 국익과 어긋났기 때문이다. 비록 부패한 국민당정권이었지만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게 내버려둘 수 없었기에 미국은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었다.¹³³⁾ 이 시기만 해도 미국은 제 2이미지인 국민당과의 이념적 동질성을 우선시 했다.

2) 제 3이미지 요인으로 인한 미국의 중국정책 변화

1947년 유럽에서의 냉전은 더욱 심화되었다. 같은 해 7월 미국은 마셜플랜을 시작했고, 소련은 9월 코민포름을 창설해 이제 세계는 즈다노프의 연설대로 '양진영'으로 갈린 것이었다. 마셜플랜으로 막대한 자금이 서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원조에 큰 힘을 쏟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미국은 1948년 11월 9일, 장개석의 원조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공산중국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단지 재정적인 이유만으로 미국이 장개석의 원조요청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2차대전 후 의회와 국민의 요구로 인한 병력감축을 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은 전략적 우

133) Norman A. Graebner, "Wedemeyer Mission," in James Irving Matra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1)*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2002), p. 674.

선지역인 유럽에서 소련병력보다 수적인 열세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도 미국이 장개석의 지원을 거부하는 요인이 되었다.¹³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미국의 동북아 정책 전환에서 찾을 수 있다.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동학’ 논의에서 보았듯이 이미 미국은 1947년에 봉쇄정책을 고안하여 실행하기 시작했고, 11월 ‘5개 중심국가론’을 주창하였는데 거기에 중국은 제외되어 있었다. 비록 봉쇄정책이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앞의 분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장가능성이 없는 중국은 미국에게 우선적인 국가이익의 지점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같이 미국은 병력을 투입할 여력도 없었던 것이다.

상기하였듯, 그의 일환으로 미국은 1947년 9월 동북아의 한반도에서 명예롭게 나올 방안을 구상하였고, 1949년 6월 말에는 주한미군 철수도 완료하였다. 특히 트루먼 행정부가 장개석의 원조를 거부했던 시점은 소련이 독일의 서베를린에 이르는 모든 육·해상 교통로의 전면봉쇄를 시작하며 유럽에서의 냉전이 매우 격화 되고 있던 시점이었다.¹³⁵⁾

따라서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동학’ 논의에서 본 것처럼, 미국은 1948년 2월에 이미, 일본에 대한 기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미래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더욱 유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이 장개석에 대한 원조를 거절하기 한 달 전에 미국의 정책보고서는 일본의 경제부흥을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전, 그리고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된다.¹³⁶⁾ 동북아에서의 중심거점을 사실상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꾼 것이다.¹³⁷⁾

134) 김동길, “1945년-1950년 중·미 관계와 “중국상실론” 비판,” 『동양사학회』 제111권 (2010), p. 284.

135) 소련이 베를린으로 가는 모든 경로를 차단한 시점은 1948년 6월 24일이다.

136) NSC 13/2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United States Policy Toward Japan (7 October 1948),” *FRUS: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1948*, 6, pp. 858-862, 특히 p. 861.

137) 이러한 일본 중심의 정책전환을 주장한 케난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당시의 국내정책 논쟁에 의해 표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George Frost Kennan, *Memoirs (1950-1963)*

이에 따라 미국은 이 시기 공산중국의 승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그들의 전략을 바꾸었다. 장개석의 중국으로 통일이 안 된다면 최소한 중국이 소련의 속국으로 전략하는 것을 막는 전략으로 바꾼 것이다.¹³⁸⁾ 이론적으로 평가해보면 당시 미국은 제 2이미지인 이념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대 중국정책을 펼쳤지만, 냉전의 심화로 굳어진 양극체제하에서 미소의 대립이라는 제 3이미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내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은 장개석의 중국을 돕는 것보다 소련과 중국의 단합을 막아야 한다는 시급성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3) 미국의 썰기전략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소련의 속국으로 전략하여 소련의 세력이 팽창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미국은 이른바 ‘썰기전략’을 구사하게 된 것이다.¹³⁹⁾ 모택동의 중국이 반소성향을 갖게 만들어 소련과 중국 사이를 갈라놓는 전략이었다.¹⁴⁰⁾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였다. 한 가지는 중국과 경제관계를 정상화시켜 공산중국이 소련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구의 정치, 경제적 역량을 동원(예를 들면 중국을 일본이나 서방세계와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중국공산당의 붕괴

(Boston: Atlantic Monthly Press, 1972), pp. 52-53. 또한 당시 케난의 주장과 그가 처한 딜레마에 대해서는 김영호 (1998), pp. 241-269를 참조할 것.

138) “To Review and Define United States Pollicy Toward China (7 September 1948),” PPS/39 in Anna Kasten Nelson, *The State Department Policy Planning Staff Papers 1947-1949 (Vol. 2)*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86), pp. 412-433, 특히 p. 431; *FRUS: Far East : China* 1948, 8, pp. 146-155.

139) 트루먼 행정부의 썰기전략에 관해서는 Richard C. Thornton, *Odd Man Out : Truman, Stalin, Mao,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Brassey's, 2001), pp. 9-23을 참조할 것.

140) 미국이 이 전략을 쓰게 된 데에는 1948년 6월 29일 유고슬라비아가 코민포름에서 탈퇴하여 독자노선을 걸으려 할 때, 그들의 반 소련 정책을 지원했던 경험도 영향을 주었다.

를 꺾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련의 위성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었다.¹⁴¹⁾

이러한 조치로 미국은 1948년 가을부터 미국 군사고문단이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에 했던 지원을 중단했고, 같은 해 ‘중국 원조 법’에 따라 지원된 금액 중 미집행 부분에 대해 기한이 다한 후 자동 폐기하는 조치를 취했다.¹⁴²⁾ 또한 트루먼 대통령은 송미령을 단장으로 하여 워싱턴으로 파견된 사절단을 통해 1948년 12월 1일 향후 3년동안 30억달러의 원조와 고위장교로 구성된 군사고문단의 중국파견요구를 다음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거절하였다.¹⁴³⁾

또한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썬기전략의 일환으로 1950년 1월 30일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아시아의 위기’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당 정부가 감당치 못할 군사세력에 의해 무너졌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그는(장개석) 중국역사를 통해 그 어느 지도자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을 받았습니다. 모든 외국정부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장개석이 중국을 통치했지만 4년 후에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그 원인을(장개석이 몰락한 원인)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데에 돌리는 것은 진정한 이유를 오판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¹⁴⁴⁾

141) NSC-41 “Note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Souers), on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Trade With China(28 February 1949),” *FRUS: The Far East: China 1949*, 9, pp. 826-834, 특히 p. 828.

142) 김동길 (2010), p. 287.

143) Tang Tsou, *America's Failure in China, 1941-1950 (Vol. 2)*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p. 491-492.

144) 애치슨 국무장관의 연설문은 미 국무부 회보(Bulletin)에 실려있다. Th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XXII, No. 551(January 23, 1950), pp. 111-118. 이 자료는 김종환, “애치슨의 태평양 방위선과 한국전쟁,”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부록에 재수록 되어있다. pp. 207-219. 인용한 부분은 p. 203.

이러한 그의 연설은 명백히 미국의 지원 부족을 탓하는 이들에 대한 반론이었다. 충분한 지원이 있었음에도 결국 장개석의 몰락은 그가 스스로 초래했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여기에서 애치슨은 소련을 비난하며 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태도를 보였다. 바로 만주와 신장, 그리고 외몽고와 내몽고에서 소련은 영토적 팽창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¹⁴⁵⁾ 이것이 바로 소련과 중국 사이를 갈라놓는 의도를 가진 썬기전략의 일부였다. 이와 같은 썬기전략은 이론적으로 평가해보면 미국이 모택동의 민족주의적 성향이라는 제 1이미지를 이용하여 제 2이미지인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고 제 3이미지인 무정부 상태에서의 미소 양극체제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택동의 민족주의 성향을 역이용하여 중국이 독자노선을 걷게 하려던 미국의 썬기전략은 1949년 6월 모택동의 ‘대소일변도 정책’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중국은 공산화되었다. 썬기전략을 성공시키려면 ‘공산중국을 위한 원조’같은 방안도 구사해야 하는데 공화당의 일부 상하원 의원, 그리고 친대만 세력들의 반대로 그러한 방안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¹⁴⁶⁾ 결국 이러한 요인들로 체결된 중소동맹은 냉전기 ‘중국 상실론’의 배경이 되었고, 동북아 냉전의 근원으로 설명되었다.

2. 샌프란시스코 체제: 동북아 냉전의 기원

다음으로 볼 ‘제 3이미지를 통한 동북아 냉전의 기원 설명’은 1951년 미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형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동북아 냉전의 기원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즉, 중소우호 상호원조 조약으로 형성된 중소체제와 군사동맹인 미·일 안보 조약의 체결로 만들어진 미일체제의

145) 그 부분은 김종환 (2007), p. 206.

146) 김영호 (1998), p. 264.

대립을 동북아 냉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다.¹⁴⁷⁾ 먼저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자.

1) 미국의 초기 일본 점령정책

트루먼의 핵무기 투하 후인 1945년 8월 14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였다.¹⁴⁸⁾ 일본 동경에는 맥아더 원수 하의 연합국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일본점령을 두고 미국과 소련은 대립양상을 보인다. 194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 사이 전승국들의 첫 외상회의에서 일본을 단독통치하려던 미국과 일본에 연합국 관리기관의 설치를 요구했던 소련과의 충돌이 있었던 것이다.¹⁴⁹⁾ 그 후 12월에 열린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 소련의 의견이 반영되어 미국정부의 초기 일본 점령 기구인 극동자문위원회(Far Eastern Advisory Commission)는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로 대체되었으나, 사실상 일본점령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다.¹⁵⁰⁾ 미국이 대일 전에 있어 연합국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은 것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그들 방식으로 대일 점령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동학’ 논의에서 보았듯이, 전후초기 미국의 일본정책은 일본이 다시 미국의 안보나 평화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비군사화시키고 민주화시키는 목적으로 행해졌다. 이 목적에 맞게 미국은 1945년부터 1947년까지 약 2년 동안 일본의 전 분야(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개혁

147) 이기택, 『국제정치사』 (서울: 일신사, 2000), p. 457.

148) 일본은 다음날인 8월 15일 포츠담 선언 수락결정을 공포하였다.

149) Russell D. Buhite, *Soviet-American Relations in Asia, 1945-1954*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81), p. 110.

150) 이기택 (2000), p. 459. 극동위원회의 본부는 워싱턴이었고, 동경에는 대일 연합국위원회(Allied Council for Japan)가 설치된다. 이기택 (2000), p. 459; Iriye (1974), pp. 47, 182, 188.

을 실시하게 된다.¹⁵¹⁾

상기했듯이 미국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군의 무장해제, 군국주의적 단체의 해체, 전범용의자를 처벌했으며, 1946년 11월에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을 제정했다.¹⁵²⁾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의 힘이 일본정부가 군국주의적 팽창을 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하여 1947년에는 ‘경제력 집중 배제법’ 그리고 ‘재벌 지배력 배제법’도 제정한다.¹⁵³⁾ 이론적으로 보면 전후 미국은 제 3이미지인 체제적 특성을 일본에 투여하는 정책을 구사했던 것이다.

2) 냉전의 아시아로의 확대: 제 3이미지 영향력 증가

이렇게 비군사화, 민주화를 중심으로 일본을 개혁하려던 미국의 시도는 세계적인 냉전의 심화로 변경되게 된다. ‘냉전의 기원’ 논의에서 보았듯이 1947년 6월의 마셜플랜으로 유럽의 냉전은 뚜렷하게 분기점에 들어갔고, 이의 여파로 동북아의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의 합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또 이 시기의 중국은 국공합작에 실패하고 내전에서도 국민당의 승리가 매우 힘들게 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상기한대로 1947년 말부터 1948년 초를 기점으로 미국은 일본에 대한 역코스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제 일본은 미국의 반공 보루가 된 것이었다. 이러한 역코스 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일본의 경제부흥이었다. 미국

151) 차상철 (2002), p. 136.

152) 본 논문 3장 4절 참조.

153) Michael Schaller,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p. 31, 39. 또한 미국은 1947년 10월 농지개혁법도 제정하였다. 그 내용은 소작제의 폐지, 부채지주의 일소, 농지의 소유한도를 정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이러한 법을 제정한 이유는 농촌의 만성적 빈곤이 일본의 군국주의적 극우사상을 심화시킨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Schaller (1985), pp. 41-45.

은 일본의 경제적 부흥이 전체주의의 등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48년 2월 공개된 클리포드-스트라이크(Clifford-Strike), 드레이퍼의 보고서들은 이러한 미국의 목표를 잘 말해준다.¹⁵⁴⁾ 첫째, 일본의 전쟁배상금을 축소해야 하고 경제력 분산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의 경제 재건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⁵⁵⁾ 냉전의 심화라는 제 3이미지 요인이 미국에게 안보위협을 주었고 미국의 일본정책 변환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변환된 미국의 정책으로 일본의 경제재건은 속도를 내게 되었다. 또,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은 그동안 소련의 반대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대일협상을 급속히 진전되게 하였다. 그해 9월 미국은 대일강화 초안을 일본과 관계국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1951년 9월 4일에서 9월 8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들 중 49개국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대표 요시다 시게루는 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을 체결하게 된다.¹⁵⁶⁾

이렇게 미국은 일본과 미일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었는데, 같은 해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상호방위조약도 발효되었다. 또 1953년에는 한미동맹이 체결되었고, 다음해에는 동남아 집단안보 조약(Southeast Asia Collective Defense Treaty)이 발표되어 동남아 조약기구(SEATO)가 출범된다.

6·25전쟁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체결된 위와 같은 동맹조약은 봉쇄선을 중

154) 차상철 (2002), p. 138.

155) "Overseas Consultants, Inc., Report on Industrial Reparations Survey of Japa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ew York, 1948)," pp. 223-224. In Schaller (1985), pp. 119-120에서 채인용; Warren I. Cohen(ed.), *New frontiers in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Essays Presented to Dorothy Borg*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p. 202.

156) 김명섭,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의 변동과 6자회담," 『국방연구』 제50권 (2)호 (2007), p. 59. 이 조약의 발효일은 1952년 4월 28일이다. 또한 그 전인 9월 1일 미국은 일본위협의 부활을 우려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안보조약(ANZUS: The 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1952년 4월 29일 발효되었다. 김명섭 (2007), p. 64.

심으로 자유세력과 공산세력이 분명하게 구분된 유럽이 나토(NATO)라는 다자주의적 동맹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⁷⁾ 동북아 지역은 일본 제국주의적 유산이 아직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하는 다자주의적 동맹 대신 이렇게 쌍무적 동맹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이다.¹⁵⁸⁾ 그러나 1951년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기점으로 시작된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과 일본, 미국과 남한의 동맹관계 형성은 자유진영 세력의 남북 삼각관계를 더욱 공고화하였다. 또 이와 맞서는 공산진영 세력으로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은 북방 삼각관계를 형성하며 동북아 냉전체제의 출발점으로 설명된 것이다.

3. 중국 상실론 비판

탈냉전기 새로운 문서, 자료를 통해 냉전기의 중국 상실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미국의 시도는 적절했는가? 중국 상실론의 가장 큰 오류는 미중 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나치게 미국에게만 전가한다는 것이다.¹⁵⁹⁾ 앞에서 보았듯이 탈냉전기 자료는 중소동맹의 체결에는 미중관계보다 중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더욱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 중소동맹 체결과정에 미친 중국과 소련의 적극적 역할

중소동맹 체결과정에서 보았듯이 모택동은 동맹 체결과정에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었다. 조약이 체결된 후 귀국길에서 모택동은 측근들에게 환영연에 소규모 인사만 참여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가능한 많은 사람들

157) 김영호, “6·25전쟁의 국내 및 국제정치적 영향에 관한 연구,” 『군사』 (79)호 (2011), p. 168.

158) 김영호 (2011), p. 168.

159) Thomas J. Christensen, “A “Lost Chance” for What? Rethinking the Origins of U.S.-PRC Confrontation,”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4-3 (Fall 1995), p. 276.

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도 했을 뿐더러 조약에 대한 찬성투표에서 정작 자신은 손을 들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들은 이 동맹이 결코 모택동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¹⁶⁰⁾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모택동은 중화민족에 대한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택동의 통역은 모택동이 귀국길에 시베리아의 울란우데(Ulan Ude)에 들려주기를 바라는 요청을 거절한 이유를 모택동이 이 지역을 예전부터 중국의 영토라고 생각했던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¹⁶¹⁾ 이렇게 비록 조금은 유치한(petty) 방법으로 모택동은 조약에 대한 항의와 자신의 독립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¹⁶²⁾

그렇지만 국가건설이 안된 상태에서 모택동의 민족주의는 그에게 언제까지나 2차적인 고려대상 이었다. 중소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애치슨의 내셔널 프레스 연설에 대해 중국과 소련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 1950년 1월 17일 모택동은 몰로토프, 그리고 소련의 외교부장이었던 비신스키와 같이 애치슨의 연설을 분석하였는데 그는 애치슨 선언의 실제적 목적은 제국주의자들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하였다.¹⁶³⁾

또한 소련도 애치슨의 연설을 소련과 중국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시도로 바라보았다. 이에 따라 중국과 소련은 21일 이러한 애치슨의 연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다.¹⁶⁴⁾ 미국은 모택동의 민족주의라는 제 1이미지를 이용하려 했지만 중소동맹은 일본과 서구라는 공통의 위협인식과 모택동의 공산

160) Goncharov, *et al.* (1993), pp. 127-128.

161) Goncharov, *et al.* (1993), p. 128.

162) Goncharov, *et al.* (1993), p. 128.

163) "Conversation, V.M. Molotov and A.Y Vyshinsky with Mao Zedong, Moscow, 17 January 1950," AVP RF, f. 07, op. 23a, d. 234, pap. 18, ll. 1-7.
http://legacy.wilsoncenter.org/va2/index.cfm?topic_id=1409&fuseaction=home.document&identifier=5034F942-96B6-175C-97759F965ECA2935&sort=collection&item=Sino-Soviet%20Relations&print=true(검색일: 2013년 1월 16일)

164) Goncharov, *et al.* (1993), p. 103.

주의 이념, 그리고 스탈린의 현실적 계산 하에 체결된 것이었다. 미국의 썬기전략이 실패해서 중소동맹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중국과 소련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이다.

2) 미국과 중국의 인식차이

중국 상실론에서 나온 ‘미국은 공산중국의 화해시도를 이념적 이유로 거부하였다’는 주장도 재평가 할 수 있다. 미중 양국의 이념적 차이가 가져온 결과는 탈냉전기에도 재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냉전기의 설명과 다른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념차이 때문에 중소동맹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이념차이가 그들의 상호 이해를 방해하여 오해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새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모택동은 미국의 의도에 대해 오판하고 있었다. 공산당의 승리를 목적에 둔 시점, 그들은 미국이 중국내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모택동은 소련에게 미국이 일본 및 국민당과 군사동맹을 형성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소련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¹⁶⁵⁾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당시 미국은 장개석을 도와 모택동을 몰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미 당시의 미국은 중국 중심정책을 버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전략과 중소사이의 썬기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공산당의 승리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나온 전략이었다. 그러나 모택동은 중국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전통적인 중화사상(中華思想)이 그것인데 모택동 역시 그러한 사고로 미국의 행동을 생각했던 것이다.¹⁶⁶⁾ 이러한 사고의 모택동은 미국이 장개석을 포기한다고

165) “I.V. Kovalev Interview with S.N. Goncharov,” in Gaddis (1997), p. 64에서 재인용. 또한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 15도 참조할 것.

생각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고 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¹⁶⁷⁾

또한 개디스의 지적처럼 모택동은 미국의 정부 작동방식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¹⁶⁸⁾ 그는 중국 권위주의 전통에 여과된 마르크스적인 민주집중제를 미국적 환경에 그대로 투영하였다. 그는 미국 언론에 의해 발표된 사설이나 우익 정치인사들의 견해를 마치 미국정부, 특히 트루먼의 공식적 견해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서로의 전략에 대한 인식 차이는 결국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방해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론적으로 평가해보면 당시 미국은 제 3이미지인 미소냉전대결의 상황에서 중국을 바라보았는데 중국은 제 2이미지인 이념(중화사상)과 자신의 정치체제 방식으로 미국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더불어 모택동과 중국의 지도부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하고 있었다. 이미 1949년 2월 모택동은 아나스타스 미코얀(Anastas Mikoyan)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른바 ‘청소론’을 주장하였다.¹⁶⁹⁾ 중국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정할 때 중요한 것은 집안에 대한 청소라는 것이다. 그 이후에 손님에 대한 초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모택동의 글은 그가 우선적으로 내전의 잔여세력을 몰아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해준다.¹⁷⁰⁾ 그러나 당시 중국은 미국이 혁명을 방해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중국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는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¹⁷¹⁾

166) 중국적 세계질서와 서구적 근대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이홍중, “동,서양 국제정치관의 비교: 중국적 국제정치와 서구적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7권 (1)호 (2003), p. 177을 참조할 것.

167) Gaddis (1997), p. 64.

168) Gaddis (1997), p. 64.

169) “Mao Zedong to Anastas Mikoyan, Xibaipo, February 1949,” in Gaddis (1997), p. 54에서 재인용. 원 자료는 Shi Zhe, “With Mao and Stalin: The Reminiscences of a Chinese Interpreter,” Trans. Chen Jian, *Chinese Historians* 5 (Spring 1992), p. 40.

170) 김동길 (2010), p. 304.

171) Michael M. Sheng, “Chinese Communist Policy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the Myth of the ‘Lost Chance’ 1948–1950,” *Modern Asian Studies* 28–3 (1994), pp. 475–502. 특히 pp.

이렇게 냉전기의 ‘중국 상실론’을 탈냉전기 문서로 재평가 했을 때, 이 주장에는 많은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상실론’은 제 3이미지인 미국의 냉전전략으로만 중소동맹을 찾으려 한 오류를 범했다. 탈냉전기 문서를 통해 중소동맹은 제 3이미지인 소련의 냉전전략과 제 2이미지인 중국과 소련의 이념적 동질성으로 맺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샌프란시스코 체제 재평가

탈냉전기 들어서도 1951년 9월 미국이 소련을 배제한 채 일본과 단독조약을 맺은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동북아 냉전의 기원이 되었다는 주장은 여전히 존재한다.¹⁷²⁾ 기미하라(Kimie Hara)는 유럽에서의 냉전은 알타체제에서 시작되었고, 동북아에서의 냉전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로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¹⁷³⁾ 1951년 일본과의 조약이 맺어진 후 알타협정이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의미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맺은 동맹, 그리고 조약들을 통해 태평양의 안보에 개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¹⁷⁴⁾ 결국 이 체제로 인해 동북아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확연히 뚜렷해 졌다고 본 것이다.

486-492.

172) Kimie Hara, “Rethinking the ‘Cold War’ in the Asia-Pacific,” *The Pacific Review* 12-4 (1999), pp. 515-536. 또한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관한 최신 문헌은 Leszek Buszynski, “The San Francisco System: Contemporary Meaning and Challenges,” *Asian Perspective* 35-3 (2011), pp. 315-336을 참조할 것. 또한 다음의 논문들은 최근의 동북아 정세를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기반 하여 설명하고 있다. Daniel Bong Youngshik, “Past is Still Present: The San Francisco System and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East Asia,” *KOREA OBSERVER* 41-3 (Autumn 2010), pp. 471-495; Kim Beazley, “Whither the San Francisco Alliance System?”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7-2 (July 2003), pp. 325-338을 참조할 것.

173) Hara (1999), p. 517; Kent E. Calder, “US Foreign Policy in Northeast Asia,” in Samuel S. Kim,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east Asia* (Lanham, Md. :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3), pp. 225-250.

174) Buszynski (2011), p. 317. 브스진스키는 이 논문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의 의미를 여섯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인용한 내용은 네 번째 의미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분석내용처럼 동북아 냉전의 기원은 알타협정의 실행 문제를 두고 벌어진 미국과 소련의 대립, 핵무기 투하, 중소동맹 체결, 6·25 전쟁 등을 두고 고조된 것이다. 특히 ‘중국공산화의 성공’이라는 국제적 상황으로 중국과 동맹을 맺고, 6·25 전쟁을 통해 공격적 세계전략을 구사한 소련의 정책이 동북아 냉전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따라서 6·25전쟁으로 맺어진 미·일 조약과 샌프란시스코체제는 동북아 냉전의 최종 결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체제로 동북아 냉전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¹⁷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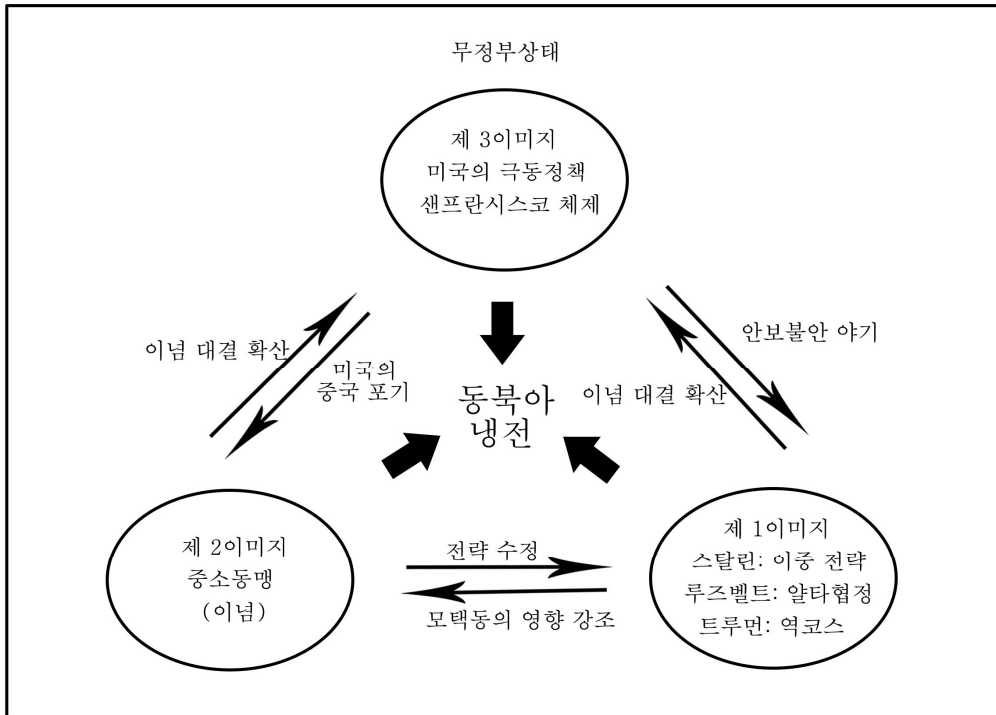
알타회담의 준수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된 동북아 냉전은 중국의 공산화, 6·25전쟁 이후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완전한 양극체제로 정착된다. 그리고 마셜플랜을 분기점으로 고조된 유럽에서의 냉전은 1955년 서독이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후 정착되었다.¹⁷⁶⁾ 두 지역에서의 냉전은 이렇게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초기냉전지형을 만들며 진행된 것이다.

175) 김영호 (2008), pp. 16-17.

176) 김명섭 (2007), p. 64.

제 4 절 분석결과

<그림 6> 냉전기 ‘동북아 냉전의 기원’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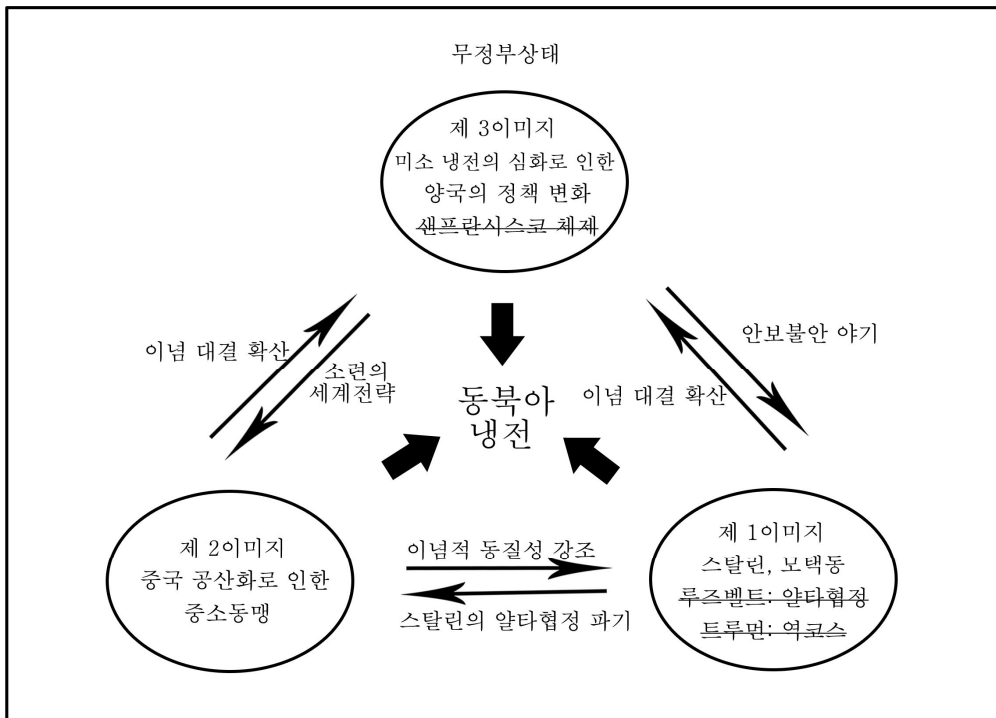


냉전기 동북아 냉전의 기원을 세 가지 이미지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이미지를 통하여 동북아 냉전의 기원을 어느 시점으로 볼 수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루즈벨트의 경우, 그가 성사시킨 알타협정이 국제질서를 불안정 하게 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 동북아 냉전이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트루먼의 경우, 반소 성향인 그가 대소 봉쇄정책의 일환으로서 동북아의 일본에서 택한 역코스 시기가 동북아 냉전의 기원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스탈린의 경우 그가 중소동맹을 체결한 시점이 동북아 냉전의 기원이 되는지를 보았다.

다음으로 제 2이미지에 의한 분석은 이념을 중심으로 한 중소동맹을 중심으로 보았다. 냉전기에는 모택동의 이념성향이 대소일변도 정책 채택에 원인이 되었으며, 더불어 냉전의 심화로 점증된 이념대결이 중소동맹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제 3이미지는 미국의 ‘중국 상실론’과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동북아 냉전의 기원이라는 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 상실론의 경우 미국의 극동정책의 실책으로 중소동맹이 체결되어 동북아 냉전을 유발했다는 분석이었고,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경우, 6·25전쟁 중에 맺어진 ‘미·일 안보조약’이 동북아 냉전의 기원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두 주장 모두 동북아 냉전의 근원을 제 3이미지라는 외부의 영향력에서 찾으려는 시도였다.

각 이미지별 상관관계를 보면, 먼저 제 3이미지인 냉전의 심화는 미국의 극동정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소련과의 점증되는 갈등 속에 기존의 ‘국민당 지지’ 정책 대신, 소련과 중국관계를 갈라놓는 썬기전략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결국 체결된 중소동맹은 이념대결을 확산시킴으로써 제 3이미지인 미소 냉전구도를 더욱 강화시켰다. 또한 중소동맹의 체결은 미소 양국 지도자들의 이념대결 확산에도 영향을 주었다. 덧붙여 제 3이미지인 무정부상태는 미소 지도자들에게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역할을 했다.

<그림 7> 탈냉전기 ‘동북아 냉전의 기원’ 분석결과



탈냉전기 동북아 냉전의 기원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이미지로 본 루즈벨트의 ‘4대 경찰국가론’과 친소성향을 재평가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이 영향을 주어 맺어진 알타협정으로 동북아 냉전이 유발되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했다. 다음으로 트루먼의 역코스 정책 시기 역시 스탈린의 알타협정 준수 의사에 따라 동북아 냉전의 시초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스탈린의 알타파기에 대한 자세한 과정이 나오에 따라, 스탈린이 동북아 냉전의 기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결국, 동북아 냉전에 영향을 미친 제 1이미지 요인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역할이 가장 컸던 것이다.

다음으로 제 2이미지 요인이었던 중소동맹은 동북아 냉전에 결정적 역할

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냉전기 분석과의 차이는 중소동맹의 체결에 모택동의 이념적 성향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스탈린이 ‘알타협정 파기’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중국의 공산화’라는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까지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이 중전략을 구사했던 스탈린은 중국의 공산화 이후, 중국 공산당과 제휴하여 적극적인 냉전전략을 구사한다.

마지막으로 냉전기에 언급되었던 미국의 극동정책으로 인해 중소동맹이 맺어졌다는 주장은 과도하게 미국의 역할만을 강조한 한계점이 있었다. 중국과 소련의 문서 공개로 그들의 전략이 공개됨에 따라 동북아 냉전의 근원에는 미국보다 중국과 소련, 그 중에서도 소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이 확인된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동북아 냉전의 기원이 아닌, 최종결과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동북아 냉전의 경우도 역시 제 3이미지라는 미소냉전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의 냉전에는 제 2이미지에 해당하는 중국의 공산화 성공과 중소동맹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제 3이미지와 제 2이미지가 상호 강하게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다. 중국의 공산화로 인한 중소동맹 체결은 미국과 소련의 이념대결 확산에 영향을 줌으로써 양국의 전략 변경에 가장 큰 요인이 되었고, 제 1이미지인 스탈린의 정책 변경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동북아에서 이러한 스탈린의 정책변경은 미국과 소련의 상호작용보다 중국의 상황에 따라 큰 변동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제 5 장 6·25전쟁과 냉전의 전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전쟁¹⁾은 한국현대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해방 후 남북한에 세워진 두 국가의 충돌은 한반도에 수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당시 3천만인구의 1/6에 달하는 5백만 명이, 유엔군과 중국군까지 합치면 6백만 명에 이르는 인명이 죽거나 다쳤다. 남한의 경우, 전체 사상자의 반인 100만 명이 민간인이었고, 북한의 경우, 전체 사상자의 80%를 차지하는, 무려 250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내었다.¹⁾

인명피해 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매우 컸다. 8,700개의 공장, 기업소들의 파괴로 1953년 공업생산은 1949년의 64%에 불과했고, 동년 농업생산은 1949년 대비 76% 수준이었다.²⁾ 그러나 이런 물리적 피해보다도 더 큰 피해는 우리민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이다. 비록 남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두 개의 국가가 되었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정신적인 끈까지 잘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전쟁은 그 정신적 끈을 허물어뜨리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만을 심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큰 피해를 준 6·25전쟁은 단지 한반도 내부의 사건이 아닌 앞서 본 ‘한반도 분단’, 그리고 ‘동북아 냉전의 기원’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매우 중요한 국제적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6·25전쟁의 발발과 기원에 대한 분석을 해 보도록 한다.³⁾

1) ‘6·25전쟁’이라는 용어 사용에 관해서는 김학준, “6·25전쟁에 관한 몇가지 예비적 토론,” 한국전쟁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pp. 26-41; 김영호 외, 『6·25 전쟁의 재인식』 (서울: 기파랑, 2010), pp. 6-7을 참조할 것.

1) 김성보·이중석, 『북한의 역사』 (서울: 역사비평사, 2011), p. 158.

2) 김성보·이중석 (2011), p. 158.

3) 6·25전쟁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방대하다. 그렇지만 단순화시키면 그 기원은 크게 외인론과 내인론, 그리고 외인과 내인을 합친 복합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냉전기의 전쟁설명은 앞에서 설명한 전통주의, 수정주의, 그리고 후기수정주의와도 맥을 같이 하며 설명되어 왔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전쟁설명은 김학준 (2000), pp. 20-24. 또한 최근 6·25전쟁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손경호, “최근 한국전쟁 연구동향,” 『한국 근현대사 연구』 제56권 (2011), pp. 202-226; James Irving Matray,

6·25전쟁에 대한 기존연구는 매우 방대하다. 기존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그 분석이 ‘냉전의 기원’ 논의에서 나온 ‘전통주의’, ‘수정주의’, ‘후기수정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했다는 것이다.⁴⁾ 예를 들어 ‘냉전의 기원’에서 전통주의자들은 냉전의 책임을 소련에게 물었듯이, 6·25전쟁의 책임도 소련에게 물었고, 수정주의자들은 냉전의 책임을 미국에게 물었듯이, 6·25전쟁의 책임도 미국에게 묻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또한 두 학파의 종합적 입장을 취한 ‘후기수정주의자’들의 논리도 6·25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반영되었다. 이들에게는 ‘신(新)전통주의’ 또는 ‘후기(後期)전통주의’, 그리고 ‘신(新)수정주의’ 혹은 ‘후기(後期)수정주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⁵⁾ 이 학파들은 6·25전쟁이 한반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한반도 내부 요소를 첨가하여 전쟁의 원인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이미 냉전기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양대 초강대국 관계만을 중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대결하는 개별 지역에서의 사정은 간과했기 때문이다.⁶⁾ 미소관계를 분석한 냉전의 틀을 6·25전쟁에 그대로 대입한 분석의 한계점이 나온 것이다.

또한 탈냉전기 들어 이념의 중요성이 희석되자, 이념적 도식화가 다분한 이 분석은 그 효용성이 떨어졌다. 냉전기에는 각 학파들이 본인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전통주의적 입장이나 수정주의적 입장에 섰기 때문에 전통주의자는 우파로, 수정주의자는 좌파로 분류되는 것이 통례였다.⁷⁾ 그러나 공산주의의 퇴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탈이데올로기화, 그리고 탈냉전기 공개된 문서를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는 좌파적 해석의 힘을 상실하게 하였고 그 후

“Korea's War at 60: A Survey of the Literature,” *Cold War History* 11-1 (2011), pp. 99-129; Steven Casey, *The Korean War at Sixty: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Korean War*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2)를 참조할 것.

4) 김학준 (2000), p. 20.

5) 김학준 (2000), p. 22.

6) 김학준 (2000), p. 22.

7) 김학준 (2000), p. 24.

양 학파들은 서로의 해석가운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아졌다. 김학준의 지적대로 이제는 우파적 또는 좌파적 해석, 전통주의, 신전통주의, 수정주의, 신수정주의라는 구분도 무의미해져 가고 있다.⁸⁾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그동안 전쟁의 원인분류였던 전통주의, 수정주의, 후기수정주의의 분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후술했듯이 전쟁을 한 개인을 두고 해석하거나 내전론같이 전쟁을 국내 정치세력간의 대결로만 본 주장들도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다. 6·25전쟁 역시 전쟁의 발발 배경을 볼 때, 어느 한 가지 이미지만을 보며 해석하기엔 불충분한 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기까지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 국내적 상황, 국제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6·25전쟁의 기원' 역시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로 분석하는 것이 전쟁의 원인을 좀 더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전에 먼저 각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 1이미지는 지도자의 성향에 의한 분석이다. 다음으로 제 2이미지는 체제 차이나 이념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제 3이미지는 강제력을 독점하는 세계정부가 없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 현실이 전쟁의 배경적 요소가 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제부터 6·25전쟁의 기원에 관한 논의를 제 1, 제 2, 제 3이미지 순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제 1 절 제 1이미지로 본 6·25전쟁의 기원: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제 1이미지를 중심으로 6·25전쟁의 기원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지 볼 필요가 있다. 6·25전쟁에 개입한 주요 인물은 스탈린, 트루먼, 맥아더, 김일성, 이승만, 모택동이다. 그렇지만 이 부

8) 김학준 (2000), pp. 24-25.

분에서는 김일성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스탈린과 트루먼의 경우는 제 3이미지인 소련과 미국의 세계전략을 고찰할 때 이들이 등장한다. 그럴 경우 논의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들은 제외한다. 다음으로 맥아더의 경우 그를 중심으로 전쟁의 원인을 고찰한 연구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최고 정책결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 논의에서는 제외한다.⁹⁾ 마지막으로 모택동의 경우, 기존연구에서는 그를 전쟁의 결정적 인물로 보기보다는 소련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후술된 ‘중-소 음모설’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을 제외했기 때문에 김일성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전쟁의 원인을 고찰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들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앞서 본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동학’ 논의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또한 전쟁은 이들이 남·북한 정부의 지도자가 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한다면 결과에 따라 제 1이미지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판단과 다른 이미지의 영향력과의 관계도 비교가 가능해진다.

1. 김일성의 남침론

1) 제 1이미지 요인: 김일성의 통일인식과 개전의지

이와 같은 인식하에 논의를 전개 할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주장은 김일성의 ‘남침론’이다. 이 남침론은 냉전기 가장 대표적인 남한정부의 주장이었고, 우리정부는 주로 ‘김일성은 소련의 괴뢰’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예를

9) 맥아더를 중심으로 6·25전쟁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주로 수정주의 학파이다. 예를 들어 콜코는 맥아더가 전쟁에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트루먼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지상군을 과잉 개입했다는 주장을 한다. 미국의 승리는 맥아더 자신의 승리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Joyce Kolko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New York: Harper & Row, 1972), pp. 578-585.

들어, 국방부는 전쟁의 원인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련은 그들의 괴뢰인 김일성 일당을 북한에 입북시켜 적화의 기지작업을 강압과 숙청으로 강행한 뒤 괴뢰정권을 만들어 국제회의에 의한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통일정부 수립을 방해하고 나아가서는 적화통일의 침략군을 급속히 양성하였다.¹⁰⁾

이 같은 설명은 김일성을 소련의 하수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49년 6월 주한미군의 철수를 계기로 김일성은 가지고 있던 무력통일방안을 내세우게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주북한 소련대사인 스티코프 대장을 통하여 그의 상진인 스탈린의 지령을 받고 남한침략에 관한 기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여 스탈린은 제반 정세를 검토한 끝에 남한침공의 준비를 촉진시켰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최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스티코프 대사의 보고서와 김일성의 보고서를 비교하여 뚜렷한 승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¹¹⁾

이와 같은 설명은 전쟁에서 스탈린의 최종결정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러나 단지 소련의 지령만으로 김일성이 남침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충분하다. 무엇보다도 김일성 자신이 전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국토완정론’이라는 기치아래 남한을 아직 해방되지 않은 지역으로 인식했다. 1949년 북한정권수립 하루 뒤, 그는 “통일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급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일을 보장하는 가장 절박한 조건으로 되는 량군 동시철거에 대한 쏘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서울: 국방부, 1968), p. 27.

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8), p. 28.

런 정부의 제의를 실천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¹²⁾라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김일성은 북한정권 수립은 통일의 완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양군의 동시철군을 주장했다. 동시철군이라는 주장은 소련의 제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김일성은 소련의 뜻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었다.

공화국 남반부의 동포들은 미군을 우리 조국강토에서 급속히 물러가게 하는 투쟁을 일층 맹렬히 전개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정책의 도구인 소위 『유엔 신조선위원회』의 정체를 폭로하며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굴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주구인 남조선 괴뢰 『정부』의 온갖 매국적 『협정』들을 청천백일 하에 폭로시키며 괴뢰 『정부』가 채택한 온갖 『법령』들과 매국적 『시정방침』들을 분쇄배격하며 소위 『국방군』내의 애국적 의거운동과 영웅적 남조선 인민들의 항쟁을 일층 긴밀히 결속시켜 망국괴뢰 『정부』를 타도 분쇄함으로써 국토의 안정과 완전자주독립을 촉진시키는 장엄한 구국투쟁을 일층 맹렬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¹³⁾

위의 연설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김일성은 남한정부를 ‘괴뢰’ 정부로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유엔 조사위원회’ 역시 미국의 하수인으로 취급하였고, 따라서 이들의 활동도 무효로 간주하고 있었다. 인용문 말미에서 보듯이 김일성은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유엔에 의해 세워진 남한정부는 정식정부가 아니며, 이러한 정부를 타도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국토의 완정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1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1948년 9월 10일),” 김일성, 『김일성 선집2』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p. 263.

13) “1949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인민에게 보내는 신년사 (1949년 1월 1일),”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2)』 (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p. 303.

2) 김일성의 국제 정세관과 전쟁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동학’ 논의에서 보았듯이 김일성의 국제관은 기본적으로 소련의 국제관과 궤도를 같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수립 후에도 그는 이러한 세계관을 견지하였는데 1949년 12월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연설은 그의 정세인식을 보여준다.

국제정세에 있어서 쏘련을 수반으로 하고 인민들 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제국주의 반동을 반대하는 철저한 투쟁을 진행하는 민주주의적 반제국주의 진영과 또 미국을 수반으로 하고 다른 나라와 인민을 노예화하려 하며 미·영의 세계적 제패를 강압적으로 설정하려 하며 민주세력을 파멸시키고 새 전쟁을 방화하려는 기본 목표를 가진 제국주의적 반민주주의 진영과의 서로 대립된 두 개 로선이 우리 조선에서도 명백하고 아주 판이하게 결정되었습니다.¹⁴⁾

이 연설에서 볼 수 있듯이 김일성은 당시의 세계정세를 소련과 미국으로 양분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해방 후 남한은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그는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우선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의 강화를 주장하였다.¹⁵⁾ 조국통일 민주주의노선은 그가 해방 후부터 줄곧 견지하였던 것이다. 이 노선의 핵심적인 내용은 먼저 통일된 조국을 위해 내정간섭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좌익 뿐 아니라 우익도 이 노선 안에 영입시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남한에서 집권하고 있는 이승만과, 이승만이 유엔위원단을 끌어들여 하고 있는 모든 간섭정책을 몰아내자는 것이었다.

14) 김일성, “수개국공산당 보도국회의 총결에 관하여 (1949년 12월 15일),” 국사편찬위원회(편), 『북한 관계사료집(1)』 (과천: 대한민국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1982), p. 513.

15) 국사편찬위원회(편) (1982), pp. 515-516.

또한 김일성은 통일의 거점이 되는 북한에 경제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¹⁶⁾ 김일성은 북한지역을 통일을 위한 민주기지로 생각했는데, 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국토완정론에 입각한 김일성의 통일수행 방식이 전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남침론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침론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소련의 지원 역시 필수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3) 제 2이미지요인이 김일성의 전쟁 시작에 미친 영향: 권력투쟁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김일성의 개전의지와 소련의 지원만이 남침론의 배경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북한 내부의 사정도 전쟁시작의 배경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냉전기에는 이러한 북한측 정치적 사정도 김일성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원인으로 거론되었다. 이른바 박헌영과의 권력투쟁설이다.¹⁷⁾

이러한 주장을 내세운 시몬스(Robert R. Simmons)는 그의 저서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의 권력투쟁을 강조한다.¹⁸⁾ 비록 박헌영은 김일성보다 직위는 낮았지만 1949년 3월에 있었던 북·소지도자 회의에서 이루어진 스탈린과의 만남 때 김일성과 동행하는 등, 실제 위상과 잠재력은 김일성에게 뒤지지 않았다.¹⁹⁾ 따라서 시몬스는 김일성이 이러한 박헌영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전쟁을 해야 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16) 국사편찬위원회(편) (1982), p. 516.

17) 해방 시기부터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박헌영과 김일성의 권력갈등에 관한 글은 신복룡, “해방 정국에서의 박헌영(朴憲永)과 김일성(金日成)의 갈등,” 『사회과학논총』 제24권 (2000), pp. 1-46을 참조할 것.

18) Robert R. Simmons, *The Strained Alliance* (New York: Free Press, 1975), pp. 102-110. 또한 이 저서에 대한 서평은 B.C. Koh, “B.C. Koh's Review Articl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3 (1977), pp. 1328-1330을 참조할 것.

19) Simmons (1975), p. 105.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파벌은 북한정권 수립 전 다섯 개의 파벌이 있었고, 그들은 우익 민족주의 세력, 국내파 공산주의 세력, 소련파, 갑산파, 연안파로 나뉘었다.²⁰⁾ 이 중 전쟁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박헌영과 김일성을 중심으로 보면, 박헌영은 국내파 공산주의 세력이었고 김일성은 갑산파였다. 박헌영은 19세였던 1919년 3월 1일 항일운동에 참가한 뒤 중국 상해로 건너가 1921년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여, 해방 전까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해방 후인 9월 11일 그를 중심으로 한 재건당과 또 다른 공산당인 장안파 공산당의 제휴로 이루어진 조선공산당에서 총비서가 된다. 김일성의 경우는 상기한대로 갑산파인데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동학’ 논의에서 본 것처럼, 이들은 주로 소련 극동군과 연결되어 하바로브스크 일대에서 정보활동을 하다 해방 후 소련군의 뒤를 따라 북한으로 들어왔다.

해방 후에도 조선공산당의 실질적 지도자로 활동했던 박헌영과, 소련군 사령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의 반발로 입지가 좁았던 갑산파 김일성의 지위가 점차 변하게 된 큰 계기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소련·영국의 3국 외상회의였다. 흔히 ‘코리아에 대한 미·영·소·중 4대국의 신탁통치’안으로 알려져 온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당시 북조선 5도 행정국 위원장인 조만식((曹晩植)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련이 그를 제거해버리는 대신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김일성을 표면에 내세우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일성은 소련군의 적극적 비호를 받게 되었고 마침내 1946년 2월 8일 구성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정치권력 기반이 남한에 있었던 박헌영은 미군정의 강화된 공산당 억압으로 북한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후일 그가 중심이 되어 발족한 남로당은 북한 단독정권 수립 후인 1949년 6월 24일, 김일성이 남북로동당의 합당형식을

20) 본 논문 3장 3절을 참조할 것. 또한 김학준, 『한국전쟁』 (서울: 博英社, 1989), pp. 109-140.

통해 발족시킨 조선로동당의 탄생으로 공식 소멸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박헌영과 권력투쟁을 해온 김일성이 6·25전쟁을 주장한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김일성은 박헌영이 주도하는 남로당에 의해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민족해방을 위한 투사로서의 경쟁’에서 자신보다 공산주의자로서의 경력이 훨씬 풍부한 박헌영을 압도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했던 것이다.²¹⁾ 이렇듯 제 2이미지인 국내정치적 요인이 김일성에게 전쟁발발의 계기를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3) 제 3이미지 요인이 김일성의 전쟁시작에 미친 영향

다음으로 김일성의 남침론의 배경은 국제정치적 상황이다. 냉전의 심화는 북한과 소련의 이념적인 동질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뜻했다. 따라서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줄 수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1949년 6월 주한미군의 철수는 김일성에게 전쟁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주었다. 또한 1950년 1월 12일 애치슨선언은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시킴으로 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었다.²²⁾ 오키노기 마사오(Okonogi Masao)가 지적하듯이, 전쟁은 냉전이라는 국제적 상황과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김일성의 이해관계와 맞았던 것이다.²³⁾

이렇게 김일성의 남침론의 배경에는 김일성의 성향, 국내정치에서의 권력투쟁, 그리고 냉전의 심화 등이 제시되었다. 제 1이미지인 그의 성향, 국내정치적 사정인 제 2이미지, 마지막으로 냉전체제라는 제 3이미지가 모두 배

21) 박헌영의 입장에서 전쟁의 원인을 서술하면, 정치적 실세회복을 위해, 또 ‘미제의 식민지정책에 의해 착취되고 있는’ 남한 인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박헌영이 속한 남로당의 투쟁전략으로 6·25전쟁을 해석한 문헌은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서울: 박영사, 1973)를 참조 할 것.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8), p. 27.

23) Okonogi Masao, “The Domestic Roots of the Korean War,” in Yonosuke Nagai and Akira Iriye,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pp. 316-317.

경으로 작용한 설명이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김일성의 남침론은 탈냉전기 새로운 문서를 통해 많은 오류가 드러났다. 후술된대로 김일성은 결코 단독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탈냉전기 새로운 문서를 통해 이 주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전에 냉전기 제 1이미지에 의한 또다른 전쟁 원인론을 살펴보겠다.

2. 이승만의 북침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제까지 본 김일성의 남침론이 북한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설명이었다면 다음으로 불 전쟁의 기원설은 남한의 지도자였던 이승만을 중심으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한 주장이다. 비록 이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냉전기에 있었던 이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고 그 오류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굽타(Karunakar Gupta)와 시몬스는 각각 이승만이 북침을 했다거나, 혹은 그의 ‘북진통일론’이라는 호전적 태도가 북한의 남침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⁴⁾ 콜코부부(Joyce Kolko and Gabriel Kolko)의 경우, 그들은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에 선제 남침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침의 목적은 남북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서울만을 제한적으로 점령하려던 의도였는데 평소에 북진통일을 숙원 하던 이승만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했다고 주장한다.²⁵⁾

그러나 탈냉전기 연구는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 부대에 하달된 주요 명령서들의 작전 범위, 그리고 공격대상이 처음부터 한반도 전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⁶⁾ 또한 탈냉전기 문서에 따르면 1950년 1월 17일

24) Simmons (1975), pp. 110-116; Karunakar Gupta, “How Did the Korean War Begins?,” *The China Quarterly* 52 (October-December 1972), pp. 714-715.

25) Kolko (1972), pp. 568-572, 578, 578-585,

26)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서울: 나남출판, 1996a), p. 320.

김일성은 박헌영 관저에서의 리셉션에서 “이승만은 여전히 공격을 시작하고 있지않고 이것은 남한인민들의 자유와 통일이 미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스탈린 동지를 만나야하며 남한의 자유를 위한 인민군의 공격허가를 받아야 한다”²⁷⁾고 했다. 이 역시 이승만은 북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히려 김일성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있는 분위기에 조급해하며, 스탈린에게 남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1) 북진통일론의 원인: 이승만의 성향

이렇게 이승만이 북침을 했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임이 밝혀졌다. 물론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가 북진통일을 주장한 이유는 그가 실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한 반공주의자로서 그의 통일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얼마 안된 1948년 9월 북한에서 ‘소련군의 철퇴’, ‘유엔총회를 통한 남북통일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또 그 다음 달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었다.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소련이 조직한 북조선의 공산주의 정부의 사주를 받은 일련의 공산계열 음모이다. 북조선으로부터 공산당원은 계속 남한으로 잠입하여 다수의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북조선에 공산정부가 존속하는 한 여사한 음모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적색독재를 남한에까지 확장하기를 결의하고 있다. 한국민의 지대한 관심은 국가통일이며 이전의 국경을 회복하고 남북이 동일 정부하에 단일체로서 통치되

27) “Telegram Shtykov to Vyshinsky on a Luncheon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January 19, 1950.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AVP RF,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y 87-91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2135> (검색일: 2013년 3월 22일)

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이 얼마나 빨리 성취될 것인가는 모르겠으나 이 통일이 적당한 시기에 성취될 것을 절대 확신하는 바이다.²⁸⁾

위의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승만은 통일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철저한 반공주의 하의 통일을 표방하고 있었다. 상기했듯이, 이승만은 1930년대 소련을 방문하여 당시 소련국민들의 처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공산주의 체제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이승만의 반공주의 통일 인식은 1949년 2월 18일 한국 통일문제에 대한 성명서에서 잘 드러난다. “국토통일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대한민국 정부 존립 목적 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며 북한 괴뢰정권과의 협상은 공산정권의 묵시적 승인을 뜻하는 것이므로 여사(如斯)한 모욕적인 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²⁹⁾고 강조한 것이다. 이 성명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승만은 북한정권과의 협상자체도 공산정권에 대한 묵시적 승인을 뜻한다고 할 정도로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나타냈고 이러한 태도는 북진통일론 주장으로 나타났다.

2) 북진통일론의 원인: 열세인 국방력

그렇지만 이승만이 강한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북진통일을 주장하였다고 해서 그가 실제로 북침을 감행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당시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매우 열세였기 때문이다.³⁰⁾ 따라서 이승만은 건국 후부터 미국에게 끊임없이 군사지원을 요청했는데, 특히 통일문

28) 『조선일보』 (1948.10.16)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8_1948_10_16_0080(검색일: 2012년 11월 14일)

29) 외무부(편), 『한국외교 30년: 1948-1978』 (서울: 외무부, 1979), p. 63.

30) 6·25직후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pp. 59-61을 참조할 것.

제에 대해 특사 조병옥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미국 고위당국자들에게 전하라고 했다.

우리는 사실(무력으로) 조국을 통일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오직 무기와 총탄만이 모자란다.** 대부분의 북한 공산적군도 폭동을 일으켜 우리와 힘을 합쳐 공산도당을 (북한으로부터) 쫓아 버릴 만전의 준비가 되어있다. 또 북한 인민도 쫓기하여 폭동을 일으킬 북한병사와 힘을 합쳐 공산당을 숙청해 버릴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지원 없이도 쫓기할 준비가 되어있어, 폭동을 일으킬 확정된 날짜만 라디오나 다른 비밀한 통신기관을 통해 알려 달라고 청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쫓기를 다소 지연시키는 일인데, 내가 그들에게 주는 이유는 쫓기 후에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무기와 총탄의 공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뿐이다.³¹⁾(강조는 필자)

이러한 편지는 그가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강조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남한의 군사력은 북진통일 추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최광영의 분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49년 2월부터 1950년 6월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발언은 대화 상대자가 거의 미국인이었다.³²⁾ 이승만이 국내기자단과의 회견에서는 북진통일을 주장하지 않고 외국기자단과의 회견에서는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은 그가 미국에 열악한 군사력을 지원해 달라는 뜻이었다.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49년 6월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그 이유로는 우선 미국이 2차 대전 종전 후 군사력을 대폭 감축했기에 부족해진 병력을 주한미군에서 충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국은 만일 또

31) “이박사가 조병옥에게 보낸편지,”(1949년 4월 10일), 『事實は語る, -韓國戰爭勃發の内幕』, 外國出版社, 平壤(1960년 5월), p. 14. In 이호재, 『韓國 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 (서울: 法文社, 2000) p. 367에서 재인용.

32) 최광영, “한국전쟁의 원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4), p. 115. 이 논문 pp. 116-119에서는 상기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발언’ 연표를 볼 수 있다.

다른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무대를 한반도가 아닌 유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었다.³³⁾ 그 뿐 아니라 철수지연에 따른 외교적 압박도 문제였다. 북한에서 자국의 군대를 철수시킨 소련이 주한미군을 ‘제국주의 점령군’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남한내부에서 미군철수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기 전에 철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³⁴⁾

이러한 이유로 이루어진 미군철수는 이승만정부의 안보불안을 더욱 심화시켰다. 따라서 이승만은 국방, 외교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더 미국을 압박하게 된다. 이승만은 미국에게 6만 5천명에서 10만명의 한국군, 5만명의 예비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의 지원, 그리고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주기를 요구했다.³⁵⁾ 그리고 미국 주도하의 태평양 지역동맹체의 결성도 원했다.

실제로 이승만은 태평양 지역동맹체의 창설을 위해 1949년 8월 6일 중국의 장개석 총통과도 회담을 가졌다. 여기에서 이들은 태평양 각국이 국제공산주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태평양 연맹창설에 대한 논의를 한다.³⁶⁾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미국 측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이승만은 결국 열악한 군사적 상황에서 북한의 남침을 당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북침론자들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주장에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탈냉전기 문서와 실제 북진 통일론의 배경은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이제부터 탈냉전기 자료를 근간으로 좀 더 객관적인 전쟁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3) 정용석, “특집 : 6·25와 그 주역들 - 미국, 해리 트루먼: 트루먼의 한국전 참전 결정으로 한국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돼,” 『北韓』 (402)호 (2005), p. 56.

34) 정용석 (2005), pp. 56-57.

35) 이한우,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우다』 (서울: 해냄출판사, 2008), p. 422.

36) 『서울신문』 (1949. 8. 9).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13_1949_08_08_0090(검색일: 2012년 12월 3일)

3.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의 전쟁

냉전기에 나왔던 김일성의 남침론, 그리고 이승만의 북침론은 탈냉전기 전쟁에 관한 소련측 문서의 공개로 그 진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이승만의 북침론의 경우는 그 설득력이 상실되었다. 탈냉전기 새로운 문서에 의해 전쟁이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의 3자 협력과 동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김일성만을 중심으로 전쟁을 해석했던 것 역시 매우 불충분했던 설명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는가? 전쟁에서 세 지도자의 비중은 동등했는가? 아니면 차이가 있었는가? 그렇지만 모택동의 비중에 대해서는 후술된 ‘중-소 음모설’에서 다루므로 이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스탈린과 김일성의 비중만 다루기로 한다.

일찍이 냉전기 후르시초프(Nikita Sergeevich Khrushchev)는 그의 회고록을 통해 “이 전쟁은 스탈린의 생각이 아니라 김일성의 생각이었다”³⁷⁾라고 말했다. 물론 그의 회고가 전쟁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탈냉전기 소련문서 공개 후, 전쟁 관련 소련 측 문서를 분석한 웨더스비(Kathryn Weathersby)도 이와 같은 논지를 전개한다. 웨더스비는 문서 검토 후 그동안 있어왔던 ‘소련 주도설’을 부인하며 이것은 김일성의 전쟁이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전쟁을 하기 위해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했던 전쟁설득 노력에 대한 전문과 스탈린과 회담 시 김일성이 했던 회담록 등을 제시한다.³⁸⁾ 물론 웨더스비가 스탈린의 역할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37) Nikita Sergeevich Khrushchev, Edward Crankshaw, and Strobe Talbott, *Khrushchev Remembers* (Boston, MA: Little, Brown, 1970), p. 368.

38) Kathryn Weathersby,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lude to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이하 CWIHP로 약칭) Bulletin* Issue. 5 (Spring 1995), pp. 1-9; *Idem*,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Issues. 6-7 (Winter 1995/1996), pp. 30-38; *Idem*,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그녀는 스탈린이 “전쟁의 개시자(initiator)가 아닌 촉진자(facilitator)”였다고 본 것이다.³⁹⁾

울람(Adam Ulam)의 경우는 김일성보다 스탈린에 더 비중을 두어 전쟁을 설명한다. 그는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으로는 경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출발을 선언해야 시작되는 것”이라는 비유로 스탈린이 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였다.⁴⁰⁾ 스탈린이 ‘전쟁에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며 김일성의 초기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점, 그렇지만 결국 1950년 5월 38선 근처로 병력을 집결시키게 한 것들을 말하며 최종적으로 이 전쟁은 ‘스탈린이 전쟁을 시작할 때’를 기다렸어야 했다고 한다. 울람은 소련의 허락 없이 김일성은 결코 전쟁을 개시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비록 웨더스비의 자료가 소련 내부분건이라 할지라도 이 문서의 날짜는 중소 분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66년의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소련이 침략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희석시키려고 그 문서를 공개했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⁴¹⁾

이렇게 각 지도자의 전쟁개시 기여도에 대한 판단에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은 그 기여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이해관계가 충족될 수 있었기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였을까?

War with America,” *CWIHP Working Paper* No.39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2002), pp. 9–11.

39) Kathryn Weathersby, “Letters: Stalin, Kim, and Korean War Origins,” *CWIHP Bulletin* Issue. 4 (Fall 1994), p. 21.

40) Adam Bruno Ulam, “Letters: Stalin, Kim, and Korean War Origins,” *CWIHP Bulletin* Issue. 4 (Fall 1994), p. 21.

41) Ulam (1994), p. 21.

4. 김일성이 전쟁에 미친 영향: 전쟁의지와 국제정세 인식

냉전기 설명에서 보았듯이 김일성이 전쟁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의 전쟁의지는 냉전기와 마찬가지로 탈냉전기에도 확인되고 있다.⁴²⁾

먼저 김일성은 무력통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다. 정부수립 후 약 반 년 뒤인 1949년 3월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북한에 대한 소련의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며 38선상에서의 남한과의 국경분쟁을 언급했다.⁴³⁾ 이 회담에서 이미 김일성은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소련 지도부의 의견을 문의했는데, 당시 스탈린은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군사적 활동은 남한의 침략에 대한 반격의 경우에 만 허용될 수 있음을 말했다.⁴⁴⁾

이어서 김일성은 1949년 5월 북한군 정치국장인 김일의 중국방문에서 모택동과 전쟁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소련 쉬티코프에게 전했다.⁴⁵⁾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근시일 내에 남한을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는 북한을 도울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렇게 모택동으로부터 전쟁개시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은 김일성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소련에 남침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1949년 6월말 남한에서 미군의 철수가 완료되자, 김일성은 더욱 더 전쟁에 관한 의지를 불태웠다. 8월 12일 소련의 쉬티코프 대사는 김일성과 박헌

42) 김일성의 개전의지를 중심으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한 글은 신복룡, “한국전쟁의 기원: 김일성의 개전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0권 (3)호 (1996), 163-182를 참조할 것.

43) 1949년 3월 5일에 있었던 대화의 전문은 Archiv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hereafter AVP RF),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y 10-20. In <http://www.wilsoncenter.org/digital-archive>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서 목록 중 Korean War를 클릭하면 관련 전문을 시기 순으로 볼 수 있다.)

44) 위의 자료.

45) 이 내용은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1949년 5월 14일,”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 (1949.1~1953.8)』 (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1994), pp. 6-7.

영을 면담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미군이 철수하였으므로 38선은 이제 그 의미를 상실했음을, 또한 국경충돌을 통해 북한군의 우위가 드러났음을 이야기 하였다.⁴⁶⁾

이러한 김일성의 전쟁 요구가 한창이던 9월 11일, 소련은 툰킨(G.I. Tunkin) 공사에게 가능한 빨리 김일성을 만나서 남한군의 전투수행능력과 남한 내 빨치산의 대북협조 능력, 그리고 남한주둔 미군의 규모등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요구하였다.⁴⁷⁾ 툰킨 공사는 이 지시에 따라 김일성과 박헌영을 면담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모택동의 의견대로 중국내전이 종식된 후에야 남침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전쟁을 개시해도 남한 주민들은 전쟁을 환영할 것이라는 주장을 피며 자신의 개전론을 고수하였다.⁴⁸⁾

이렇듯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김일성의 강한 전쟁의지는 6·25전쟁의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김일성은 단독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없었다. 그가 소련, 그리고 중국의 도움 하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구상을 한 것도 당시 북한 군사력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50년 1월 17일, 박헌영 외교부장의 관저에서 열린 북한대사의 중국과 송 만찬장에서 김일성은 “요즈음 통일문제를 걱정하느라 밤잠을 못 잔다. 남조선 해방과 조국통일 과업을 더 늦추면 나는 조선인들의 신임을 잃을 것”⁴⁹⁾이라며 남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1년 전 모스크바 방문

46) “한국전 문서요약, 1949년 8월 12일,” (외무부, 1994), p. 11,

47) “Telegram from Gromyko to Tunkin at the Soviet Embassy in Pyongyang,” (09/11/1949) AVP RF,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 45. In <http://www.wilsoncenter.org/digital-archive> (검색일: 2012년 12월 31일)

48) “Telegram from Tunkin to Soviet Foreign Ministry, in Reply to 11 September Telegram,” (09/14/1949) AVP RF,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y 46-53. In <http://www.wilsoncenter.org/digital-archive>(검색일: 2012년 12월 31일)

49) “Ciphred Telegram from Shtykov to Vyshinsky,” (19/01/1950) AVP RF,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y 87-91 In <http://www.wilsoncenter.org/digital-archive>(검색일: 2012년 12

시 스탈린의 ‘남침불허’명령에 대해 언급하며 “이승만이 북침공세를 시작하지 않고 따라서 남조선 해방통일과업이 자꾸 미뤄지고 있으니 내가 스탈린 동지를 다시 찾아가 남침개시 허락을 받아야겠다”⁵⁰⁾고 한다. 이는 김일성이 스탈린의 동의 없이는 전쟁을 개시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자신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김일성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미국의 개입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새로운 문서들은 이러한 김일성의 오판을 나타내주고 있다.⁵¹⁾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남침에 관하여 논의했는데, 김일성은 스탈린과의 면담에서 전쟁은 속전속결, 즉 3일안에 끝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⁵²⁾ 또한 스탈린에게 남한 내부의 봉기에 대해 설명하며 미국이 정신을 차릴 때쯤이면 전체 조선국민은 열렬히 새 정부를 지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⁵³⁾

물론 전쟁이 다가오면서 김일성은 미군의 참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⁵⁴⁾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에서 있었던 모택동과의 회담에서 일본군의 참전 가능성을 묻는 모택동의 질문에 “그러한(일본군이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미국이 2~3만명의 일본군을 파병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⁵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미국의 개

월 31일); “50년 「만찬장 사건」 (모스크바 새 증언: 3),” 『서울신문』 (1995. 5. 19), 10면.

50) “50년 「만찬장 사건」 (모스크바 새 증언: 3),” 『서울신문』 (1995. 5. 19), 10면.

51) Weathersby, Kathryn,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CWIHP Working Paper No.8*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November, 1993b), p. 29,

52) Weathersby (2002), p. 9.

53) “김일성·스탈린 모스크바 비밀회담(6·25내막/모스크바 새 증언:5),” 『서울신문』 (1995. 5. 24), 12면; Weathersby (2002), p. 10.

54) 상기한 9월 14일 김일성과 박헌영을 면담한 툰킨이 본국에 보낸 전문을 보면 당시 김일성은 만일 미군이 개입한다면 그들은 일본군과 중국 국민당 휘하 중국군을 파견할 것이며, 미군 해·공군에 의해 남한을 도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인용한 1949년 9월 14일자 자료를 참고 할 것. 또한 “한국전 문서요약, 1949년 9월 12일,” (외무부, 1994), pp. 13–15도 함께 볼 것.

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였다. “미국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중국에서 물러났으며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신중한 입장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이었다.⁵⁶⁾ 이러한 김일성의 오판은 그의 전쟁의지를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미국이 참전했을 경우, 지원 하겠다’는 모택동의 약속도 김일성이 전쟁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⁵⁷⁾

이와 같이 전쟁은 제 1이미지인 김일성의 개전의지와 제 3이미지인 소련과 중국의 지원의사가 작용하였고 앞에서 언급한 제 2이미지인 남북한사이의 국경분쟁과 두 정부의 적대감이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냉전기에는 제 1이미지인 김일성의 개전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 경향이 있었으나 이러한 해석은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모택동이 전쟁에 미친 영향: 모택동의 반미 성향과 전쟁 수락

위에서 보았듯이 김일성의 개전의지만으로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배후에 있던 스탈린과 모택동의 전쟁에 대한 지원합의가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냉전기에는 크게 밝혀지지 않았던 모택동의 전쟁지원 모습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먼저 모택동이 6·25전쟁을 지원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그의 반미적 이념 성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국가 수립 전인 1949년 6월 30일 중국 공산당 창건 28주년을 맞이하여 모택동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55) “한국전 문서요약, 1950년 5월 14일,” (외무부, 1994), p. 26; “모김 북경 비밀회담(6·25내막/모스크바 새 증언:7),” 『서울신문』 (1995. 5. 29), 12면.

56) “모김 북경 비밀회담(6·25내막/모스크바 새 증언:7),” 『서울신문』 (1995. 5. 29), 12면.

57) 모택동은 소련은 38선 분할에 관한 합의로 전쟁에 참가하기가 불편하지만 중국의 경우 그런 의무가 없으므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수월하다고 했다. “모김 북경 비밀회담(6·25내막/모스크바 새 증언:7),” 『서울신문』 (1995. 5. 29), 12면; “한국전 문서요약, 1950년 5월 14일,” (외무부, 1994), pp. 26-27.

생각해보라. 만약 소련의 존재가 없었다면, 만약 반파쇼적 제 2차 세계대전의 승리가 없었다면, 만약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았다면, 만약 여러 인민 민주주의 국가가 출현하지 않았다면, 만약 동방의 여러 피압박민족이 지금 투쟁에 나서 있지 않았다면, 만약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자본주의국가 내의 인민대중과 그들을 지배하는 반동파 사이의 투쟁이 없었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머리위를 덮쳐 누르고 있는 국제 반동세력이 틀림없이 지금보다 몇 배 더 커져 있을 것이다. ……‘우리에겐 영·미 정부의 원조가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이것도 유지한 생각이다. 지금의 영·미의 통치자들은 여전히 제국주의자들이다. 그들이 인민의 국가를 원조해 주겠는가?……58)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모택동은 미국과 영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제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외교를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대소일변도’ 정책이 선언된 것이고 이것은 모택동이 이념적 지향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따라서 모택동에게 한국전쟁이란 제국주의 세력과의 대결이었고, 그들이 내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북한 역시 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도이치아(Isaac Deutscher)의 설명처럼 6·25전쟁은 중국 혁명의 연속이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모택동은 전쟁을 이념이라는 제 2이미지의 충돌로 보고 북한을 지원한 것이다.

모택동이 좋아했음에 틀림없을 그 모험은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 전체 한국을 통치하려는 공산주의의 시도는 중국혁명의 한 자연스러운 속편(a natural sequel)으로 보였던 것이다.⁵⁹⁾

58) 모택동, “인민민주주의 독재에 대하여-중국공산당 창건 28주년을 기념하여,”(1949년 6월 30일) in 모택동, 김승일 역, 『모택동 선집 4』 (서울: 범우사, 2008), p. 396.

59) Isaac Deutscher, *Stal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 599. 또한 Chen Jian, “Reorienting the Cold War: The Implications of China's Early Cold War Experience, Taking Korea as a Central Test Case,” in Tsuyoshi Hasegawa (ed.), *The Cold War in East Asia, 1945-1991*

실제로 모택동은 초기 전쟁구상 과정에서 때로는 스탈린보다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김일성은 1949년 5월 정치국장 김일을 중국에 파견하였다. 당시의 방문목적은 조선군 사단을 북한으로 진출시켜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지만, 김일성은 친서를 통해 남침문제를 논의하였다.⁶⁰⁾ 여기에서 모택동은 군사행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던 것이다.⁶¹⁾

물론 모택동은 당시에 국제적 정세가 좋지 않으며 그들 역시 장개석군과 전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⁶²⁾ 그러나 중국이 통일될 때까지 남침을 기다려달라는 말은 모택동이 자국의 통일이 완성되면 한반도의 전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는 뜻이었다. 모택동은 영국과 미국이 제국주의적 질서로 세계를 지배한다는 인식하에, 그러한 질서를 자국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모택동은 미국의 한국전 개입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을까? 먼저 그가 전쟁에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주장이 있다. 평양주재 소련대사 스티코프(T.F. Shtykov)가 소련외상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문에는 김일성이 스티코프에게 그가 중국대사 리주양(Li Zhou-yuan)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은래와 모택동의 전쟁에 관해 말한 내용이 들어있다.⁶³⁾ 이 편지 안에 쓰여 있는 모택동의 발언은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한국의 통일은 가능하지 않으며, 미국에 관해서는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11), p. 89도 참조할 것,

60) “김일성·스탈린 모스크바 비밀회담(6·25내막/모스크바 새 증언:5),” 『서울신문』 (1995. 5. 24), 12면.

61) “김일성·스탈린 모스크바 비밀회담(6·25내막/모스크바 새 증언:5),” 『서울신문』 (1995. 5. 24), 12면.

62) “중국의 남침지원(6·25내막/모스크바 새증언: 6),” 『서울신문』 (1995. 5. 28), 6면.

63) “Telegram from Shtykov to Vyshinski Regarding Meeting with Kim Il Sung,” (12 May 1950), APRF, Listy 151-154, Fond and Opis not given;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y 100-103.

http://legacy.wilsoncenter.org/va2/index.cfm?topic_id=1409&fuseaction=home.document&identifier=5034BF56-96B6-175C-9ED40B8C84C0F12B&sort=collection&item=Korean%20War&print=true(검색일: 2013년 1월 12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와 같은 작은 영토를 위해 3차 대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후르시초프의 회고록에 따르면 모택동과 스탈린의 회동에서 전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스탈린에게 모택동은 미국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한반도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⁶⁴⁾ 이와는 차이가 있는 해석으로 비록 모택동이 미국의 참전에 대해서는 예상했지만 스탈린과 김일성보다 좀 더 신중함을 보였다는 주장도 있다.⁶⁵⁾

이렇게 미국개입에 대한 판단에 대해 차이가 보이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바로 전쟁 준비과정에서 모택동은 북한에 대한 지원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다. 상기한 대로 그는 본국의 내전 중에는 내전 후에 북한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을, 또 미국이 참전했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택동은 단지 이념적인 목적으로만 6·25전쟁에 대해 수락하고 지지의사를 보였던 것인가? 전쟁개시에 있어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모택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러한 스탈린의 참전요구에 모택동은 거절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다. 1949년 10월 정부수립 후 모택동은 여러 가지 국내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었던 것이다. 내전으로 황폐해진 경제복구, 사회통합, 토지개혁, 대만과 티벳의 해방, 잔존해 있는 반공세력의 진압등 산재해 있는 문제를 풀어야 했다.⁶⁶⁾

특히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경제복구 문제였다. 당시 중국의 경제는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고, 특히 공산혁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신생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당시 중국

64) Khrushchev, *et al.* (1970), p. 368; Nikita Sergeevich Khrushchev, "Truth About the Korean War," *Far Eastern affairs* 1991-1 (1991), p. 162.

65)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p. 87-88.

66) Melvin Gurtov and Byong-Moo Hwang, *China Under Threat: The Politics of Strategy and Diplom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0), pp. 25-34.

의 중남부지방, 그리고 남서지방에서는 수십만에 이르는 반공계털라들이 포진해 있었고 이들 저항세력에게 경제문제는 좋은 반격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⁶⁷⁾ 모택동은 반드시 경제를 회복시켜야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택동에게 소련의 지원은 매우 중요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모택동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12월부터 2월까지 2개월에 걸친 긴 방문을 통해 모택동은 신생중국을 위한 많은 것들을 소련과 의논해야 했다.

모택동은 이 방문에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내지 5년의 평화기간을 가지고 경제를 예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에 대한 소련의 경제적 지원을 부탁하였다.⁶⁸⁾ 따라서 이러한 시급한 국내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던 모택동이 스탈린의 전쟁참여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념 뿐 아니라 또 다른 제 2이미지인 중국의 국내적 사정도 전쟁개시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반론도 나올 수 있다. 국내정치적 사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왜 모택동은 전쟁에 대한 동의를 했는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경제발전 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답은 상기한 그의 성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6·25전쟁을 중국혁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했다. 제국주의 세력과의 투쟁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는 6·25전쟁의 참전 명분을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다)’로 삼았다.⁶⁹⁾ 모택동은 경제적 발전 이상으로 혁명정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6·25전쟁을 통해 첫째 아들 모안영(毛岸英)을 비롯한 두 형제, 첫 아내와 사촌, 조카 등 여섯 명의 가족을 잃는 희생을 감수했다.⁷⁰⁾ 특히 그의 아들을 보내지 말라는 아내의 간청

67) 박명림 (1996a), p. 226.

68) “Conversation between Stalin and Mao, Moscow, 16 December 1949,” *Archive of the President, Russian Federation* (APRF), fond (f.) 45, opis (op.)1, delo (d.) 329, listy (ll.) 9-17; Translation by Danny Rozas, in *CWIHP Bulletin* Issues. 6-7 (Winter 1995/1996), pp. 5-7.

69) 장공자, “한국전쟁과 그 주역,” 『사회과학연구』 제24권 (2)호 (2007), pp. 82-83.

에 “만약 그가 안 가면 다른 누군가가 가야 할 것이다”라고 한 일화는 그가 얼마나 혁명정신을 중요시 여겼는지를 말해준다.⁷¹⁾

다음으로 모택동이 전쟁을 수락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스탈린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⁷²⁾ 중국은 소련의 군사적, 경제적 도움으로 국공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⁷³⁾ 그가 전쟁에 참여한다면 중국의 발전에 필수적인 재정, 군사, 외교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국가의 쇠퇴, 소멸까지도 감수해야 했다.⁷⁴⁾ 이와 같은 모택동의 혁명정신이라는 제 1이미지 요인과 스탈린과의 종속적 관계는 그가 스탈린의 전쟁 참여 요구를 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6. 스탈린이 전쟁에 미친 영향: 다단계 전략

스탈린이 전쟁을 결심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상기한대로 1949년부터 계속된 김일성의 전쟁요청은 스탈린의 허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렇지만 결국 스탈린은 전쟁을 결정하고 그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에 군사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제 1이미지인 지도자의 개전의지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즉, 스탈린의 전쟁의지가 큰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김일성과 달리 스탈린은 냉전 대결이라는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냉전의 기원’ 논의에서 보았듯이 스탈린은 세계 공산화라는 청사진을 점진적으로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70) 장공자 (2007), pp. 84-85.

71) 해리슨 E. 솔즈베리, 박윌라·박병덕 역, 『새로운 황제들』 (서울: 다섯수레, 1993), pp. 190-191.

72) 데이빗 쉰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中國의 6·25 戰爭 參戰』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pp. 110-111.

73) 쉰이 (2011), pp. 83-104.

74) 쉰이 (2011), p. 103.

유럽에서의 냉전전략이 마셜플랜에 대한 코민포름 형성 등의 대응으로 나타났다면 동북아, 구체적으로 한반도에서 그의 전략은 앞의 ‘분단 논의’에서 본 것처럼 북한 지역에서의 체제이식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공적인 체제 이식에도 불구하고 1949년 3월까지 스탈린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김일성의 전쟁요구를 수락하지 않았다. 첫째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을 압도할 정도의 우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둘째, 여전히 남한의 미군은 전쟁이 벌어질 경우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38선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유효성을 가진다는 점이 그것이었다.⁷⁵⁾

이러한 스탈린의 설명은 스탈린이 당시만 해도 38선에 대해 미국과 맺은 합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의 개입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 김일성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스탈린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 상기하였듯이, 스탈린은 전쟁은 남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반격의 형태로만 수락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1949년 10월 중국 혁명의 성공은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스탈린은 1950년 1월 30일 김일성에게 “나는 김일성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렇지만 김일성이 하고자 하는 일은 매우 큰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⁷⁶⁾ 그 후 1950년 4월, 모스크바에 있었던 박헌영,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스탈린은 이제 국제적 환경이 변화했음을 이야기한다.⁷⁷⁾ 스탈린은 중국의 혁명 성공이 심리적으로도 매우 중

75) “Conversation between Stalin and the Governmental Delegation of the DPRK headed by the Chairma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DPRK Kim Il Sung, 7 March 1949,” in Weathersby (2002), p. 4에서 재인용.

76) “Telegram from Stalin to Shtykov, 30 January 1950,” AVP RF,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 92. 이 문서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URL:http://legacy.wilsoncenter.org/va2/index.cfm?topic_id=1409&fuseaction=home.document&identifier=5034C717-96B6-175C-9278EC3D276BE335&sort=collection&item=Korean%20War&print=true

77) “Report on Kim Il Sung's visit to the USSR, March 30–April 25, 1950,” in Evgenii P. Bajanov and Bajanova, Natali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CWIHP Working Paper*(Unpublished), pp. 40–42. In Weathersby (2002), p. 9에서 재인용.

요하다고 하며 이것이 아시아의 혁명역량 강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스탈린은 “변화하는 국제적 상황”에 따라서 전쟁에 대한 그의 입장을 확정한 것이다.⁷⁸⁾ 그러나 스탈린의 전략은 매우 다단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전쟁지원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서 자신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결코 북한은 직접적인 소련의 참여를 기대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⁷⁹⁾ 그 이유로 서구와의 대결의 위험성을 말한 스탈린은 대신 김일성에게 모택동과 협의하라는 권고를 한다.⁸⁰⁾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김일성과 박헌영은 북경을 방문하여 모택동과 전쟁에 관한 논의를 했는데 스탈린은 다시 한 번 이들에게 반드시 중국과의 협의를 거치라는 지시를 전했다.⁸¹⁾

모택동이 어느 정도 이념적인 이유로 대소일변도 정책을 채택한 것과 달리 스탈린은 중국이 혁명에 성공하기 전에는 중국에 대해 이중정책을 구사했다. 그는 무력에 의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정책이 아닌 공산당과 국민당이 각각 양자강을 중심으로 중국을 다스리는 두 개의 중국 안을 권고하고 있었다.⁸²⁾

78) 캐스린 웨더스비·강규형, “북-중-소 삼각관계가 6·25전쟁 과정과 전후 북한외교 행태에 미친 영향,” 『정신문화연구』 제33권 (3)호 (2010), p. 125;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당시에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언급하며 전쟁을 승인한 전문은 *CWIHP Bulletin* Issue. 4 (Fall 1994), p. 61을 참조할 것.

79) “Report on Kim Il Sung's Visit to the USSR, March 30–April 25, 1950,” in Weathersby (2002), p. 10에서 재인용.

80) Weathersby (2002), p. 10에서 재인용.

81) “Telegram from Roshchin to Stalin,” in Archiv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이 내용은 <http://www.wilsoncenter.org/digital-archiv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모택동은 스탈린의 직접적인 설명을 요청했고,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특별전문을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통일에 착수하자는 조선사람들의 제창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국과 조선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중국동지들이 동의 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in “한국전 문서요약, 1950년 5월 14일,” (외무부, 1994), p. 25; “Cable from Vyshinsky to Mao Zedong, Relaying Stalin's Stance on Permission for North Korea to attack South Korea” May 14, 1950,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The Document, from the Russian Presidential Archives, was given by Russian President Boris Yeltsin to South Korean President Kim Young-Sam during the latter's visit to Moscow in June 1994, and was made available to the *CWIHP Bulletin* by the South Korean Embassy in Washingt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5976> (검색일: 2013년 3월 22일)

‘냉전의 기원’ 논의에서 본 것처럼, 제 2차대전이 끝난 후 사실상의 양극 체제하에서 스탈린은 미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스탈린은 미국이 중국에 개입할 것을 두려워하며 모택동에게 “장개석의 군대를 패배시키기 위해 양자강을 압박하는 것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지 말라”⁸³⁾는 경고까지 할 정도로 미국을 경계했고 모택동의 중국통일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문제에 대해 스탈린이 경계했던 것과 달리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고, 결국 모택동은 혁명에 성공하게 된다. 1949년 6월 유소기가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 스탈린은 당시 중국혁명에 대해 간섭했던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는 사과를 했다.⁸⁴⁾ 스탈린은 분명 이 부분에서 오판을 했고, 그 이후에야 모택동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게 된다. 스탈린은 중국과의 이념적 동질성을 중국혁명 성공 후에야 크게 부각시킨 것이다.⁸⁵⁾

또한 김일성의 제안으로 인해 남한을 스탈린의 수중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이점을 소련에게 줄 수 있었다. 동쪽 경계에 따라 완충지대를 확장시킬 수 있고, 혹은 일본에 대한 정치적 지렛대를 획득할 수 있거나 일본 공격에 대한 도약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⁸⁶⁾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의 능력을 시험하고, 또 미국의 힘을 유럽으로부터 돌릴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미국개입에 대한 스탈린의 판단은 어떠했는가? 이러한 질문에도 두 가지 판단이 존재한다. 우선 스탈린은 미국이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3월 말부터 4월까지 있었던 김일성과 박헌영의 모스크바 방

82) 박명림 (1996a), p. 224.

83) “Chairman Mao’s address on 11 April 1957,” *Study of Party History Materials* (Beijing: 1982), Vol. 22, No.33. In 자이 지하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 in 제임스 메트레이, 김철범 역, 『한국과 냉전:분단과 파괴와 군축』 (서울: 평민사, 1991), p. 238에서 재인용.

84) 박명림 (1996a), p. 225.

85) 모택동의 전쟁 수락을 모택동과 스탈린의 동일한 이념으로 본 견해는 쉰이 (2011), pp. 82-83을 참조할 것.

86)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 139.

문시의 그의 판단이었는데 당시 스탈린은 중소조약을 언급하며 미국은 아마 아시아의 공산화의 도전에 조급해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스탈린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결코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소련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사실과 우리가 더욱 북한과 견고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의해 강화되었다고 말한다.⁸⁷⁾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앞서 본 김일성, 그리고 모택동보다 훨씬 더 크게 미국의 개입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은 “미국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 혹은 아예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둘 다를 걱정하고 있었다”⁸⁸⁾라고 회고한바 있는데, 이 회고를 기반으로 한다면 스탈린은 단지 미국이 전쟁에 참여할 것만을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메릴은 스탈린이 미국의 개입을 예상했을 뿐만 아니라 바랐다고 주장한다.⁸⁹⁾ 김영호의 경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마 스탈린은 미국이 개입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두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⁹⁰⁾

물론 이러한 두 가지 판단에도 스탈린은 미국의 개입을 꺼려했고, 최대한 전쟁에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1949년 상황에서는 아직 힘의 우위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개전 요구에 대해 38선상의 국제적인 의미를 강조하며 계속 거절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의 공산화는 이러한 스탈린의 입장을 변화시켰다. 스탈린은 미국과의 냉전대결에도 자신감을 보이게 되었고, 이때 경제지원이

87) “Report on Kim Il Sung's visit to the USSR, March 30–April 25, 1950,” in Weathersby (2002), p. 9에서 재인용; “김일성·스탈린 모스크바 비밀회담(6·25내막/모스크바 새 증언:5),” 『서울신문』 (1995. 5. 24), 12면.

88) John Roscoe Merrill, *Korea* (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p. 26에서 재인용. 후르시초프회고록은 영문판이 있고 영문판의 기초가 된 러시아어로 된 원고와 테이프가 있다. 메릴은 미국 컬럼비아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이 러시아 자료를 재검토하여 영문판에 나와 있는 스탈린의 입장과 미묘한 차이를 발견했다. 인용한 부분의 원문과의 비교는 Merrill (1989), pp. 25–26를 참조.

89) Merrill (1989), p. 26.

90)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서울: 두레, 1998), p. 88.

시급하였던 모택동을 이용, 참전결정도 받아내며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도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다단계 전략을 구사하였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스탈린에게 핵무기가 미친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냉전의 기원’ 논의에서 보았을 때, 소련은 미국의 핵보유로 인해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이 깨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핵무기 개발 시도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다. 그 후 소련은 1949년 8월 핵보유에 성공했고, 이러한 핵보유에 대한 자신감도 김일성에게 전쟁개시를 허락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⁹¹⁾ 소련의 핵보유는 다시 미·소간 힘의 균형을 맞췄다는 점에서 제 3이미지이면서도 스탈린에게 자신감을 주었다는 면에서는 1이미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앞에서 본 그의 개전의지라는 제 1이미지도 영향을 주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탈냉전기 제 1이미지를 통해 본 전쟁의 원인은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세 지도자들의 개전의지, 국내정치적·이념적 목적, 그리고 세계전략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냉전기에는 공개된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정황에 근거한 주장이나 미국 측 자료만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문서의 공개로 인해 세 지도자들의 목적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제 2 절 제 2이미지로 본 6·25전쟁의 원인: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앞에서 살핀 제 1이미지를 통한 전쟁의 원인 분석은 지도자들의 성향과 그 지도자들에게 미치는 국내정치적, 세계전략적 요인을 설명해 줄 수 있었다. 그렇지만 6·25전쟁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이므로, 제 1이미지 뿐 만이 아닌 제 2이미지인 남북한내의 상황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문서의 공개 후 전쟁의 전말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고 이에 따

91) 김영호 (1998), p. 138.

라 내전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새로운 문서와 연구를 통해 내전론을 재고찰한다면, 그 주장이 어떤 점에서 오류를 보였는지 파악이 가능하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남북한의 내전론

대표적인 내전론은 커밍스의 저서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전쟁의 내적인 원인을 중요시하며 전쟁 기원의 범위를 기존의 연구경향과 다르게 큰 폭으로 넓혔다.⁹²⁾ 커밍스는 지금까지의 전쟁원인이 전쟁 직전시기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사실상 그 기원은 일제시대부터 내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 후 미군 점령기간을 지나고 남북한이 각각 단독정부를 세운 뒤,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결국 전쟁이 발발하였다는 것이다.⁹³⁾ 내부적 균열이라는 제 2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커밍스는 전쟁의 원인으로 남한에서 전쟁 전까지 토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⁹⁴⁾ 1946년에 토지개혁에 성공한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토지개혁을 완결시켜 식민지 시대와의 연속성을 해소시키고자하는 과정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커밍스는 또 다른 전쟁의 원인으로 위와 같은 내전의 씨앗을 가지고 있던 남한과 북한의 국경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되었다는 주장을 ‘제 2의 모자이크’라는 가설의 형태로 주장하고 있다.⁹⁵⁾ 1950년 6월 24일과 25일의 새벽사이, 전쟁은 남측의 웅진반도에서의 도발과 북한측의 반격으로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는데, 그 분쟁

92)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Vol.1)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 ix-xxix.

93) 그 중에서도 커밍스는 특히 점령 후 3개월을 중요시하게 바라보았다.

94)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vol.2)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p. 455-457.

95) Cumings (1990), p. 568.

이 점차 서쪽인 개성과 춘천, 그리고 동쪽으로 옮겨가며 확산되었다고 본 것이다.⁹⁶⁾

이렇듯 제 2이미지를 통한 냉전기 전쟁의 원인 분석은 전쟁이 발생하기 전의 남북한 내의 상황에 주목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49년 6월말, 남한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완료되었다. 그해 7월과 9월, 북한은 남조선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대규모 무장유격전을 전개했는데 무장유격전을 통해 민중봉기를 유도하고 38선지역의 국군병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었다.⁹⁷⁾ 이렇게 더 이상의 완충지대가 존재하지 않은 한반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6·25전쟁의 내전론 주장에는 이러한 당시의 상황과 실제로 전개되었던 남북한간의 국경 분쟁이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6·25 직전인 1950년 초 국경분쟁은 크게 줄어들었다. 김일성은 이승만의 북침을 기다렸으나 남한의 도발 징후는 없었고 역공의 빌미는 찾을 수 없었다.

2. 중-소 음모설

다음으로 제 2이미지를 통한 6·25전쟁 기원설명은 당시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제 2이미지인 이념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이른바 ‘중-소음모설’의 핵심은, 소련이 공산화 된 중국과 전세계의 공산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앞서 본 ‘냉전의 기원’ 논의에서 전통주의자들의 ‘소련이 전세계를 공산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논거와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6·25전쟁 역시 이념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미국의 정책결정자의 반응 역시, 그가 6·25전쟁을 공산주의의 침공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트루먼은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은 당시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96) Cumings (1990), p. 568.

97) 이완범, “6·25전쟁은 복합전으로 시작되었다 : 내전설과 남침유도설에 대한 비판적 조망,” 한국전쟁학회(편), 『한국 현대사의 재조명』 (서울: 명인문화사, 2007), p. 235.

공산주의는 히틀러, 무솔리니, 그리고 15~20년 전 활동했던 일본인들처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는 만약 한국이 몰락한다면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대담하게도 우리 인근의 나라에서 더 큰 우위에 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만약 공산주의가 자유세계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남한에서 그들의 힘을 쓰도록 허용된다면 어떤 작은 나라도 더 큰 공산국가들에 의한 위협에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어떠한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작은 사건이 2차 대전을 야기한 것처럼 곧 3차 대전을 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이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유엔의 원리와 근간이 위협에 빠지게 된다는 것도 역시 자명하다.⁹⁸⁾

이와 같이 트루먼은 전쟁의 뒤에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구체적 대상은 소련이었다. 전통주의자들이 보기에 전쟁은 일종의 아시아적화를 위한 중국과 소련사이의 제 1단계 공동전략이었다.⁹⁹⁾ 소련은 1947년 가을 즈다노프(Andrei Zhdanov)의 선언을 계기로 세계적화를 노골적으로 추구하였다. 중-소 음모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소련이 1949년 10월 중화 인민 공화국의 수립 이후, 아시아 지역의 공산혁명 전략의 주도권을 자신의 보조격인 중국에 위임했다고 보았다.

그들은 중국이 소련의 주도하에 북한과 남침을 위한 일련의 군사협정을 밀약하고 한국전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략을 조정했다고 말한다. 특히 1949년부터 1950년은 소련이 보기에 공산주의의 기운이 넘치는 때였다.¹⁰⁰⁾ 베트남에서의 전쟁도 공산주의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라오스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일종의 ‘해방전쟁’을 치루고 있었다. 또한 소련 주도의 세계노동조합(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에 의

98) Harry S. Truman, *Memoirs by Harry S. Truman (Vol.2)* (New York: A Signet Book, 1955b), p. 379.

99) 김학준 (1990), pp. 23-24.

100) David J. Dallin, *Soviet Foreign Policy After Stalin* (New York: Lippincott, 1961), pp. 69-70.

해 소집된 베이징에서의 ‘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ference)’가 극동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 중국과 소련이 전쟁을 공모하였다고 생각하는지가 이 주장의 진위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들이 초점을 두어서 보았던 것은 바로 1949년 12월부터 1950년 2월까지 있었던 모택동의 소련방문이었다. ‘중-소 음모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모택동이 모스크바에 도착한 12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중·소 우호 동맹조약과 소련의 중국 원조 및 중·소 무역협정 등의 문제들’과 ‘여타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의 ‘여타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였다.¹⁰¹⁾ 바로 이 ‘여타문제들’ 가운데 한국전쟁 계획안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949년 10월 모택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는데 그 후 그는 12월부터 2월까지 장기간 소련을 방문하였고, 중·소 우호동맹 조약도 체결하였다. 전쟁 전 체결된 두 공산주의 국가사이의 동맹은 당시 세계적 냉전 심화분위기와 함께 전쟁의 배후에 이들이 있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소련과 중국의 전쟁기도설은 냉전기 냉전의 이념적 대결을 강조했던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많은 공감을 받았다.

3. 내전론의 한계

제 2이미지, 즉 남북한의 요인으로 전쟁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탈냉전기 소련문서들로 인해 그 설득력이 상실되었다. 상기하였듯 전쟁은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의 주도면밀한 사전 계획에 의해 발발하였다는 것이 소련문서 공개로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다.¹⁰²⁾

101) 김학준 (1990), p. 27.

특히 커밍스의 주장은 거의 설득력을 잃었다. 먼저 남한의 토지개혁 미완성이 전쟁의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주장은 박명림의 연구로 인해 부인되었다. 장상환이 충남 서산군 근흥면에서 조사한 실증적 연구를 인용, 이 지역에서 토지분배가 전쟁 전에 완료되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¹⁰³⁾ 박명림은 전쟁당시 미군이 노획한 북한문서를 통해서도 남한에서 전쟁 전에 이미 토지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농민들은 토지 경작권만을 가지고 있던 북한농민에 비해 토지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남한의 토지개혁이 농민의 입장을 훨씬 잘 대변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토지개혁을 완결하여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커밍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좋은 증거이다.

또한 내전론의 근거로서 내세운 38선상 국경분쟁에 의한 전쟁발발도 다음의 자료로 그 설득력이 없어졌다.¹⁰⁴⁾ 계속되었던 국경분쟁은 스탈린의 북한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통해 중단될 수 있었음이 1949년 10월 27일자 전문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소련정치국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지령을 북한주재 소련대사 스티코프에게 보냈던 것이다.¹⁰⁵⁾ 또한 한 달 전인 9월 14일에 임시대리대사였던 툰킨이 소련 외무성에 보낸 전문에도 38선 부근의 무력충돌에 대한 소련의 공식입장이 나와 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02) 김영호, “탈냉전과 6·25전쟁의 재인식,” 김영호 외 (2010), pp. 17-53;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탈리아 바자노바(공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한국 전쟁의 전말』 (서울: 열림, 1998). 또한 커밍스의 주장을 “사회혁명-내전론”이란 가설로 재구성해 비판한 논문도 참조할 것. 김용직, “한국전쟁과 사회운동: 브루스 커밍스의 사회혁명-내전 가설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1)호 (1998), pp. 35-57.

103)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서울: 나남출판, 1996b), pp. 475-517.

104) Cumings (1981), pp. xxvi-xxvii.

105) “Gromyko to Shtykov, October 27, 1949,” in Kathryn Wheathersby,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2-4 (Winter 1993), pp. 446-447.

김일성에 의해 계획된 군사작전(용진에서의 무력충돌)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전으로 확산될 경우, 북한군은 남한에 대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이다. 남한인민과 빨치산, 그리고 북한군의 도움이 있다 하여도 빠른 승리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한 전쟁은 이승만이 미국의 도움을 받기 좋은 상황으로 만들 것이고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개전 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됨은 물론 미국의 대소 항전의지를 촉진 시킬 것이다. 설사 용진 부근에서의 충돌이 내전으로 번지지 않더라도 그 결과는 부정적일 것이다.¹⁰⁶⁾

이러한 전문은 소련이 김일성이 내세운 계획을 미군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승인하지 않고 있음을 잘 나타내준다. 따라서 커밍스가 말한 ‘용진반도에서의 남북한 군사충돌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커밍스는 전쟁의 기원을 분석하며 김일성이 북한에 스탈린주의와 마오이즘의 중간형태인 북한식 사회주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¹⁰⁷⁾ 커밍스는 스탈린이 동유럽에서처럼 북한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분단의 기원’ 논의에서도 보았듯이 소련은 북한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스탈린에 의해 북한의 지도자로 낙점되었고 새 행정부를 위해 경제와 행정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소련에 자문을 구했다.¹⁰⁸⁾ 그뿐 아니라 소련은 전쟁 전에 이미 남북한의 전력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소련 대사 스티코프는 본국 내각회의 의장에

106) “Ciphred Telegram from Tunkin to Soviet Foreign Ministry (In Reply to Telegram of September 11), 14 September 1949,” *AVP RF,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y 46-53*. In Kathryn Weathersby,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lude to War,” *CWIHP Bulletin* Issue. 5 (Spring 1995), pp. 6-7에서 재인용.

107) Cumings (1981), p. 397.

108) Kathryn Weathersby, “Making Foreign Policy under Stalin: The Case of Korea,” in Niels Erik Rosenfeldt, Bent Jensen, and Erik Kulavig (eds.), *Mechanisms of Power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pp. 230-238.

게 1949년 9월 15일자의 보고서를 통해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고 있다.¹⁰⁹⁾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살펴보면 커밍스의 분석과는 달리 소련은 북한에서도 동유럽에서와 같이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련의 후광을 받고 있었던 김일성을 소련의 후원없이 자력으로 집권한 ‘민족주의적’ 정치가라는 커밍스의 견해는 오류이거나 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¹⁰⁾

물론 커밍스가 조선왕조 이후부터 내재되었던 한반도 내의 계급투쟁적 요소가 해방후 5년간 남한을 점령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현상유지적 정책에 좌절을 겪었다고 분석한 점은 문제의 근원적 원인분석 차원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전쟁으로 분출되었다는 해석은 탈냉전기 전쟁 준비과정에서 보인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의 공모를 보면 그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¹¹¹⁾

4. 중-소 음모설에 대한 재평가

다음으로 제 2이미지인 이념이 중심이 된 ‘중-소 음모설’ 역시 탈냉전기 6·25전쟁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며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념 중심적 해석으로 볼 수 있는 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은 가능하다. 바로 이념이라는 것이 직접적 원인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징적으로는 스탈린, 모택동에 의해 언급되고 때때로 정당성을 위한 무

109) 1949년 8월 당시의 남북한의 전력분석은 국사편찬위원회 (2006), p. 46을 참조할 것.

110) 유영익, “수정주의와 한국 현대사 연구,” 유영익 편,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p. 19. 또한 본 논문 3장 2절을 참고 할 것.

111) 커밍스는 소련문서 공개 후 전쟁발발에 대한 그의 입장을 일부 수정,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이 소련과 북한의 사전공모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전쟁 준비단계에서 소련의 개입정도는 그가 예전에 주장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도 인정하였다.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New York: Norton, 1997), p. 263.

기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모택동은 내전에서 승리하기 전 소련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미코얀(Anastas Ivanovich Mikoyan)에게 “현재 중국혁명의 승리의 기반은 레닌과 스탈린의 가르침에 놓여 있고 스탈린은 단지 소련인민의 지도자만이 아닌 중국인민들과 세계인민의 지도자다” 라고 말하고 있다. 모택동은 또한 스스로를 스탈린의 제자라고 말하며 “나는 단지 막스-레닌주의의 가르침을 따를 뿐이지 이론적 작업에 어떤 공헌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소련과의 이념적 동질성을 강조하였다.¹¹²⁾

또한 스탈린 역시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김일성과 박헌영이 소련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에게 국제적 상황이 한반도 통일에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중국내전에서 모택동의 승리를 언급 했다.¹¹³⁾ 스탈린은 이 회담에서 “중국은 더 이상 내전으로 인해 힘을 빼지 않을 것이며 이제 한국을 돕는 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북한이 이용할 수 있게 중국이 군대를 배치할 것이라고도 한다. 그는 “중국의 승리는 심리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아시아의 혁명역량을 증명하는 것이고 아시아 반동세력과 서구의 지도역할이 허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며, “미국은 중국을 떠났고 새로운 중국정부에 감히 군사적으로도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스탈린은 더불어 중국은 소련과 동맹을 맺었으며 미국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의 도전에 더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압도적인 분위기는 결코 방해받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입지가 평양에서 견고하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¹⁴⁾ 이러한 대화록을 통해, 전쟁 전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은

112)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Anastas Mikoyan and Mao Zedong, 30 January 1949,” *CWIHP Bulletin* Issue. 16 (Fall 2007/ Winter 2008), p. 131.

113) “Report on Kim Il Sung's visit to the USSR, March 30–April 25, 1950,” Weathersby (2002), p. 9에서 재인용.

이념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념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졌다는 것이 ‘중-소 음모설’을 정당화 해주지는 않는다. ‘중-소 음모설’의 한계점은 전쟁의 진행과정에서 더 잘 나타난다. 만일 스탈린이 그토록 공산혁명을 중요시했다라면 전쟁이 설사 북한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북한을 주저하지 않고 도왔을 것이다. 또한 비록 스탈린이 미국의 개입을 꺼려한 정황이 문서에 의해 포착되더라도 결국 그가 전쟁을 승인한 것은 스탈린이 김일성의 승리장담에 어느정도 호응을 하였고, 또한 그 이후의 상황도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¹¹⁵⁾ 그러나 전쟁의 양상이 김일성에게 불리하게 바뀌자 소련의 군사지원을 건의한 후르시초프에게 보인 스탈린의 격렬한 반응은 후르시초프에게 왜 스탈린이 김일성을 축복했으며, 김일성에게 무기를 주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했다고 한다.¹¹⁶⁾ 게다가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한에서의 광범위한 민주적 발달에 의한 평화로운 통일의 가능성을 고려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군사적 방법만을 의존한’ 상황오관에 대해 비난까지 하였다.¹¹⁷⁾

김일성 역시 전쟁이 진행되면서 소련이 보인 소극적인 지원에 그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기 시작했다.¹¹⁸⁾ 비록 전쟁 전, 필요할 경우 중국에게 지원을 받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일단 소련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중국에게만 압력을 가했고 어떻게든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1950년 12월, 전쟁발발 후 북한노동자 전체 회의 첫 연설에서 변화한 김일성의 사고를 볼 수 있다. ‘스탈린 동지의 종복’, ‘세계혁명의 영광스러운

114) Weathersby (2002), p. 9에서 재인용.

115) 미국의 개입을 이유로 소련의 전쟁참여를 꺼려한 스탈린의 입장에 대해서는 Weathersby (2002), p. 10을 참조할 것.

116) Khrushchev *et al.* (1970), p. 370.

117) Weathersby (1993a), p. 14.

118) 웨더스비·강규형 (2010), pp. 131-136.

지도자’, ‘인류의 태양’, 그리고 ‘위대한 소련’, ‘혁명의 조국’ 등등 김일성이 1945년 한국으로 돌아와 행한 모든 연설을 채웠던 어구는 사라지고 ‘소련의 지도자’, 또는 ‘소련’이라는 기본적인 표현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¹¹⁹⁾

다음으로 ‘중-소 음모설’에서 나왔던 ‘1949년 12월말부터 1950년 2월 중순까지 있었던 모택동의 모스크바 방문 때, 6·25전쟁에 관한 모종의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탈냉전기 재평가 되고 있다. 먼저 당시 모택동은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인민군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논의하였지만 북한의 남침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한 게 없다는 주장이 있다.¹²⁰⁾

이러한 주장은 탈냉전기 문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1950년 4월 10일 이그나테예프(Ignatieff) 평양 주재 대사대리는 비신스키에게 이두연 북경주재 북한대사가 3월말 북경에서 있었던 자신과 모택동과의 면담결과를 김일성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알렸다.¹²¹⁾ 그런데 이 회담에서 김일성과 모택동간의 회담문제가 협의되었다. 이때 모택동은 회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회담 날짜를 4월이나 5월로 제의한 바 있다. 또 이 회담에서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만일 전쟁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회담은 비공개로, 계획이 없다면 회담은 공개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¹²²⁾ 만일 모택동의 모스크바 회담 당시에 모택동과 스탈린이 전쟁을 계획했다면 모택동이 김일성에게 이러한 언급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1950년 모택동과 스탈린의 회담 당시에 전쟁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증거이고 ‘중-소 음모설’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모택동의 모스크바 방문 시 전쟁

119) 웨더스비·강규형 (2010), p. 133.

120) Dieter Heinzig, “Stalin, Mao, Kim and Korean War Origins, 1950: A Russian Documentary Discrepancy,” *CWIHP Bulletin* Issues. 8-9 (Winter 1996/1997), p. 240.

121) “한국전 문서요약, 1949년 5월 14일,” (외무부, 1994), p. 23.

122) “Ciphred telegram, Soviet Representative Aleksei Ignatieff in Pyongyang to Vyshinsky” April 10, 1950,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APRF, Listy 148-149, Fond and Opis not given;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y 98-99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684> (검색일: 2013년 3월 22일)

논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스탈린은 1950년 1월 김일성에게 전쟁에 대한 최종결정은 북한과 중국이 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¹²³⁾ 그리고 실제로 1950년 5월 13일 김일성, 박헌영은 북경을 방문해 모택동과 전쟁에 관한 논의를 한다.

5월 13일 북경에 도착한 김일성, 박헌영과 모택동은 면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모택동은 전쟁에 대한 최종결정은 모택동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스탈린의 요구를 들었다. 그리고 이때 모택동은 소련정부에 이 문제에 관해 스탈린에게 설명을 듣고 싶다는 요청을 하고 실제로 스탈린에게 특별 전문을 받는다.¹²⁴⁾ 비록 김일성을 통한 간접적인 전쟁 요청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결코 전쟁이 중국과 소련만의 음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회담에서 6·25전쟁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¹²⁵⁾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중국과 소련의 공모는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김일성의 역할이 간과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산혁명을 위해 중국과 소련이 공모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보완될 점이 많다.

123) 쑨이 (2011), p. 110

124) “Cable from Vyshinsky to Mao Zedong, Relaying Stalin’s Stance on Permission for North Korea to attack South Korea” May 14, 1950,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The document, from the Russian Presidential Archives, was given by Russian President Boris Yeltsin to South Korean President Kim Young-Sam during the latter’s visit to Moscow in June 1994, and was made available to the *CWHP Bulletin* by the South Korean Embassy in Washington.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5976> (검색일: 2013년 3월 22일)

125) 데이빗 쑨이는 이 회담의 통역자였던 사철(師哲)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회담에서 6·25전쟁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쑨이 (2011), pp. 63-64. 또한-67까지의 내용과 드미트리 볼코고노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스탈린』 (서울: 세경사, 1993), p. 364; Goncharov, *et al.* (1993), pp. 130, 325-326의 Footnote.5도 함께 참조할 것.

제 3 절 제 3이미지로 본 6·25전쟁의 기원: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이제까지 제 1이미지, 그리고 제 2이미지를 중심으로 전쟁의 원인에 대해 냉전기, 그리고 탈냉전기를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이 분석을 통해 전쟁에 지도자들이 미친 영향, 그리고 배경적으로 국내정치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전쟁은 결코 단지 지도자들 혹은 국내정치적 사정만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바로 제 3이미지인 체제적인 배경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제 3이미지를 통한 6·25전쟁의 원인설명은 무정부적 국제상황에서 남북한사이에 불안정한 공존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 그와 더불어 미소냉전의 심화, 동북아 냉전의 발달도 전쟁의 배경적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제 3이미지의 영향: 양극체제 하의 미소 대립

1947년 마셜플랜의 실행은 냉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 후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화와 소련의 베를린봉쇄로 유럽에서의 냉전은 점점 심화되었다. 1949년 4월 군사동맹인 나토(NATO)의 창설은 냉전이 군사적인 대결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5월 12일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해제함으로써 미소 사이에 극도의 긴장상태는 풀린 듯 했지만, 8월 29일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성공은 기존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핵우위를 무너뜨림으로써 양국의 군사적 팽창을 가속화 시켰다.

앞에서 살펴본 ‘냉전의 기원’이나 ‘한반도 분단’에서의 제 3이미지에 의한 설명은 이와 같이 주로 유럽에서 미소의 대립과 관련이 깊었다. 그러나 ‘중소관계와 동북아 냉전의 기원’에서 본 것처럼 6·25전쟁 직전의 미소냉전은

그 중심무대가 동북아로 옮겨지고 있었다. 특히 그 계기로 작용한 중요한 사건은 중국의 공산화였다. 1949년 9월 21일 모택동은 오랜 내전을 끝낸 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이듬해 소련과 우호 동맹조약을 맺었다.

윌츠의 이미지 틀에서 볼 수 있듯이 6·25전쟁을 둘러싼 한반도의 국제적 배경 역시 무정부상태였다. 1948년 8월과 9월에 각기 다른 정부를 세운 남한과 북한은 불안정한 공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가 6·25전쟁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무정부적 상황은 언제든지 어느 한 측이 이 상태를 깨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긴다. 무력행사를 독점하는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들은 생존이나 국가이익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할 수 있는 자구권을 갖고 있다.¹²⁶⁾ 따라서 이러한 무정부적 구조는 전쟁의 배경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앞의 ‘냉전의 기원’에서 보았듯이 당시 세계체제는 양극 구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제 3이미지에 속하는 양극체제 속에서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두 나라 역시 무력행사를 독점하는 세계정부가 없는 무정부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자국의 안보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었다.

제 3이미지에 의한 전쟁원인 설명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는다. 전쟁의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대결 속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미국의 남침유도설’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소련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126) 김영호 외 (2010), pp. 32-33.

2. 미국의 남침유도설

먼저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게 돌린 해석을 보자. 바로 미국이 전쟁을 개시했다는 주장이다.¹²⁷⁾ 유사한 맥락으로, 비록 시작은 북한이 했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미국이 유도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¹²⁸⁾ 이들은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조성되었다고 보았는가?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우익과 좌익이 동시에 제기했는데 이 주장의 가장 큰 배경은 1950년 1월 12일 있었던 애치슨의 연설이었다. 우익의 경우 애치슨의 연설이 소련과 북한에게 한국을 침공할 빌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고, 좌익의 경우 그와 반대로 미국이 일부러 한국을 연설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을 취했다.¹²⁹⁾

대표적인 우파인 임영신은 애치슨의 연설이 공산주의자들이 침략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공격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¹³⁰⁾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설사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한국은 하나의 시험대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 피해도 보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임병직 역시 애치슨 선언을 두고 “애치슨 장관의 선언은 북한괴뢰의 침략의욕을 유발하게 되었다고 극단적으로 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¹³¹⁾ 대표적인 반정부 민주화운동의 지도자 김재준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27) 스톤은 한국군이 소규모로 군사적 도발을 함으로써, 북한군의 침공을 유도한 후 후퇴전략을 펴서 미군을 개입하게 하려 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I. F. Stone,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52), p. 52.

128) 예를 들어 콜코는 트루먼행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에 제약이 되었던 국내외적인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의 위기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Kolko (1972), pp. 1-8, 565-566, 581, 583-585.

129) 박명림 (1996b), p. 553.

130) Yim Louise, *My Forty Year Fight for Korea* (New York: A. A. Wyn, 1951), pp. 296-299, 특히 p. 298.

131) 임병직, 『임정에서 인도까지』 (서울: 여화사, 1966), p. 361.

애치슨 국무장관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 시켰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방위선 밖에 있다고 선언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일본-필리핀-동남아선을 방위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소련·중공에서 맘대로 해도 좋다는 조로 생각할 수가 있다. 김일성은 “이게 웬 떡이냐”고 고스란히 그 함정에 뛰어 든 것이 아니었을까? 초조하게 남침을 준비하고 있는 이북의 실상을 미국이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러나 모르는 척 ‘유도작전’을 시도한 것이라고 한국의 지성인들은 추측한다.¹³²⁾

물론 애치슨은 자신의 연설이 전쟁초청 선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도 한국과 미국사이에 맺어진 상호방위조약을 생각하면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³³⁾ 그러나 냉전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애치슨선언이 전쟁발발의 큰 원인으로 여겨졌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수정주의자 콜코는 미 행정부의 세계전략으로 전쟁 유도설을 설명한다.

1950년 봄, 미국외교정책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위기 국면에 빠져있었다. 미 행정부는 어느 한 지역에서의 사건을 세계적 전략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는데 1950년 6월 한국에서의 위기를 미국은 세계 전략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뿐 아니라 그 전략을 결정짓는데 이용하였다.¹³⁴⁾

콜코는 트루먼 행정부의 세계 전략은 유럽 우선주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정책을 수행할 때 방해가 되는 국내외적 정치, 경제적 제약들을 타개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했다는 것이다.¹³⁵⁾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보았듯 미국은 냉전 초기 전후 세계전략

132) 김재준, 『범용기』 (서울: 풀빛, 1983), p. 192.

133)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New York: Norton & Co., 1969), p. 358.

134) Kolko (1972), p. 565.

135) Kolko (1972), pp. 565-567, 580-585.

구상을 하면서 다섯 개의 중심국가론을 주장하며 한반도에서 명예롭게 철수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물론 철군을 둘러싸고도 조기철군을 주장한 군부와 철군 연기를 요구한 국무성의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1948년 4월 2일 미국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가 국가안보회의 문서 8호(NSC 8)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해 말 12월 31일까지 철군을 완료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¹³⁶⁾

한국정부는 철군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부수립 후 얼마되지 않은 1948년 9월말과 10월초 사이에 미국에 조병옥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¹³⁷⁾ 또한 11월 12일 미국 대통령 특별 사절이었던 무쵸(J. Muccio)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남한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미군의 주둔뿐이라며 철군 연기요청 전문을 본국에 보내기도 했다.¹³⁸⁾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철군을 잠시 연기할 수는 있었지만 아예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1949년 3월 22일 미국 국가안보회의는 NSC 8/2를 통해 약간의 군사장비 이양과 군사고문단 설치, 65,000명의 군대와 4,000명의 해안경비대, 그리고 35,000명의 경찰을 유지할 정도의 지원을 하되, 늦어도 그해 6월 30일까지 철군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¹³⁹⁾ 결국 1945년 11월경 7만여명에 달했던 주한미군은 1949년 6월 29일 500여명의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만 남긴채 모두 철수하게 되었다.¹⁴⁰⁾

이러한 미군철수는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

136) “NSC 8: A Report to th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in 국방군사연구소(편),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Korea 1(1948-1950)』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 pp. 1-14.

137) 김일영·조성렬(공저), 『주한미군』 (과주: 한울, 2009), p. 48.

138)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s (November 11, 1948),” *FRUS*: 1948, 6, pp. 1325-1327.

139) “NSC 8/2: A Report to th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국방군사연구소(편) (1996), pp. 36-56.

140) 김일영·조성렬(공저) (2009), pp. 49-50.

다. 이와 같이 냉전기 미국의 ‘남침유도설’은 애치슨의 연설과 미국 행정부의 세계정책,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근간으로 설명되어 왔다. 다음으로 는 소련 책임론을 살펴보자.

3. 소련의 전쟁책임론

“북한은 완전히 소련의 통제하에 있고 소련의 동의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적의 남침 책임은 소련에 있다.” 6·25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 국무성 산하 정보조사국(OIR)의 보고서의 내용이다.¹⁴¹⁾ 또한 트루먼 정부는 이 전쟁을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나라의 일로서 미국이 풀어야 할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정부관료들은 만약 미국이 이 공격에 대응하지 않으면 소련은 반드시 그 공격성을 서독, 그리고 이란까지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¹⁴²⁾ 이것은 한마디로 당시 미국 정부가 전쟁을 소련의 소행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련의 군사전략적 목적으로 인한 전쟁개시를 주장한다. 1949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조인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탄생은 소련에게 군사적 압력을 주었다. 소련 외상 그로미코는 당시 이 조약의 체결에 대해 “그들이 침략을 정당화시킬 군사적 기반을 쌓았다”는 반응을 보였다.¹⁴³⁾ 때마침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공산화가 성공하였고 나토국가 중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그들의 식민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차이나에서 식민전쟁에 꺾일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소련은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¹⁴⁴⁾

141) “Intelligence Estimate Prepared by the Estimates Group,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 Department of State (June 25, 1950),” *FRUS: 1950*, 7, pp. 149–150.

142) Weathersby (1993a), p. 14.

143) Denna Frank Fleming, *The Cold War and Its Origins, 1917–1960 (Vol.1)* (Garden City, N.Y.: Doubleday, 1961), p. 516.

또 다른 소련의 군사전략적 전쟁원인론은 케난의 ‘소련이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¹⁴⁵⁾ 이 주장은 미국이 소련을 배제한 채 일본과 ‘일본에 미군기지와 군사시설을 무한정 주둔시킨다’는 내용의 단독평화조약을 맺으려 하자 이에 대한 견제반응으로서 소련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¹⁴⁶⁾ 미국은 잘 알려진 바대로 일본을 점령하면서 군대와 재벌을 해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은 아시아에서 반공보루의 구축을 위해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을 소련은 일종의 아시아 반공동맹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비록 이 주장은 전쟁당시 나온 일종의 정황근거에 의한 추론이었지만 이러한 가설들은 국제 정치학계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¹⁴⁷⁾

소련은 이미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었고 일본 내 공산당의 활동도 더 군사적, 파괴적이 되고 있었다.¹⁴⁸⁾ 따라서 ‘냉전의 기원’ 논의에서 본 전통주의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이 미국의 불참전과 그에 따라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는 6·25전쟁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고 아시아 공산주의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일본의 친미(親美)화와 군사화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았던 것이다.¹⁴⁹⁾

144) Adam Bruno Ulam, *Expansion and Coexistence* (New York: Praeger, 1974), pp. 514-515.

145) George Frost Kennan, *Memoirs (1925-1950)* (Boston: Little, Brown, 1967), p. 498.

146) Kennan (1967), p. 498; George Frost Kennan, *Memoirs (1950-1963)* (Boston: Atlantic Monthly Press, 1972), p. 39.

147) 김학준, 『한국전쟁』 (서울: 博英社, 2010), p. 65.

148) Ulam (1974), pp. 519-520.

149) 김학준 (1990), p. 21.

4. 쐐기전략 이론

다음으로 제 3이미지를 통한 6·25전쟁의 원인론으로 쐐기전략이론을 들 수 있다. 쐐기라는 용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쐐기를 박는다(drive a wedge)’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이간(離間)질하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냉전시기에 국제정치에 원용되기 시작하여 적대국의 동맹권을 분열시키거나 혹은 적대국의 잠재적 동맹국이 추후 적대국의 동맹권에 가담하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하게 되었다.¹⁵⁰⁾

이 쐐기전략은 전쟁의 원인을 소련의 세계전략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47년 후 심화된 냉전은 세계를 양분하였고, 이러한 양극체제에서 미국과 소련은 안보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여러 국가들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미 마셜플랜으로 서유럽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 그리고 코민포름결성으로 동유럽은 소련의 영향권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쐐기전략 이론을 잘 설명해주는 사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1948년 티토가 소련으로부터 자신들의 독자영역을 주장하게 된 사건이다. 당시 유고의 티토가 소련 동맹권에서 탈퇴하여 독자적 노선을 추구했을 때, 미국은 유고의 반 소련 전략을 지원하고 유고에게 경제 원조를 해 주어 유고와 소련의 사이를 분열시키는 전략을 추구했는데 이것이 바로 쐐기전략 이론을 잘 설명해주는 예이다.

쐐기전략이론은 이러한 미국의 시도를 소련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¹⁵¹⁾

150) 김영호 (1998), p. 80. 또한 쐐기전략에 관해서는 “To Review and Define United States Policy Toward China (7 September 1948),” *FRUS*: 1948, 8, pp. 146–155; Harrison Salisbury, *War Between Russia and China* (New York: Norton, 1969), pp. 83–98; Weathersby (1993b), p. 32; Goncharov, *et al.* (1993), p.99를 참조할 것.

151) 김영호 (1998), p. 82.

즉 전쟁은 소련이 신흥 공산국가인 중국이 서방에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을 소련의 영향권 하에 묶어두려는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¹⁵²⁾ 다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를 벌려놓고 중국이 자신들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전쟁을 발생시켰다고 설명할 수 있다.

1950년 초 미국정부가 중국을 승인 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스탈린이 중국과 미국을 직접적인 대립관계로 놓아 중국을 고립시키고 미국 역시 중국문제에 깊숙이 끌어들여 서로 힘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한국전을 일으켰다는 것이다.¹⁵³⁾ 에드가 스노우(Edgar Snow)는 이러한 주장을 누구보다도 권모술수적인 스탈린의 계획에 의해 중국이 한국전에서 미국과 대결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¹⁵⁴⁾ 실제로 전쟁으로 인해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침략자’로 각인되었고 이것으로 중국의 소련 의존도는 훨씬 더 증가하였으며,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시간동안 적대적이 되었기에 췌기이론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6·25전쟁의 체제적 설명은 전쟁의 원인을 지도자나, 국내정치적 상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세력, 즉 양극체제하의 미국과 소련의 전략에서 찾는다는 특징이 있었다. 6·25전쟁에서 외부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일정부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탈냉전기 제 3이미지를 통한 전쟁의 기원을 살펴보겠다.

152) 김영호 (1998), p. 79.

153) 김학준 (1990), p. 22.

154) Edgar Snow, *The Other Side of the River, Red China Today* (New York: Random House, 1963), pp. 679-681.

5. 미국의 남침유도설과 썬기전략 이론의 오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전쟁은 소련, 북한, 중국의 공모로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냉전기 거론된 미국의 전쟁유도설은 그 설득력이 상실되었다. 특히 애치슨이 극동방위선에서 남한을 제외했던 일은 전쟁의 기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¹⁵⁵⁾ 앞서 본 것처럼 스탈린은 6·25전쟁을 결정하면서도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스탈린의 전쟁 결정에 애치슨 연설이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면, 스탈린은 미국이 방위선 밖에 있는 한국을 돕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굳이 서구와의 대결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북한에게 중국과의 협의를 강조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연설에서 미국은 한국을 극동방위선에서 제외하였지만, 한국의 군사적 자위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한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¹⁵⁶⁾ 그러한 선언이 담겨있는 NSC 8에는 “만일 한국이 적화된다면 그것은 한국의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위신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¹⁵⁷⁾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미소 냉전은 결코 군사적인 요소의 대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영호의 지적처럼 무형의 국력요소인 위신의 상실은 미국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신뢰도 상실로 연결되고 그것은 미국 국력의 약화를 의미한다.¹⁵⁸⁾ 따라서 이렇게 위신을 중요시한 미국 문서는 미국이 비

155) 김영호 (1998), p. 193. 박명림의 경우, 애치슨이 한 1950년 1월 12일의 ‘아시아에서의 위기-미국 정책의 한 시험대’ 연설은 주된 관심사가 중국이었고, 이는 1949년 12월에 승인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전반적 지도를 담고 있는 NSC 48시리즈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애치슨 연설은 전쟁의 기원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박명림 (1996b), pp. 565-566. 애치슨 연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명림 (1996b), pp. 551-569; 김영호 (1998), pp. 189-195를 참조 할 것.

156)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Korea, (NSC 8), April 2, 1948,” *FRUS*: 1948, 6, pp. 1164-1170.

157) “NSC 8, April 2, 1948,” *FRUS*: 1948, 6, pp. 1167.

록 군사적 측면을 중요시한 극동방위선에서는 한국을 배제했지만 한국을 봉쇄선에서까지 제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미국이 한국을 극동방위선에서 제외시켜 전쟁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체제대결적 설명중의 하나인 썬기전략은 새로운 문서공개 후에도 웨더스비에 의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¹⁵⁹⁾ 그녀는 소련이 전쟁에서 미국의 불개입을 확신하고 전쟁을 승인하였다고 한다.¹⁶⁰⁾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라면 소련은 전쟁을 통하여 중국과 미국사이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썬기전략의 핵심적 주장인 ‘소련이 중국과 미국의 충돌을 유도하여 두 국가 사이에 썬기를 막으려 했다’는 명제에 어긋나는 주장이 되어 설득력이 떨어진다.¹⁶¹⁾ 따라서 썬기전략이론에 따른 전쟁원인론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소련의 세계전략

앞의 제 1이미지 중 스탈린을 통한 전쟁의 원인 설명에서 보았듯이 전쟁에서 스탈린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모택동의 전쟁수락과, 김일성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 전쟁의 개시는 스탈린의 승인으로 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탈린의 승인 배경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소련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냉전의 기원’,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동학’에서 보았듯이, 스탈린의 행동은 당시 양극적 냉전체제에서 소련의 전략을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6·25전쟁 역시 미국

158) 김영호 (1998), p. 182.

159) Weathersby (1993b), p. 32.

160) Weathersby (1993b), p. 31.

161) 썬기전략과 그 비판에 대해서는 김영호 (1998)을 참조할 것.

과 소련의 냉전과 결부되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분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체제 모습을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의 공산화가 성공한 뒤, 소련은 알타회담 당시 장개석과 체결했던 중소동맹을 파기하고 2월 14일 모택동의 중국과 새로운 중소동맹을 맺었다. 그런데 이 조약내용에 소련의 체제적 전략과 관련된 중요한 협정이 맺어졌다. 1989년에 들어와서야 구체적 내용이 밝혀진 이 부속 합의서는 중국이 제 3국의 국민들이 만주나 신장에서 산업, 금융, 무역이나 혹은 이와 연관된 다른 행위들을 허용하지 않고, 소련 역시 소련의 극동지역과 중앙아시아 공화국에서 마찬가지로의 제약을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¹⁶²⁾

그렇지만 사실상 이 조약은 소련에게 매우 유리한 조약이었다. 이미 소련은 오래 전 극동지역과 중앙아시아 공화국에서 외국인들의 접근을 금지하였고, 만주와 신장에서 제 3국 국민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그곳에 거주하는 소련인들이 직접적인 외국인들에 의한 경쟁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이다.¹⁶³⁾ 또한 스탈린이 이 조약을 제안했을 때, 중국 측이 이것을 일종의 ‘내정간섭’으로서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도 이 조약의 주도권이 소련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¹⁶⁴⁾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하면서까지 소련의 스탈린이 중국과의 협정에서 얻길 원했던 것은 바로 소련과 만주, 그리고 북한을 잇는 거대한 전략적 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⁶⁵⁾ 이미 살펴 본 것처럼 스탈린은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의 개입을 확보하고 소련은 그 뒤에 숨어 있으려는 전략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전략지대 창설은 그 이상의 상황, 즉

162) Goncharov, *et al.* (1993), p. 121.

163) Goncharov, *et al.* (1993), p. 122.

164) Goncharov, *et al.* (1993), pp. 122-123.

165) 김영호 (1998), p. 154. 또한 이 전략지대 개념은 “Draft Memorandum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July 31, 1950),” *FRUS*: 1950, 7, p. 506을 참조할 것.

실제로 전쟁이 확대되어 그 범위가 만주지역까지 넓어졌을 때 그 의미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다.¹⁶⁶⁾ 전쟁발발 후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을 보면, 만일 미국이 전쟁을 중국(만주)까지 확대시켰다면, 소련은 이미 체결된 중소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과 전쟁을 벌여 그 위신에 타격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⁶⁷⁾

이러한 소련의 다단계 전략은 제 3이미지 중 소련의 체제적 전략에 그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는 김영호는 전쟁의 발발을 ‘스탈린의 롤백이론’이라 명명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⁶⁸⁾

이 이론은 스탈린이 냉전개시 이후 최초로 북한군을 이용하여 미국의 봉쇄선인 38선을 넘어서 남한을 북한에 흡수시키고 전 한반도를 소련의 영향권 하로 편입시켜 미국과의 냉전 대결에서 소련의 세계전략적 목적들을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¹⁶⁹⁾

이 이론을 보기 전에 우선 롤백(Roll Back)의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롤백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을 그 지역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여 몰아내거나 격퇴시키는 것”¹⁷⁰⁾을 뜻한다.¹⁷¹⁾ 이 롤백개념은 심화되는 미소냉전 대결에서 미국의 대소전략을 설

166) 김영호 (1998), p. 154.

167) “Stalin to Kim Il Sung, 8[7], 1950,” 이 전문은 *CWIHP Bulletin Issues*. 6-7 (Winter 1995/1996), pp. 116-117에 게재되어 있다.

168) 김영호는 이것을 ‘스탈린의 롤백’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6·25전쟁에서 스탈린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소련은 스탈린 자신의 생존, 소련공산당의 생존, 소련 국가안보가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일체성을 맺는다는 의미에서 ‘소련의 롤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스탈린의 롤백’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전쟁의 원인을 세 가지의 이미지를 삼위일체형으로 살펴볼 때, 더욱 그 모습이 잘 포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그의 이론의 명칭 자체는 제 1이미지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소련의 세계전략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부분에 신는다. 김영호의 명칭설명에 대해서는 김영호 (1998), p. 22-23을 참조할 것.

169) 김영호 (1998), pp. 18-19.

170) 김영호 (1998), p. 16.

명하기 위해 원용되기 시작했고, 전쟁 중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미국이 38선을 넘어 소련의 영향권 하에 있는 북한을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가장 극적으로 등장했다.¹⁷²⁾

이 롤백개념은 앞에서 본 미국의 냉전전략인 케난의 봉쇄전략과 비교하면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 할 수 있다. 소련의 세력권을 더 이상 팽창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묶어두기 위해 고안된 봉쇄정책과 다르게 롤백전략은 그 의미가 훨씬 더 적극적이다. 봉쇄정책의 경우 소련이 내부적으로 붕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수동적인 정책이지만 롤백전략은 소련 세력권내의 지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버리는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인 것이다.

예를 들어 NSC 48/2와 NSC 68로 설명할 수 있는데, 중국의 공산화 후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의 기본을 결정 한 NSC48/2의 목적은 소련이 아시아에서 미국과 우방국가들을 위협할 수 없을 정도로 아시아에서 소련의 힘과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¹⁷³⁾ 또한 NSC 68의 경우 2차세계대전 이후 비정상적으로 커진 소련의 세력을 축소하고 그 세력이 자유세계의 가치를 훼손 할 경우, 제거해야 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있다.¹⁷⁴⁾ 이 두 문서는 소련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롤백전략을 알려주는 좋은 예이다.¹⁷⁵⁾

이러한 미국의 롤백전략을 역으로 소련에 적용하여 냉전시기 소련의 세계전략을 부각시킨 ‘스탈린의 롤백이론’은 제 3이미지를 통한 전쟁의 원인을 살펴볼 때, 매우 적실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¹⁷⁶⁾ 전쟁 준비과정에서 보았

171) 이 격퇴 수단들은 직접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제 3의 국가에게 무기를 지원하여 대리전쟁(Proxy War)을 수행하게 하는 법, 혹은 이 두 가지의 복합형태가 있을 수 있다. 김영호 (1998), p. 17.

172) 김영호 (1998), p. 17.

173) “NSC 48/2 (December 30, 1949),” in Thomas H. Etzold and John Lewis Gaddis (eds.), *Contain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p. 269.

174) “NSC 68 (April 14, 1950),” 은 Etzold and Gaddis (eds.) (1978), pp. 385-442.에 수록되어 있다. 또는 *FRUS*: 1950, 1, pp. 237-292를 참조할 것.

175) 김영호 (1998), p. 19각주.

듯이 스탈린은 전쟁개시를 철저한 자국의 이해와 냉전전략 속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탈린은 제 3이미지인 냉전전략, 즉 미국과의 대결을 준비해 두었다. 전쟁 전 중국과의 조약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확보해 놓은 것, 또한 중국을 앞세우며 전쟁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점, 그리고 이렇게 미국과의 대결을 꺼려했음에도 최후에는 미국과의 대결에 대한 대비책까지 준비해 놓은 점은 소련의 세계전략적 측면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따라서 6·25전쟁의 원인은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소련의 세계전략이라는 제 3이미지, 그리고 ‘이념’이라는 제 2이미지, 마지막으로 3국 지도자들의 성향, 이해타산과 전략이라는 제 1이미지를 동시에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7. 6·25전쟁의 결과

이상과 같이 6·25전쟁에 대한 냉전기의 주장을 월츠의 이미지 틀과 탈냉전기 문서를 사용하여 재고찰 해보았다. 6·25전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쟁의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¹⁷⁷⁾

먼저 6·25전쟁은 당시 세계적 냉전을 더욱 격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미국의 국방비는 과거의 세 배에 달하는 500억 달러로 증가되었고, 미군의 숫자 역시 2차 대전이후의 두 배에 달하는 300만명으로 늘어났다.¹⁷⁸⁾ 6·25전

176) 김영호는 냉전시기 미국의 대소정책과 소련의 대미정책을 그 국가들의 이념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롤백’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과 소련은 미소 냉전대결이라는 현실 속에서 서로에 대한 유사한 전략적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들 사이에는 어떤 체험의 등가성(等價性)이 존재한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김영호 (1998), pp. 21-22를 참조할 것.

177) 6·25전쟁과 분단이 국제정치이론에 어떤 의미를 주는 지에 대한 연구는 황지환, “한반도분단과 한국전쟁의 국제정치 이론적 의미,” 제52집 (3)호 (2012), pp. 201-225를 참조할 것.

178) 김명섭, “한국전쟁이 냉전체제의 구성에 미친 영향,” 『국제정치논총』 제43권 (1)호 (2003), p. 117. 저비스는 6·25 전쟁이 미국의 군비증대를 주장한 NSC-68의 실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Robert Jervis,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Cold War,” *Journal of Conflict*

쟁으로 인해 독일의 채무장과 명목상으로 존재했던 나토(NATO)의 실제적 군사화가 이루어졌다.¹⁷⁹⁾

또한 6·25전쟁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체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은 1951년 일본과 안보조약을 맺었고, 2년 후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남한과의 동맹도 체결,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제를 발전시켰다. 더불어 6·25전쟁은 유엔의 작동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¹⁸⁰⁾ 당시 안보리에서 소련의 거듭되는 거부권 행사에 미국은 상임이사국들의 불협화음으로 안보리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을 경우 총회를 통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유엔군의 전쟁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그 후 미소의 대결이 심화되었을 때 제 3국가들의 발언권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6·25전쟁은 냉전체제의 고착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의 냉전체제 관리 방식을 정착시켰다.¹⁸¹⁾ 소련과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 분쟁을 관리하는 표준도 습득할 수 있었다. 이 표준에는 남한과 북한의 주도적 행동까지 규제하는 것을 포함했다. 미소 양국은 국지전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큰 전면전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상호인식하게 된 것이었다.¹⁸²⁾ 워커의 지적대로 전쟁은 냉전에서 국제적 통제라는 하나의 체도를 정착시킨 것이다.¹⁸³⁾ 그리고 이로써 동북아의 냉전은 완전히 고착되게 된다.

Resolution 24-4 (December 1980), pp. 563-592.

179) Jone Lewis Gaddis, *The Long Pe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김영호, “6·25전쟁의 국내 및 국제정치적 영향에 관한 연구,” 『군사』 (79)호 (2011), p. 165; 김명섭 (2003), pp. 118-120. 디포티(A. W. DePorte)는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독일의 채무장이 것처럼 빨리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A. W. DePorte, *Europe Between the Superpowers: The Enduring Balance*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9), pp. 156-165, 189를 참조할 것.

180) 김영호 (2011), p. 173.

181) 김명섭 (2003), p.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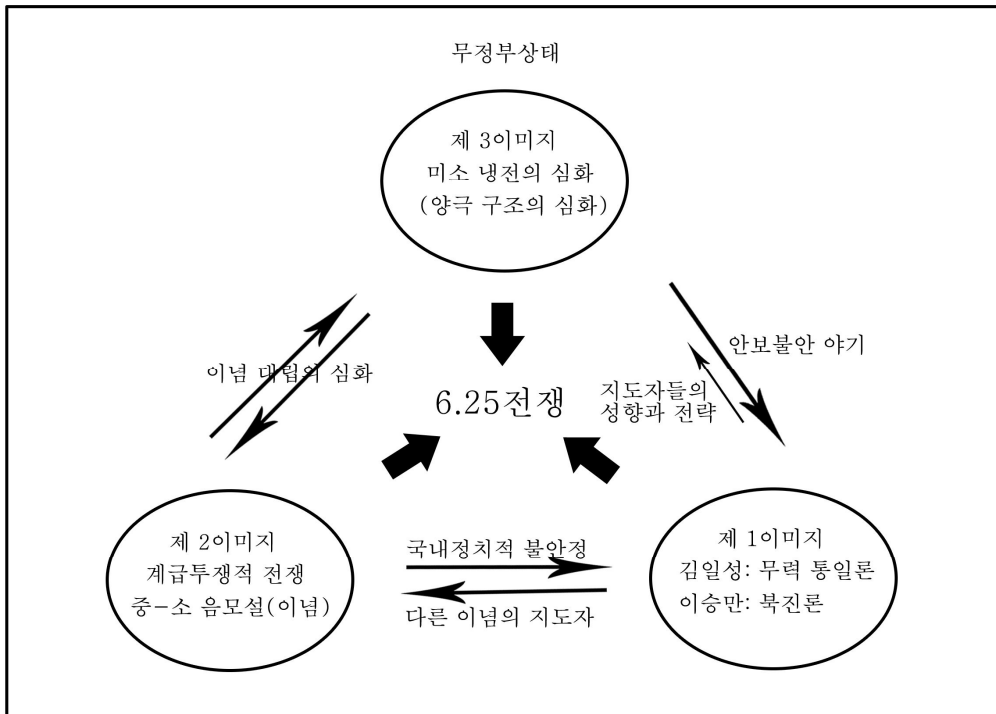
182) Martin Walker, *The Cold War: A History* (New York: H. Holt, 1994), p. 82.

183) Walker, (1994), p. 82.

제 4 절 분석결과

6·25전쟁에 관한 논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냉전기 '6·25전쟁의 기원' 분석결과



냉전기 6·25전쟁에 대한 원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이미지에 의한 전쟁원인 분석은 남, 북한의 지도자였던 이승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설명이었다. 이승만의 경우 제 1이미지인 그의 성향, 제 2이미지인 국내정치적 사정, 제 3이미지인 미소냉전이 그에게 영향을 주어 전쟁을 감행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김일성의 경우도 제 1이미지인 그의 성향과 제 2이미지인 권력투쟁, 제 3이미지인 미소 냉전을 통해 전쟁을 개시했다는 설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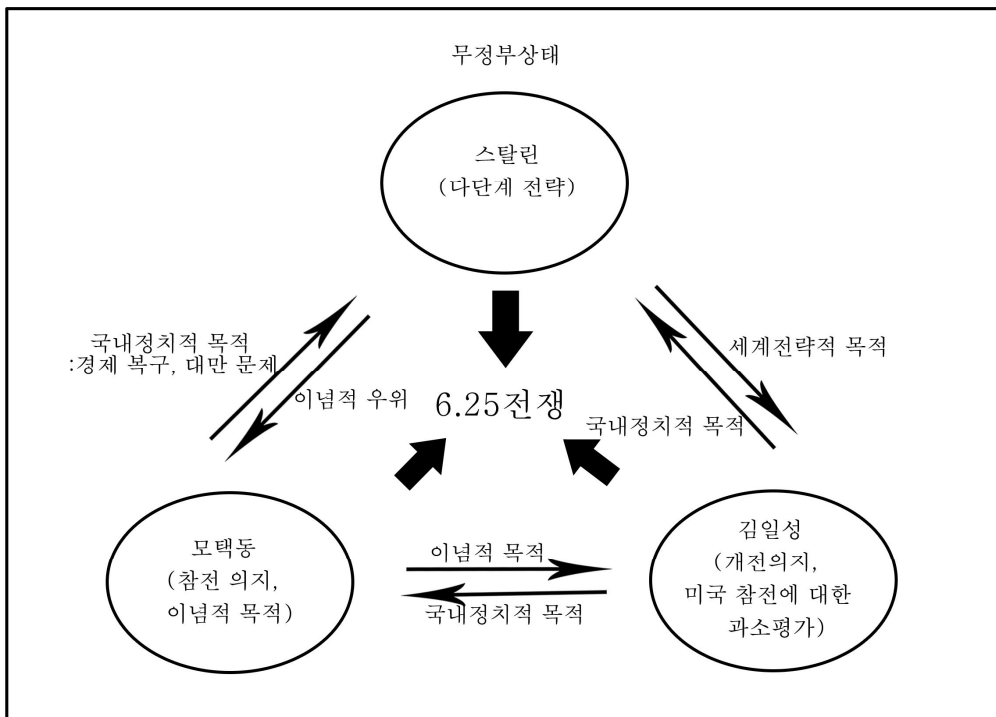
었다.

다음으로 2이미지에 해당하는 주장은 먼저 내전론이 있었다. 남북한의 국경분쟁과 내재적인 불협화음이 전쟁으로 확산되었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제 2이미지인 이념을 중심으로 중국과 소련이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해 전쟁을 개시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3이미지인 미소냉전 양극체제는 전쟁의 배경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양극체제의 심화는 제 2이미지 상에서의 이념대립과 함께 상승효과를 유발, 전쟁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각 이미지별 상관관계를 보면 먼저 제 1이미지인 지도자들의 성향이나 전략이 양극 구조라는 제 3이미지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은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양극 구조의 심화는 지도자들에게 안보의 불안을 야기하였다. 다음으로 제 2이미지인 국내정치적 불안정은 양 지도자들에게 무력통일론이나 북진론을 주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남북한 정부의 수립 후에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다른 이념이 제 2이미지인 체제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탈냉전기 6·25전쟁의 기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 공개된 문서를 통해 전쟁은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의 3자 공모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세 지도자들이 전쟁개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탈냉전기 제 1이미지로 본 ‘6·25전쟁의 기원’ 분석결과



우선, 1949년까지만 해도 김일성의 끊임없는 전쟁 요청을 수락하지 않은 스탈린은 변화하는 국제상황, 즉 ‘중국의 공산화’에 영향을 받아 전쟁을 수락하였다. 이는 그의 냉전전략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냉전의 기원’과 ‘한반도 분단’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탈린은 양극체제하에서 점진적 공산화 전략을 구사하며 현상타파를 피하고 있었으나, 실제적

으로는 미국보다 열세한 군사력, 경제력 등으로 알타협상을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화, 그리고 핵의 보유는 스탈린이 냉전전략에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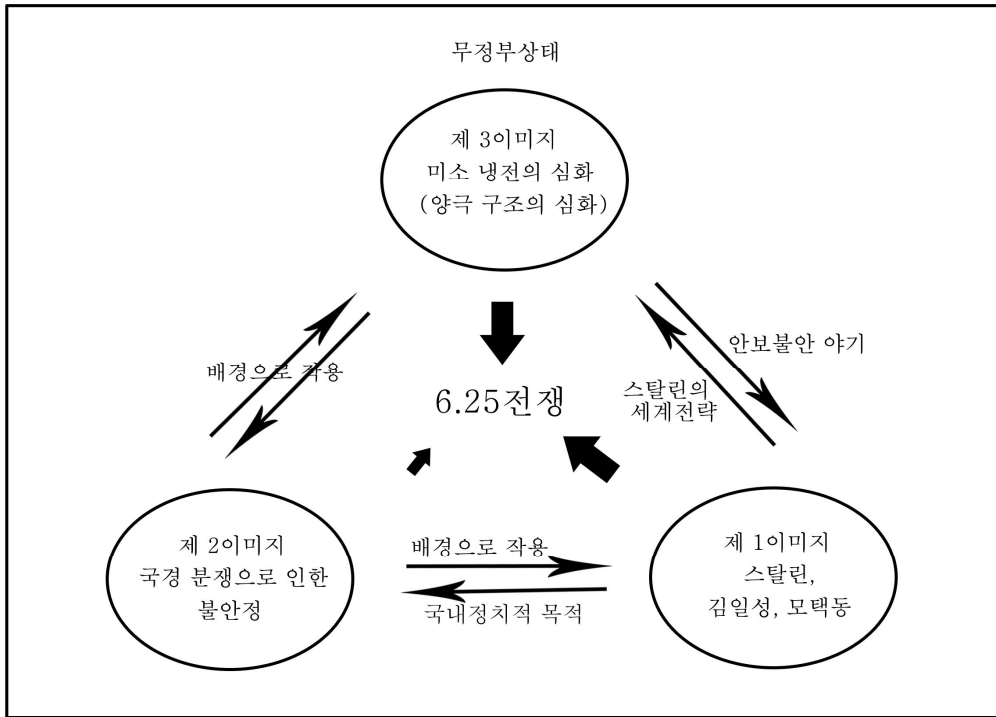
따라서 스탈린은 전쟁 논의에 있어 중국을 참여하게 하는 다단계 전략을 구사하였다. 국내정치적 이유로 스탈린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모택동을 이용하여, 전쟁이 발생하여도 자신의 책임소재는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또한 전쟁이 확전된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의 대결을 이용, 미국의 세력을 동아시아에서 제거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요약하자면 스탈린은 변화하는 국제상황을 이용, 6·25전쟁을 승인하고 적극적인 전략으로 냉전대결에서 승기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모택동의 경우, 내전에서 승리한 후, 더욱 이념적 동질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김일성의 전쟁 승인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택동은 '38선의 국제적 의미'를 강조하며 중국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스탈린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내전 후 시급한 중국의 경제복구에 스탈린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냉전시기의 주장이었던 북한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전쟁 개시는 그 설득력을 상실하였다. 비록 박헌영과의 권력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전쟁 개시에 있어서는 김일성과 박헌영 둘 다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또한 김일성은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참전여부를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결국 그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큰 오류를 범했다.

다음은 탈냉전기 6·25전쟁의 원인론을 세 가지 이미지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10> 탈냉전기 ‘6·25 전쟁의 기원’ 분석결과



상기한 것처럼, 6·25전쟁의 개시에는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제 2이미지에 의한 설명이었던 남북한 내전론이나 이념이 중심이 된 중-소 음모설은 그 설득력을 상실하였다. 내전론의 경우, 소련, 북한, 중국의 세 지도자의 공모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그 설득력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내전론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토지개혁의 미비’나 ‘국경충돌의 확산’역시 남한에서도 토지개혁이 완수되었다는 연구와 국경분쟁의 통제가 스탈린에 의해 가능했다는 문서로 인해 그 설득력이 상실되었다. 다만

내전의 상황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불안정한 남북한의 공존상태는 여전히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3이미지인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는 전쟁에 있어 배경적 역할을 하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1947년을 계기로 심화된 냉전분위기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들의 체제를 고수, 확산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때마침 중국 공산화 성공은 미국과 소련 양측에게 냉전전략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소련의 스탈린은 상기한 대로 국제적 상황을 이용하여 김일성이 중국의 전쟁 동의를 얻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좀 더 적극적인 냉전 전략을 구사하였다. 스탈린의 세계전략은 양극체제의 심화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냉전기 미국의 남침유도설은 오류로 밝혀졌지만, 미국 역시 양극체제하 소련과의 대결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쟁 발발 즉시 참전을 결정하였고, 전쟁과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북한과 대결하였다.

제 6 장 결론

냉전은 이질적 체제인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었다. 20세기 새로운 문명사적 특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였던 냉전은 기존 제국주의 질서의 세계가 끝나고 진행된 또 다른 국제질서의 등장이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냉전을 조망한다는 것은 시간적, 혹은 특정지역 안에서의 미소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냉전기의 냉전연구나 한국현대사, 그리고 동북아 냉전연구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과 소련의 관계인 냉전과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던 지역의 연구를 소련 및 공산권 측 자료 없이 해석해 왔기 때문이다.

기존의 냉전연구는 책임론적 성격과 이념적 도식화가 강한 전통주의, 수정주의, 후기수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탈냉전기 소련문서 공개는 이러한 기존의 편견과 오류를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탈냉전기에 들어서서 학자들은 소련과 구공산권의 문서 공개로 인해서 냉전기에 제기된 가설과 주장들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탈냉전기의 광범위한 연구들의 성과를 반영하여, 냉전체제 하의 사건으로서 ‘한반도 분단’, ‘동북아 냉전’, ‘6·25전쟁’을 월츠의 이론 틀로 통합적으로 보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월츠는 국제정치 현상을 고찰하기 위해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한 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 이미지는 인간의 본성에 의거한 해석이었다. 역사속의 사건들은 그 역사를 만드는 인물을 제외하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개인적 요인으로 특정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월츠는 전쟁을 분석하며, 인간의 본성 중 이기심을 전쟁의 원인으로 내세웠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 1이미지에 의한 분석의 한계는 인간의 또 다른 성향인 선함과 그로인한 평화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데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제 2이미지에 의한 국제 현상에 대한 설명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국가의 속성을 통한 분석이다. 국가의 체제가 특정 현상에 중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었다. 월츠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들과 국가들이 전쟁의 발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한 학자들과 사상가들의 다양한 글을 검토하였다. 그렇지만 그가 ‘민주평화론’ 등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특정한 정부나 국가체제가 들어서면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주장들은 ‘모든 국가의 협력’이라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월츠는 제 2이미지를 통한 전쟁의 원인 규명 노력 역시, 전쟁에 관련된 모든 문제와 현상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월츠가 강조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는 전쟁을 필연적으로 도출하는 국제적 구조인 국가 체제적 요인이다. 제 1, 2 이미지가 전쟁을 촉발하는 직접적 원인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는 전쟁의 배경적 요인이 되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구조’를 뜻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 번째 이미지 역시 그것만 가지고는 모든 전쟁의 발발과 관련된 국가의 특징과 그 차이점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월츠는 이렇게 각 이미지를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제시하여 세 가지 이미지가 서로를 보완해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전쟁의 원인을 고찰한 그의 시도는 한 가지 이미지만으로 전쟁을 분석했을 때 나오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개인, 국가, 체제 차원의 복합적 분석과 설명방식이 20세기 국제정치 상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자, 다른 형태의 전쟁으로 볼 수 있는 냉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과학적 인식에 유용하다는 인식하에, 월츠의 이미지 틀을 사용하여 냉전연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역사적, 그리고 이론적 접근을 통해 동북아의 냉전 연구에 관련된 분석의 판단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여, 냉전사의 문제들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각 국의 정책 지도자, 뚜렷한 체제 차이, 그리고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적 무정부 상태, 이 세 가지 이미지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냉전을 월츠의 이론 틀을 가지고 고찰하는 것은 큰 유용성이 있었다.

미국과 소련의 대결은 처음에는 유럽에서, 다음으로는 아시아로 그 모습을 투영시키며 확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냉전의 시작과 초기 전개과정을 탈냉전기 새롭게 공개된 문서와 월츠의 이론을 원용하여 고찰하였다. 냉전기와 탈냉전기 연구를 비교하며 고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냉전의 결정적 분기점이 트루먼 독트린이 아닌 마셜플랜이었다는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현대사의 초기모습은 바로 유럽에서의 냉전이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동북아의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던 미소공동위원회는 유럽에서의 마셜플랜을 계기로 붕괴되었다. 또한 이러한 냉전의 심화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점은 다시 소련을 자극하여 소련이 북한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하였다.

동북아 전체를 놓고 볼 때 벌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중국의 공산화였다. 중국 내전은 점차 모택동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그 과정에서 모택동은 대소 일변도 정책을 선택했다. 이전까지 얄타회담의 합의를 준수하던 스탈린은 중국 공산화의 성공 이후 입장을 변경해 중국과 동맹을 맺고, 그 시기 6·25전쟁을 승인하는 적극적인 냉전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사실상 중국의 공산화는 스탈린이 그동안 행했던 세력균형정책까지도 변경하게 하는, 동북아에서의 가장 큰 변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마셜플랜으로 촉발된 미소냉전은 ‘한반도 문제의 유엔이관’, ‘중국의 공산화’와 맞물리며 결국 ‘6·25전쟁’으로까지 연결되어 동북아 지역에서의 냉전을 열전으로 만든 것이다.

이처럼 유럽과 동북아에서의 냉전 초기 전개과정을 보았을 때 제시한 세 가지 이미지는 서로 명백하게 맞물려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본 연구의 주제들을 세 가지 이미지로 평가 할 수 있다. 먼저 ‘냉전

의 기원' 논의의 경우, 제 1이미지인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들 영향력이 냉전 발생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었다. 제 2이미지인 정치체제 차이도 냉전의 기원에 영향력을 주었다. 또한 이 국가들이 추구했던 제국도 냉전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사실상 '냉전의 기원' 분석에서는 냉전 발생에 미치는 각 이미지 요인들의 영향력이 큰 차이가 난다고 말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설정된 이미지 틀을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에 대입할 경우 각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제 3이미지의 영향력이 분단과 전쟁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정치체제나 지도자 요인은 영향력이 현저히 적었다. 제 3이미지인 미국과 소련의 상호작용은 제 2이미지인 한반도의 체제 성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남북한 지도자선택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반면 남북한 지도자들이나 국내체제 특징은 제 3이미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내체제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제적 특성이 지도자에게 영향을 주기 힘들었다. 그렇지만 제 3이미지의 영향력이 지도자들의 특성과 맞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도자의 특성이 체제적 특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동북아 냉전의 경우도 역시 제 3이미지라는 미소냉전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의 냉전에는 제 2이미지에 해당하는 '중국의 공산화 성공'과 '중소동맹'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제 3이미지와 제 2이미지가 상호 강하게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다. 중국의 공산화는 미국과 소련의 전략 변경에 가장 큰 요인이 되었고, 제 1이미지인 스탈린의 정책변경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동북아에서 이러한 스탈린의 정책변경은 미국과 소련의 상호작용보다 중국의 상황에 따라 큰 변동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제 1이미지에 해당하는 인물이 미국이나 소련의 지도자가 아닌 경우, 이들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소 대결이라는 냉전에서 모택동이나 이승만, 김일성이라는 지역지도자의 역할은 결정적일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체제차이는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체제차이만큼 분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남북한의 체제 결정은 미국과 소련으로 인해 결정된 것이다. 또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제 2이미지에 해당되는 체제요인이 동북아지역에서는 제 3이미지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지 틀에서 제 3이미지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준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건이나 동북아에서 벌어진 사건의 핵심 원인을 내부 지도자나 국가에서 찾기보다 외부 환경에서 찾는 것이 더 적절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 분단’과 ‘동북아 냉전’, 그리고 ‘6·25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제 3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냉전의 기원을 고찰하였다. 제 1이미지로서 스탈린, 루즈벨트, 트루먼을 통해 그 기원을 보았는데 새로운 문서는 스탈린에게 공산화의 청사진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루즈벨트와 트루먼 행정부의 차이점을 소련 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후기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을 재점검하게 해주었다. 제 2이미지인 체제적 특성으로 냉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적 수단이었던 마셜플랜이 냉전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 3이미지인 미소 양극구조가 두 개의 제국을 탄생시켜 냉전의 기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동학’에서의 주안점을 보면, 냉전기 설명의 가장 큰 오류는 기존 제국주의의 시대가 종식되고 새롭게 시작된 미국과 소련의 패권경쟁 속에서 시작된 분단을 한반도의 지도자와 남북한관계의 분열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무정부상태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라는 제 3이미지의 영향력에 전 세계가 지배되었던 시기의 사건을, 내부적 시각에서 고찰한 것은 객관적 원인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반도가 당시 식민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1941년 연합국들 사이에서 맺어진 ‘대서양 헌장’의 원칙에 따라서였다.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 분단의 기원’은 제 3이미지를 우선적으로 고찰해야 정확한 원인진단을 할 수 있었다.

제 1이미지에 의한 설명은 ‘이승만’과 ‘김일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냉전기 제 1이미지에 의한 분단의 원인설명이었던 ‘이승만의 분단 책임론’은 탈냉전기 소련문서로 말미암아 그 오류가 드러났다. 스탈린의 1945년 9월 지령이나, 같은 해 12월의 ‘슈킨보고서’는 당시 한반도의 분단이 제 3이미지인 소련의 냉전전략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가 된 과정도 탈냉전기 자료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분단의 기원에 있어 소련의 역할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였는지 보았다.

또한 냉전기 제 2이미지에 의한 분단의 원인이었던 ‘좌우합작의 실패’도 분단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개된 소련 문서는 그들이 가진 한반도에서의 의도가 결코 통일 지향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련의 방해가 있었던 좌우합작운동은 어느 정도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다. 물론 각 정파의 권력투쟁이나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적 요인이 분단에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냉전기와 체제형성기라는 시기적 특성은 제 2이미지인 국내체제 안에서의 분열이 분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미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냉전기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과도하게 부각시켰고 자료의 부재로 인해 문제의 핵심 원인이었던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제 3이미지에 의한 ‘한반도 분단’ 설명은 양극체제하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내에서 시도한 제국전략을 통해 살펴보았다. 냉전기에 미국이 한국을 반공보루로 삼았다는 기존연구의 오류를 당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탈냉전기 자료를 통해 소련이 북한에서 어떻게 체제이식 작업을 진행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소련의 한반도 정책은 철저하게 냉전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세력균형적인 관점에서 대 한반도 전략을 구상했던 루즈벨트의 사고 역시 해방 초기 신탁통치에 영

향을 준 것을 고려하면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소관계와 동북아 냉전의 기원’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이다. 이 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지역에서의 냉전도 한반도나 중국,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북아 냉전의 분기점으로 볼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미소공위 붕괴’, ‘일본에서의 역코스정책의 시작’, ‘중소동맹’ 그리고 ‘6·25전쟁’과 ‘샌프란시스코 체제’ 까지 어느 하나도 미국과 소련의 관계를 제외하면 그 발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고찰하기 힘들었다. 전후세계의 재편에 있어 미국과 소련의 세력경쟁은 각 국 상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공산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을 얻게 된 소련의 스탈린은 미소 협력의 상징이었던 얄타협정을 파기한 후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냉전 전략을 수행했고, 이것은 동북아 냉전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6·25전쟁과 냉전의 전개’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이다. 이 주제 역시 결과적으로 소련의 세계전략이라는 제 3이미지를 고찰하지 않고는 전쟁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불가능 하였다. 제 1이미지에 의한 설명이었던 김일성의 남침론과 이승만의 북침론은 ‘한반도 분단의 기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냉전기와 정권성립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제 3이미지 요인을 간과한 데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 소련문서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김일성의 남침계획은 스탈린의 승인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제 1이미지인 지도자의 개전의지가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둘 다 있었지만 그것이 전쟁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 양 강대국 중의 하나였던 소련지도자의 의지가 더욱 컸어야 했다. 냉전기 대표적인 주장이었던 남북한 내전론이 가졌던 오류 역시 제 3이미지에 대한 설명보다 나머지 요인들에 강조를 둔 분석에서 나왔다. 특히 전쟁 전 남북한 국경분쟁이 중단될 수 있었던 최대 이유가 소련의 명령 때문이었음에도 내전론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간과하였다.

그나마 외부적 요인으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려 했던 ‘미국의 남침유도설’이나 ‘소련의 군사목적설’ 역시 한 측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고찰하거나 문서에 의한 근거가 아닌, 당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주관적인 해석을 했던 것이 문제였다.

원용된 월츠의 이미지 틀을 가지고 냉전의 기원, 한국현대사, 동북아 냉전의 기원을 고찰하는 것은 냉전현상의 종합적 이해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 기존에 잘못된 해석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객관적 분석틀과 공개된 문서 사용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방법은 탈냉전기 냉전연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몇 가지 불충분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제 1이미지에 의한 설명은 지도자의 성향이 각 주제의 원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주제에 따라 그 인과관계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6·25전쟁의 기원’을 분석했을 때 본래의 제 1이미지에 의거한 설명은 지도자들의 성향이 전쟁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분석과정에서 소련, 북한, 중국의 전쟁결정에 관한 대화록을 분석하다보니 그들의 성향이 전쟁에 미친 영향을 보려는 초기의도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하기 힘들다.

다음으로 제 2이미지에 의한 설명의 경우, 각국의 국내정치적 사정들을 좀 더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미소냉전의 경우 미국과 소련이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결양상을 보였다는 점은 냉전의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인 외에 당시 두 국가의 내부적 사정이 어떻게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좀 더 분석하였다면 훨씬 구체적인 설명이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3이미지의 경우, 무정부상태가 미국과 소련사이에 불안정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들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협력가능성을 도외시한 문제점이 있다. 이 밖에 추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은 제

시한 세 개의 이미지 외에 또 다른 요소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냉전의 기원에는 미국인들의 반소정서도 작용하였다.¹⁸⁴⁾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상기한 세 가지의 이미지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어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유럽에서의 냉전과 동북아에서의 냉전을 좀 더 긴밀한 연관 하에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냉전의 기원’ 부분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냉전 기원을 다루었으나 유럽에서 시작된 냉전 초기 사건들이 동북아에 미친 영향력을 공개된 문서와 이론들을 기반으로 더욱 자세히 분석한다면, 양 지역에서 냉전의 모습을 더욱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지역의 냉전까지도 고찰하여 아시아 전체의 냉전 모습을 더욱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냉전의 종식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냉전 초기 시기와 냉전의 기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나 냉전의 종식에 대한 논의 역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냉전의 종식의 경우,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기존의 국제관계 이론들이 매우 큰 비판을 받은 바 있었다.¹⁸⁵⁾ 따라서 냉전의 기원논의와 결부시켜 냉전의 종식에 대해서도 이론적, 역사적 접근을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한다면 향후 동북아 지역의 냉전종식 대비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184) Levering, Ralph B. and Verena Botzenhart-Viehe, “The American Perspective,” in Levering, Ralph B., *Debating the Origins of the Cold Wa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p. 25.

185) 냉전 종식의 예측 실패에 관한 논의는 고대원, “국제관계이론과 탈냉전,” 이기택 편,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 (서울: 일신사, 1996), pp. 31-55; John Lewis Gaddi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7-3 (Winter 1992/1993), pp. 5-58; Robert Jervis, “The Future of World Politics: Will It Resemble the Past?,” *International Security* 16-3 (Winter 1991/1992), pp. 39-93; Pierre Allan and Kjell Goldman (eds.), *The End of Cold War: Richard Ned Lebow and Thomas Risse-Kappen*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 3 , E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John Prados, *How the Cold War Ended: Debating and Doing History* (Washington, D.C.: Potomac Books, 2011) 등을 참조할 것.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덧붙인다. 이 논문을 통해 각 주제에 세 가지 이미지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볼 수 있었다. 특히 한반도에서 제 3이미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적인 상황이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대치는 60년 이상 계속되고 있고, 비록 미소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G-2로 대표될 수 있는 현재의 미-중 구도는 강대국의 치열한 세력 다툼이 한반도 외부에서 그 주체만 바뀐 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의 기원에서 미국과 소련의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듯이 한반도 냉전의 종식에는 미국과 중국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이 냉전초기에 비해 현저히 달라진 것은, 당시 영향력이 거의 없었던 제 2이미지 요인이 지금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강국의 전략을 살피지 못하면 통일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정책결정자들은 통일을 위한 세 가지 이미지 차원의 전략적 고려를 해야 한다.

미국과 소련의 대결인 냉전은 결국 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과 함께 국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현재 건국 65주년을 맞이하였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G-20 의장국이 될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다. 반면 소련과 함께 역사를 시작한 북한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국가이자 최극빈국으로 전략하였다. 한미동맹 60년과 정전협정 60년이 된 2013년, 냉전의 기원에 관한 본 연구는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의 구성원들에게 그 방법에 대한 근본적 통찰력의 필요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자료 및 전기류

1) 국문

(1) 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서울신문』, 『신한민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해방일보』

(2) 공식 간행물

공보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서울: 공보처, 1953.

국방군사연구소 편.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Korea 1(1948-1950)』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서울: 국방부, 1968.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1)』 과천: 대한민국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1982.

국사편찬위원회 편. 『소련군정문서, 남조선 정세 보고서』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200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외무부 편. 『한국외교 30년: 1948-1978』 서울: 외무부, 1979.

외무부.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1949.1~1953.8)』 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1994.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역사연구소. 『조선노동당 략사』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 1979.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국내편) 1949년』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3) 전기, 증언, 회고록 등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_____.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조국의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리승만. 『독립정신』 서울: 정동출판사, 1993.
임병직. 『임정에서 인도까지』 서울: 여화사, 1966.
조병욱. 『나의 回顧錄』 서울: 語文閣, 1963.

2) 영문

(1) 공식 간행물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이하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Diplomatic Papers 1942, Vol. 1: General;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0.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43: The Conference at Cairo and Tehera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U.S. Department of State. *FRUS* Diplomatic Papers 1943, Vol.3: The British Commonwealth, Eastern Europe, The Far Eas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3.

U.S. Department of State. *FRUS* Diplomatic Papers 1945: The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5.

U.S. Department of State. *FRUS* Diplomatic Papers 1945, Vol.2: The Conference of Berlin (The Potsdam Conferenc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0.

U.S. Department of State. *FRUS* Diplomatic Papers 1945, Vol. 2: General: Political and Economic Matter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U.S. Department of State. *FRUS* Diplomatic Papers, 1945, Vol.5: Europ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46, Vol.6: Eastern Europe, the Soviet Un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46, Vol.8: The Far Eas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47, Vol.6: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48, Vol.6: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48, Vol.8: The Far East: China,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3.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49. Vol.9:The Far East: China,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50, Vol.7: Kore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2) 전기, 증언, 회고록 등

Churchill, Winston. *Triumph and tragedy*. New York: Bantam Books, 1962.
Kennan, George Frost. *Memoirs(1925-1950)*. Boston: Little, Brown, 1967.
_____. *Memoirs(1950-1963)*. Boston: Atlantic Monthly Press, 1972.
Khrushchev, Nikita Sergeevich, Edward Crankshaw, and Strobe Talbott. *Khrushchev Remembers*. Boston, MA: Little, Brown, 1970.
Louise, Yim. *My Forty Year Fight for Korea*. New York: A. A. Wyn, 1951.
Truman, Harry S. *Memoirs by Harry S. Truman. (Vol.1)* New York: A Sigent Book, 1955.
_____. *Memoirs by Harry S. Truman. (Vol.2)* New York: A Sigent Book, 1955.
Resis, Albert. ed. *Molotov Remembers*. Chicago: I.R. Dee, 1993.
Roosevelt, Eleanor. *This I Remember*. New York: Doubleday Co., 1961.

2. 단행본

1) 국문

개디스, 존 루이스. 강규형 역. 『역사의 풍경』 서울 : 에코리브르, 2004.
_____. 정철·강규형 역. 『냉전의 역사』 서울: 에코리브르, 2010.
공산권문제연구소 편. 『김일성을 고발한다』 서울: 신명, 1982.
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2)』 서울: 역사비평사, 1995.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파주: 한울, 2008.
김성보·이종석. 『북한의 역사』 서울: 역사비평사, 2011.
김영호 외. 『6·25 전쟁의 재인식』 서울: 기파랑, 2010.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서울: 두레, 1998.

- _____. 『대한민국과 국제정치』 서울 :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 김용구. 『世界外交史』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김일성. 『인민공화국수립의 길: 중요보고집』 평양: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부, 1947.
- 김일영·조성렬 공저. 『주한미군』 파주: 한울, 2003.
- 김중환. “애치슨의 태평양 방위선과 한국전쟁.”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진희. 『프랭클린 루즈벨트』 서울: 선인, 2012.
- 김학준. 『북한의 역사(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_____. 『북한의 역사(2)』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_____. 『한국전쟁』 서울: 博英社, 1989.
- _____. 『한국전쟁』 서울: 博英社, 2003.
- _____. 『한국전쟁』 서울: 博英社, 2010.
-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뒤로젤, J.B. 노재봉 역. 『구주외교사』 서울: 박영사, 1984.
- 매트레이, 제임스 I. 구대열 역.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 미국의 대한 정책, 1941-1950』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모택동. 김승일 역. 『모택동 선집 4』 서울: 범우사, 2008.
- 바자노프, 예프게니·나탈리아 바자노바 공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한국 전쟁의 진말』 서울: 열림, 1998.
- 박동운. 『북한통치기구론』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4.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서울: 나남출판, 1996.
- _____.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서울: 나남출판, 1996.
- 박병엽. 유영구·정창현 엮음.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 서울: 선인, 2010.
- 박종효.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서울: 선인, 2010.
- 볼코고노프, 드미트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스탈린』 서울: 세경사, 1993.
- 서대숙. 서주석 역. 『(북한의 지도자)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 서비스, 로버트. 윤길순 역. 『스탈린 : 공포의 정치학, 권력의 심리학』 서울: 교양인, 2010.
- 서재진.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석한섭. “중국 대외정책형성에 미친 민족주의의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3.
- 손세일. 『李承晩과 金九』 서울: 一潮閣, 1970.
- 솔즈베리, 해리슨 E. 박윌라·박병덕 역. 『새로운 황제들』 서울: 다섯수레, 1993.
- 송남헌. 『解放三年史(1)』 서울: 까치, 1985.

- _____. 『解放三年史(2)』 서울: 까치, 1985.
- 스노우, 에드가. 홍수원 외 역. 『중국의 붉은 별(상)』 서울: 두레, 2002.
-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국 공산주의운동사』 서울: 돌베개, 1987.
- 시모토마이 노부오. 이종국 역. 『모스크바와 김일성: 냉전기의 북한 1945~1961』 서울: 논형, 2012.
- 신복룡 편. 『韓國 分斷史 資料集 2』 서울: 原主文化社, 1991.
- _____. 『韓國 分斷史 資料集 3-3』 서울: 原主文化社, 1991.
-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과주: 한울, 2011.
- 심지연. 『韓國 民主黨 研究』 서울: 풀빛, 1982.
- _____. 『한국정당정치사』 서울: 백산서당, 2006.
- 쑤이, 데이빗.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中國의 6·25 戰爭 參戰』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 양성철. 『분단의 정치』 서울: 한울, 1987.
-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전2권)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1972.
- 올리버, 로버트. 황정일 역. 『이승만』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 우남실록편찬회. 『우남실록』 서울: 우남실록편찬회, 1976.
- 월츠, 케네스. 정성훈 역. 『인간 국가 전쟁』 서울: 아카넷, 2007.
-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서울: 중앙일보사, 1996.
- _____. 『젊은날의 이승만 : 한성감옥생활(1899-1904)과 옥중잡기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이근욱. 『냉전: 20세기 후반의 국제정치』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2.
- _____.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과주 : 한울아카데미, 2009.
- 이기택. 『국제정치사』 서울: 일신사, 2000.
- 이명영. 『金日成烈傳』 서울: 新文化社, 1974.
- 이승만. 『일민주의개술』 서울 : 一民主義普及會, 1949.
- 이완범. 『38선 획정의 진실』 서울: 지식산업사, 2001.
- 이정식. 권기봉 역.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청년시절』 서울: 동아일보사, 2002.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이주영. 『(우남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서울: 김&정, 2008.
- 이주천. 『루즈벨트의 친소정책: 1933-1945』 서울: 신서원, 1998.
- 이호재. 『韓國 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 서울: 法文社, 2000.
- 전현수 편저. 『쉬떡꼬프일기』 경기도: 국사편찬위원회, 2004.
- 정병준. 『몽양 여운형 평전』 서울: 한울, 1995.
- _____. 『우남이승만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2005.

정세현.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 서울: 형성사, 1982.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상)』 서울: 아카데미리서치, 2002.

조순승. 『한국분단사』 서울: 형성사, 1982.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상)』 서울: 中央日報社, 1992.

_____. 『(秘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 서울: 中央日報社, 1992.

차기백. 『민족주의원론』 서울: 한길사, 1990.

최종고 편저. 『우남 이승만 : 독립, 자유, 민주를 외치다』 파주 : 청아, 2011.

코로트코프, 가브리엘. 어진주 역. 『스탈린과 김일성(1)』 서울: 동아일보사, 1992.

툼슨, 존 M. 김남섭 역.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서울: 사회평론, 2004.

한수인. 김자동 역. 『대지의 별』 서울: 일월서각, 1986.

한승인. 『독재자이승만』 서울: 일월서각, 1984.

호그, C. L. 신복룡·김원덕 공역. 『한국분단보고서(하)』 서울: 풀빛, 1992.

2) 영문

Akira, Iriye. *The Cold War in Asia: A Historical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4.

Allan, Pierre and Kjell Goldman. eds. *The End of Cold War: Evaluat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Alperovitz, Gar. *Atomic Diplomacy*. London: Boulder, Colo.: Pluto Press, 1994.

Ambrose, Stephen E. *Rise to Globalism*. New York: Penguin Books, 1993.

Beria, Sergo. *My Father: Inside Stalin's Kremlin*. London: Gerald Duckworth and Company, 2001.

Bong, Baik. *Kim Il Sung Biography(I)*. Beirut: Dar Al-Talia, 1973.

Buzan, Barry, Charles Jones, and Richard Little. *The Logic of Anarchy: Neorealism to Structural Re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Brinkley, Douglas and David R. Facey-Crowther. *The Atlantic Charte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Buhite, Russell D. *Soviet-American Relations in Asia, 1945-1954*.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81.

Clubb, O. Edmund. *China & Russia: the Great gam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1.

Cohen, Warren I. ed. *New Frontiers in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Essays*

- Presented to Dorothy Bor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 Cohen, Warren I. *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Vol. 4, America in the Age of Soviet Power, 1945–199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Craig, Campbell and Sergey Radchenko. *The Atomic Bomb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 Cummings, Bruce. *Korea's Place in the Sun*. New York: Norton, 1997.
- _____.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_____.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2)*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Dallek, Robert. *Franklin D. Roosevelt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32–19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_____. *Franklin D. Roosevelt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32–19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Dallin, David J. *Soviet Foreign Policy After Stalin*. New York: Lippincott, 1961.
- DePorte, A. W. *Europe Between the Superpowers: The Enduring Balance*.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9.
- Deutscher, Isaac. *Stal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Djilas, Milovan. *Conversations with Stali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2.
- Dobbs, Michael. *Six Months in 1945: FDR, Stalin, Churchill, Truman, and Truman—From World War to Cold War*. New York: Knopf, 2012.
- Etzold, Thomas H. and John Lewis Gaddis. eds. *Contain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 Feis, Herbert. *Churchill, Roosevelt, Stalin: The Way They Waged and the Peace They Sough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Ferrell, Robert H. *American Diplomacy*. New York: Norton, 1975.
- Fleming, Denna Frank. *The Cold War and Its Origins, 1917–1960. (Vol.1)* Garden City, N.Y.: Doubleday, 1961.
- Gaddis, John Lewis. *Strategies of Containment*. Oxford: New York, 1982.
- _____. *The Long Pe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_____.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1941–1947*.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
- _____. *We Now Know*. Oxford: Clarendon Press, 1997.

- Gallicchio, Marc S. *The Cold War Begins in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Gardner, Lloyd C. *Spheres of Influence*. Chicago: I.R. Dee, 1993.
- Geller, Daniel S. and Singer, J. David. *Nations at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Gittings, John. *The World and China, 1922–1972*. New York: Harper & Row, 1974.
- Goldgeier, James. M. *Leadership Style and Soviet Foreign Policy: Stalin, Khrushchev, Brezhnev, Gorbachev*. Baltimore, Md.: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 Goncharov, Sergei N.,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 Greenstein, Fred I. *Personality and Politics: Problems of Evidence, Inference, and Conceptualization*. New York: Norton, 1975.
- _____. *The Presidential Difference: Leadership Style from FDR to Barack Obama*. Princeton, N.J.; Woodstock: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 _____. *The Presidential Difference: Leadership Style from FDR to Clinton*. New York: Free Press, 2000.
- Greer, Thomas H. *What Roosevelt Thought*.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 Press, 1958.
- Grob, Gerald N. and George Athan Billias. *Interpretations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Free Press, 1978.
- Gurtov, Melvin and Byong–Moo Hwang. *China Under Threat: The Politics of Strategy and Diplom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0.
- Halle, Louis Joseph. *The Cold War as History*. New York, NY: HarperPerennial, 1991.
- Harriman, W. Averell and Elie Abel.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New York: Random House, 1975.
- Haslam, Jonathan. *Russia's Cold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1.
- Herring, George C. *Aid to Russia, 1941–1946*.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3.
- Hobbes, Thomas, Macpherson C. B. ed. *Leviathan*. London: Penguin, 1985.
- Hogan, Michael J. *The End of the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Hollis, Martin and Steve Smith.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 Relations*. Oxford: Clarendon, 1990.
- Holloway, David. *Stalin and the Bom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 Hunt, Michael H. *Crises in U.S. Foreign Poli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6.
- Iriye, Akira. *The Cold War in Asia: A Historical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74.
-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Jian, Che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Joel, Issac and Duncan Bell. *Uncertain Empire: American History and the Idea of the Cold War*.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Kennan, George Frost. *Realities of American Foreign Poli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4.
- Keohane, Robert O.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 Kissinger, Henry.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1994.
- Kolko, Gabriel. *The Politics of War*. New York: Random House, 1968.
- _____. *The Roots of American Foreign Policy*. Boston: Beacon Press, 1969.
- Kolko, Joyce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New York: Harper & Row, 1972.
-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 Lafeber, Walter, Richard Polenberg, and Nancy Woloch. *The American Century. (Vol.2)* New York: Alfred A.Knopf, 1986.
- Lankov, Andrei N. *From Stalin to Kim Il Sung*.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 Lebow, Richard Ned and Thomas Risse–Kappe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 Leffler, Melvyn P. and David S. Painter. *Origins of the Cold War*. London: New York, 1994.
- Leffler, Melvyn P.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1)*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_____.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 Cold War. (Vol.2)*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 _____.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3)*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Leffler, Melvyn P. *For the Soul of Mankind: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and the Cold War.* New York: Hill and Wang, 2007.
- Levering, Ralph B. *Debating the Origins of the Cold Wa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 Lieber, Robert J. *Theory and World Politics.* London: Allen and Unwin, 1973.
- Lippmann, Walter. *The Cold War: A Study in U.S.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7.
- Maddox, Robert James. *The New Left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 Markey, Daniel Seth. "The Prestige Motive in International Relation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2000.
- Marks, Frederick W. *Wind Over Sand.*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8.
- Mastny, Vojtech. *The Cold War and Soviet Insecur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McCauley, Marti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1941–1949.* London: New York, 1995.
- McCullough, David G. *Truman.* New York: Simon & Schuster, 1992.
- McDermott Kevin. *Stalin: Revolutionary in an Era of War.* Basingstoke [England]: Palgrave Macmillian, 2006.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 Merrill, John Roscoe. *Korea.* 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 Miscamble, Wilson D. *From Roosevelt to Truma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Knopf, 1973.
- Montefiore, Simon Sebag. *Stalin: The Court of the Red Tsar.* New York: Vintage Books, 2005.
- Naimark, Norman M. *Stalin's Genocid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
- _____. *The Russians in Germany.*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Nagai, Yonosuke and Akira Iriye.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 Nelson, Anna Kasten. *The State Department Policy Planning Staff Papers 1947–1949. (Vol. 1)*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86.
- _____. *The State Department Policy Planning Staff Papers 1947–1949. (Vol. 2)*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86.
- Nisbet, Robert A. *Roosevelt and Stalin*. Washington, D.C.: Regnery Gateway, 1988.
- Nye, Joseph S.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New York: Longman, 2003.
- Oh, Bonnie B. C. ed. *Korea Und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1945–1948*. Westport, Conn.: Praeger, 2002.
- Oliver, Robert T.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A Personal Narrative*. Seoul: Panmun Book Company, 1978.
- Paterson, Thomas G. e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Lexington, Mass.: Heath, 1974.
- Paterson, Thomas G. *On Every Front*. New York: W.W. Norton, 1992.
- _____. *Soviet–American Confrontation: Postwar Reconstruction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 Perlmutter, Amos. *FDR & Stalin: A Not So Grand Alliance, 1943–1945*.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93.
- Prados, John. *How the Cold War Ended: Debating and Doing History*. Washington, D.C.: Potomac Books, 2011.
- Radzinsky, Edvard. Willetts H.T. (Trans.) *Stalin: The First In-Depth Biography Based on Explosive New Documents from Russia's Secret Archives*. New York: Hodder&Stoughton, 1996.
- Ree, Erik van. *Socialism in One Zone*. Oxford England: Distributed in the US and Canada by St. Martin's Press, 1989.
- _____. *The Political Thought of Joseph Stalin: A Study in Twentieth-Century Revolutionary Patriotism*. England: Routledge Curzon, 2002.
- Rummel, R.J. *Understanding Conflict and War*. Beverly Hills: Sage, 1979.
- Russett, Bruce.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 Principles for a Post-Cold War Wor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Salisbury, Harrison Evans. *War Between Russia and China*. New York: Norton, 1969.

- Scalapino, Robert A. and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 (Vol.1)*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Schaller, Michael.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Schram, Stuart R.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New York; London: Frederick A. Praeger, 1963.
- Shambaugh, David. ed. *Deng Xiaoping: Portrait of a Chinese Statesm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Simmons, Robert R. *The Strained Alliance.* New York: Free Press, 1975.
- Snow, Edgar. *The Other Side of the River, Red China Today.* New York: Random House, 1962.
- Snyder, Jack. *From Voting to Violence.* New York: W. W. Norton, 2000.
- Spanier, John.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New York: Holt, 1983.
- Stoessinger, John G. *Why Nations Go to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8.
- Stone, I. F.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52.
- Syngman, Rhee. *Japan Inside Out.* New York: London and Edinburgh, 1941.
- Taubman, William. *Stalin's American Policy.* New York: Norton, 1982.
- Thompson, Kenneth W. *Cold War Theories.*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1.
- Thornton, Richard C. *Odd Man Out: Truman, Stalin, Mao,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Brassey's, 2001.
- Tourtellot, Arthur Bernon. ed. *Woodrow Wilson: Selections for Today.*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1945.
- Tsou, Tang. *America's Failure in China, 1941-1950. (Vol. 2)*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 Tucker, Nancy Bernkopf. *Patterns in the Dust: Chinese-American Relations and the Recognition Controvers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 Ulam, Adam Bruno. *Expansion and Coexistence.* New York: Praeger, 1974.
- _____. *The Rivals: America and Russia Since World War II.* New York: Viking Press, 1971.
- Van Slyke, Lyman P. ed. *The Chinese Communist Movement: A Report of the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July 19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8.

- Walker, Martin. *The Cold War: A History*. New York: H. Holt, 1994.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Waltz, Kenneth Neal.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Mass.: McGraw-Hill, 1979.
- Williams, William Appleman. *The Tragedy of American Diplomacy*. New York : W.W. Norton & Co., 2009.
- _____. *The Contours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W.W. Norton, 1988.
- Yergin, Daniel. *Shattered peace*. Boston: Houghton Mifflin, 1977.
- Zubok, Vladislav M. and Konstantin Pleshakov, *Inside the Kremlin's Cold Wa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3. 논문

1) 국문

- 강만길. “민족분단의 역사적 원인.” 강만길. 『한국민족운동사론』 과주: 서해문집, (2008), pp. 108-136.
- _____. “좌우합작운동의 경위와 그 성격.” 송건호·강만길 공편. 『한국민족주의론2』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9, pp. 62-108.
- 고대원. “국제관계이론과 탈냉전.” 이기택 편.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 서울: 일신사, 1996, pp. 31-55.
-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제1권 1호 (2009), pp. 29-71.
- 기광서. “8.15 해방에서의 소련군 참전 요인과 북한의 인식.”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 (2005), pp. 1-22.
- _____. “훈령으로 본 소련의 미소공동위원회 전략.” 『역사문제연구』 24호 (2010), pp. 299-335.
- 김갑철. “북한의 소비에트화과정.”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정치론』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6, pp. 72-106.
- 김계동. “한반도 분단·전쟁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1호 (2001), pp. 345-363.

- 김광운. “전쟁이전 북한 인민군의 창설과정.”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3-53.
- 김남섭. “그루지야의 혁명사에서 소련의 독재자로: 스탈린의 신화와 현실.” 『인문논총』 제57권 (2007), pp. 211-242.
- 김도현. “이승만 노선의 재검토.”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1)』 서울: 한길사, 1995, pp. 360-392.
- 김동길. “1945년-1950년 중·미 관계와 “중국상실론” 비판.” 『동양사학회』 제111권, (2010), pp. 267-311.
- 김명섭.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의 변동과 6자회담.” 『국방연구』 제50권 2호 (2007), pp. 57-83.
- _____. “한국전쟁이 냉전체제의 구성에 미친 영향.” 『국제정치논총』 제43권 1호 (2003), pp. 115-133.
- 김성보. “소련의 대한정책과 북한에서의 분단질서 형성, 1945~1946.” 역사문제연구소.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p. 49-94.
- 김신웅. “냉전의 기원론(起源論)에 대한 일고찰.” 『역사교육논집』 제6권 1호 (1984), pp. 125-144.
- 김영호. “동아시아와 케난의 딜레마.” 『한국과 국제정치』 제14권 2호 (1998), pp. 241-269.
- _____. “외교사와 국제정치이론 사이의 학제간 연구의 쟁점과 과제: 탈냉전기 미국의 대논쟁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권 2호 (2004), pp. 185-211.
- _____.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비판적 고찰.” 『國際政治論叢』 제37권 2호 (1998), pp. 3-23.
- _____. “탈냉전기 냉전 기원의 새로운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2호 (2001), pp. 445-461
- _____. “6·25전쟁의 국내 및 국제정치적 영향에 관한 연구.” 『군사』 79호 (2011), pp. 151-181.
- _____. “동북아시아 냉전의 기원에 관한 연구.” 『군사』 제67호 (2008. 6), pp. 1-27.
- _____. “동아시아와 케난의 딜레마.” 『한국과 국제정치』 제14권 2호 (1998), pp. 241-269.
- _____. “미국 외교지도자 연구: 트루먼,” 『2007년 한국세계지역학회,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공동주최 춘·하계 학술회의자료집』 (미간행), pp. 1-13.
- _____. “탈냉전과 38선 획정의 재조명: 동주(東州) 이용희(李用熙)의 「38線 劃定 新稿」를 중심으로.” 『국가와정치』 제16집 (2010), pp. 1-25.
- _____. “탈냉전과 6·25전쟁의 재인식.” 김영호 외. 『6·25 전쟁의 재인식』 서울: 기파

- 량, 2010, pp. 17-53.
- 김용구·박상섭. “냉전의 기원과 수정주의: 수정주의 주장의 비판적 검토.” 『세계정치』 (구 국제문제연구) 제10권 1호 (1986), pp. 69-88.
- 김용직. “이승만의 『독립정신』 과 후기 개화기 정치외교 담론.” 송복 외.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pp. 69-99.
- _____.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도입과 시련과 발전.” 『한국현대사연구』 제1권 1호 (2013), pp. 129-164.
- _____. “한국전쟁과 사회운동: 브루스 커밍스의 사회혁명-내전 가설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1호 (1998), pp. 35-57.
- 김정배. “냉전의 기원 : 허상과 실제.” 『역사와 경계』 제39권 (2000), pp. 245-276.
- 김학준. “6·25연구의 국제적 동향: 6·25 연구에 관한 문헌사적 고찰.” 김철범 편. 『한국 전쟁을 보는 시각』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9-52.
- _____. “第3章 韓國에서의 이데올로기적 갈등 - 解放부터 韓國戰 休戰까지 (1945-195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7권 1호 (1990), pp. 59-79.
- _____. “6·25전쟁에 관한 몇가지 예비적 토론.” 한국전쟁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pp. 17-41.
- _____.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1)』 서울: 한길사, 1995, pp. 82-124.
- 남광규. “미소공위와 미소의 조선임시정부 수립대책.” 『國際政治論叢』 제47권 3호, (2007), pp. 119-142.
- 도날드·자고리아. “중·소분쟁에 있어서의 모택동의 역할.” 『동아세아의 평화와 안보』 (1974), pp. 120-137.
- 박명림. “『건국과 이상』 에 나타난 이승만의 인식·구상·노선.” 송복 외.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pp. 211-256.
- 박인숙. “윌리엄 애플먼 윌리엄스(William Appleman Williams)의 美國 外交史論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백학순. “북한의 국가형성에 있어서 김일성의 자율성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제28권 2호 (1995), pp. 385-403.
- _____. “북한에서의 ‘단일적 지도력’의 확립과 당-국가 건설.”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 (1999), pp. 9-62.
- 신복룡. “한국전쟁의 기원: 김일성의 개전 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0권 3호 (1996), pp. 163-182.
- _____. “해방 정국에서의 박헌영(朴憲永)과 김일성(金日成)의 갈등.” 『사회과학논총』 제24권 (2000), pp. 1-46

- 양동안.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 규명.” 『정신문화연구』 제30권 4호 (2007), pp. 139-175.
- 양준희·박건영. “월츠의 환영.” 『한국과 국제정치』 제 27권 3호 (2011), pp. 63-97.
- _____. “신고전적 현실주의 비판.” 『국제정치논총』 제51집 3호 (2011), pp. 7-26.
- 양호민. “『북한학보』, 제32집 논문 : 조선노동당의 “미제국주의론” 상(上) -그 구조와 생명력-.” 『한국논단』 제219권 (2007), pp. 134-145.
- 우준모. “루즈벨트의 대 소연방 외교정책: 루즈벨트 개인변수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22권 2호 (2006), pp. 29-48.
- 웨더스비, 캐스린·강규형. “북-중-소 삼각관계가 6·25전쟁 과정과 전후 북한외교 행태에 미친 영향.” 『정신문화연구』 제33권 3호 (2010), pp. 117-142.
- 유영익. “수정주의와 한국 현대사 연구.” 유영익 편.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pp. 1-24.
- _____. “우남 이승만의 「옥중잡기(獄中雜記)」 백미(白眉).” 『인문과학』 제80권 (1999), pp. 15-69.
- 이시형. “해방후 북한체제 형성 과정에서 김일성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9권 2호 (2006), pp. 251-272.
- 이완범. “동북아냉전의 원초적 전개과정.”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권 1호 (2003), pp. 195-229.
- _____. “6·25전쟁은 복합전으로 시작되었다: 내전설과 남침유도설에 대한 비판적 조망.” 한국전쟁학회 편. 『한국 현대사의 재조명』 서울: 명인문화사, 2007, pp. 233-254.
- _____. “트루먼과 동북아 냉전.” 『미국사연구』 제21권 (2005), pp. 69-103.
- _____. “분단국가의 형성 2-소련점령군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 김용직 편.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pp. 95-122.
- _____. “한국전쟁의 국제적 기원: 세계적 냉전의 동북아 침투.” 한국전쟁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pp. 117-141.
- 이용희. “38선 劃定 新攷.” 이용희. 『李用熙 著作集1』 서울: 민음사, 1987, pp. 11-63.
- 이원덕. “한국전쟁 직전의 주한미군 철수.” 하영선.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서울: 나남, 1990, pp. 189-262.
- 이원우. “아시아에서의 冷戰의 起原.” 『平和研究』 제8권 1호 (1989), pp. 245-276.
- 이정식. “냉전의 전개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유영익 편.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pp. 67-102.

- _____. “스탈린의 한반도정책, 1945.”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서울: 일조각, 2006, pp. 178-214.
- _____. “이승만의 단독정부론 제기와 그 전개.”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서울: 일조각, 2006, pp. 427-469.
- _____. “해방전후의 이승만과 미국.”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서울: 일조각, 2006, pp. 292-325.
- _____. “해방정국과 좌우합작.”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서울: 일조각, 2006, pp. 326-372.
- _____. “해방직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서울: 일조각, 2006, pp. 155-177.
- 이정식·캐스린 웨더즈비. “스탈린은 해방 한국의 제주도를 욕심냈다.” 『신동아』 (1993년 9월호), pp. 560-579.
- 이종석. “북한지도집단과 항일무장투쟁.” 『해방전후사의 인식 5』 서울: 한길사, 1989, pp. 35-156.
- 이주천. “프랭클린 루즈벨트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냉전의 기원.” 『논문집』 제22권 1호 (1988), pp. 135-162
- 이지수.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 이인호 공편.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서울: 기파랑, 2009, pp. 55-92.
- 이철순.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에 대한 일고찰.” 『社會科學研究』 제23권 2호 (2007), pp. 213-230.
- 이홍중. “동,서양 국제정치관의 비교: 중국적 국제정치와 서구적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7권 1호 (2003), pp. 171-183.
- 장공자. “한국전쟁과 그 주역.” 『사회과학연구』 제24권 2호 (2007), pp. 63-88.
- 장준영. “미얀마 군부의 이중적 지배: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아시아연구』 제9권 3호 (2007), pp. 73-101.
- 전미영. “북한 지배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1호 (2001), pp. 233-251.
- 전진호.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수립 노선.”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서울: 나남, 1990, pp. 121-187.
- 전현수. “논문 : 한국현대사와 소련의 역할(1945~1948), 《쉬띠꼬프일기》 연구.” 『복원사립』 제27권 (2004), pp. 1-28.
- _____. “소련의 미소공위대책과 한국임시정부수립구상.” 김용섭교수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韓國 近現代의 民族問題와 新國家建設』 서울: 지식산업사, 1997, pp. 559-592.
- 정용석. “특집 : 6.25와 그 주역들 - 미국, 해리 트루먼: 트루먼의 한국전 참전 결정

- 으로 한국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돼.” 『北韓』 402호 (2005), pp. 53-60.
- 정해구. “분단과 이승만.” 『역사비평』 32호 (1996), pp. 252-288.
- 지재운. “대소일변도정책의 결정배경에 관한 연구.” 『中國研究』 제15권 (1994), pp. 58-79.
- 진덕규. “이승만의 단정론과 한민당.” 신용하 외.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1』 서울: 동아일보사, 1988, pp. 155-175.
- 차상철. “William Appleman Williams와 미국외교사.” 『역사와 담론』 제18권 (1990), pp. 177-185.
- _____. “냉전의 기원과 수정주의 학파.” 유영익 편.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pp. 25-66.
- _____. “냉전(冷戰)의 기원론.” 『북미주학연구』 제6권 (1997), pp. 71-97.
- _____. “미국의 극동정책과 아시아에서의 냉전의 기원.” 『북미주학연구』 제11권 (2002), pp. 131-147.
- 최정수. “이승만의 『미국의 영향 하에 성립된 중립론』 과 외교독립론.” 송복 외.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pp. 101-143.
- 하영선. “냉전과 한국.” 하영선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서울: 나남, 1990, pp. 15-34.
- 한주희. “모택동(毛澤東)의 민족주의와 대외정책.” 『통일전략』 제6권 1호 (2006), pp. 291-325.
- 황동하. “소련 외교지도자 연구: 스탈린.” 『2007년 한국세계지역학회,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공동주최 춘·하계 학술회의자료집』 (미간행), pp. 11-24.
- 황지환.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현상유지경향과 상대적 손실의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논총』 제 47집 3호 (2007), pp. 7-25.
- 황지환. “한반도분단과 한국전쟁의 국제정치 이론적 의미.” 제52집 3호 (2012), pp. 201-225.

2) 영문

- Adler, Les K. and Thomas G. Paterson. “Red Fascism: The Merger of Nazi Germany and Soviet Russia in the American Image of Totalitarianism, 1930's-1950'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75-4 (1970), pp. 1046-1064.
- Beazley, Kim. “Whither the San Francisco alliance system?”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7-2 (July, 2003), pp. 325-338.

- Bernstein, Barton J. "Roosevelt, Truman, and the Atomic Bomb."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0-1 (Spring, 1975), pp. 23-69.
- Bong, Youngshik Daniel. "Past is Still Present: The San Francisco System and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East Asia." *KOREA OBSERVER* 41-3 (Autumn, 2010), pp. 471-495.
- Burks, R.V. "Eastern Europe." In Black, Cyril Edwin and Thomas Perry Thornton eds. *Communism and Revolution: The Strategic Uses of Political Viol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pp. 77-116.
- Buszynski, Leszek. "The San Francisco System: Contemporary Meaning and Challenges." *Asian Perspective* 35-3 (2011), pp. 315-336.
- Buzan, Barry. "The Level of Analysis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considered." In Booth, Ken and Steve Smith.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oday*. Cambridge: Polity Press, 1995, pp. 198-216.
- Byman, Daniel L. and Kenneth M. Pollack. "Let Us Now Praise Great Men: Bringing the Statesman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25-4 (Spring 2001), pp. 107-146.
- Calder, Kent E. "US Foreign Policy in Northeast Asia." In Kim, Samuel S.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east Asia*.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3), pp. 225-250.
- Casey, Steven. "Harry S. Truman." In Casey, Steven and Jonathan Wright. *Mental Maps in the Early Cold War Era, 1945-68*. Basingstoke : Palgrave Macmillan, 2011, pp. 32-51.
- Cashman, Greg and Arthur N. Gilbert. "Some Analytical Approaches to the Cold War Debate." *The History Teacher* 10-2 (Feb 1977), pp. 263-280.
- Christensen, Thomas J. "A "Lost Chance" for What? Rethinking the Origins of U.S.-PRC Confrontation."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4-3 (Fall, 1995), pp. 249-278.
- Cohen, Warren I. "Introduction: Was There a 'Lost Chance' in China?." *Diplomatic History* 21-1 (Winter, 1997), pp. 71-76.
- Dimitrov, Vasselin. "Revolution Released: Stalin, The Bulgarian Communist Party, and the Founding of the Cominform." In Gori, Francesca and Pons Silvio. eds. *The Soviet Union and Europe in the Cold War, 1943-53*.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6, pp. 272-292.
- Doyle, Michael.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4 (December 1986), pp. 1151-1169.

- Filitov, Alexei. "Victory in the Postwar Era." In Hogan, Michael J. ed. *The End of the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77–86.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National Interest* 16 (Summer, 1989), pp. 3–18.
- Gaddis, John Lewis. "The Emerging Post–Revisionist Synthesis o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Diplomatic History* 7–2 (1983), pp. 171–190.
- _____. "On Starting All Over Again: A Naïve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Cold War." In Westad, Odd Arne. ed. *Reviewing the Cold War: Approaches, Interpretations, Theory*. London·Portland, OR: Frank Cass, 2000, pp. 27–42.
- _____. "The Corporatist Synthesis: A Skeptical View." *Diplomatic History* 10–4 (1986), pp. 357–362.
- _____.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7–3 (Winter 1992/1993), pp. 5–58.
- Gaiduk, Ilya V. "The Second Front of the Soviet Cold War: Asia in the System of Moscow's Foreign Policy Priorities, 1945–1956." In Hasegawa, Tsuyoshi. ed. *The Cold War in East Asia, 1945–1991*.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11, pp. 63–80.
- Gallicchio, Marc S. "Recovery through Dependency: American–Japanese Relations, 1945–1970." In Cohen, Warren I. ed. *Pacific Passage: The Study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on the Eve of the Twenty–First Centur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p. 247–278.
- Graebner, Norman A. "Wedemeyer Mission." In Matray, James Irving.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1)*.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2002, pp. 674–675.
- Greenstein, Fred I. "The Impact of Personality on Politics: An Attempt to Clear Away the Underbrus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3 (September 1967), pp. 629–641.
- Hara, Kimie. "Rethinking the 'Cold War' in the Asia–Pacific." *The Pacific Review* 12–4 (1999), pp. 515–536.
- Hasegawa, Tsuyoshi. "Introduction: East Asia–the Second Significant Front of the Cold War." In Hasegawa, Tsuyoshi ed. *The Cold War in East Asia, 1945–1991*.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11, pp. 1–34.
- Hogan, Michael J. "Corporatism." In Hogan, Michael J. and Thomas G. Paterson. *Explaining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Cambridg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p. 226–236
- _____. “Corporatism: A Positive Appraisal.” *Diplomatic History* 10–4 (1986), pp. 363–372.
- _____. “Introduction.” In Hogan, Michael J. ed. *The End of the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1–12.
- Jervis, Robert. “The Contributions of President Kenneth N. Waltz.”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4 (Autumn 1987), pp. 856–861.
- _____. “The Future of World Politics: Will It Resemble the Past?.” *International Security* 16–3 (Winter 1991/1992), pp. 39–93.
- _____.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Cold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4 (December 1980), pp. 563–592.
- Jones, Howard and Randall B. Woods. “Origins of the Cold War in Europe and the Near East: Recent Historiography and the National Security Imperative.” *Diplomatic History* 17–2 (1993), pp. 251–276.
- Kant, Immanuel.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In Reiss, Hans. ed. *Kant: Political Writ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p. 93–115.
- Kaplan, Lawrence S. “Responses.” *Diplomatic History* 7–2 (1983), pp. 194–197.
- Kennan(X), George Frost.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25–4 (Jul 1947), pp. 566–582.
- Kern, Gary. “How ‘Uncle Joe’ Bugged FDR?.” *Journal of the American Intelligence Professional* 47–1 (2003), pp. 19–31.
- Khrushchev, Nikita Sergeevich. “Truth About the Korean War.” *Far Eastern affairs* 1991–1 (1991), pp. 162–166.
- Kimball, Warren F. “Responses.” *Diplomatic History* 7–2 (1983), pp. 198–200.
- Koh, B.C. “B.C. Koh's Review Articl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3 (1977), pp. 1328–1330.
- Kramer, Mark. “Stalin, Soviet Policy and the Consolidation of a Communist Bloc in Eastern Europe, 1944–53.” In Tismaneanu, Vladimir. *Stalinism Revisited*. Budapest: New York, 2009, pp. 51–101.
- Leffler, Melvyn P. “The Interpretive Wars Over the Cold War.” In Martel, Gordon. *American Foreign Relations Reconsidered, 1890–1993*.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4, pp. 106–124.
- Levering, Ralph B. and Verena Botzenhart–Viehe. “The American Perspective.” In Levering, Ralph B. *Debating the Origins of the Cold War*. Lanham, Md.:

-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pp. 1–64.
- Lundestad, Geir. “Empire by Invitatio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1945–1952’.” *Journal of Peace Research* 23–3 (1986), pp. 263–277.
- Mark, Eduard. “Revolution by Degrees: Stalin's National–Front Strategy for Europe, 1941–1949.”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이하 CWIHP로 약칭) *Working Paper* No.31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Feb. 2001), pp. 5–46.
- Masao, Okonogi. “The Domestic Roots of the Korean War.” In Nagai, Yonosuke and Akira Iriye.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pp. 299–320.
- McFarland, Stephen L. “A Peripheral View of the Origins of the Cold War: The Crisis in Iran, 1941–47.” *Diplomatic History* 4–4 (October, 1980), pp. 333–352.
- Parrish, Scott D. and Mikhail M. Narinsky. “New Evidence on the Soviet Rejection of the Marshall Plan, 1947: Two Reports.” *CWIHP Working Paper* No.9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1994), pp. 1–51.
- Parrish, Scott. “A DIPLOMAT REPORTS.” *CWIHP Bulletin* Issue. 1 (Spring 1992), pp. 16, 21–22.
- Pechatnov, Vladimir O. and C. Earl Edmondson. “The Russian Perspective.” In Levering, Ralph B. *Debating the Origins of the Cold Wa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pp. 85–151.
- Pechatnov, Vladimiro O. “The Big Three After World War II: New Documents on Soviet Thinking about Post Wa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CWIHP Working Paper* No. 13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May 1995), pp. 1–25.
- Pfau, Richard. “Containment in Iran, 1946: The Shift to an Active Policy.” *Diplomatic History* 1–4 (October, 1977), pp. 359–372.
- Richardson, J. L. “Review: Cold–War Revisionism: A Critique.” *World Politics* 24–4 (1972), pp. 579–612.
- Robert L. Rothstein. “On the Costs of Realism.” *Political Science Quarterly* 87–3 (Sep. 1972), pp. 347–362.
- Rosenau, J.N.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In Farrell, R. Barry. ed. *Approaches to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olitics*.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6, pp. 27–92.
- Schlesinger, Arthur Meier JR. “Origins of the Cold War.” *Foreign Affairs* 46–1

- (October, 1967), pp. 22–52. In Hoffmann, Erik P. ed.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 New York: Aldine Pub. Co., 1980, pp. 228–254.
- Sheng, Michael M. “Chinese Communist Policy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the Myth of the ‘Lost Chance’ 1948–1950.” *Modern Asian Studies* 28–3 (1994), pp. 475–502.
- _____. “The Triumph of Internationalism: CCP–Moscow Relations before 1949.” *Diplomatic History* 21–1 (Winter 1997), pp. 95–104.
- Singer, J. David. “International Conflict: Three Levels of Analysis.” *World Politics* 12–3 (April 1960), pp. 453–461.
- _____. “The Level-of-Analysis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14–1 (October 1961), pp. 77–92.
- Slusser, Robert M. “Soviet Far Eastern Policy, 1945–50: Stalin's Goal in Korea.” In Nagai, Yonosuke and Akira Iriye.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pp. 123–146.
- Suganami, Hidemi. “Understanding Man, the State, and War.” *International Relations* 23–3 (September, 2009), pp. 372–388.
- Takhnenko, Galina. “Anatomy of a Political Decision Notes on the Marshall Plan,” *International Affairs* 7–38 (1992), pp. 111–127.
- Theoharis, Athan. “Roosevelt and Truman on Yalta: The Origins of the Cold Wa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87–2 (Jun. 1972), pp. 210–241.
- Tucker, Robert C. “The Dictator and Totalitarianism.” *World Politics* 17–4 (Jul, 1965), pp. 555–583.
- Ulam, Adam Bruno. “Letters: Stalin, Kim, and Korean War Origins.” *CWIHP Bulletin* Issue. 4 (Fall 1994), p. 21.
- Walker, J. Samuel. “Historians and Cold War Origins: The New Consensus.” In Haines, Gerald K. and J. Samuel Walker. *American Foreign Relation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81, pp. 207–236.
- Waltz, Kenneth Neal.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25–1 (Summer, 2000), pp. 5–41.
- _____. “The Origins of War in Neorealist Theory.” In Rotberg, Robert I. and Theodore K. Rabb. *The Origin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 39–52.
- Weathersby, Kathryn.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CWIHP Working Paper* No.39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2), pp. 1–26.

- _____. "Letters: Stalin, Kim, and Korean War Origins." *CWIHP Bulletin* Issue. 4 (Fall 1994), p. 21.
- _____. "Making Foreign Policy under Stalin: The Case of Korea." In Niels Erik Rosenfeldt, Bent Jensen, and Erik Kulavig eds. *Mechanisms of Power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pp. 224-240.
- _____. "New Finding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Issue 3 (Fall 1993), pp. 1, 14-18.
- _____.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Issues. 6-7 (Winter 1995/1996), pp. 30-84.
- _____.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2-4 (Winter 1993), pp. 425-458.
- _____.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CWIHP Working Paper* No.8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November, 1993), pp. 5-36.
- _____.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lude to War." *CWIHP Bulletin* Issue. 5 (Spring 1995), pp. 1-9.
- Wendt, Alexander E.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3 (June 1987), pp 335-370.
- Westad, Odd Arne. "Losses, Chances, and Myths: The United States and the Creation of the Sino-Soviet Alliance, 1945-1950." *Diplomatic History* 21-1 (Winter 1997), pp. 105-116.
- Yurdusev, A. Nuri. "'Level of Analysis' and 'Unit of Analysis': A Case for Distinction."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2-1 (1993), pp. 77-88.
- Zubok, Vladislav. "'To Hell with Yalta!'-Stalin Opts for a New Status Quo." *CWIHP Bulletin* Issues. 6-7 (Winter 1995/1996), pp. 24-27.

4. 전자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http://db.history.go.kr/>

루즈벨트 전자도서관
<http://www.fdrlibrary.marist.edu/>

우드로 윌슨 센터 다국적 냉전사 연구기획
<http://www.wilsoncenter.org/digital-archive>

이승만 연구원 홈페이지
<http://syngmanrhee.yonsei.ac.kr/?mid=index>

트루먼 전자도서관
<http://www.trumanlibrary.org/>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from the Perspective of Waltz's Three Images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Cold War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War

Na-Young, Yoo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origins of the Cold War from the Perspective of Waltz's three images. After the opening of the Soviet Archive, many studies about the Cold War have been changing. Nonetheless, past studies on the Cold War have the limitation of not covering the frames of traditionalism, revisionism, and post-revisionism.

This study therefore tries to consider the origins of the Cold War from the perspective of Waltz's three images, which explains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more properly. Waltz set basic units of the man, the state, and the system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first image focuses on the personality and tendencies of leaders. The second one concentrates on the system and ideology of the nation. The last image centers on anarchy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which there is no World Government that monopolizes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se three images, this thesis analyzes the debate o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centering on Post-Revisionism

based on new materials. It then evaluates several studies of the Cold War Period and studies in the Post–Cold War Period more objectively.

Taking into account documents in the post–Cold War period, this study finds that Stalin had an ideological blue print for world revolution, and the difference of policy between Roosevelt and Truman actually affected the Soviet Union. It also finds that the United States used economic instruments to achieve political ends. Lastly, it finds that the bipolar structur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ffecte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Subjects based on this frame are ‘Internal and external dynamics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Soviet Union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Northeast Asia’ , and ‘the Korean War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ld War’. This thesis tries to criticize the past interpretations of these three case studies in the same way as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case of the first subject, this thesis focuses its analysis on Syngman Rhee and Il–Sung Kim as the first image. Explanation by the second image focuses on the ‘Movement of Unifying the Right and the Left Wings’ in the Korean Peninsula. Lastly, explanation by the third image examines ‘the origins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strategy of empire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he result of reevaluation by the Post–Cold War period’s documents, the biggest cause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Soviet Union’s North Korea policy, which is considered as the third image. In September 1945, the Soviet Union had already planned to establish a separate government in North Korea, and they shaped their

plan gradually.

In the second part, this thesis examines when the Cold War in Northeast Asia started. It is also obvious that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he Cold War in Northeast Asia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t is difficult to say 'the collapse of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in Korean Peninsula', 'the beginning of the reverse course in Japan', 'the Sino–Soviet Alliance', 'the Korean War', and 'the San Francisco System' without considering the U.S.–Soviet relationship. Stalin broke the Yalta Agreement after the CCP's victory of the civil war in China, and performed his aggressive strategy in Northeast Asia. It affected the Cold War in Northeast Asia as a source.

The final part of this thesis reevaluates previous studies about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with the new evidence in the Post–Cold War period. It is also impossible to analyze this subject without considering the third image, which was the world strategy of the Soviet Union. Il–Sung Kim's invasion and Syngman Rhee's invasion as explained by the first image have big problems from overlooking the period of both the Cold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 error in Civil war Hypotheses, which is representative argument during the Cold War period, also came from the analysis that emphasized the rest of causes than the examination about the third image. They especially passed over the fact that the reason for the cessation of border disputes was the Soviet Union's command. Previous explanations by the third image, which is argued by revisionist and traditionalist, also suffer from either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error without documents or analysis with

an ideological bias.

Thus, The study o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modern history of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Northeast Asia through the frame of Waltz's three images is very useful to understand about the Cold war period synthetically. If we use this frame not only to study on the Cold War but also other issues, it will help to understand and solve various problems in international politics.

감사의 글

필자는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지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지도 교수님이신 김영호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교수님께서 필자의 석사과정부터 박사논문을 마치기까지 필자의 대학원 전 과정을 지도해 주셨다. 논리적인 사고의 방법,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키워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학문적인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부족한 필자를 이끌어 주셨다. 필자는 교수님께 배우고 받은 가르침을 늘 새기며 노력할 것이다.

필자는 성신여자대학교, 그리고 동 대학원을 다니며 훌륭하신 교수님들 밑에서 학문을 배우는 행운을 가질 수 있었다. 우선 정치외교학과의 가장 큰 어른이신 이숙자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숙자 교수님께서 학부시절부터 필자에게 존경의 대상이셨다. 교수님께서 항상 필자가 좀 더 넓은 시야와 긴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다. 언제나 필자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최민자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최민자 교수님께서 언제나 필자에게 안식처 같은 분이셨다. 교수님께서 늘 필자에게 논문과정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과정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며 필자의 마음을 다독여 주셨다. 또한 논문 외의 좋은 책들을 권해 주시며, 필자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다. 필자는 그 사랑을 잊지 못할 것이다.

윤진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윤 교수님께서 학부시절 내내 필자의 지루한 상담요청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받아주셨다. 또한 필자가 학부 졸업을 앞두고 진로문제로 갈등할 때 필자를 대학원으로 이끌어 주셨으며, 학위과정이 끝날 때까지 늘 필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다. 언제나 자상하게 필자를 돌보아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김용직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교수님께서 언제나 필자에게 학문의 세계에 대한 즐거움을 안겨주셨다. 학부시절 필자는 교수님의 주옥같은 강의를 통해 학문에 대한 동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학원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언제나 필자에게 정성어린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셨다.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김흥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교수님의 부임 시기로 인해 필자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렇지만 교수님께서서는 학과장님으로서 대학원 생활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 해 주시며, 필자에게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의 학업여건 개선을 위해 힘써 주셨고, 늘 반갑게 맞아주셨다.

김은실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김은실 교수님께서서는 필자의 부족한 논문 첫 초고를 기꺼이 검토 해 주시고 귀중한 논평을 해 주셨다. 또한 필자가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때 늘 필자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으며, 언제나 필자에게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 모두에게 선배님께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셨다.

필자의 논문 심사를 맡아주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의 조성환 교수님과 서울시립대학교의 황지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두 분 교수님께서서는 부족한 필자의 논문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논평을 통해 논문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다. 다시 한 번 두 분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대학원 시절은 학문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 매우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다. 서명구 선생님, 연상모 선생님, 은영언니, 혜진언니, 수연언니, 진화언니, 유지, 연지, 우정, 지현(손), 현주(이), 은지, 현주(B), 미영, 유선, 진희, 지현(이), 명지, 민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필자에게 늘 활력을 주는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가족들의 힘이 없었으면 논문완성은 불가능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언제나 든든한 오빠에게도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한다. 필자의 대학원 졸업 역시 학문의 길에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첫 단계를 이루어 주신 사랑하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친다.